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발간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 현재까지 아동권리 이행에 관한 네 차례의 심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국가차원의 아동권리 보장 노력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심의 과정과 함께, 민간차원의 아동권리 보장 요구와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아동권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어 출생미등록으로 인한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제도적 노력들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가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아동권리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아동권리 실태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조치들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때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 실태를 점검할 때는 아동의 삶 속에서 아동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아동권리 보장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아동권리 수준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격년 주기로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지수 연구에서는 아동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세부지표를 통해서 아동권리실태를 살펴볼 뿐 아니라, 아동권리 지수를 산출하여 전반적인 아동권리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번째로 수행된 아동권리지수 연구에서는 1차부터 4차까지 아동권리 수준의 변화 추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아동권리지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시기였던 제3차와 비교했을 때 제4차 시점의 아동권리 종합지수는 상승하였는데,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참여권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학교폭력 및 차별 경험 등이 증가하면서 권리영역 중 유일하게 보호권 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동권리 실태 및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격차도 차수별로 점차 커지고 있고, 아동권리지수는 지자체의 재정 요인이나 지역사회의 인프라 및 인식 환경 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4차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수행해 주신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님, 우리 단체 아동권리연구소의 임선영 연구원을 비롯한 아동권리연구소 직원들, 그리고 자문으로 도움을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전종설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한운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전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관계자 분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해 주신 아동 및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점검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연구를 비롯하여 다각적인 옹호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김웅철

Contents

	I. 서론	18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1. 조사대상자 특성	244
				2. 아동권리지표 변화 추이	245
				3.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254
	II. 조사설계			V. 결론 및 제언	
	1. 아동권리지표 개요	24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270
	2. 조사항목 출처 및 문항수	34		2. 정책 제언	275
	3. 조사과정	42			
	4. 가중치 적용	49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참고문헌	282
	1. 조사대상자 현황	54		부록	285
	2. 아동권리 지표 분석 결과	57			
	3. 아동권리지수 분석 결과	216			
	4. 아동권리 Focus Issue 분석	227			

표 목차

[표 II-1]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가정)	26	[표 III-6] 아동권리지수와 경제적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227
[표 II-2]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학교)	26	[표 III-7] 아동권리지수와 인프라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228
[표 II-3]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지역사회 및 국가)	27	[표 III-8] 아동권리지수와 인식적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229
[표 II-4]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생존권)	29	[표 III-9] 아동권리지수와 발달결과 간 상관관계	230
[표 II-5]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발달권)	29	[표 III-10]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아동, 부모)	231
[표 II-6]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보호권)	30	[표 III-1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우리사회 공정성 평가(아동, 부모)	233
[표 II-7]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참여권)	31	[표 III-1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아동, 부모)	235
[표 II-8] 발달결과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32	[표 III-13]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239
[표 II-9]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권리보장환경)	35	[표 IV-1] 조사참여자 특성	244
[표 II-10]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권리경험)	36	[표 IV-2]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255
[표 II-11]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발달결과)	39	[표 IV-3]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2021, 2023)	256
[표 II-12] 보호자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40	[표 IV-4] 초등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63
[표 II-13] 조사개요	43	[표 IV-5]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64
[표 II-14] 모집단에 근거한 학교표본 수	44	[표 IV-6]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65
[표 II-15] 지역별 학교표본 수	45	[표 IV-7]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초6 기준)	266
[표 II-16] 자료 수집 결과	46	[표 IV-8]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중2 기준)	267
[표 II-17] 초등 4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47		
[표 II-18] 초등 6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48		
[표 II-19] 중등 2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49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4		
[표 III-2] 보호자 및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5		
[표 III-3] 아동권리지표 세부분석 항목	56		
[표 III-4]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상대지수)	220		
[표 III-5]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상대지수)	226		

그림 목차

[그림 II-1]	아동권리지수 체계 구성	25	[그림 III-22]	우리나라의 안전	81	[그림 III-44]	아동권리 인식	106	[그림 III-67]	치과검진	131
[그림 II-2]	표본추출과정	43	[그림 III-23]	물리적 무질서	82	[그림 III-45]	아동권리 존중 정도_가정	108	[그림 III-68]	예방접종	132
[그림 III-1]	주거 쾌적성	59	[그림 III-24]	사회적 무질서	84	[그림 III-46]	아동권리 존중 정도_학교	109	[그림 III-69]	병원 및 약국 이용	133
[그림 III-2]	다중주택문제	60	[그림 III-25]	이웃과의 교류	86	[그림 III-47]	아동권리 존중 정도_동네	110	[그림 III-70]	학교생활 만족도	134
[그림 III-3]	교육지원 부족	61	[그림 III-26]	신뢰 및 유대	87	[그림 III-48]	아동권리 존중 정도_우리나라	111	[그림 III-71]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135
[그림 III-4]	여가지원 부족	62	[그림 III-27]	병원 이용 편의성	88	[그림 III-49]	아동권리 존중 정도_사이버공간	112	[그림 III-72]	방과 후 수업 만족도	136
[그림 III-5]	사회관계지원 부족	63	[그림 III-28]	도서관 이용 편의성	89	[그림 III-50]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	113	[그림 III-73]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137
[그림 III-6]	의생활 결핍	64	[그림 III-29]	놀이터 이용 편의성	90	[그림 III-51]	식품 미보장	115	[그림 III-74]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138
[그림 III-7]	정보접근성 부족	65	[그림 III-30]	공원 이용 편의성	91	[그림 III-52]	규칙적인 식사	116	[그림 III-75]	놀이 및 휴식시간 부족	139
[그림 III-8]	휴대폰 미보유	66	[그림 III-31]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92	[그림 III-53]	신선한 채소 섭취	117	[그림 III-76]	가족 간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	140
[그림 III-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67	[그림 III-32]	아동학대 목격 경험	93	[그림 III-54]	육류 섭취	118	[그림 III-77]	취미생활	141
[그림 III-10]	경제적 만족도	68	[그림 III-33]	아동학대 신고인식_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94	[그림 III-55]	우유 섭취	119	[그림 III-78]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142
[그림 III-11]	양육 스트레스	69	[그림 III-34]	아동학대 신고인식_ 학대감소 효과 기대	95	[그림 III-56]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120	[그림 III-79]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143
[그림 III-12]	양육 효능감	70	[그림 III-35]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96	[그림 III-57]	아침식사 결식	121	[그림 III-80]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144
[그림 III-13]	등·학교 편의성	71	[그림 III-36]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97	[그림 III-58]	결식 경험	122	[그림 III-81]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145
[그림 III-14]	학교시설 쾌적성	72	[그림 III-37]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98	[그림 III-59]	깨끗한 물 이용	123	[그림 III-82]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146
[그림 III-15]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73	[그림 III-38]	정서학대 인식	99	[그림 III-60]	깨끗한 화장실 이용	124	[그림 III-83]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147
[그림 III-16]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74	[그림 III-39]	방임 인식	100	[그림 III-61]	미세먼지 노출 정도	125	[그림 III-84]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148
[그림 III-17]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75	[그림 III-40]	체벌인식_체벌의 효과	101	[그림 III-62]	간접흡연 노출 정도	126	[그림 III-85]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	149
[그림 III-18]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76	[그림 III-41]	체벌인식_체벌의 필요성	102	[그림 III-63]	가벼운 신체활동	127	[그림 III-86]	방임을 경험한 아동	150
[그림 III-19]	가정의 안전	78	[그림 III-42]	체벌인식_체벌경험	103	[그림 III-64]	격렬한 신체활동	128	[그림 III-87]	나홀로 아동	151
[그림 III-20]	학교의 안전	79	[그림 III-43]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104	[그림 III-65]	수면시간 부족	129	[그림 III-88]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152
[그림 III-21]	동네의 안전	80				[그림 III-66]	건강검진	130	[그림 III-89]	가정 내 체벌 경험	153

그림 목차

[그림 III-90] 학교 내 체벌 경험	154	[그림 III-113] 참여활동 자발성 정도	177	[그림 III-136] 경제적 스트레스	200	[그림 III-157]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현황 (상대지수)	226
[그림 III-91]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	155	[그림 III-114] 참여활동 적극성 정도	178	[그림 III-137] 진로성숙도	201	[그림 III-158]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226
[그림 III-92] 학교폭력 피해 경험	156	[그림 III-115] 아동권리교육 참여	179	[그림 III-138] 현재 행복감	202	[그림 III-159] 학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232
[그림 III-93]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157	[그림 III-116]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180	[그림 III-139] 시민의식	204	[그림 III-160]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232
[그림 III-94] 차별을 받은 경험_연령	158	[그림 III-117] 입원 경험	181	[그림 III-140] 공동체 의식	205	[그림 III-161] 학년에 따른 우리사회 공정성 평가 (아동, 부모)	233
[그림 III-95] 차별을 받은 경험_성별	159	[그림 III-118] 만성질환 여부	182	[그림 III-141] 계층간 불평등	206	[그림 III-162] 성별에 따른 우리사회 공정성 평가 (아동, 부모)	233
[그림 III-96] 차별을 받은 경험_지역	160	[그림 III-119] 전반적인 학업성취	183	[그림 III-142] 계층간 이동가능성	207	[그림 III-163] 학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1	236
[그림 III-97] 차별을 받은 경험_학업성적	161	[그림 III-120] 디지털 리터러시	184	[그림 III-143] 계층간 격차완화제도	208	[그림 III-164] 학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2	236
[그림 III-98] 차별을 받은 경험_가정형편	162	[그림 III-121] 자아존중감	185	[그림 III-144]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	209	[그림 III-165]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1	237
[그림 III-99] 차별을 받은 경험_외모	163	[그림 III-122] 우울 정서	186	[그림 III-145] 우리사회 공정성	210	[그림 III-166]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2	237
[그림 III-100] 가정에서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164	[그림 III-123] 불안 정서	187	[그림 III-146] 디지털 시민성	212	[그림 III-167] 아동학대 경험 보고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240
[그림 III-101] 의사결정 민주성	165	[그림 III-124] 슬픔 및 좌절 지속	188	[그림 III-147]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_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	213	[그림 IV-1] 생존권_영양 부문 지표	246
[그림 III-102]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166	[그림 III-125] 지위비행 경험	189	[그림 III-148]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_ 정부 및 지자체 조치 적절성	214	[그림 IV-2] 생존권_건강활동 부문 지표	247
[그림 III-103] 의사반영정도	167	[그림 III-126] 폭력비행 경험	190	[그림 III-149]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_ 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 고려 정도	215	[그림 IV-3] 발달권_교육 부문 지표	247
[그림 III-104] 의사결정 협의정도	168	[그림 III-127] 사이버비행 경험	191	[그림 III-150] 절대지수와 상대지수의 개념	217	[그림 IV-4] 발달권_여가 부문 지표	248
[그림 III-105] 동아리 활동 참여	169	[그림 III-128] 스마트폰 과의존	192	[그림 III-151] 절대지수와 상대지수의 특성	218	[그림 IV-5] 발달권_관계 부문 지표	249
[그림 III-106] 캠페인 활동 참여	170	[그림 III-129] 자살 생각	193	[그림 III-152]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수준	221		
[그림 III-107] 자원봉사 활동 참여	171	[그림 III-130] 자살 시도 계획	194	[그림 III-153] 지역별 생존권 지수 수준	222		
[그림 III-108]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172	[그림 III-131] 자살 시도	195	[그림 III-154] 지역별 발달권 지수 수준	222		
[그림 III-109] 정책 활동 참여	173	[그림 III-132] 학업 스트레스	196	[그림 III-155] 지역별 보호권 지수 수준	224		
[그림 III-110] 교류 활동 참여	174	[그림 III-133] 친구 스트레스	197	[그림 III-156] 지역별 참여권 지수 수준	224		
[그림 III-111] 정치집회 참여	175	[그림 III-134] 가족 스트레스	198				
[그림 III-112] 서명운동 및 청원 활동 참여	176	[그림 III-135] 외모 스트레스	199				

그림 목차

[그림 IV-6]	보호권_학대 부문 지표	250	[그림 IV-29]	초등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63
[그림 IV-7]	보호권_학교폭력 부문 지표	251	[그림 IV-30]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64
[그림 IV-8]	보호권_사이버폭력 부문 지표	251	[그림 IV-31]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65
[그림 IV-9]	참여권_존중 부문 지표	252	[그림 IV-32]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초6 기준)	266
[그림 IV-10]	참여권_참여활동 부문 지표	253	[그림 IV-33]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중2 기준)	267
[그림 IV-11]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255			
[그림 IV-12]	서울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57			
[그림 IV-13]	부산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57			
[그림 IV-14]	대구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58			
[그림 IV-15]	인천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58			
[그림 IV-16]	광주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59			
[그림 IV-17]	대전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59			
[그림 IV-18]	울산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59			
[그림 IV-19]	세종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59			
[그림 IV-20]	경기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60			
[그림 IV-21]	강원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60			
[그림 IV-22]	충청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61			
[그림 IV-23]	충청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61			
[그림 IV-24]	전라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61			
[그림 IV-25]	전라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61			
[그림 IV-26]	경상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62			
[그림 IV-27]	경상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62			
[그림 IV-28]	제주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62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I. 서론

I. 서론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더불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마련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아동 또한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아동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하는 권리 수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굿네이버스는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시작하였다. 2016년 처음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2년 주기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 이전에도 아동권리와 관련된 지표들이 조사되고 발표되었지만, 아동을 둘러싼 권리보장 환경과 아동의 권리 경험, 그리고 발달 결과까지 아동권리 영역 전반을 아울러 지표를 개념화,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권리 실태와 보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아동권리지표와 함께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한 아동권리지수를 활용하였다. 아동권리지표와 아동권리지수는 각각의 고유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데, 아동권리지표는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 권리 경험과 같이 아동권리 보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며, 전반적인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아동권리지표를 종합한 아동권리지수가 적합하다.

아동권리지표는 아동 권리와 관련되는 하나하나의 현상과 이슈, 쟁점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현상에 대한 실태와 지역별, 학년별, 동년배 집단별 특성, 그리고 각 집단간 비교를 통한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반면, 개별 지표들은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 전반을 포괄적으로 가늠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같은 권리영역 내에서도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동시에 존재하며, 지표별로 척도의 형태나 범위, 평균, 방향성이 달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 보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지표들을 지수화한 아동권리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데, 아동권리 전반의 흐름과 방향성, 변화를 확인하고 아동권리 수준을 통합적,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이봉주·신원영, 2017).

굿네이버스는 2016년에 1차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한 이후, 2018년 2차, 2021년 3차, 그리고 2023년에 4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 앞서 아동의 권리 경험과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제반 환경, 그리고 아동의 경험과 환경의 산물로서 아동의 발달 결과를 포괄하는 아동권리지표 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아동권리지표 체계는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아동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고 발달하며, 아동의 발달은 변화하는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을 아동의 경험, 제반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경험 뿐만 아니라 권리보장 환경과 그 결과로서 아동의 발달까지 포함하여 아동권리지표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경험과 발달을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1차(2016년) 조사에서는 아동의 권리 경험이 권리 보장 환경, 발달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동권리 보장에 있어 지역간, 학년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차(2018년) 조사부터는 해당 시점에서의 아동권리 경험과 아동권리 보장 환경, 발달 결과뿐만 아니라, 1차 시점과의 비교, 즉 아동권리지표와 아동권리지수, 학년별, 지역별, 그리고 동류집단 간 세부 분석을 통해 횡단적 차이를 넘어 종단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아동권리지수는 1차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팬데믹 시기였던 3차(2021년) 시점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증가하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차(2021년) 시점에서는 아침식사 결식, 아동의 우울과 불안,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증가하고, 규칙적인 식사, 각종 참여활동과 행복감은 감소하는 등 부정적 변화를 보인 지표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아동권리지수의 증가세는 둔화하였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권리지수가 감소하지 않고 적은 폭이지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차(2023년) 조사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후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어가는 시기에 진행됨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화한 지표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지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 지표로는 가정내 체벌과 학교내 체벌, 학교폭력경험 지표가 두드러졌는데, 학교내 체벌과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지표는 코로나19 시기에 긍정적으로 감소되었다가, 4차 결과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내 체벌 지표 또한 민법상 부모의 자녀 체벌, 즉 징계권이 삭제된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4차에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아동권리지수는 개선되었으나 아동권리지표별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표별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 인식, 이슈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아동권리지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차수의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과정 전반과 지표체계에 대한 환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차 조사에서는 관계만족도, 안전, 부모의 체벌인식과 경험, 아동의 가정/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 차별 경험, 아동권리 존중과 보장 정도, 아침식사 결식 경험, 미세먼지/간접흡연 노출 정도, 사이버비행 경험 등의 세부 지표를 보완하였다. 이어서 3차 조사에서는 국가간 비교에 주로 활용되는 아동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결핍 지표와 다중주택문제, 평등 인식, 편의시설 접근성, 경제적 사유로 인한 결식 경험, 성적 비차별, 부모교육 경험, 의사결정민주성, 시민의식, 불평등 인식 지표를, 4차에서는 아동의 환경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공정성 인식, 의사결정과정 참여 및 반영 정도 지표를 추가로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4차까지 지속되고 있는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통해 해당 시점에서의 아동의 권리 전반에 대한 실태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지역별, 학년별, 세부 집단별 아동 권리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인된 근거들은 아동권리를 옹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아동 권리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이봉주 외, 2021).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 발전과 문화적, 사회적 환경 변화는 아동권리 보장 환경과 아동의 권리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 이슈가 등장하고, 그간 사회적으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던 가치들이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충돌하거나 어느새 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

책들과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4차 아동권리지수 결과 가운데 일부 지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아동을 둘러싼 여러 어려움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아동권리가 진전 없이 정체되어 있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어디에 와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노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권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종결, 완성의 개념보다는 개선, 진전과 같이 과정의 의미를 더 크게 내포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가 현 시점에서의 아동 권리 실태와 수준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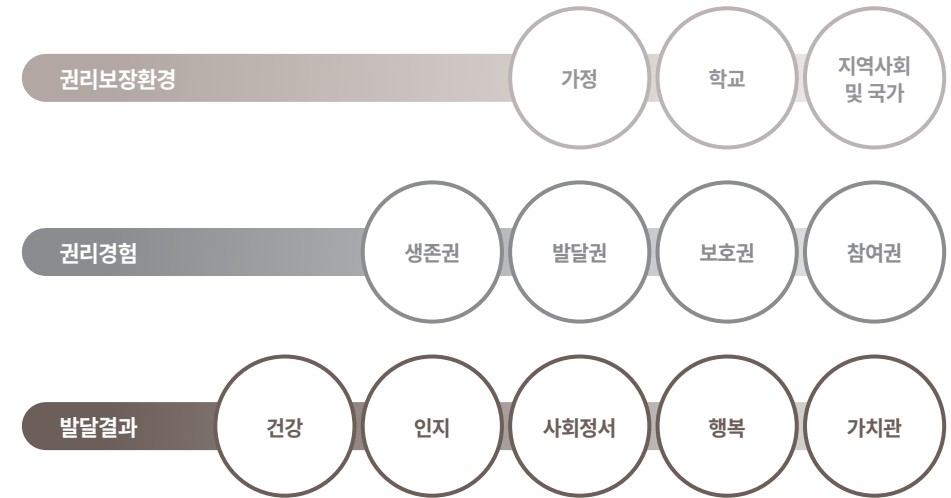
II. 조사설계

II. 조사설계

1. 아동권리지표 개요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해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다. 아동권리지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한편,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권리보장환경과 아동의 권리 경험, 그리고 아동의 발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지표체계는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에 기반하고 있는데, 아동의 권리 경험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경험만 살펴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아동을 둘러싼 권리보장환경과 그 결과로서 아동의 발달 영역까지 포괄하여 살펴보아야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아동의 권리 경험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권리보장환경은 ‘아동의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에 해당하는데 본 지표에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 체계를 의미한다. 권리경험은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동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활동 또는 지각’을 의미하는데, 본 지표에서는 4대 권리영역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 경험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결과는 ‘환경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발달적 산물’로 정의되는데, 본 지표에서는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영역에서의 아동의 발달을 확인하고, 더불어 well-being 관점에서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과 가치관 등도 함께 포함하여 살펴보았다(이봉주·신원영, 2017; 이봉주 외, 2018).



[그림 II-1] 아동권리지표 체계 구성

1) 권리보장 환경 영역

권리보장 환경 영역 중 가정 환경 영역은 주거시설, 가정 인프라, 보호자의 심리정서 요소로 구성하였다. 주거시설 요소로 3차년도 조사에 추가되었던 다중주택문제, 위생, 과밀집 관련 문항 중 과밀집 지표의 경우, 타당성 및 문항 간 배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4차 조사에서는 삭제되었다.

3차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던 가정 인프라 요소의 지표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3차 조사에서 수정되었던 관계 만족도 및 양육 효능감 지표를 비롯한 보호자의 심리 정서 요소 문항들도 4차 조사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표 II-1]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 (가정)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주거 시설	주거 안전성	○	●	
	주거 쾌적성	○	○	○
			다중주택문제	○
			위생	○
		과밀집	●	
가정 인프라			교육 지원부족	○
			여가 지원부족	○
			사회관계 지원부족	○
			의생활 결핍	○
			정보접근성 부족	○
			휴대폰 미보유	○
보호자의 심리 정서	양육 스트레스	○	○	○
	양육 효능감	○	*	○
		관계 만족도	*	○
		경제적 만족도	○	○
			자녀와의 대화시간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유지, *: 수정, ●: 삭제

권리보장 환경 영역 중 학교 환경 영역은 학교시설과 학교풍토 요소로 구성하였고, 3차 조사에서 사용했던 지표들을 변경 없이 유지하여 사용하였다.

[표 II-2]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 (학교)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학교 시설	• 등하교 편의성	○	○	○
	• 학교시설 쾌적성	○	○	○
	•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	○	○
학교 풍토	• 학교 내 의견 존중 분위기	○	○	○
	• 학교 내 정보공개 민주성	○	○	○
	• 학교 내 비차별 문화		●	
			• 성적비차별	○

○: 유지, *: 수정, ●: 삭제

권리보장 환경 영역 중 지역사회 및 국가 영역은 안전, 무질서, 신뢰/유대, 양성평등, 시설 및 기관, 아동학대 인식,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 보장 수준의 총 8개 요소로 구성하였다. 3차 조사에서 추가된 편의시설 접근성 요소의 경우, 4차 조사에서 삭제되었다. 3차 조사에서 수정되었던 물리적 무질서 및 사회적 무질서를 비롯한 그 외 지표들은 4차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하였다.

[표 II-3]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 (지역사회 및 국가)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안전	• 범죄 안전	○	●	
	• 교통사고 안전	○	●	
	• 식품 안전	○	●	
		• 가정의 안전	○	○
		• 학교의 안전	○	○
		• 동네의 안전	○	○
		• 우리나라의 안전	○	○
무질서	• 물리적 무질서	○	*	○
	• 사회적 무질서	○	*	○
공동체		• 이웃과의 교류	○	○
		• 집합적 효능감	●	
		• 신뢰 및 유대	○	
양성평등			• 양성평등정도	○
시설 및 기관	• 병원 이용 편의성	○	○	○
	• 도서관 이용 편의성	○	○	○
	• 놀이터 이용 편의성	○	○	○
	• 공원 이용 편의성	○	○	○
		•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	○
편의시설 접근성			• 대중교통 접근성	●
			• 공공시설 접근성	●
			• 놀이시설 접근성	●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신고 인식			
	- 아동의 장애 도움	○	○	○
	- 신고후 조치에 대한 신뢰	○	○	○
	- 학대감소 효과	○	○	○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아동학대 인식	•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	○	○	
	•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	○	○	
	•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	○	○	
	• 정서학대 인식	○	○	○	
	• 방임 인식	○	○	○	
		• 아동학대 목격 경험	○	○	○
		• 아동학대 신고 여부	○	○	○
		• 체벌인식_체벌 효과	○	○	○
		• 체벌인식_체벌 필요성	○	○	○
		• 체벌경험	○	○	○
아동권리 인식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	○	○	
	• 아동권리 인식	○	○	○	
		• 아동권리 존중 정도			
		- 가정	○	○	○
		- 학교	○	○	○
		- 동네	○	○	○
		- 사이버 공간	○	○	○
		- 우리나라	○	○	○
아동권리 보장수준		-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정도	○	○	

○: 유지, *: 수정, ●: 삭제

2) 권리경험 영역

권리경험 영역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으로 구성된다. 생존권 영역은 영양, 위생 및 공기, 건강활동, 의료, 환경 요소로 구성하였다. 4차 조사에서는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아동 권리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환경 요소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 외 요소별 세부지표는 3차 조사에서 사용했던 지표들을 변경 없이 사용하였다.

[표 II-4]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생존권)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영양	• 식품 미보장	○	○	○	
		• 아침식사 결식	○	○	
	• 규칙적인 식사	○	○	○	
	• 신선한 채소 섭취	○	○	○	
	• 인스턴트 식품 섭취	○	○	○	
		• 육류 섭취	○	○	○
		• 우유 섭취	○	○	○
			• 영양 지원	○	○
영양			• 배달음식 섭취	○	
			• 결식 경험 (경제적 사유)	○	
위생 및 공기		• 깨끗한 물 이용	○	○	
		• 깨끗한 화장실 이용	○	○	
		• 미세먼지 노출 정도	○	○	
		• 간접흡연 노출 정도	○	○	
건강 활동	• 격렬한 신체활동	○	○	○	
	• 가벼운 신체활동	○	○	○	
	• 수면 시간의 부족	○	○	○	
의료	• 건강검진	○	○	○	
		• 치과검진	○	○	
		• 병원 및 약국이용	○	○	
		• 예방접종	○	○	

○: 유지, *: 수정, ●: 삭제

권리경험 영역 중 발달권 영역은 교육, 놀이 및 여가, 관계 요소로 구성하였고, 3차에서 조사된 지표들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표 II-5]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발달권)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교육	• 학교생활 만족도	○	○	○
	•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	○	○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교육		• 방과 후 수업 만족도	○	○
	•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	○	○
	•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	○	○
			• 부모교육 경험	○
놀이 및 여가	• 놀이 및 휴식 시간의 부족	○	○	○
	• 가족과 여가활동 영위 정도	○	○	○
		• 취미 생활	○	○
관계	•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	○	○
	•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	○	○
	•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	○	○
	•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	○	○

○: 유지, * : 수정, ● : 삭제

보호권 영역은 학대, 폭력, 차별 요소로 구성하였고, 3차 조사 때와 동일한 지표들로 변경없이 사용하였다.

[표 II-6]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보호권)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학대	• 가벼운 신체학대 경험	○	○	○
	•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경험	○	○	○
	• 심각한 신체학대 경험	○	○	○
	• 정서학대 경험	○	○	○
	• 방임 경험	○	○	○
	• 나홀로 아동	○	○	○
	• 성학대 경험	○	○	○
		• 가정 내 체벌 경험	○	○
	• 학교 내 체벌 경험	○	○	○
		•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	○	○
폭력	• 학교폭력 가해 경험	○	○	○
	• 학교폭력 피해 경험	○	○	○
	•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	○	○
	•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	○	○
차별		• 차별을 받은 경험_연령	○	○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차별		• 차별을 받은 경험_성별	○	○
		• 차별을 받은 경험_지역	○	○
		• 차별을 받은 경험_성적	○	○
		• 차별을 받은 경험_가정형편	○	○
		• 차별을 받은 경험_외모	○	○

○: 유지, * : 수정, ● : 삭제

참여권 영역은 의사존중, 참여활동 요소로 구성하였고, 각 요소별로 지표가 일부 추가되었다. 아동의 의사결정과정 관련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존중 요소에 의사결정과정 참여 정도, 의사반영 정도, 의사결정 협의 경험 지표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참여활동 요소의 경우, 아동의 자발성 정도를 확인하는 참여의지 지표와 적극성 정도를 확인하는 참여수준 지표가 추가되었다. 3차 조사에서는 동아리, 캠페인, 자원봉사, 기부 및 후원 등의 활동 참여 여부만 확인하였으나, 4차 조사에서는 참여 수준을 1주, 1개월, 3개월, 학기당, 1년으로 세분화하여 각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II-7]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참여권)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의사존중	• 의견존중 받아본 경험	○	○	○
			• 의사결정민주성	○
				•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 의사반영 정도
참여활동	• 동아리 활동 참여	○	○	○
	• 캠페인 활동 참여	○	○	○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	○
	•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	○	○
	• 정책 활동 참여	○	○	○
	• 교류 활동 참여	○	○	○
		• 정치 관련 집회 참여	○	○
		• 서명 및 청원활동 참여	○	○
				• 참여의지(자발성 정도)
				• 참여수준(적극성 정도)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참여 활동	• 아동권리교육 참여	○	• 교육받은 경험	
			- 아동권리교육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 세계시민/공동체교육	○
			- 양성평등교육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 성추행 및 성폭력 예방교육	○
			• 교육 필요정도	
			- 아동권리교육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 세계시민/공동체교육	○
			- 양성평등교육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 성추행 및 성폭력 예방교육	○

○: 유지, *: 수정, ●: 삭제

3) 발달결과 영역

발달결과 영역은 건강, 인지, 사회정서, 행복, 가치관의 총 5개 요소로 구성하였고, 4차 조사에서는 가치관 요소에 공정성 및 디지털 역량 지표를 추가하였다. 사회정서 요소 중 공격적 행동 지표의 경우 4차 조사에서 삭제되었고, 폭력비행 경험 및 스마트폰 과의존 지표는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가치관 요소 중 불평등 관련 지표 또한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고, 각 대상별로 우리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묻는 문항은 삭제되었다. 이 외에는 모두 3차 조사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표 II-8] 발달결과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영역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건강	주관적 건강	•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	○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	○	○
		• 입원 경험	○	○	○

영역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인지	학업성취	• 전반적인 학업성취	○	○	○
		• 국어 학업성취	○	○	○
		• 수학 학업성취	○	○	○
		• 영어 학업성취	○	○	○
	디지털 역량				•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 정서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	○	○
	우울	• 우울 정서	○	○	○
	불안	• 불안 정서	○	○	○
	슬픔/좌절		• 슬픔 및 좌절	○	○
	공격성	• 공격적 행동	○	○	●
	비행	• 지위비행 경험	○	○	○
		• 폭력비행 경험	○	○	*
		• 재산비행 경험	○	○	○
		• 성비행 경험	○	○	○
			• 사이버비행 경험	○	○
인터넷 중독	• 인터넷 중독	• 스마트폰 과의존	○	*	
자살	• 자살 생각	○	○	○	
	• 자살 시도 계획	○	○	○	
	• 자살 시도	○	○	○	
사회 정서	스트레스	• 학업 스트레스	○	○	○
		• 친구 스트레스	○	○	○
		• 가족 스트레스	○	○	○
		• 외모 스트레스	○	○	○
	• 경제적 스트레스	○	○	○	
진로발달	• 진로성숙도	○	*	○	
행복	행복감	• 현재 행복감	○	○	○
가치관	시민의식			• 시민의식	○
				• 공동체의식	○
	불평등 대우 정도			• 우리나라의 불평등	
				- 계층간 불평등	○
				- 계층간 이동가능성	○
		- 계층간 격차완화 제도	○		

영역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2023년 (4차)
가치관	불평등 대우 정도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	○
				•우리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	●
	공정성				•우리사회 공정성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	
				•정부 및 지자체 조치 적절성	
				•정책 수립 시 미래 세대 고려 정도	

○: 유지, * : 수정, ● : 삭제

2. 조사항목 출처 및 문항수

지표의 출처 및 문항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 대상 지표 중 권리보장환경 영역은 가정 인프라, 학교, 지역사회, 국가/사회, 생태체계 요소로 구성되었다. 가정 인프라 영역의 휴대폰 보유 여부 문항, 국가/사회 영역의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 문항은 IAEG-SDGs(2019)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가정 인프라 영역의 의생활 및 정보접근 관련 문항의 경우, Yekaterina Chzhen와 Chris De Neubour(2014)의 EU-MODA(Multiple Overlapping Deprivations Analysis for the European Union) 지표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학교 영역의 학교 시설 관련 문항(등하교 편의성, 시설쾌적성, 운동장이용편의성)은 홍승애와 이재연(2014)이 개발한 지표를 참고하였다. 지역사회 영역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문항 또한 홍승애와 이재연(2014)의 지표를 활용하였고, 해당 문항은 Ross와 Mirowsky(1999)의 지표를 함께 참고하였다. 학교 영역의 학교 풍토 관련 문항(의견존중분위기, 정보공개민주성), 생태체계 영역의 아동권리 인식 관련 문항은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2016)의 문항을 연구진이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학교 영역의 학교 풍토 관련 지표 중 성적비차별 문항은 연구진이 직접 구성하였고, 국가/사회 영역의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 문항과 생태체계 영역의 아동권리 존중 및 안전 관련 문

항 또한 연구진이 직접 구성하였다.

[표 II-9]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권리보장환경)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가정 인프라	휴대폰 보유		IAEG-SDGs(2019)	1	1
	의생활		Yekaterina & Chris(2014)	2	2
	정보접근			2	2
학교	학교 시설	등하교 편의성	홍승애·이재연(2014)	1	1
		시설쾌적성		1	1
		운동장이용편의성		1	1
	학교 풍토	의견존중분위기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6), 연구진	1	1
		정보공개민주성		3	3
		성적비차별	연구진	1	1
지역사회	무질서 (물리적, 사회적)		Ross & Mirowsky(1999), 홍승애·이재연(2014)	12	12
국가/사회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		IAEG-SDGs(2019)	1	1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		연구진	10	10
생태 체계	아동권리 존중	아동권리 존중 수준평가	연구진	5	5
	아동권리 인식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인식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6), 연구진	1	1
		아동권리 인식		3	3
	안전	안전(가정, 학교, 동네, 우리나라)		연구진	4
총 문항수				49	49

아동 대상 지표 중 권리경험 영역은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구성되었다. 생존권 영역의 문항들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 아동종합실태조사(2011), WHO(2013)의 GSHS 지표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4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환경 요소의 경우 연구진이 직접 문항을 구성하였고, 일부 문항은 황세연과 김남수(2016)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발달권 영역의 지표들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2016)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교육 요소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문항을 연구진이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그 외 문항은 연구진이 직접 구성하였

다. 놀이 및 여가 요소의 지표들 또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문항을 연구진이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관계 요소 중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지표의 경우 Parker(1979)와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관계 요소 중 부모의 과보호 지표는 연구진이 구성하였고, 교사 및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2016)을 참고하였다.

보호권 영역의 학대 지표는 Straus와 Mouradian(1998)의 연구,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체벌 지표는 연구진이 직접 구성하였으며, 차별 지표는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와 연구진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폭력 지표는 서미정(2006, 2008)의 연구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참여권 영역의 경우, 의사결정민주성 문항과 세계시민/공동체교육을 비롯한 일부 교육의 참여경험 문항은 IAEG-SDGs(2019)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 외 문항들은 본 연구의 연구진이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표 II-10]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권리경험)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생존권	식생활	규칙적인 식사 및 양질의 식품 섭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 연구진	6	6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 섭취 이유	연구진	1	1
		결식경험(경제적 어려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1	1
		아침결식		1	1
		아침결식 이유	WHO(2013)	1	1
	위생 및 공기	깨끗한 물 이용	연구진	1	1
		깨끗한 화장실 이용		1	1
		미세먼지 노출 정도		1	1
		간접흡연 노출 정도		1	1
	건강 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 WHO(2013), 연구진	1	1
		가벼운 신체활동		1	1
		수면시간(학기중)		0	1
		수면시간(방학중)		0	1
		수면시간부족		1	1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생존권	의료	건강검진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1	1
		치과검진		1	1
		예방접종		1	1
		병원 및 약국 이용		1	1
발달권	교육	학교생활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연구진	3	3
		방과 후 공부시간	연구진	1	1
		방과 후 공부시간 부담정도		1	1
		방과 후 수업경험		1	1
		방과 후 수업수		1	1
		방과 후 수업 만족도		1	1
		부모의 교육적 관심		4	4
		부모의 교육적 참여		4	4
	놀이 및 여가	놀이 및 휴식시간(학기중)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연구진	0
		놀이 및 휴식시간(방학중)	0		1
		놀이 및 휴식시간 충분정도	0		1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정도	0		3
		취미생활	0		1
관계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Parker(1979), 송지영(1992), 연구진	5	5	
	부모의 과보호	연구진	5	5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6)	3	3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6)	3	3	
보호권	학대	학대(신체, 정서, 방임)	Straus & Mouradian(1998),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16	16
		나홀로 아동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1	1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2	2
	체벌	가정내 체벌 경험	연구진	1	1
		학교내 체벌 경험		1	1
		지역사회 체벌 경험		1	1
	차별	차별받은 경험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6), 연구진	6	6
		차별해본 경험		6	6
	폭력	학교폭력 가해경험	서미정(2006, 2008)	7	7
		학교폭력 피해경험		7	7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보호권	폭력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1	1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1	1
참여권	의사존중	의견존중(가정, 학교)	연구진	7	7
		의사결정민주성	IAEG-SDGs(2019)	2	2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연구진	4	4
		의사반영 정도		4	4
		의사결정 협의경험		2	2
	참여활동	참여활동 (동아리, 캠페인, 자원봉사, 기부 및 후원, 정책, 교류, 정치 집회, 서명 및 청원)	연구진	8	8
		참여의지	연구진	1	1
		참여수준		1	1
		아동권리교육 참여	연구진	1	1
		아동학대예방교육 참여		1	1
		세계시민/공동체교육 참여	IAEG-SDGs(2019)	1	1
		양성평등교육 참여		1	1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1	1
성교육 참여	1	1			
총 문항수				142	151

□ 4차에서 새롭게 추가한 지표

마지막으로 아동 대상 지표의 발달결과 영역은 건강, 인지, 사회정서, 행복, 가치관 요소로 구성되었다. 건강 요소의 건강 인식 문항의 경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를 참고하였고, 인지 요소의 학업성취 문항은 연구진이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정서 요소의 자아존중감 문항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우울 문항은 Radloff(1977)와 전경구 등(2001)의 지표를 참고하였다. 불안 문항은 신광우 등(2011)의 지표를 활용하였고, 스마트폰 과의존 문항은 엄나라와 김형석(2018)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참고하였다.

비행 관련 문항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2016)을 활용하였으며, 자살 관련 문항은 WHO(2013)의 GSHS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문항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진로성숙도 문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9)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행복 지표의 경우 OECD(2013)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가치관 요소 중 시민 의식 및 공동체 의식 관련 문항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2016)을 활용하였고, 불평등 관련 문항은 구정화(2011)와 김지혜(2019)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가치관 요소 중 4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공정성 관련 문항은 정은교와 안도희(2017), 이현숙과 김영애(2022)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 관련 문항의 경우, 임영식과 정경은(2019)이 개발한 척도와 안정임(2013)의 자료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표 II-11]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발달결과)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건강	건강 인식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	1	1
인지	학업성취 (전체, 국어, 영어, 수학)		연구진	1	1/4
	디지털 리터러시		임영식·정경은(2019)	3	3
사회정서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8	8
	우울		Radloff(1977), 전경구 등(2001)	7	7
	불안		신광우 등(2011)	6	6
	비행	지위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6)	0	4
		폭력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6)	4	5
		성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6)	0	1
		재산비행		0	1
		사이버비행		4	4
	스마트폰 과의존	엄나라·김형석(2018)		5	5
	자살	슬픔 및 좌절 지속	WHO(2013)	0	1
		자살 생각울		0	1
		자살 시도 계획울		0	1
		자살 시도울		0	1
스트레스(학업, 친구, 가족, 외모, 경제)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5	5	
진로성숙도(계획성, 의사결정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9)	10	10	
행복	현재 행복감		OECD(2013)	1	1
가치관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	8	8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정화(2011)	0	0/6
	우리나라에서의 불평등 대우(인식)		김지혜(2019)	8	8
	우리사회 공정성		정은교·안도희(2017), 이현숙·김영애(2022)	4	4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가치관	디지털 시민성	안정임(2013)	3	3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	연구진	2	2
	정부 및 지자체 조치 적절성		1	1
	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 고려 정도	황세영·김남수(2016)	1	1
총 문항수			78	89/98

□ 4차에서 새롭게 추가한 지표

다음으로, 아동권리지표의 각 영역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우선 권리보장환경 영역 중 가정 요소의 경우 한국복지패널(2011), Yekaterina Chzhen와 Chris De Neubour(2014)의 EU-MODA(Multiple Overlapping Deprivations Analysis for the European Union) 지표, OECD(2013),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최형성과 정옥분(2001)의 문항을 참고하였고 일부는 연구진이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요소는 Ross와 Mirowsky(1999), 홍승애와 이재연(2014),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홍순옥과 이옥경(2010)의 지표를 활용하였고 일부 문항은 연구진이 직접 구성하였다. 국가/사회 요소 또한 연구진이 직접 구성하였고, 생태체계 요소는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2016)의 문항을 연구진이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권리 경험 영역과 발달결과 영역의 지표는 김기량과 김미경(2009)의 연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 문항을 활용하였고, 일부 문항은 연구진이 구성하였다.

[표 II-12] 보호자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구분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	
권리 보장 환경	가정	주거 시설	주거쾌적성	한국복지패널(2021)	3
			다중주택문제		3
			위생		3
		가정 인프라	영양 지원부족	Yekaterina & Chris(2014)	2
			교육 지원부족		3
			사회관계 지원부족		2
	부모심리 정서	현재 행복감	OECD(2013)	1	
		자녀와의 대화시간	연구진	1	
		자녀와의 대화주제		1	

구분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		
권리 보장 환경	가정	부모심리 정서	가족과의 식사 횟수	연구진	1	
			관계 만족도		1	
			경제적 만족도		1	
			양육 스트레스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5	
			양육 효능감	최형성·정옥분(2001)	9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시간, 도움정도	연구진	5	
		양육 이슈	양육 관련 이슈 중요도	연구진	10	
			자녀 양육 도움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10	
		지역 사회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Ross & Mirowsky (1999), 홍승애·이재연(2014)	6
				사회적 무질서		6
	공동체		신뢰 및 유대	Ross & Mirowsky(1999), 홍승애·이재연(2014)	5	
			이웃과의 교류	연구진	6	
	시설 및 기관		병원 이용 편의성	홍승애·이재연(2014), 연구진	1	
			도서관 이용 편의성		1	
			놀이터 이용 편의성		1	
			공원 이용 편의성		1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1	
	아동 학대 인식		아동의 장애 도움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홍순옥·이옥경(2010)	1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1	
			학대 감소 효과 기대		1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2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3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2	
			정서학대 인식		5	
			방임 인식		4	
	학대 관련	아동학대 목격 경험	연구진	1		
		아동학대 신고 여부		1		
아동학대 신고 기관		1				
학대 미신고 이유		1				
체벌 인식	체벌 효과	연구진	1			
	체벌 필요성		1			
	체벌 경험		1			
국가/사회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	연구진	10			

구분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
권리 보장 환경	생태체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인식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진	1
		아동권리 인식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진	3
권리 경험	생존권	식품미보장	김기량·김미경(2009)	3
	놀이 및 여가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정도	연구진	3
발달 결과	건강	만성질환유병률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4)	1
		입원경험률		2
	가치관	우리사회 공정성	정은교·안도희(2017), 이현숙·김영애(2022)	4
문항수				142

□ 4차에서 새롭게 추가한 지표

3. 조사과정

1) 조사개요

2023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위한 4차 아동권리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조사대상의 경우, 1~3차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초등학교 4학년 및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이며, 우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목표 표본은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각 9,000명(9,000쌍)으로, 학년별 각 3,000명(3,000쌍)이었다. 표본추출방법은 비례층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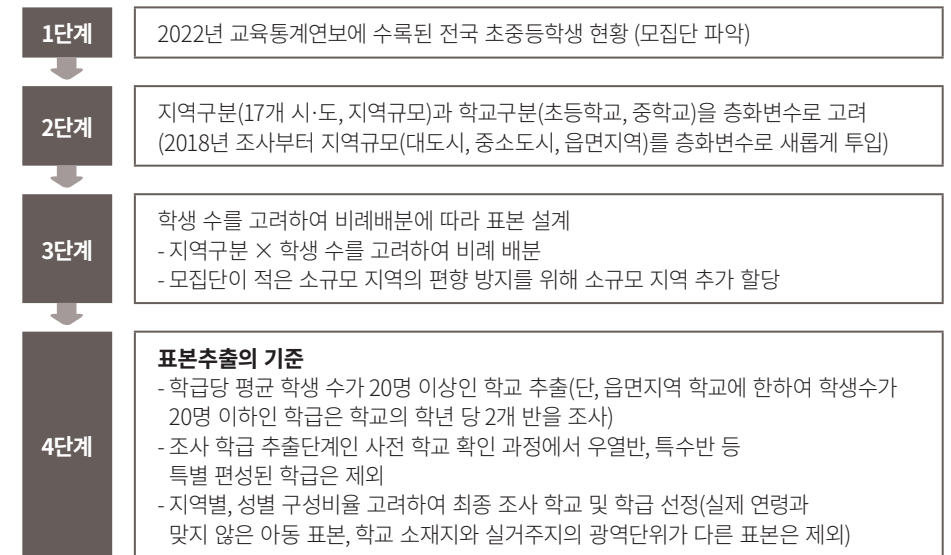
아동권리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1차년도 조사는 2016년, 2차년도 조사는 2018년에 실시되었다. 3차년도 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설문조사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2021년 5월에 실시되었다. 4차년도 조사는 3차년도 조사 이후 2년이 지난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표 II-13]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및 보호자
조사지역	17개 시·도
조사방법	우편조사
목표 표본크기	아동: 9,000명 (초4, 초6, 중2 각 3,000명) 부모(보호자): 9,000명 (초4, 초6, 중2 각 3,000명)
표본추출방법	비례층화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	2023년 5월 ~ 6월

2) 표본추출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의 4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우선 모집단 파악을 위해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의 초·중등학생 현황을 참고하였다. 표본 설계 시 지역구분(17개 시·도 및 지역규모)과 학교구분(초등학교 및 중학교)을 층화변수로 투입하였고, 다시 지역구분에 따른 학생 수를 고려하여 비례배분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별·성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조사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그림 II-2] 표본추출과정

학교표본 수는 2022년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파악한 모집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전국 학생 수는 470,779명이었고 학급 수는 21,664개였으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1.7명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전국 학생 수는 455,657명이었고 학급 수는 22,945개였으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9.9명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4학년과 6학년 각 3,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4학년은 최소 138개교, 6학년은 최소 151개의 학교가 추출되었다. 학교의 규모가 작거나 아동이 설문조사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실제 조사 대상 학교 수는 최종적으로 170개교로 확정하였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전국 학생 수는 447,603명이었고 학급 수는 17,655개였으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4명이었다. 조사를 위해서 최소 118개교가 추출되었으나, 학교 규모를 감안하여 실제 조사 대상 학교 수는 130개교로 선정하였다.

[표 II-14] 모집단에 근거한 학교표본 수

구분	전국 학생 수 (명)	학급 수 (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명)	조사에 필요한 최소 학교 수 (개)	[소규모 학교 감안] 실제 조사 대상 학교 수 (개)
초 4학년	470,779	21,664	21.7	138	170
초 6학년	455,657	22,945	19.9	151	170
중 2학년	447,603	17,655	25.4	118	130

지역별 학교표본 수는 실제 조사 대상 학교 수를 산출한 후, 시·도별 학생 수를 고려한 비례배분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17개 시·도의 조사 학교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총 172개교였고, 중학교의 경우 총 132개교였다. 학교 수는 경기도가 총 86개교(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37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총 45개교(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20개교)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제주의 경우 각 6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I-15] 지역별 학교표본 수

구분	초등학교 조사학교 수(개)	중학교 조사학교 수(개)	구분	초등학교 조사학교 수(개)	중학교 조사학교 수(개)
서울	25	20	강원	5	3
부산	10	8	충북	5	4
대구	8	6	충남	8	5
인천	10	8	전북	6	5
광주	6	4	전남	5	4
대전	5	4	경북	8	6
울산	4	4	경남	11	9
세종	4	2	제주	3	3
경기	49	37	합계	172	132

3) 자료 수집 결과

본 조사과정에서는 표본 학교의 해당 학년 1개반 조사의 원칙을 준수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0명 이상인 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읍면지역에 한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0명 이하인 경우 학년당 2개반을 조사하였다.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된 학급은 제외하였다. 지역별 학교 리스트는 단순 무작위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 조사 안내문 및 협조요청 공문 발송 후, 해당 학교에 전화로 컨택하여 조사 목적·방법·일정 등을 안내하고 조사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해당 과정은 지역별로 산출한 학교표본 수를 확보할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는 우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 학교에서 참여 수락 시 학교로 조사자료(안내문, 동의서, 설문지, 답례품 등)를 우편 발송하였다. 본 조사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가 함께 매칭된 표본을 수집하기 때문에, 표본 학급의 담임교사가 아동용 설문지와 보호자용 설문지 한 세트를 아동에게 배부하였다. 이후 설문지가 회수되면, 담임교사가 회수된 설문지를 조사기관으로 다시 우편 발송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초등학교 4학년 3,436명, 6학년 3,581명, 중학교 2학년 3,414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가 매칭되지 않는 설문지는 제외하였고,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보호자 각 3,071명, 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보호자 각 3,235명, 중학교 2학년 아동과 보호자 각 2,834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표 II-16] 자료 수집 결과

구분	수집결과		비고
학교	초등	195개교	아동-보호자 매칭 샘플 확보를 위해 오버 샘플링
	중등	155개교	
학생	초4	3,436명	순수 설문지 회수 기준
	초6	3,581명	
	중2	3,414명	
자료 처리	초4	3,071명	아동-보호자 최종 매칭 표본 (아동-보호자 듀얼 표집 비율 89.5%)
	초6	3,235명	
	중2	2,834명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3,72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071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17개 시·도별 최종 데이터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3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계획 대비 2% 증가한 수치였다. 17개 시·도 중 계획 대비 최종 데이터 비율의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과 충남이었고, 두 지역 모두 최종 데이터 비율이 계획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 초등 4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단위: 명, %)

구분	예상 학생수	예상학생 수 권역별 비율	데이터 처리 현황	최종 샘플의 권역별 비율
서울	542	14.6	433	14.1
부산	216	5.8	132	4.3
대구	172	4.6	144	4.7
인천	216	5.8	167	5.4
광주	130	3.5	81	2.6
대전	108	2.9	107	3.5
울산	86	2.3	61	2.0
세종	86	2.3	64	2.1
경기	1,063	28.6	939	30.6
강원	108	2.9	96	3.1
충북	108	2.9	82	2.7
충남	173	4.7	98	3.2
전북	129	3.5	122	4.0
전남	108	2.9	93	3.0
경북	173	4.7	143	4.7
경남	238	6.4	248	8.1
제주	64	1.7	61	2.0
합계	3,720	100.0	3,071	100.0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3,404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235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17개 시·도별 최종 데이터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3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계획 대비 2.7% 증가한 수치였다. 17개 시·도 중 계획 대비 최종 데이터 비율의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서울 지역의 최종 데이터 비율은 계획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8] 초등 6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단위: 명, %)

구분	예상 학생수	예상학생 수 권역별 비율	데이터 처리 현황	최종 샘플의 권역별 비율
서울	497	14.6	416	12.9
부산	198	5.8	166	5.1
대구	158	4.6	148	4.6
인천	198	5.8	181	5.6
광주	119	3.5	106	3.3
대전	99	2.9	121	3.7
울산	78	2.3	82	2.5
세종	78	2.3	53	1.6
경기	975	28.6	1,014	31.3
강원	98	2.9	94	2.9
충북	98	2.9	80	2.5
충남	158	4.6	117	3.6
전북	118	3.5	128	4.0
전남	98	2.9	131	4.0
경북	158	4.6	132	4.1
경남	218	6.4	216	6.7
제주	58	1.7	50	1.5
합계	3,404	100.0	3,235	100.0

중학교 2학년은 3,338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834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17개 시·도별 최종 데이터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2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이는 계획 대비 0.6% 감소한 수치였다. 17개 시·도 중 계획 대비 최종 데이터 비율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이었으며(2.6%),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2.1%).

[표 II-19] 중등 2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단위: 명, %)

구분	예상 학생수	예상학생 수 권역별 비율	데이터 처리 현황	최종 샘플의 권역별 비율
서울	508	15.2	370	13.1
부산	202	6.1	150	5.3
대구	152	4.6	115	4.1
인천	202	6.1	174	6.1
광주	101	3.0	82	2.9
대전	101	3.0	87	3.1
울산	101	3.0	88	3.1
세종	50	1.5	32	1.1
경기	939	28.1	779	27.5
강원	75	2.2	69	2.4
충북	101	3.0	102	3.6
충남	126	3.8	180	6.4
전북	126	3.8	84	3.0
전남	100	3.0	103	3.6
경북	151	4.5	145	5.1
경남	228	6.8	230	8.1
제주	75	2.2	44	1.6
합계	3,338	100.0	2,834	100.0

4. 가중치 적용

아동권리실태조사는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있는 해당 학년의 아동을 다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일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 내에서 무작위로 학급을 선정하게 된다. 17개 시·도별로 해당 학년의 학생

수와 남녀 학생의 구성 정보를 확인하여 최대한 비슷한 비율의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집단과 표본 간의 차이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가중치 부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를 선정한 후에는 무작위로 학급을 선정하여 학생과 부모(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표본추출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출한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N_h 는 h층에 속한 전체 학교수를 의미하며, n_h 는 h층의 표본 학교수를 의미한다. B_{hi} 는 h층에서 I번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며, N_h 는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참여한 학생수를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이어서, 3단계에서는 사후층화가중치를 산출하는데, 각 층별로 성별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기본가중치와 사후층화가중치를 곱하여 최종가중치를 산출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1. 조사대상자 현황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23년 4차 아동권리실태조사 결과, 총 9,140명의 아동 및 보호자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 3,071명, 초등학교 6학년 3,235명, 중학교 2학년 2,834명이었다. 이중 남자가 4,439명(48.6%)이었고, 여자는 4,701명(51.4%)이었다. 지역별 응답자 수는 경기 28.5%, 서울 15.0%, 경남 7.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용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아동의 어머니인 경우가 84.0%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응답자인 경우는 15.1%였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91.2%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가 주양육자인 경우는 6.5%였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명)	비율(%)
전체		9,140	100.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3,071	33.6
	초등학교 6학년	3,235	35.4
	중학교 2학년	2,834	31.0
성별	남자	4,439	48.6
	여자	4,701	51.4
지역	서울	1,368	15.0
	부산	520	5.7
	대구	418	4.6
	인천	533	5.8
	광주	293	3.2

구분		응답자(명)	비율(%)
지역	대전	266	2.9
	울산	225	2.5
	세종	107	1.2
	경기	2,604	28.5
	강원	251	2.7
	충북	289	3.2
	충남	407	4.5
	전북	324	3.5
	전남	316	3.5
	경북	434	4.7
	경남	645	7.1
	제주	139	1.5
응답자	어머니	7,440	84.0
	아버지	1,339	15.1
	할머니	52	0.6
	할아버지	8	0.1
	기타	19	0.2
주양육자	어머니	8,053	91.2
	아버지	575	6.5
	할머니	168	1.9
	할아버지	10	0.1
	기타	24	0.3

* 결측치 제외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2) 보호자 및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보호자의 연령대는 40대(77.6%)가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42.6%)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정형태의 경우 양부모 가정(90.9%)이 대부분이었으며, 다문화 가정은 총 374명으로 전체 가구(9,140명)의 4.5%였다.

[표 III-2] 보호자 및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구분	응답자(명)	비율(%)
보호자 연령대	20대	12	0.1
	30대	826	9.3
	40대	6,871	77.6
	50대	1,078	12.2
	60대 이상	70	0.8
최종학력	무학	7	0.1
	초등학교 졸업	31	0.4
	중학교 졸업	61	0.7
	고등학교 졸업	2,045	24.1
	전문대학 졸업	2,028	23.9
	대학교 졸업	3,618	42.6
	대학원 이상	709	8.3
가정형태	양부모 가정	7,529	90.9
	한부모 가정	705	8.5
	조손가정	30	0.4
	기타	22	0.3
	다문화 가정	374	4.5

* 결측치 제외

2. 아동권리 지표 분석 결과

아동의 권리보장환경과 권리경험, 발달 결과 관련하여 아래 제시된 아동권리지표를 중심으로 실태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2023년(4차) 아동권리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년별, 17개 시·도별 실태를 제시하고, 2016년(1차)부터 2023년(4차)에 걸쳐 해당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III-3] 아동권리지표 세부분석 항목

요소		2023년 (4차)			
권리 보장 환경	가정	주거 시설	• 주거 쾌적성	• 다중주택문제	
		가정 인프라	• 교육지원 부족	• 여가지원 부족	• 사회관계지원 부족
		보호자의 심리 정서	• 의생활 결핍	• 정보접근성 부족	• 휴대폰 미보유
	학교	보호자의 심리 정서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경제적 만족도	• 양육 스트레스
		학교 시설	• 양육 효능감	• 등학교 편의성	• 학교시설 쾌적성
			학교 풍토	•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지역 사회 및 국가	안전	• 가정의 안전	• 학교의 안전	• 동네의 안전
		무질서	• 물리적 무질서	• 사회적 무질서	
		공동체	• 이웃과의 교류	• 신뢰 및 유대	
		양성평등	•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시설 및 기관		• 병원 이용 편의성	• 도서관 이용 편의성	• 놀이터 이용 편의성	
아동학대 인식		• 공원 이용 편의성	•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 아동학대 신고인식	•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 방임 인식	• 아동학대 목격 경험		
아동권리 인식	• 정서학대 인식	• 체벌인식(체벌필요성)	• 체벌경험		
	• 체벌인식(체벌효과)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 아동권리 인식		
	•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	•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	• 아동권리 존중 정도		
권리 경험	영양	• 식품미보장	• 아침식사 결식	• 규칙적인 식사	
		• 인스턴트 식품 섭취	• 신선한 채소 섭취	• 육류섭취	
	위생 및 공기	• 영양(지원 부족)	• 결식 경험(경제적 사유)		
		• 깨끗한 물 이용	• 깨끗한 화장실 이용	• 미세먼지 노출	
건강활동	• 간접흡연 노출	• 격렬한 신체활동	• 가벼운 신체활동	• 수면시간 부족	
	의료	• 치과검진	• 건강검진	• 병원 및 약국이용	
		• 예방접종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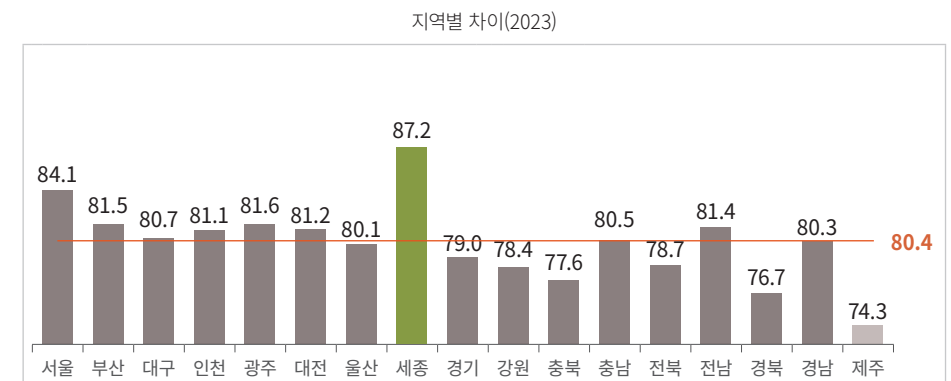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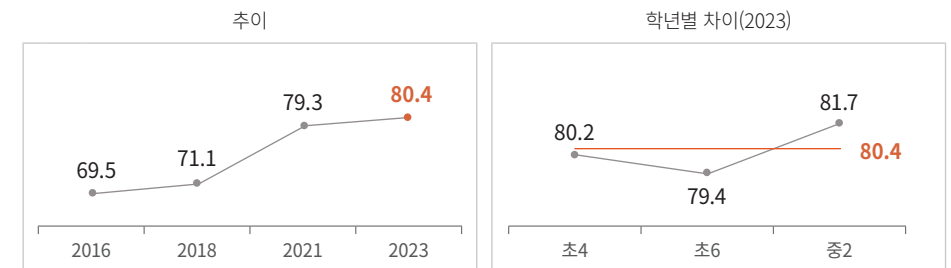
요소		2023년 (4차)			
권리 경험	발달권	교육	• 학교생활 만족도 • 방과 후 수업 만족도	•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 부모의 교육적 관심 • 부모의 교육적 참여	
		놀이/여가	• 놀이/휴식시간의 부족	• 가족과 여가활동 영위 • 취미 생활	
		관계	•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 부모의 과보호 •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보호권	학대	• 가벼운 신체학대 경험 • 심각한 신체학대 경험 • 나홀로 아동	•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경험 • 정서학대 경험 • 성학대 경험	• 방임 경험
			• 가정내 체벌 경험	• 학교내 체벌 경험	• 지역사회내 체벌 경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차별	• 차별받은 경험_연령	• 차별받은 경험_성별	• 차별 받은 경험_지역
			• 차별받은 경험_성적	• 차별받은 경험_가정형편	
	• 차별받은 경험_외모				
	참여권	의사존중	• 의견존중 받아본 경험 • 의사반영 정도	• 의사결정민주성 • 의사결정 협의경험	•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참여활동		• 동아리 활동 참여 • 기부/후원 활동 참여 • 정치 관련 집회 참여 • 참여의지(자발성 정도)	• 캠페인 활동 참여 • 정책 활동 참여 • 서명/청원 활동 참여 • 참여수준(적극성 정도)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교류 활동 참여 • 아동권리교육 참여	
발달 결과	건강	건강	•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 만성질환	• 입원 경험	
	인지	학업성취	• 전반적인 학업성취		
		디지털 역량	•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 정서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우울	• 우울 정서		
		불안	• 불안 정서		
		슬픔/좌절	• 슬픔 및 좌절 지속		
		비행	• 지위비행 경험 • 성비행 경험	• 폭력비행 경험 • 사이버비행 경험	• 재산비행 경험
			인터넷 중독	• 스마트폰 과의존	
		자살	• 자살 생각	• 자살 시도 계획	• 자살 시도
		스트레스	• 학업 스트레스 • 외모 스트레스	• 친구 스트레스 • 경제적 스트레스	• 가족 스트레스
			진로발달	• 진로성숙도	
		행복	행복감	• 현재 행복감	
	가치관	시민의식	• 시민의식 • 공동체의식		
		불평등 정도	• 계층간 불평등 •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인식)	• 계층간 이동가능성 • 계층간 격차완화제도	
•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인식)					
공정성		• 우리사회 공정성			
디지털 시민성		• 디지털 시민성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	•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 • 정부 및 지자체 조치 적절성 • 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 고려 정도				

1) 권리보장환경

(1) 가정 환경

주거 쾌적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집의 방습, 방음, 환기, 채광 등 거주하는 집의 쾌적성 (3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문항별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 (단위: %)



[그림 III-1] 주거 쾌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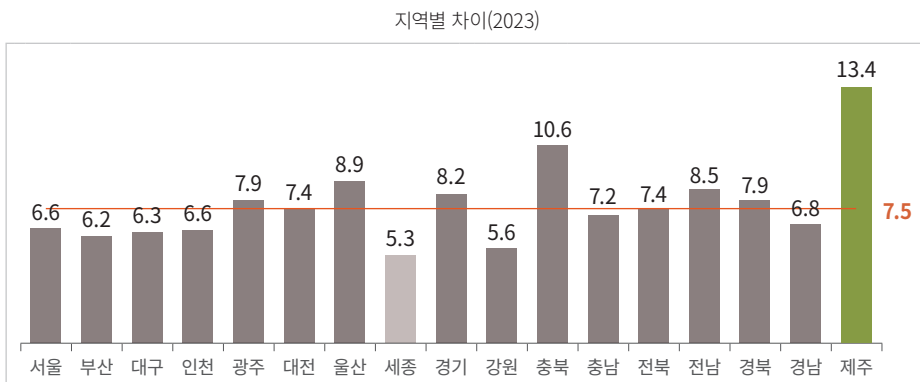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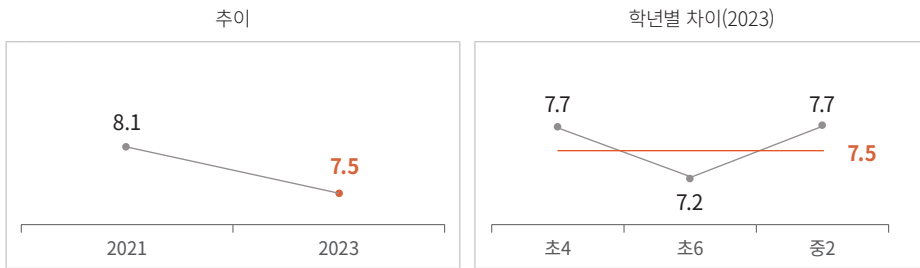
주거 쾌적성 지표의 전체 평균은 80.4%로 나타났다. '16년 69.5%, '18년 71.1%, '21년 79.3%, '23년 80.4%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80.2%, 6학년 79.4%, 중등 2학년 81.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87.2%로 주거 쾌적성 정도가 가장 높았고, 제주가 74.3%로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 중에는 울산이 유일하게 평균을 하회하였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다중주택문제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붕이 새거나 집이 부식되는 등 주택 문제 여부 (3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문항별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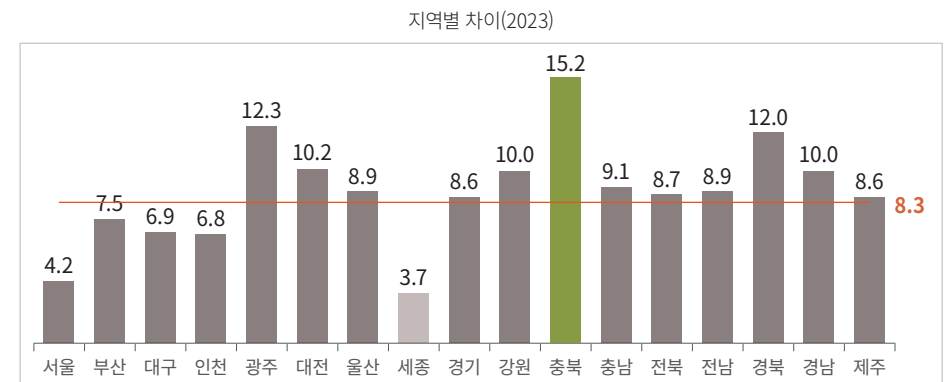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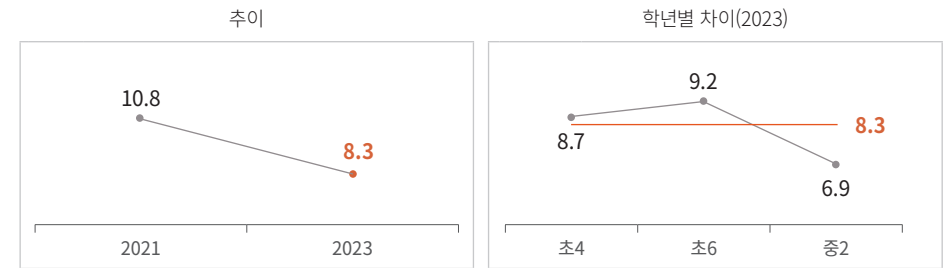


[그림 III-2] 다중주택문제

다중주택문제를 경험한 부모(보호자)는 '21년 8.1%에서 '23년 7.5%로 다소 감소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7%, 초등 6학년 7.2%, 중등 2학년 7.7%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3.4%로 가장 높고 세종이 5.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주거 쾌적성 지표와 대조를 이루었다.

교육지원 부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자녀교육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 여부 (3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3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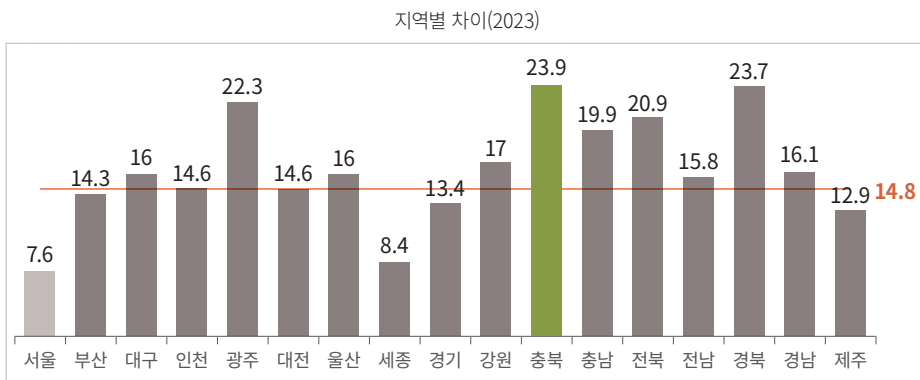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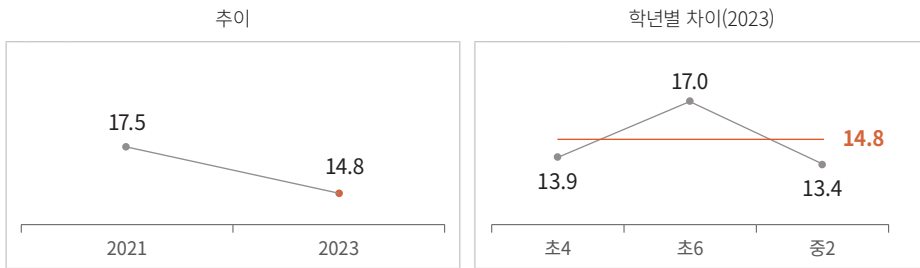


[그림 III-3] 교육지원 부족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부모(보호자) 비율은 8.3%로, '21년 10.8%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의 9.2%가 교육적 지원이 부족하였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중학교 입학 앞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8.7%,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충북이 15.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가지원 부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 여부 (2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2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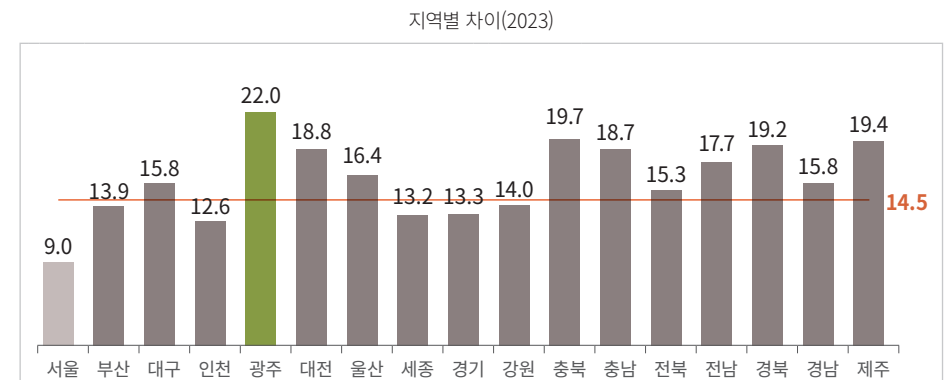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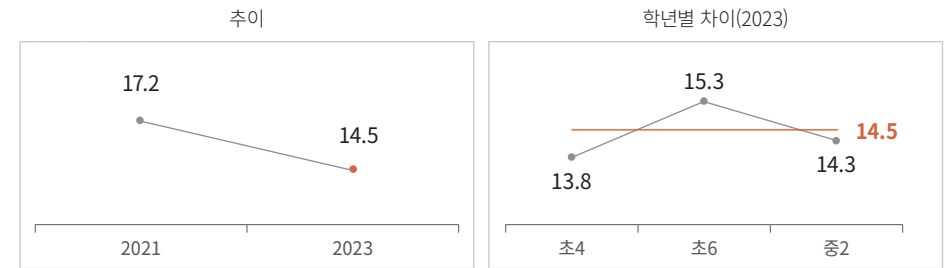


[그림 III-4] 여가지원 부족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부모(보호자) 비율은 14.8%였다. '21년 17.5%에서 '23년 14.8%로 감소하였으며, 학년별로는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 17.0%,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 13.9%,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 13.4% 순으로 교육지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3.9%로 교육지원 부족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7.6%로 가장 낮았다.

사회관계지원 부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사회관계를 지원하지 못한 경험 여부 (2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2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그림 III-5] 사회관계지원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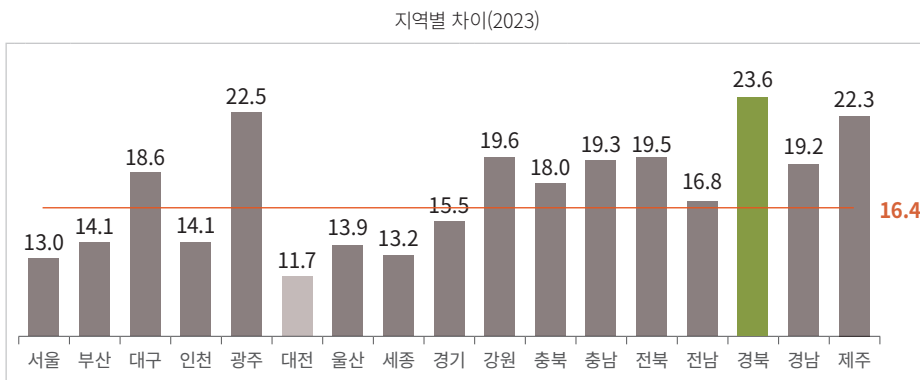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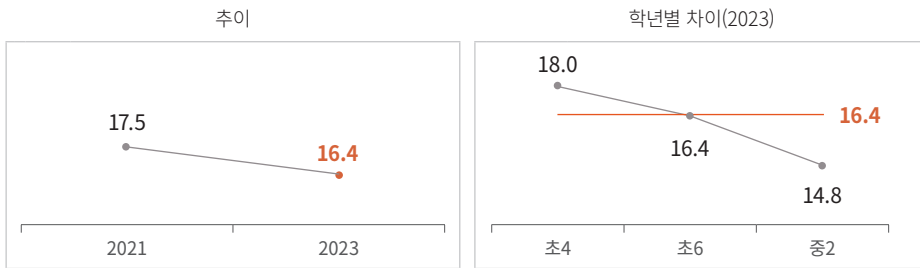
부모(보호자) 중 14.5%는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사회관계 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비율은 '21년 17.2%에서 '23년 14.5%로 감소하였으며, 학년별로는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 15.3%,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 14.3%,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 13.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2.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9.0%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의생활 결핍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새 옷과 일정 양 이상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2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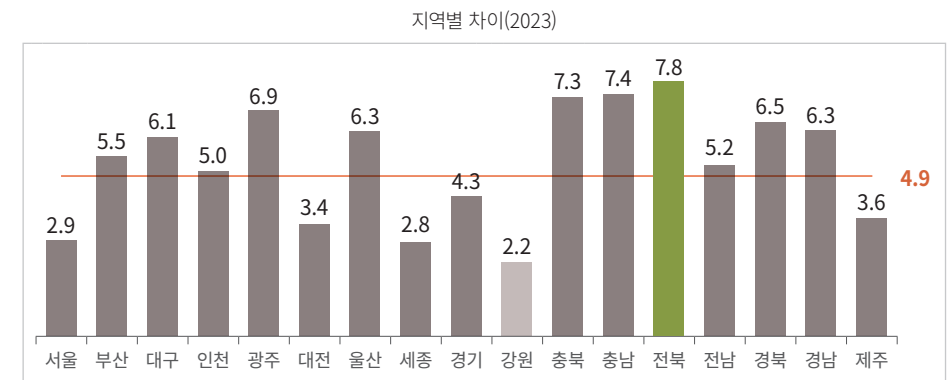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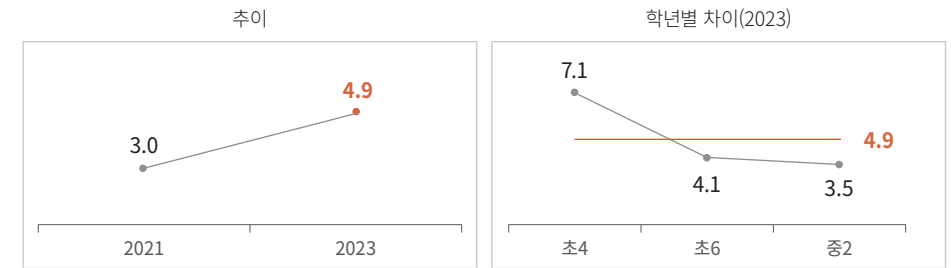


[그림 III-6] 의생활 결핍

조사대상 아동의 16.4%가 옷이나 신발과 관련하여 결핍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1년 17.5%, '23년 16.4%로 다소 감소하였고,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이 18.0%로 결핍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학년은 16.4%, 중등 2학년은 14.8%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생활 결핍 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3.6%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11.7%로 가장 낮았다.

정보접근성 부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노트북, 컴퓨터 미보유 또는 인터넷 연결 여부 (2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2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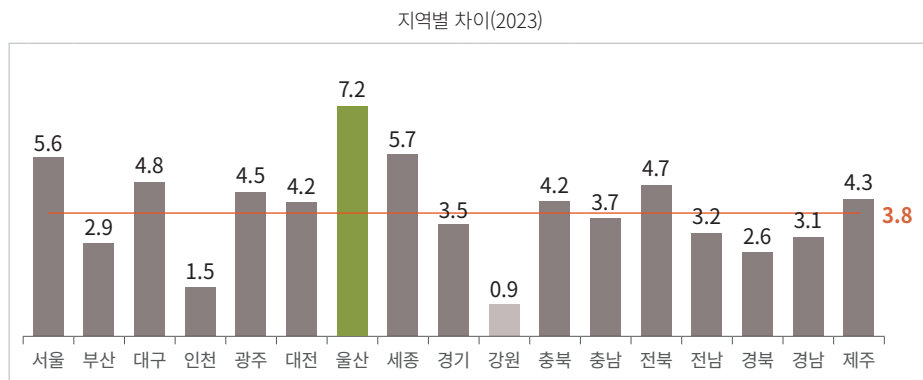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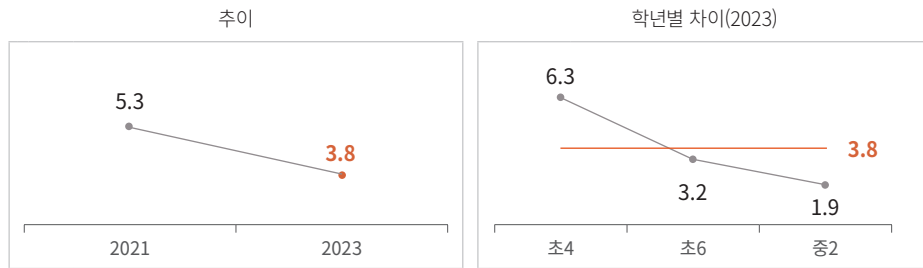


[그림 III-7] 정보접근성 부족

아동의 4.9%가 노트북이나 컴퓨터,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1년 3.0%에서 '23년 4.9%로 정보접근성 부족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접근성 부족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7.1%, 6학년은 4.1%, 중등 2학년은 3.5%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북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2.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휴대폰 미보유

- 대상 ■ 아동 □ 부모
- 내용 휴대폰 보유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휴대폰을 미보유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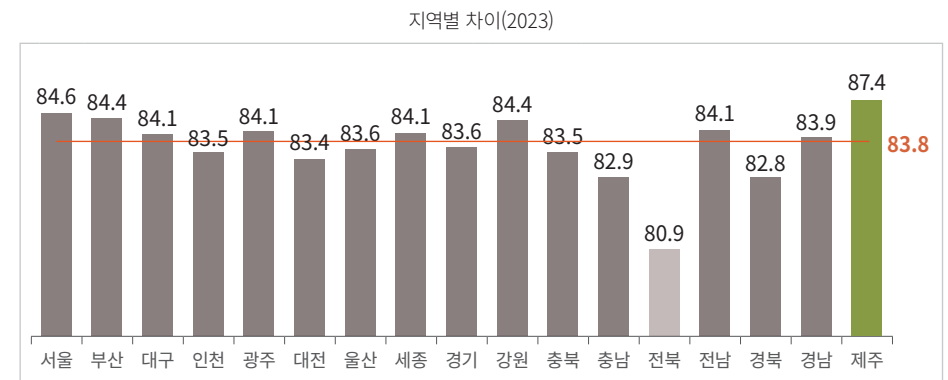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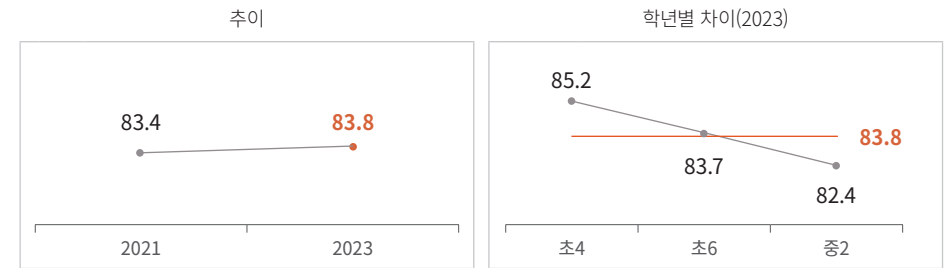


[그림 III-8] 휴대폰 미보유

조사대상 아동 중 3.8%는 휴대폰을 미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1년 5.3%에서 '23년 3.8%로 감소하였으며, 휴대폰 미보유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4학년은 6.3%, 초등 6학년은 3.2%, 중등 2학년은 1.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7.2%로 휴대폰 미보유 아동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0.9%로 가장 낮았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대상 □ 아동 ■ 부모
- 내용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1문항)
- 척도 0점-10점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 ⑤ 보통 ~ ⑩ 매우 만족한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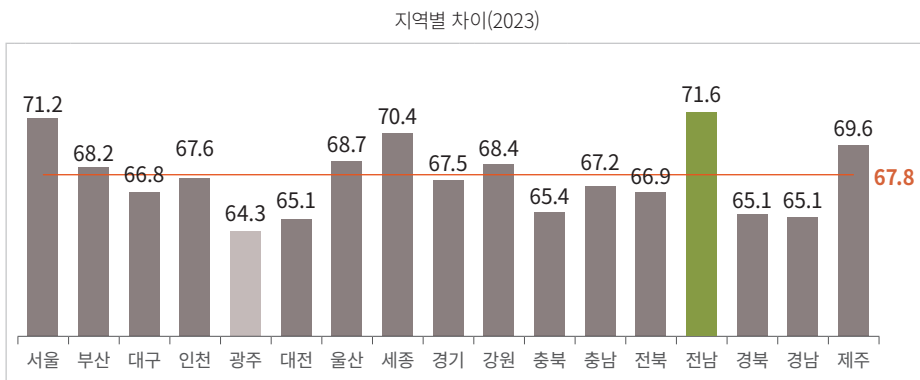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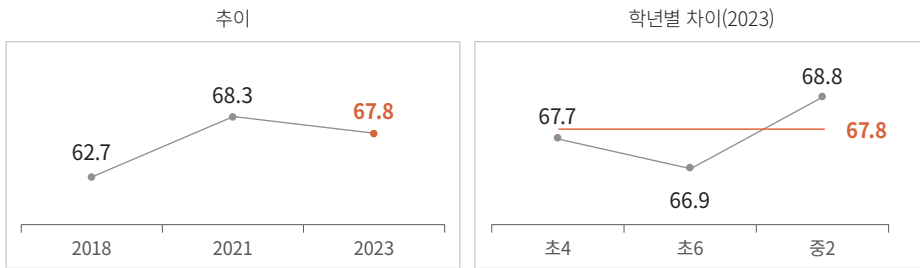


[그림 III-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부모(보호자)들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83.8점으로 나타났다. '21년 83.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85.2점, 6학년 부모(보호자)는 83.7점,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82.4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8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만족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1문항)
- 척도 0점-10점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 ⑤ 보통 ~ ⑩ 매우 만족한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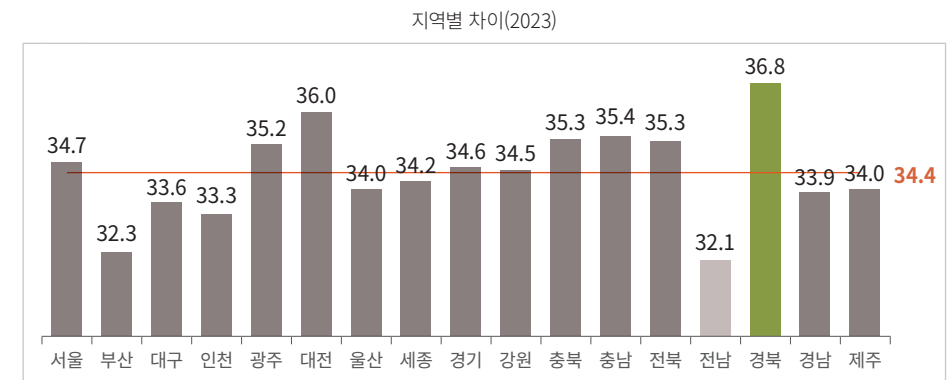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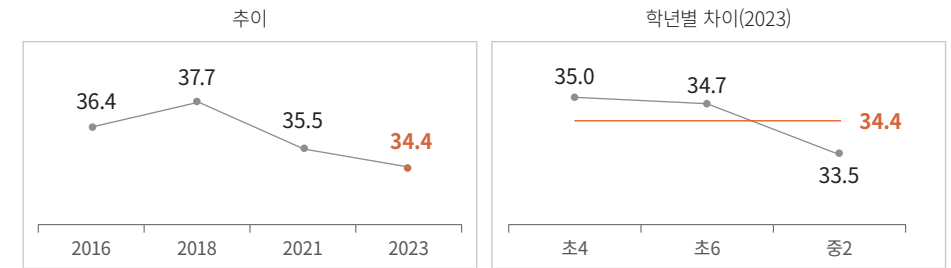


[그림 III-10] 경제적 만족도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만족도는 '18년 62.7점에서 '21년 68.3점으로 증가하였지만, '23년 67.8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는 66.9점으로 가장 낮았고,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가 67.7점,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가 68.8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1.6점으로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64.3점으로 가장 낮았다.

양육 스트레스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부모(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5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11] 양육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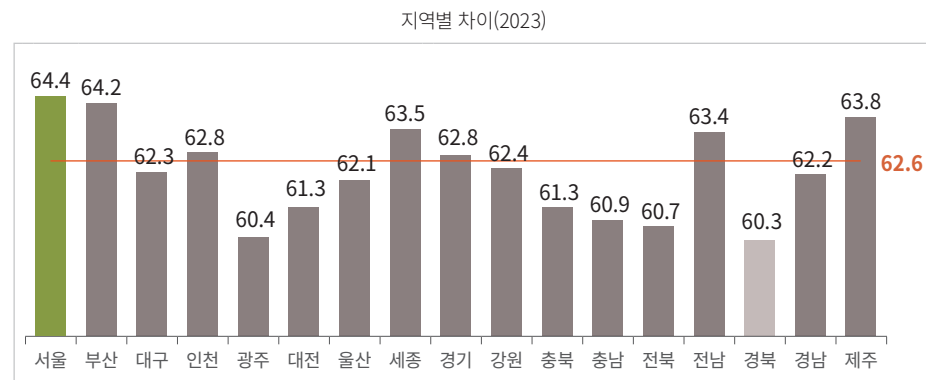
부모(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16년 36.4점, '18년 37.7점, '21년 35.5점, '23년 34.4점으로 '18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21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35.0점, 6학년 부모(보호자)는 34.7점,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33.5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양육 효능감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문항수정) ■ 4차
- 내용 부모(보호자)의 양육 효능감 (9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효능감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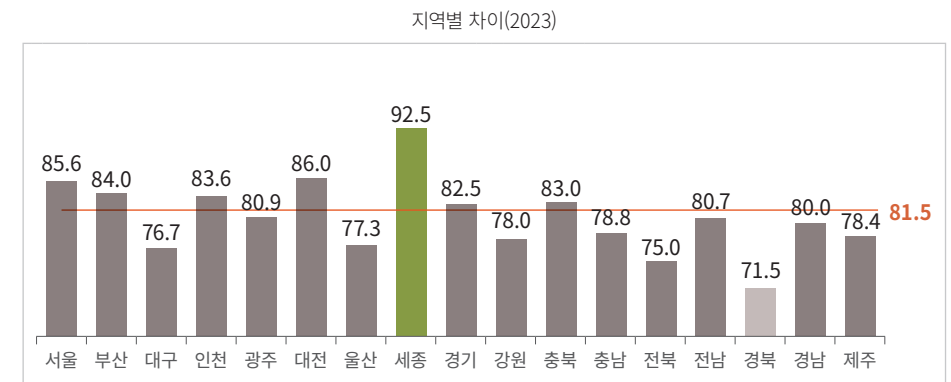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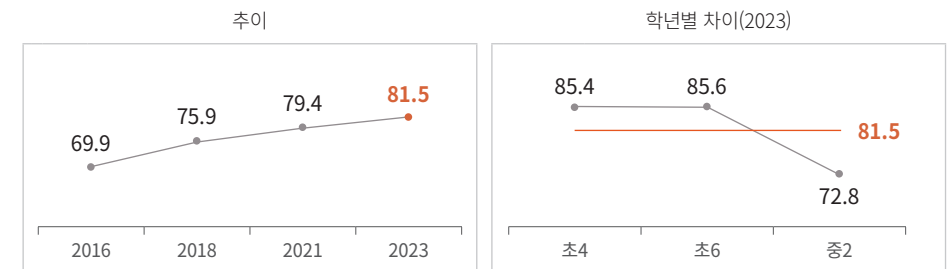
[그림 III-12] 양육 효능감

부모(보호자)의 양육 효능감 평균은 '21년 61.9점, '23년 62.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63.5점, 6학년 부모(보호자)는 62.3점,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62.0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보호자)의 양육 효능감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4점으로 부모(보호자)의 양육 효능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북이 60.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 학교 환경

등·하교 편의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의 등·하교가 편한지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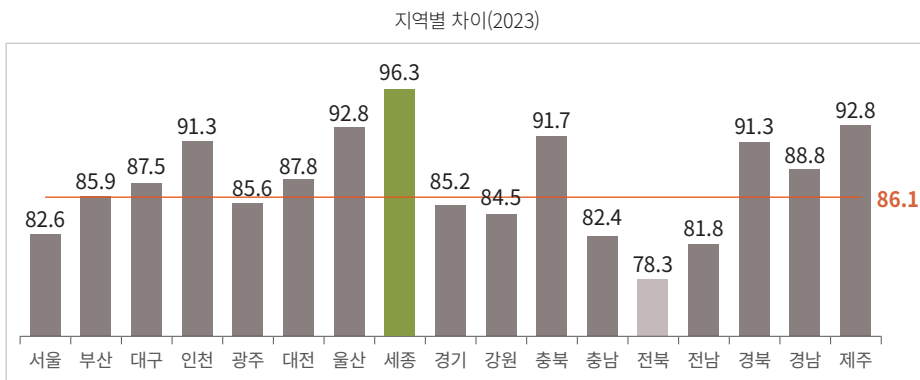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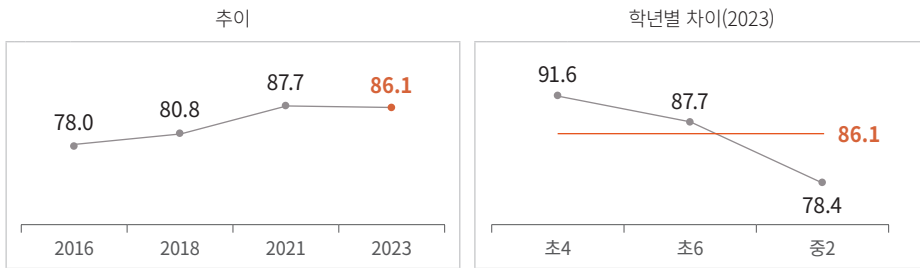


[그림 III-13] 등·하교 편의성

등·하교 편의성은 '16년 69.9%, '18년 75.9%, '21년 79.4%, '23년 81.5%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과 6학년은 85% 수준이었으나, 중등 2학년은 72.8%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92.5%로 등·하교 편의성이 가장 높고, 경북이 71.5%로 가장 낮았다.

학교시설 쾌적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이 깨끗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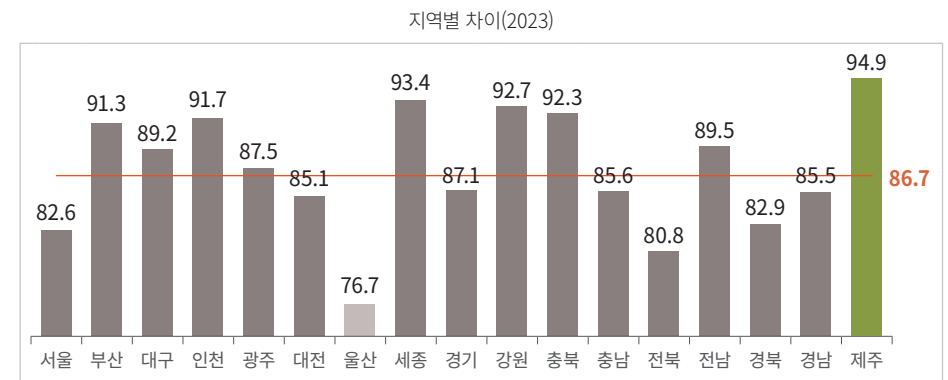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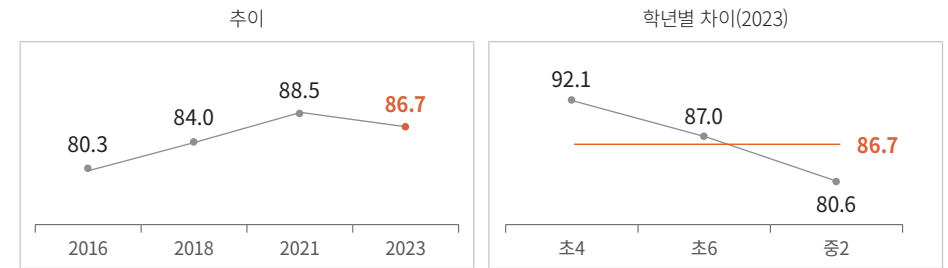


[그림 III-14] 학교시설 쾌적성

학교시설 쾌적성은 '16년 78.0%, '18년 80.8%, '21년 87.7%로 점점 증가하다 '23년 86.1%로 다소 감소하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91.6%, 초등 6학년은 87.7%, 중등 2학년은 78.4%로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시설 쾌적성 응답 비율은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96.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78.3%로 가장 낮았다.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학교의 운동장이 활동하기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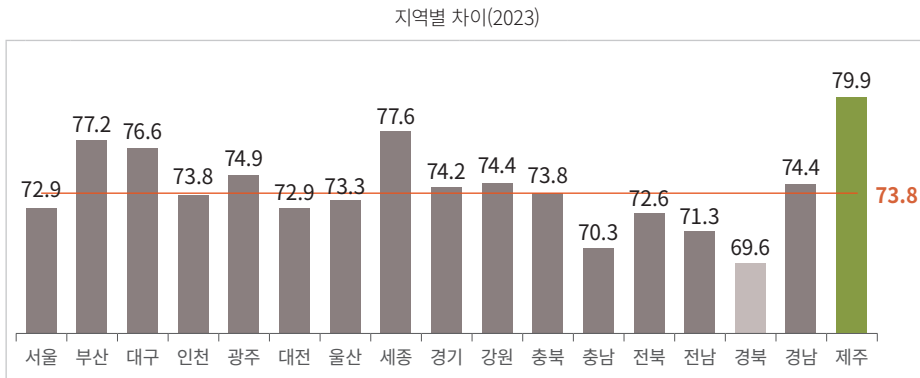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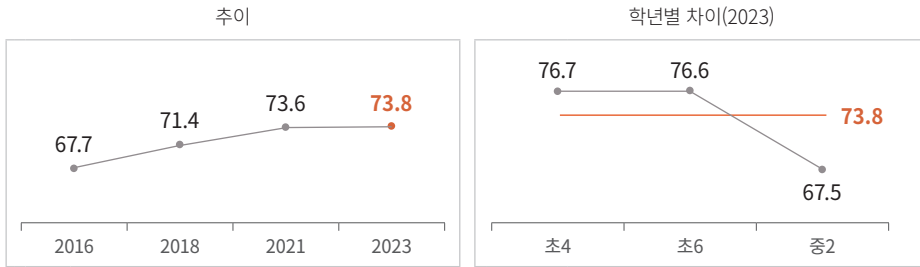


[그림 III-15]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은 '16년 80.3%, '18년 84.0%, '21년 88.5%로 증가하다 '23년 86.7%로 다소 감소하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92.1%, 6학년 87.0%, 중등 2학년 80.6%로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4.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울산은 76.7%로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학교에서 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분위기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내 의견존중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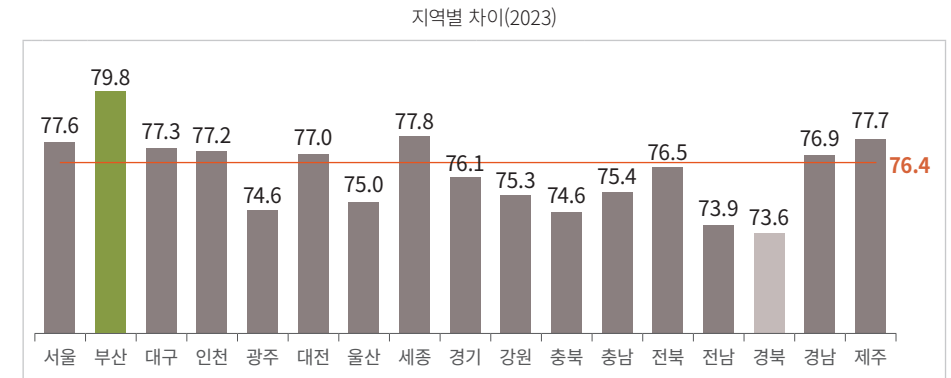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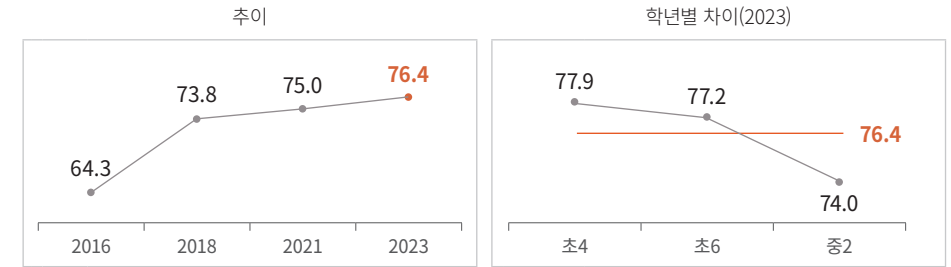


[그림 III-16]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는 '16년 67.7점, '18년 71.4점, '21년 73.6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3년 73.8점으로 '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76.7점, 6학년은 76.6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등 2학년은 67.5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79.9점으로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가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69.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학교에서 비밀보장 및 규칙 변경에 대해 알려주는 정도 (3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내 정보공개 민주성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17]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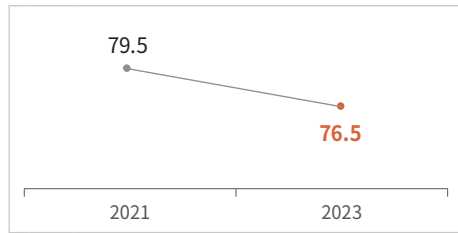
아동이 인식하는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은 '16년 64.3점, '18년 73.8점, '21년 75.0점, '23년 76.4점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7.9점, 6학년은 77.2점, 중등 2학년은 74.0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보공개 민주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73.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 지역사회 및 국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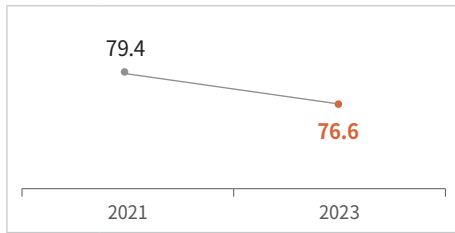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우리나라에서 남성, 여성이 존중받는 정도 (2문항)
- 척도 0점-10점 (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 ⑤ 보통 ~ ⑩ 매우 존중 받는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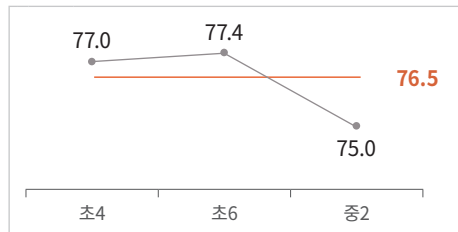
추이_여성존중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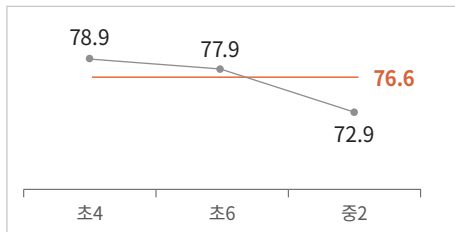
추이_남성존중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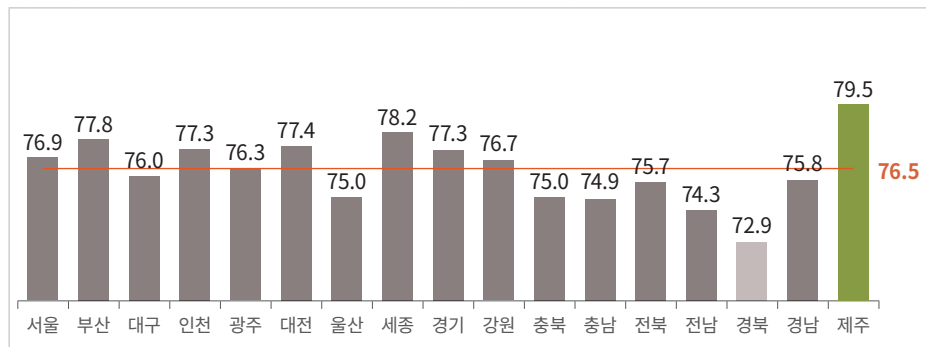
학년별 차이(2023)_여성존중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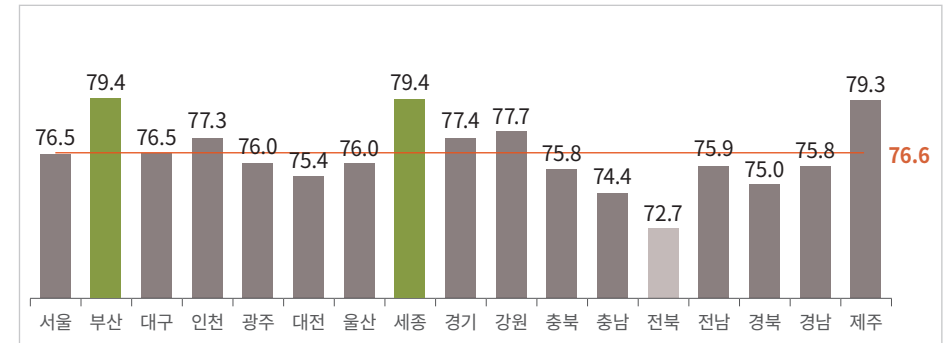
학년별 차이(2023)_남성존중정도



지역별 차이(2023)_여성존중정도



지역별 차이(2023)_남성존중정도



[그림 III-18]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 양성평등에 대한 아동 인식의 경우, 여성이 존중받는 정도는 '21년 79.5점에서 '23년 76.5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존중받는 정도 역시 '21년 79.4점에서 '23년 76.6점으로 감소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존중받는 정도는 초등 4학년 77.0점, 초등 6학년 77.4점, 중등 2학년은 75.0점으로 중학생이 가장 낮았으며, 남성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 역시 초등 4학년 78.9점, 초등 6학년 77.9점, 중등 2학년 72.9점으로 중학생의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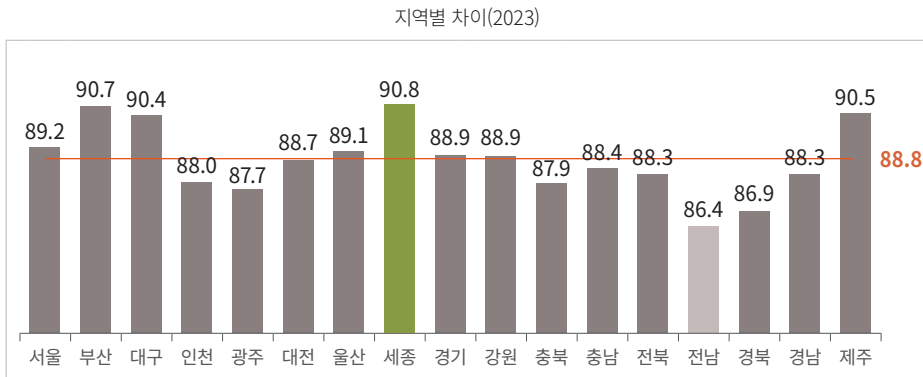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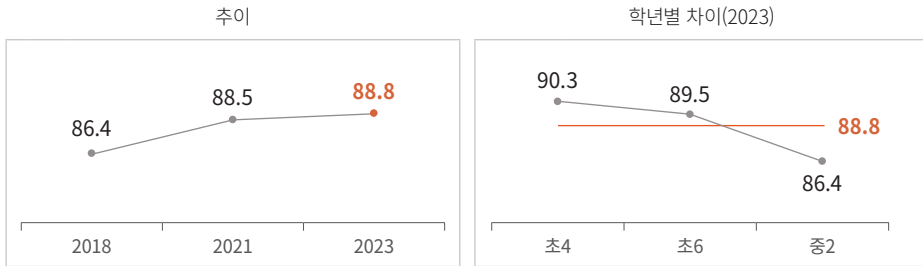
시·도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존중받는 정도는 제주가 79.5점으로 17개 시·도중 가장 높았고, 경북이 72.9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남성이 존중받는 정도는 부산과 세종이 7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이 72.7점으로 17개 시·도중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가정의 안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집에 있을 때 안전하게 느끼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이 안전하다고 인식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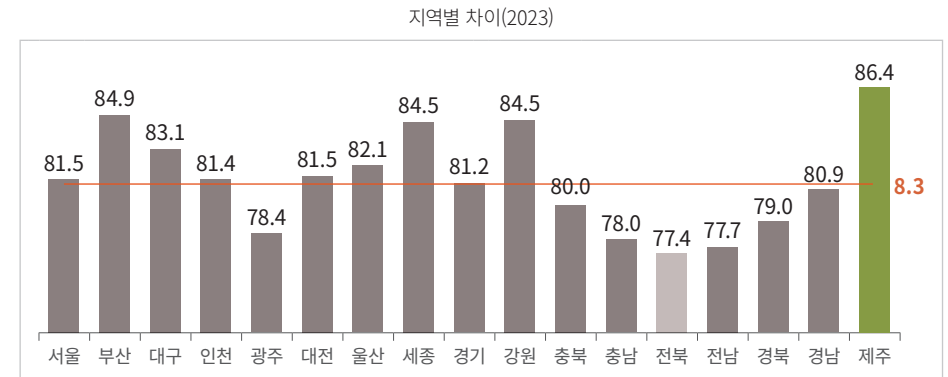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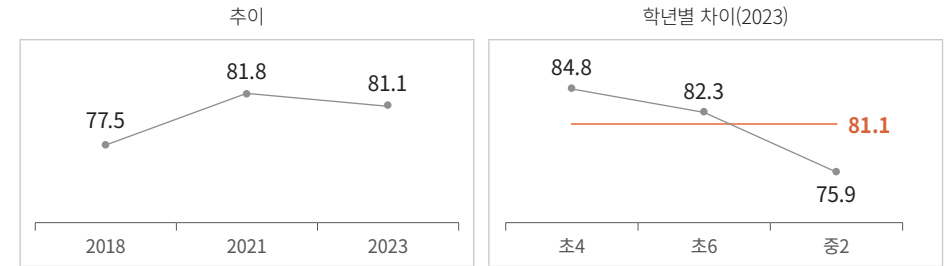


[그림 III-19] 가정의 안전

아동이 인식하는 가정의 안전 정도는 '18년 86.4점, '21년 88.5점, '23년 88.8점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90.3점, 초등 6학년은 89.5점, 중등 2학년은 86.4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가정의 안전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9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86.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의 안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학교에 있을 때 안전하게 느끼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가 안전하다고 인식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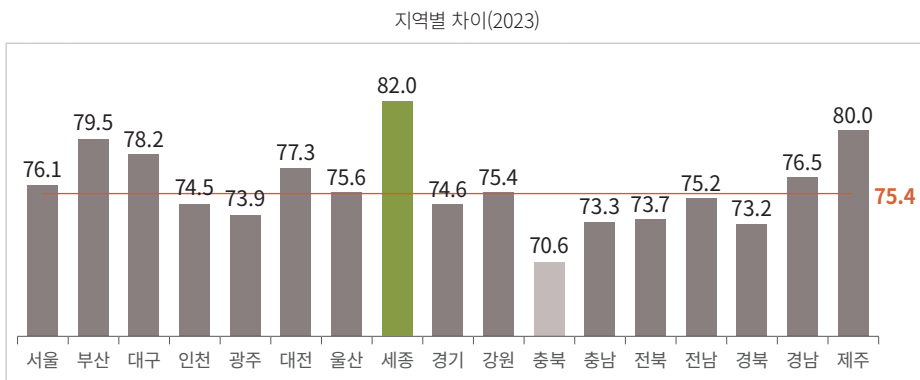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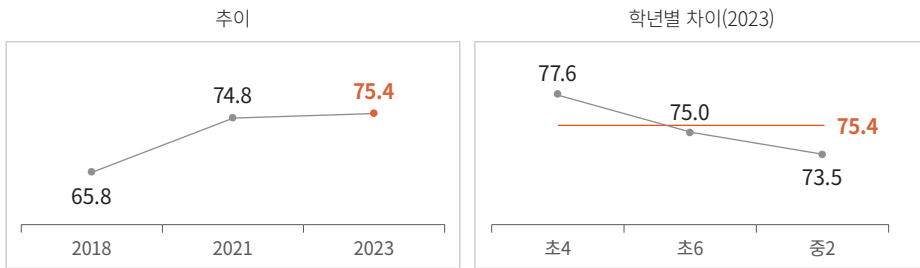


[그림 III-20] 학교의 안전

학교의 안전 정도는 '18년 77.5점, '21년 81.8점, '23년 81.1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4.8점, 초등 6학년은 82.3점, 중등 2학년은 75.9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학교의 안전 정도는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8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77.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동네의 안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동네를 돌아다닐 때 안전하게 느끼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가 안전하다고 인식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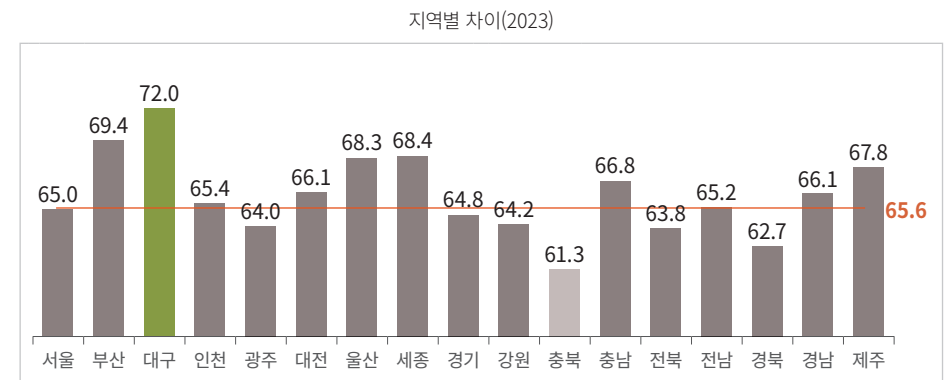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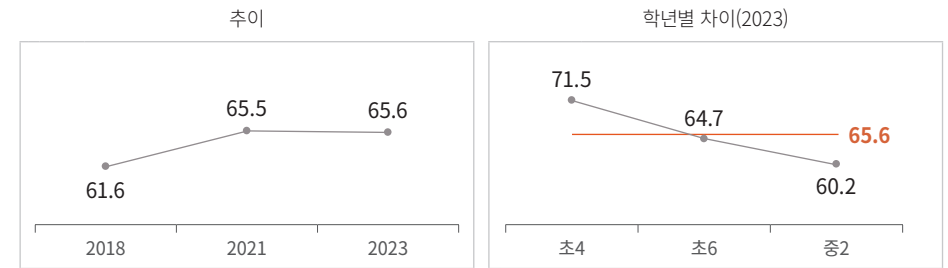


[그림 III-21] 동네의 안전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안전 정도는 '18년 65.8점, '21년 74.8점, '23년 75.4점으로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7.6점, 초등 6학년은 75.0점, 중등 2학년은 73.5점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동네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8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7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의 안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우리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느끼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인식함 (단위: 점)



[그림 III-22] 우리나라의 안전

아동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안전 정도는 '18년 61.6점, '21년 65.5점, '23년 65.6점으로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 학교, 동네에 비해 우리나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1.5점, 6학년은 64.7점, 중등 2학년은 60.2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7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61.3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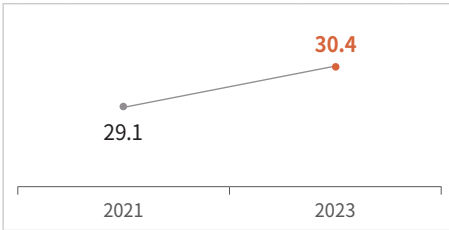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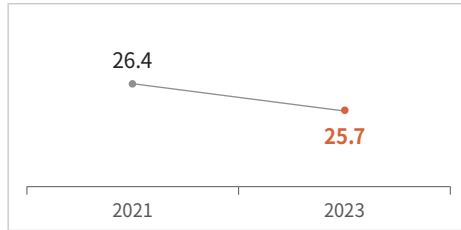
물리적 무질서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부모만 조사) ■ 2차 ■ 3차(문항 수정) ■ 4차
- 내용 거주하는 지역의 청결이나 정돈상태, 소음 등 물리적인 무질서 정도 (6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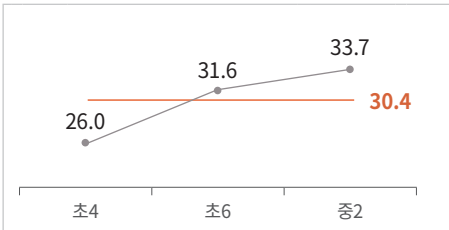
추이_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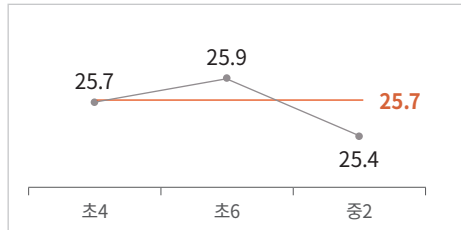
추이_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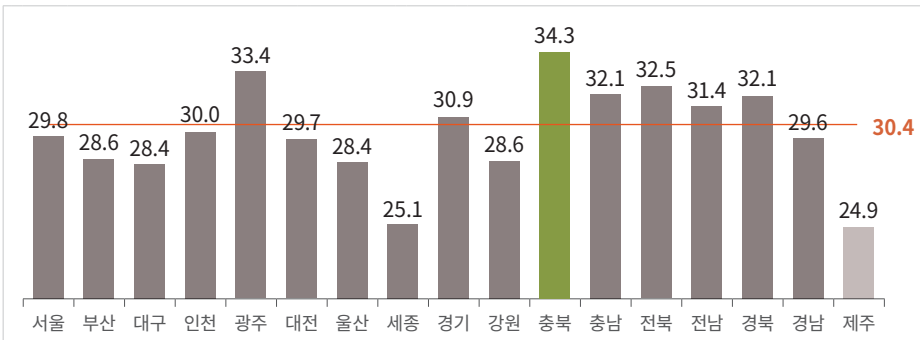
학년별 차이(2023)_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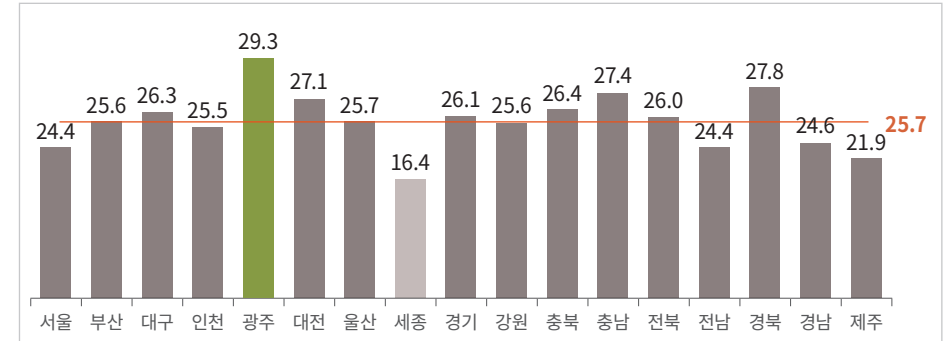
학년별 차이(2023)_부모



지역별 차이(2023)_아동



지역별 차이(2023)_부모



[그림 III-23] 물리적 무질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평균은 아동이 30.4점, 부모(보호자)는 25.7점으로 아동이 부모(보호자) 보다 지역사회를 좀 더 무질서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경우 '21년 29.1점, '23년 30.4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모(보호자)는 '21년 26.4점, '23년 25.7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6.0점, 초등 6학년은 31.6점, 중등 2학년은 33.7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높아졌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는 25.9점,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25.7점,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2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높아졌지만, 부모(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학년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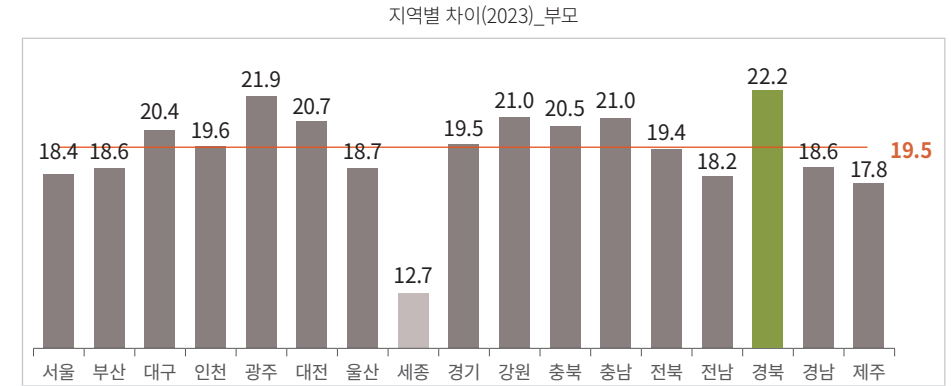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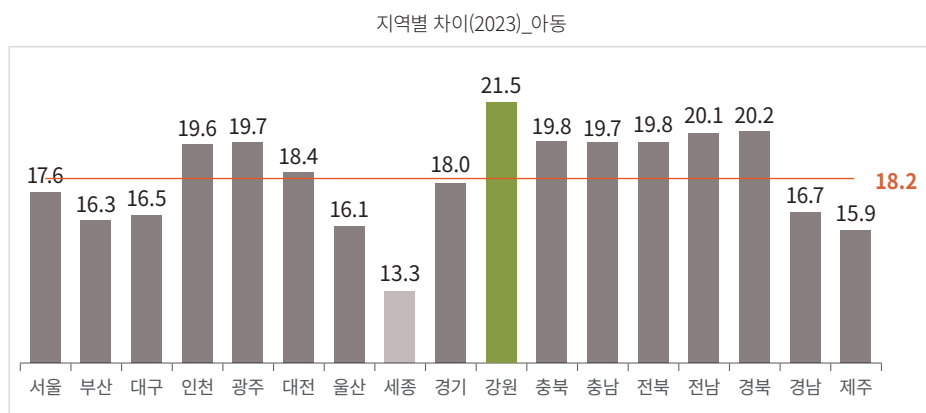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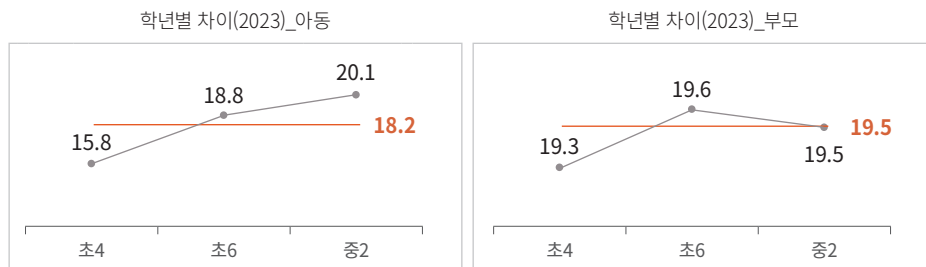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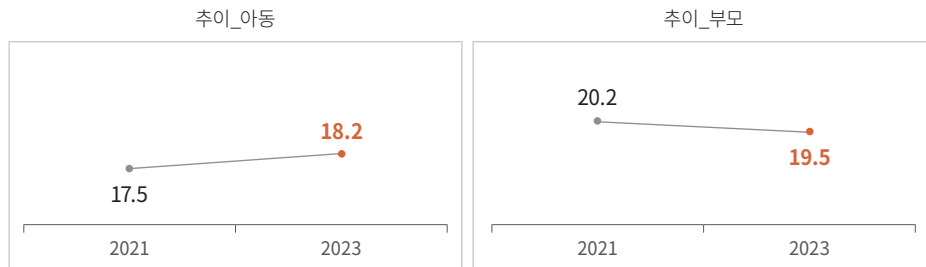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충북이 34.3점으로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24.9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광주가 29.3점으로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은 16.4점으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사회적 무질서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부모만 조사) ■ 2차 ■ 3차(문항 수정) ■ 4차
- 내용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 범죄 등 사회적인 무질서 정도 (6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24] 사회적 무질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 평균은 아동이 18.2점, 부모(보호자)는 19.5점으로 아동이 부모(보호자)보다 사회적인 무질서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경우 '21년 17.5점, '23년 18.2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모(보호자)는 '21년 20.2점, '23년 19.5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5.8점, 초등 6학년은 18.8점, 중등 2학년은 20.1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높아졌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는 19.6점,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19.5점,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19.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높아졌지만, 부모(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학년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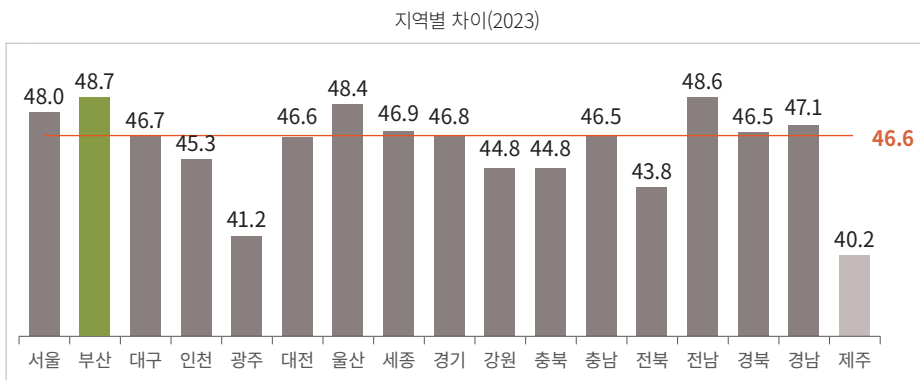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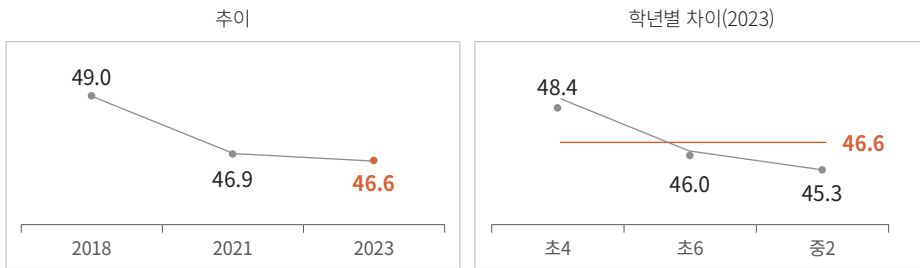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강원이 21.5점으로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13.3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경북이 22.2점으로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과 마찬가지로 세종이 '21년에 이어 12.7점으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이웃과의 교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동네 이웃과의 교류 정도 (6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과의 교류 정도가 빈번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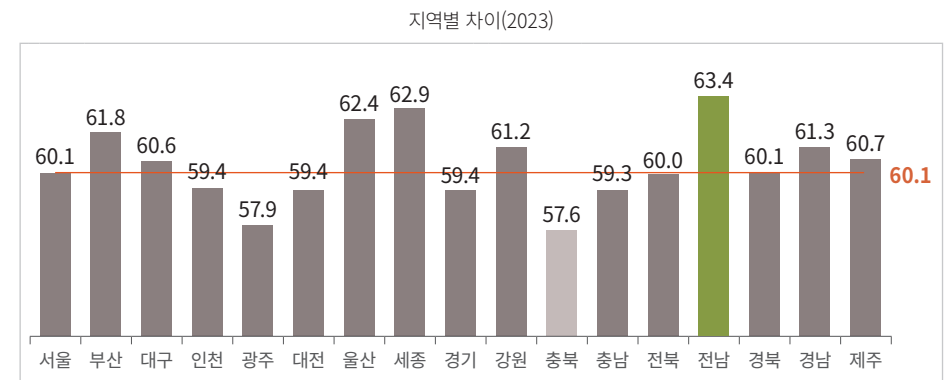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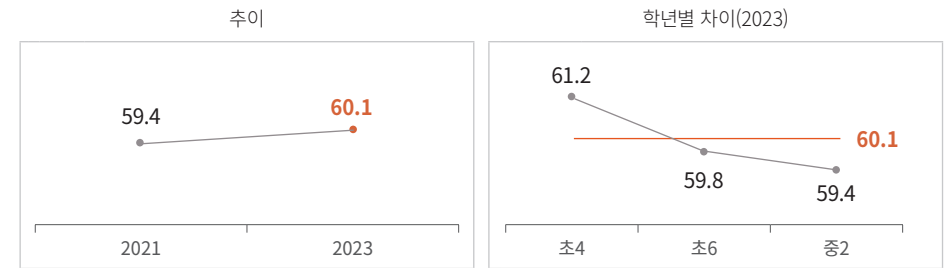


[그림 III-25] 이웃과의 교류

이웃과의 교류는 '18년 49.0점, '21년 46.9점, '23년 46.6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48.4점, 6학년은 46.0점, 중등 2학년은 45.3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보호자)의 이웃과의 교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4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40.2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뢰 및 유대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거주지역 내 이웃 간 신뢰 및 유대 (5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 간 신뢰 및 유대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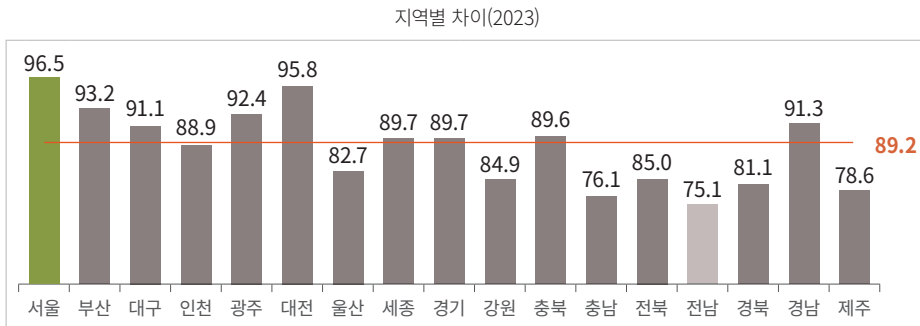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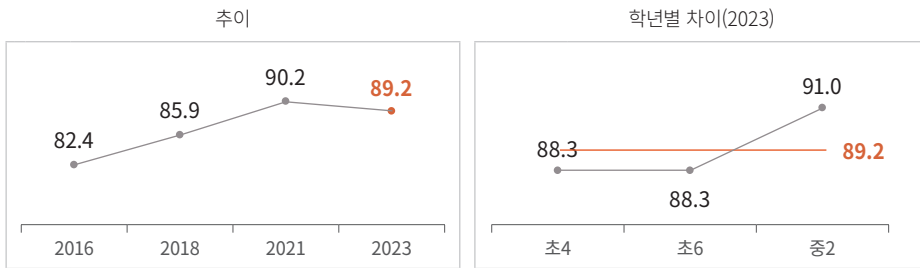


[그림 III-26] 신뢰 및 유대

부모(보호자)가 인식하는 거주지역 내 이웃 간 신뢰 및 유대는 '21년 59.4점에서 '23년 60.1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이 6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 6학년은 59.8점, 중등 2학년은 59.4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가 인식하는 이웃 간 신뢰 및 유대 정도가 낮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63.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충북은 57.6점으로 17개 시·도중 거주지역 내 이웃 간 신뢰 및 유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병원 이용 편의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동네에 병원이 가까워서 아플 때 진료받기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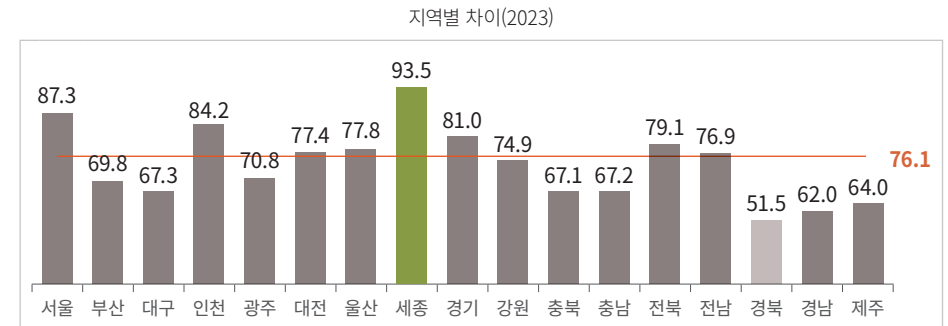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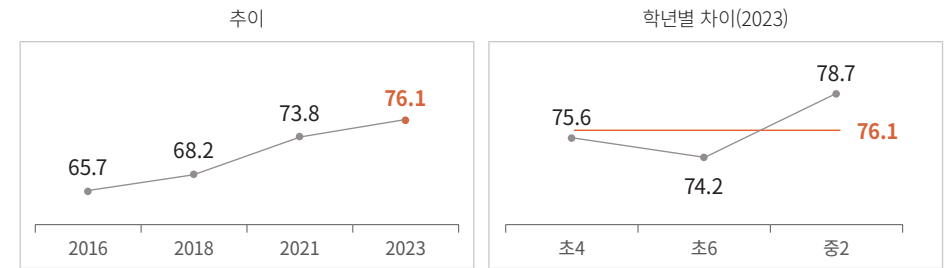


[그림 III-27] 병원 이용 편의성

거주지역 내 병원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82.4%, '18년 85.9%, '21년 90.2%로 병원 이용 편의성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3년 89.2%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높아진 병원 이용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과 6학년 부모(보호자)는 88.3%,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91.0%로 중학생 부모(보호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보다 병원 이용 편의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1년에 이어 96.5%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75.1%로 가장 낮았다.

도서관 이용 편의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동네에 도서관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그림 III-28] 도서관 이용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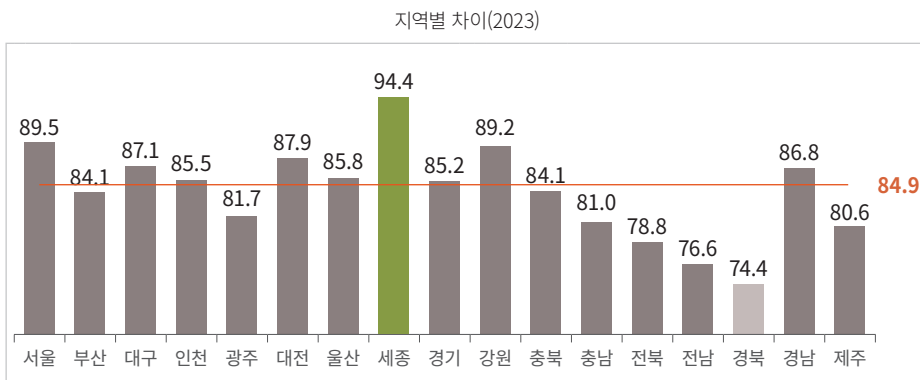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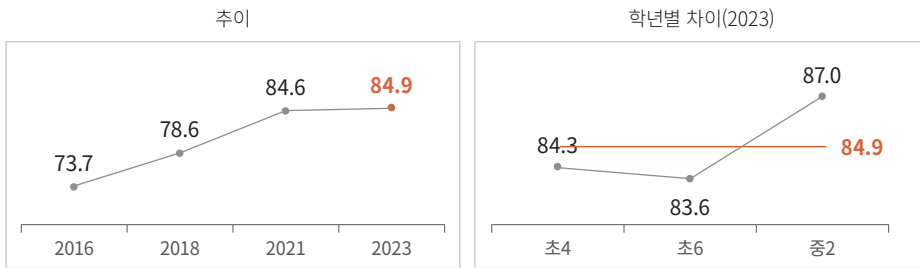
거주지역 내 도서관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65.7%, '18년 68.2%, '21년 73.8%, '23년 76.1%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중등 2학년이 78.7%로 도서관 이용 편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 4학년은 75.6%, 6학년은 74.2%로 중학생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보호자)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21년에 이어 93.5%로 도서관 이용 편의성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5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두 시도 간 차이는 42.0%p로 다른 시설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놀이터 이용 편의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놀이터가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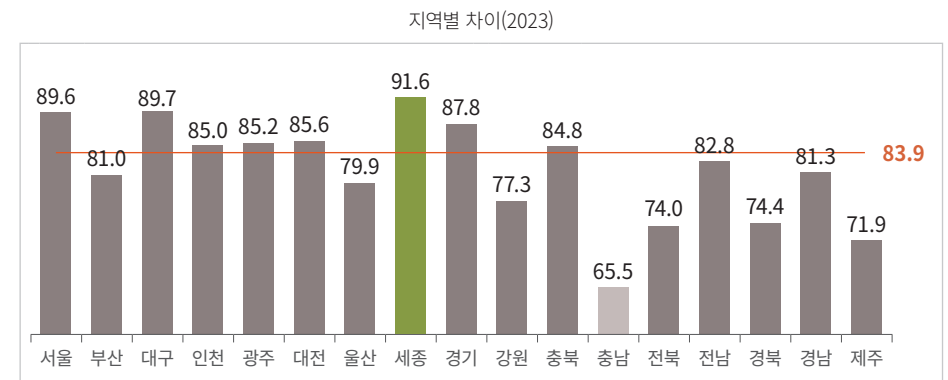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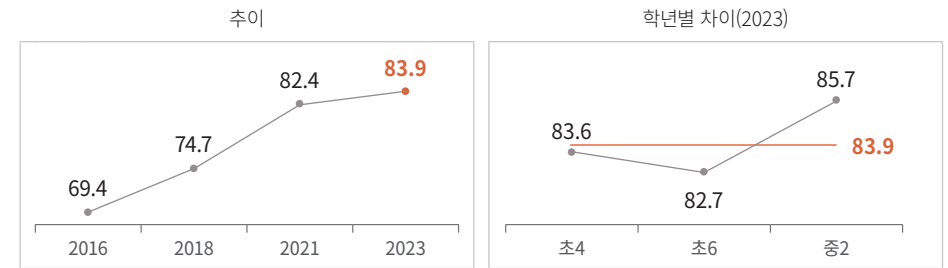


[그림 III-29] 놀이터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중 거주지역 내 놀이터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73.7%, '18년 78.6%, '21년 84.6%, '23년 84.9%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84.3%, 6학년은 83.6%, 중등 2학년은 87.0%로 비슷한 수치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94.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7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원 이용 편의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동네에 공원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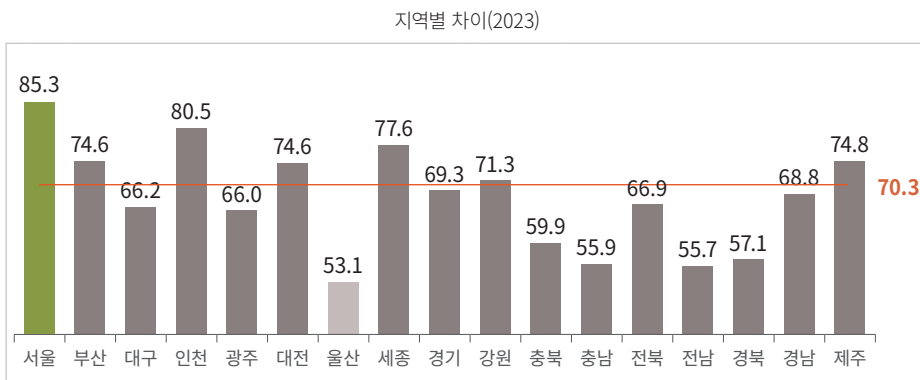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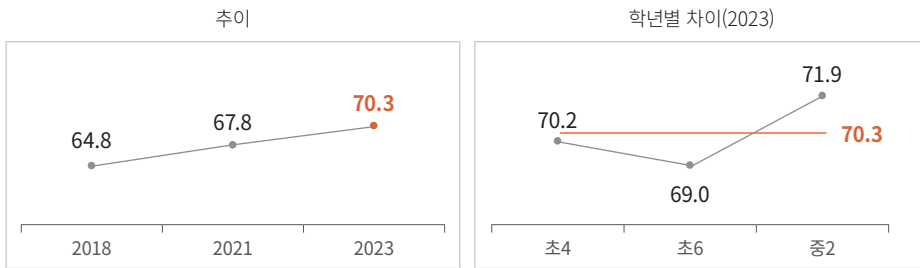


[그림 III-30] 공원 이용 편의성

거주지역 내 공원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69.4%, '18년 74.7%, '21년 82.4%, '23년 83.9%로 공원 이용 편의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83.6%, 6학년 부모(보호자)는 82.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85.7%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1년에 이어 91.6%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65.5%로 가장 낮았는데, 두 지역 간의 격차가 26.1%p로 나타나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공원 이용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문화공간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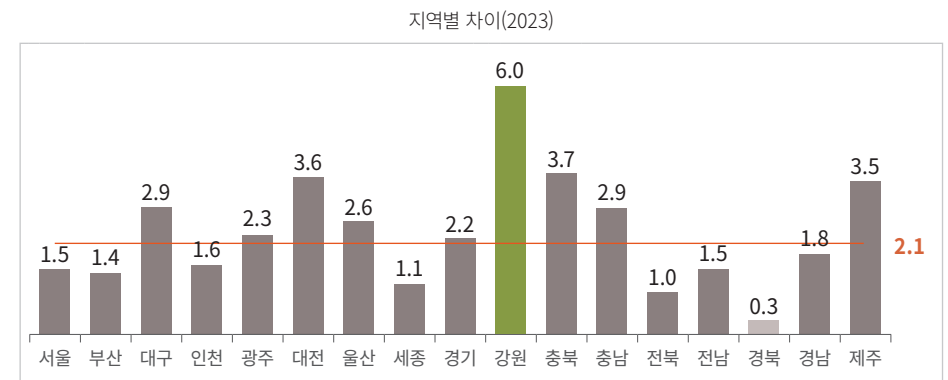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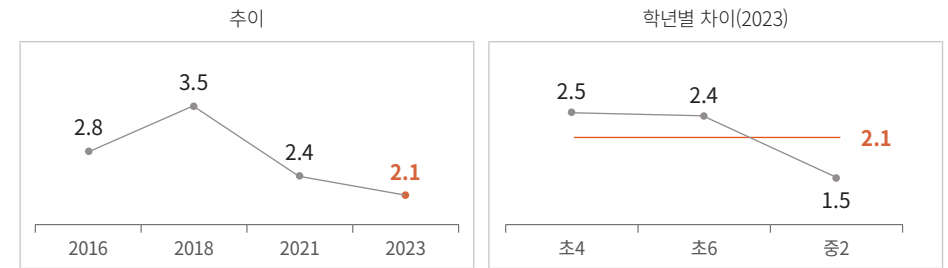


[그림 III-31]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지역 내 문화공간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부모(보호자)의 비율은 '18년 64.8%, '21년 67.8%, '23년 70.3%로 다소 증가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등 2학년은 71.9%로 가장 높았고, 초등 4학년은 70.2%, 초등 6학년은 6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1년에 이어 85.3%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53.1%로 가장 낮았는데, 두 지역 간 차이는 32.2%p로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른 문화공간 이용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목격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주변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그림 III-32] 아동학대 목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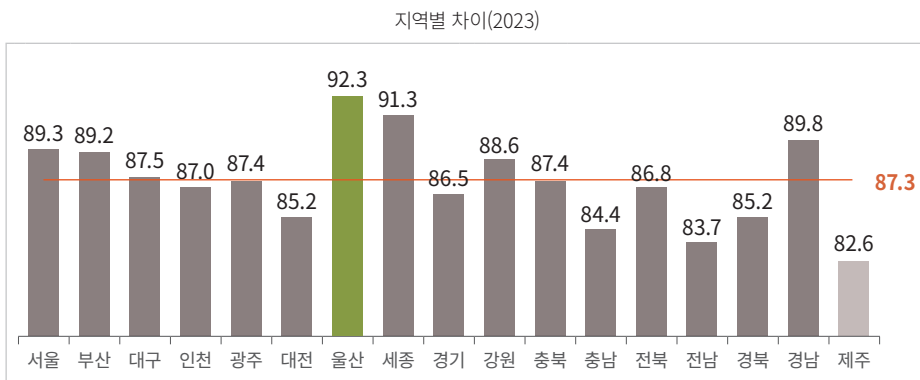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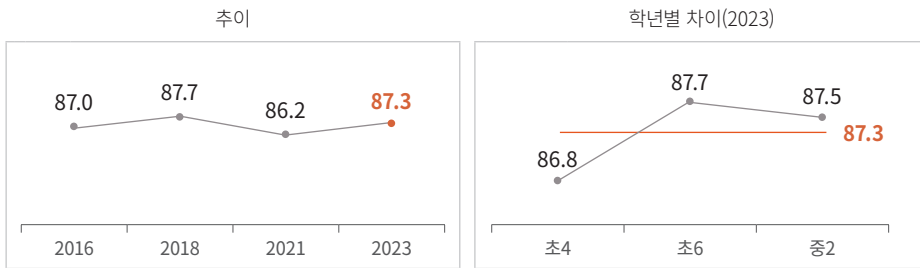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중 2.1%가 지난 1년 동안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6년 2.8%, '18년 3.5%, '21년 2.4%, '23년 2.1%로 '18년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21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5%, 초등 6학년은 2.4%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등 2학년은 1.5%로 나타나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목격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0.3%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아동학대 신고인식_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학대 신고 후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 예상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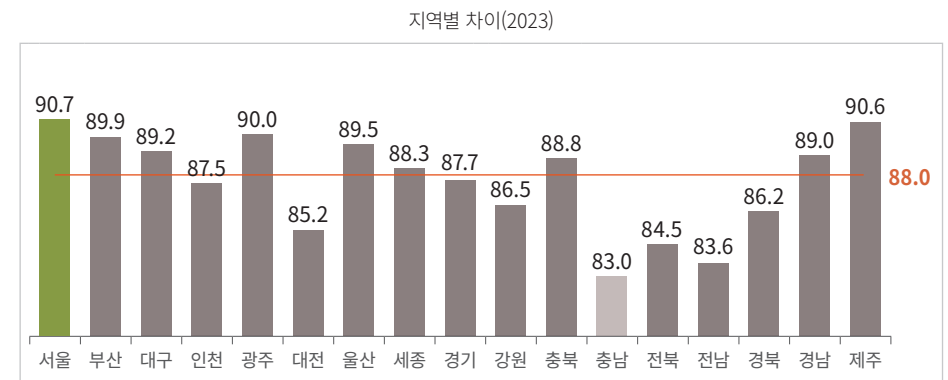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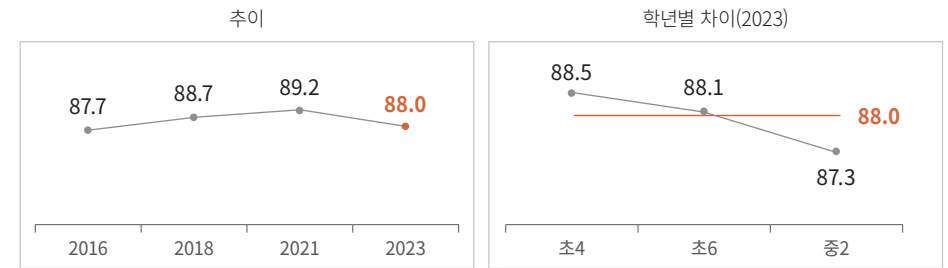


[그림 III-33] 아동학대 신고인식_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아동학대 신고 후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16년 87.0%, '18년 87.7%, '21년 86.2%, '23년 87.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86.8%,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는 87.7%,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87.5%로,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가 가장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92.3%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82.6%로 가장 낮았다.

아동학대 신고인식_학대감소 효과 기대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에 대한 학대감소 효과 기대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그림 III-34] 아동학대 신고인식_학대감소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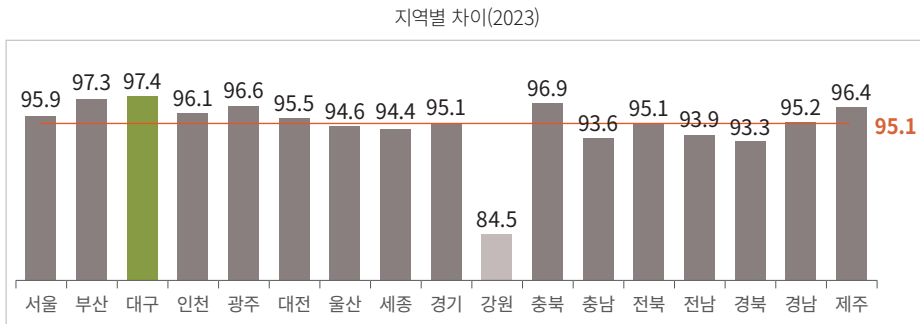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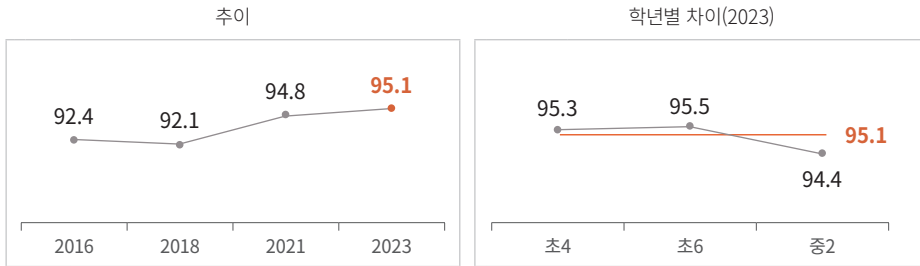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16년 87.7%, '18년 88.7%, '21년 89.2%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3년 88.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8.5%, 6학년은 88.1%, 중등 2학년은 87.3%로,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학대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0.7%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83.0%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고집거나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행동을 학대로 인식하는지 여부 (2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③으로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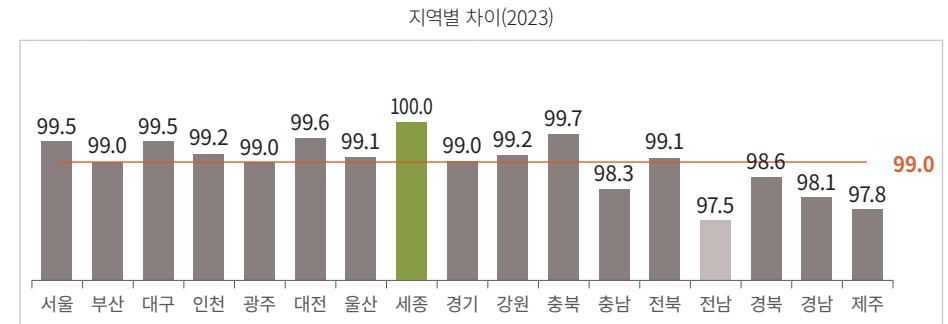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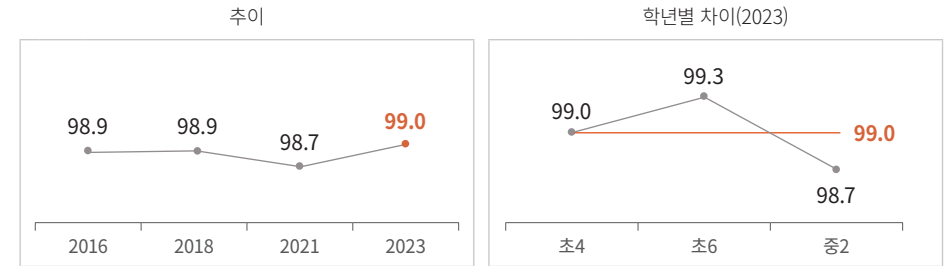


[그림 III-35]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고집기,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16년 92.4%, '18년 92.1%, '21년 94.8%, '23년 95.1%로 가벼운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95.3%, 6학년은 95.5%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등 2학년은 94.4%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보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가벼운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97.4%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84.5%)으로 전국 평균(95.1%)보다 10.6%p 낮게 나타났다.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아이를 때리는 행동을 학대로 인식하는지 여부 (3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③으로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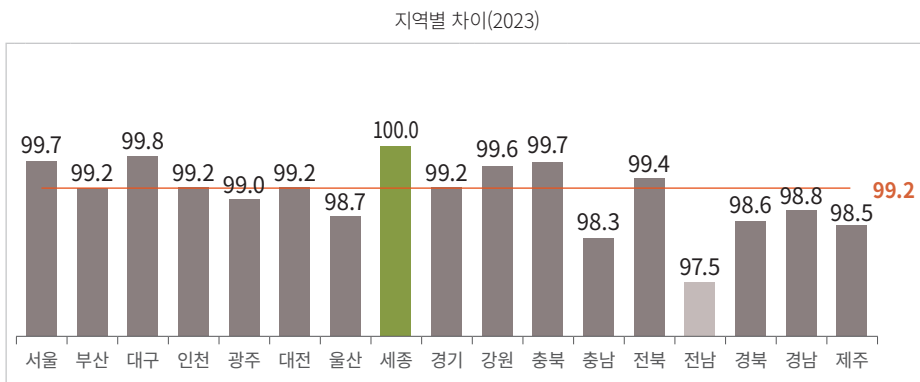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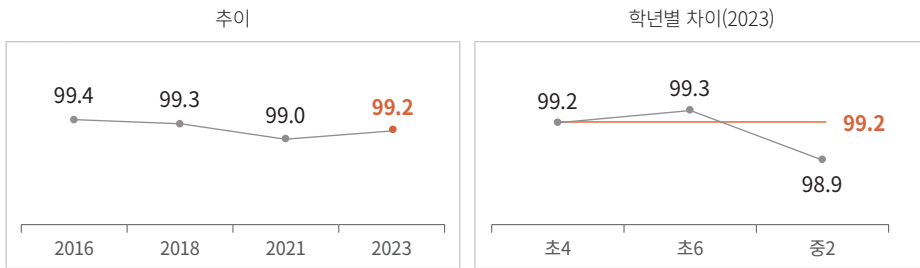


[그림 III-36]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는 것',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등의 행위를 신체학대로 인식하는 정도는 '16년과 '18년은 98.9%였고, '21년과 '23년은 각각 98.7%와 99.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6학년 99.3% 초등 4학년 99.0%, 중등 2학년 98.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상대적으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가벼운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97.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두들겨 패는 등의 행동을 학대로 인식하는지 여부 (2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③으로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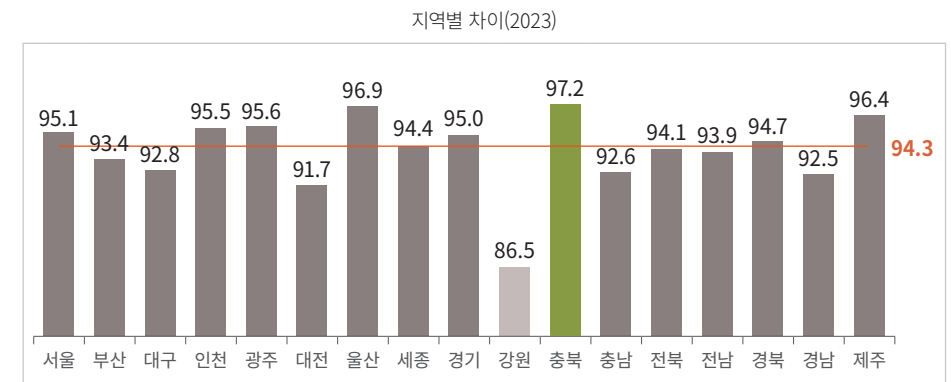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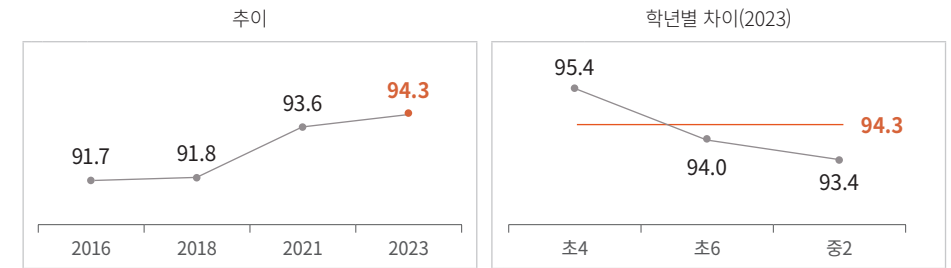


[그림 III-37]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것’, ‘두들겨 패는 것’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16년 99.4%, ‘18년 99.3%, ‘21년 99.0% ‘23년 99.2%로 심각한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0.5% 범위 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99.2%, 초등 6학년은 99.3%, 중등 2학년 98.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97.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서학대 인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는 것을 학대로 인식하는지 여부 (5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③으로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그림 III-38] 정서학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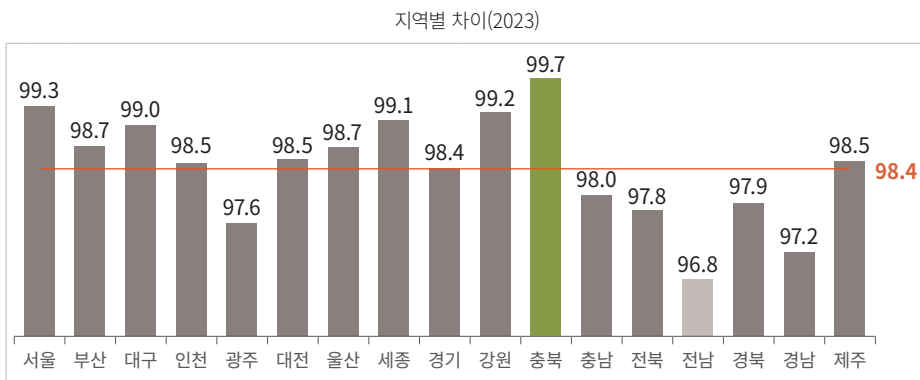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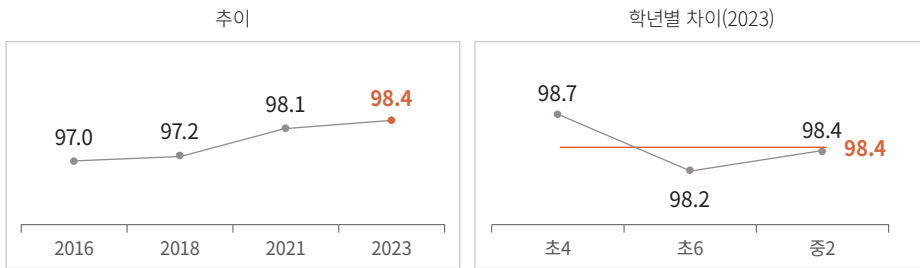
‘아이를 말로 위협하거나 바보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등의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16년 91.7%, ‘18년 91.8%, ‘21년 93.6%, ‘23년 94.3%로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이 ‘21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95.4%, 6학년은 94.0%, 중등 2학년은 93.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97.2%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86.5%)으로 전국 평균(94.3%)보다 7.8%p 낮게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방임 인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등을 방임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여부 (4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③으로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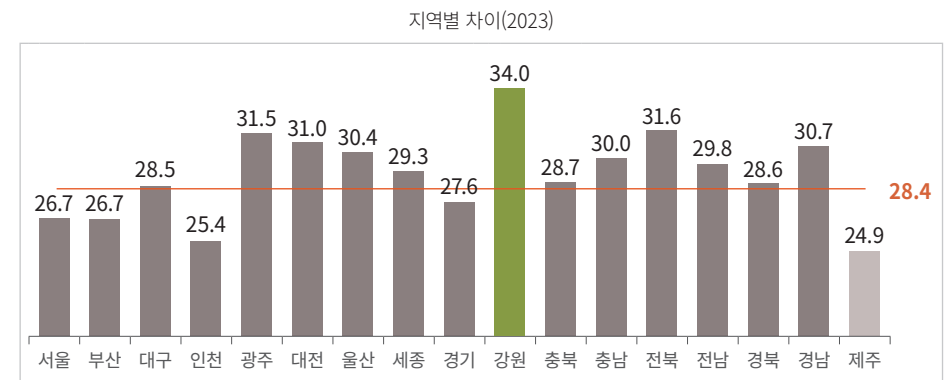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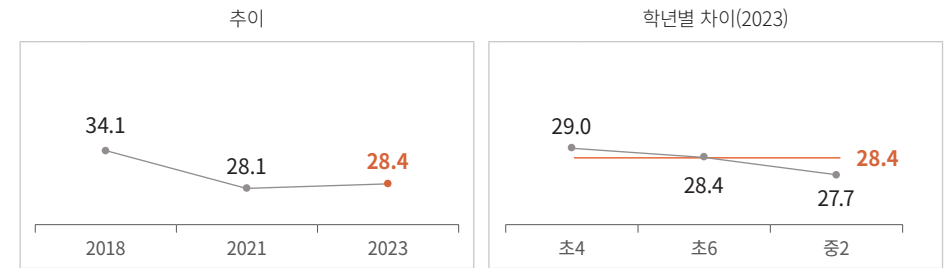


[그림 III-39] 방임 인식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상황' 등의 행위를 방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6년 97.0%', '18년 97.2%', '21년 98.1%', '23년 98.4%'로 방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98.7%,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는 98.2%,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98.4%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99.7%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96.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체벌인식_체벌의 효과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 (1문항)
- 척도 5점 척도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적이다, ⑤ 매우 효과적이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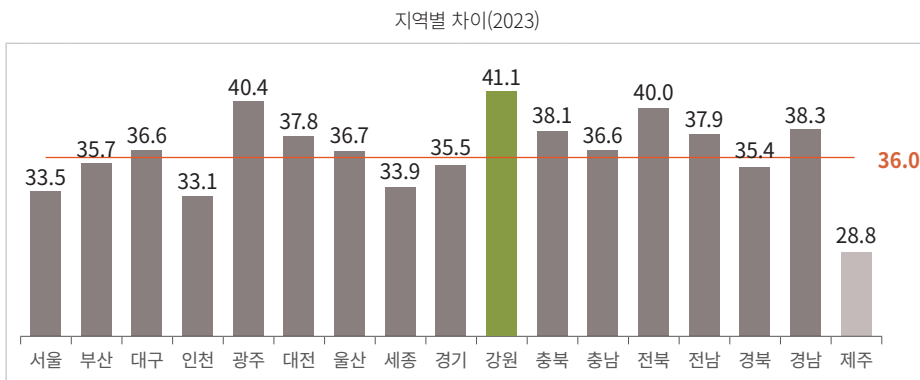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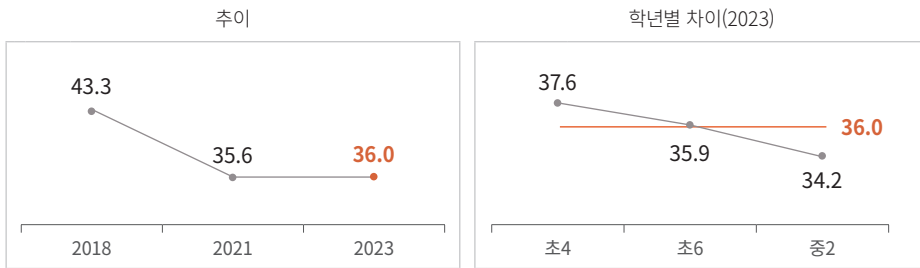


[그림 III-40] 체벌인식_체벌의 효과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18년 34.1점', '21년 28.1점', '23년 28.4점'으로 '21년에 낮아지다가 '23년에는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29.0점, 6학년 부모(보호자)는 28.4점,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27.7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가 인식하는 체벌의 효과성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24.9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체별인식_체벌의 필요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체벌에 대한 필요성 인지 정도 (1문항)
- 척도 5점 척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꼭 필요하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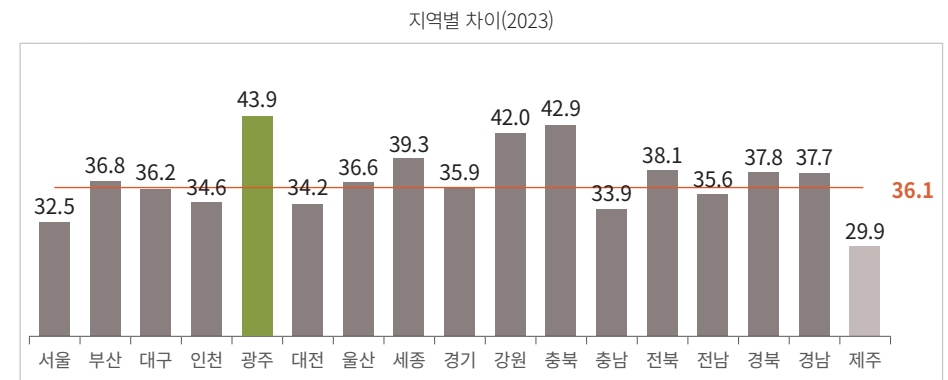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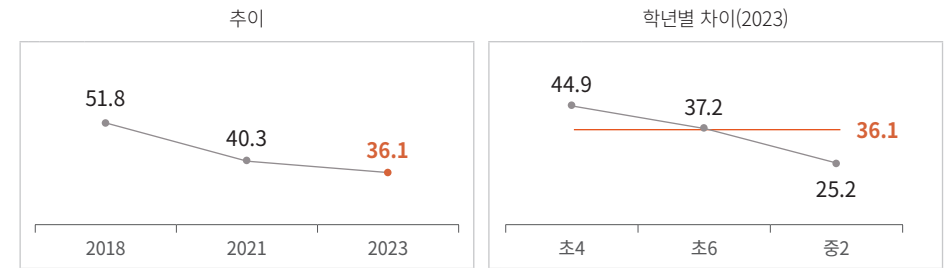


[그림 III-41] 체별인식_체벌의 필요성

부모(보호자)가 인식하는 체벌의 필요성 정도는 '18년 43.3점, '21년 35.6점, '23년 36.0점으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21년에 낮아지다 '23년에는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37.6점, 6학년은 35.9점, 중등 2학년은 34.2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체벌의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28.8점으로 가장 낮았다.

체별인식_체벌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자녀에게 체벌을 한 경험 (1문항)
- 척도 5점 척도 (① 전혀 없었다, ② 일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2~3개월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 측정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자녀에게 체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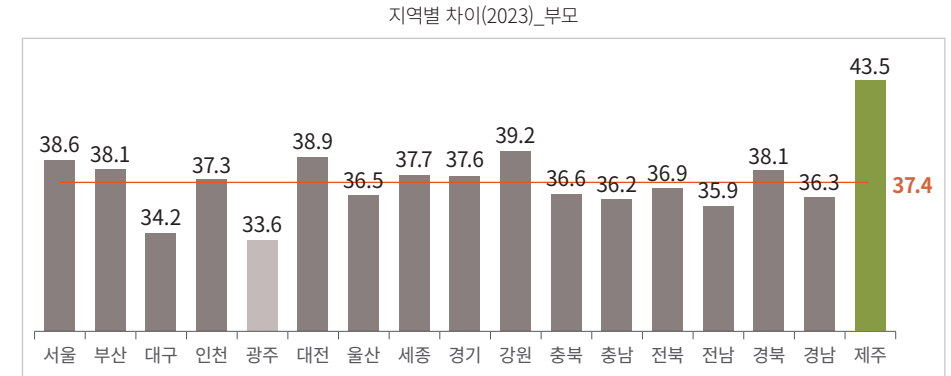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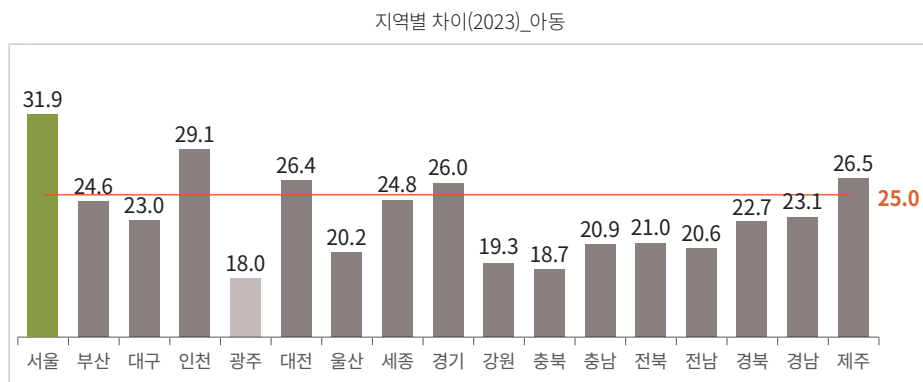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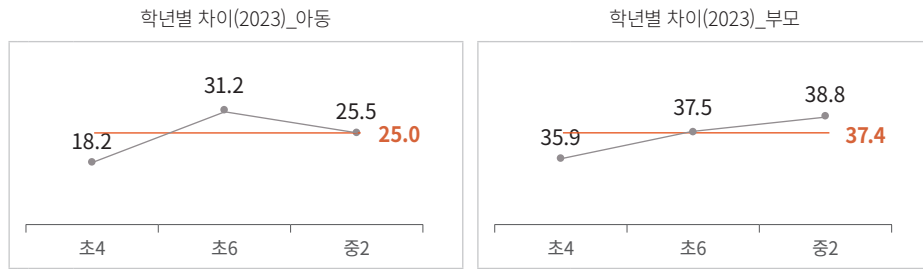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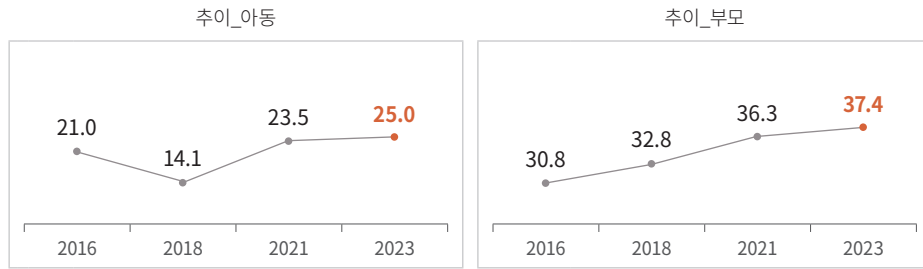


[그림 III-42] 체별인식_체벌경험

부모(보호자)의 체벌 경험은 '18년 51.8%에서 '21년 40.3%, '23년 36.1%로 점차 감소하였다. 5년의 기간 동안 부모(보호자)의 체벌 경험은 1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44.9%, 6학년은 37.2%, 중등 2학년은 25.2%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체벌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43.9%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29.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부모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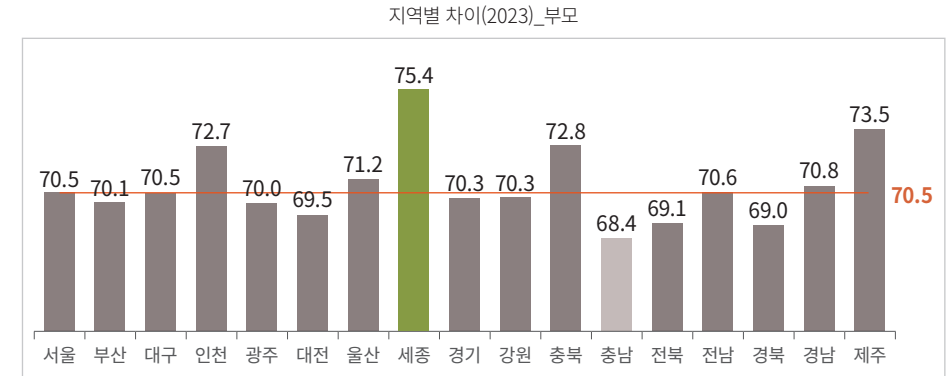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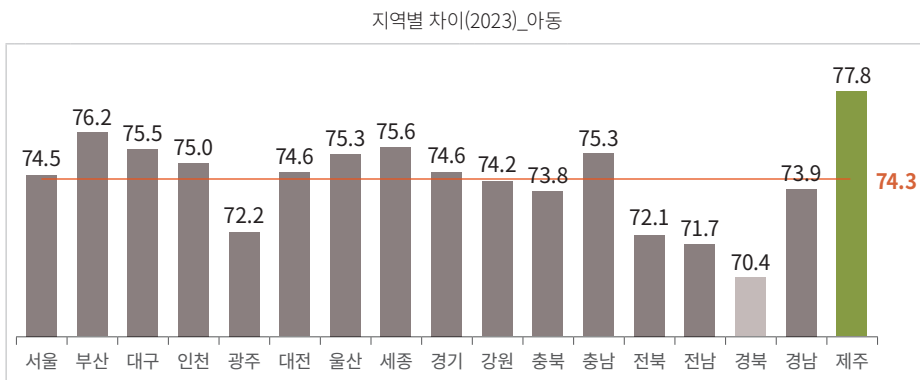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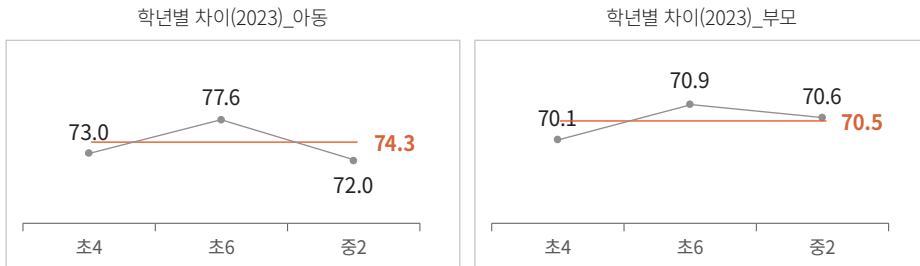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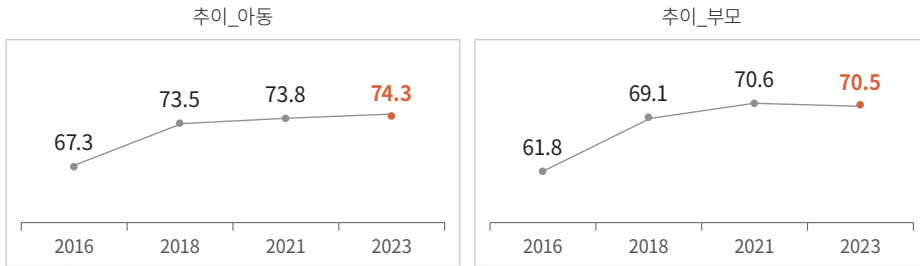
[그림 III-43]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아동의 협약 인지 정도는 '16년 21.0 점, '18년 14.1점, '21년 23.5점, '23년 25.0점으로 나타났다. '18년에 감소하였다가 '21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부모(보호자)의 협약 인지 정도는 '16년 30.8점, '18년 32.8점, '21년 36.3점, '23년 37.4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아동에 비해 인지 정도가 높았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초등 4학년은 18.2점, 초등 6학년은 31.2점, 중등 2학년은 25.5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보호자)는 초등 4학년은 35.9점, 초등 6학년은 37.5 점, 중등 2학년은 38.8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의 협약 인지 정도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아동의 경우 서울이 31.9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18.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부모(보호자) 응답자는 제주가 43.5 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3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동권리 인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부모가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 (3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권리 인식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44]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 인식 정도는 아동의 경우 '16년 67.3점, '18년 73.5점, '21년 73.8점, '23년 74.3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보호자) 또한 '16년 61.8점, '18년 69.1점, '21년 70.6점, '23년 70.5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23년 0.1점 감소하였다.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아동권리 인식 정도는 부모(보호자)에 비해 아동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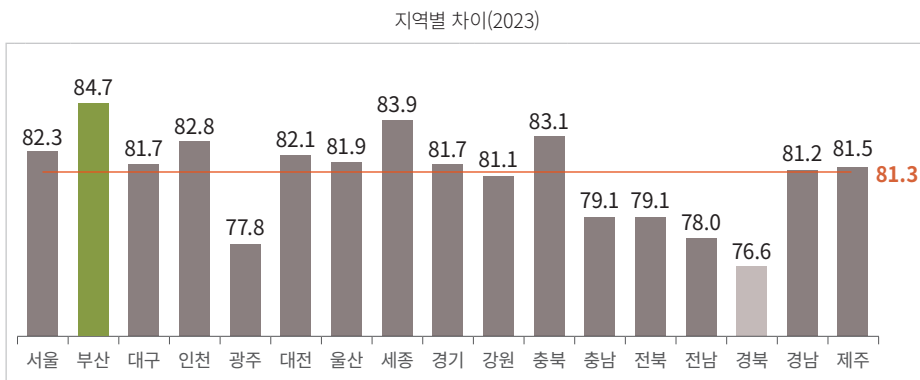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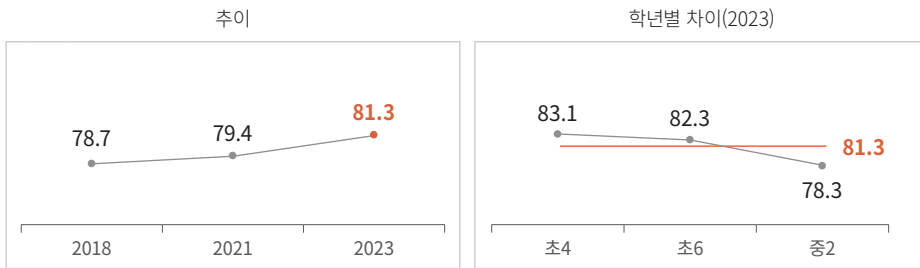
학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초등 4학년은 73.0점, 초등 6학년은 77.6점, 중등 2학년은 72.0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보호자)는 초등 4학년은 70.1점, 초등 6학년은 70.9점, 중등 2학년은 70.6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은 아동의 경우 제주가 77.8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0.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부모(보호자)의 경우 세종이 7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68.4점으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아동권리 존중 정도_가정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의 권리가 가정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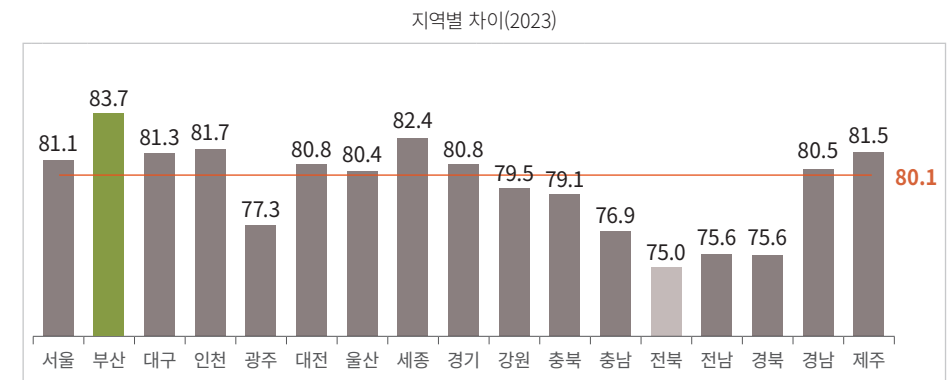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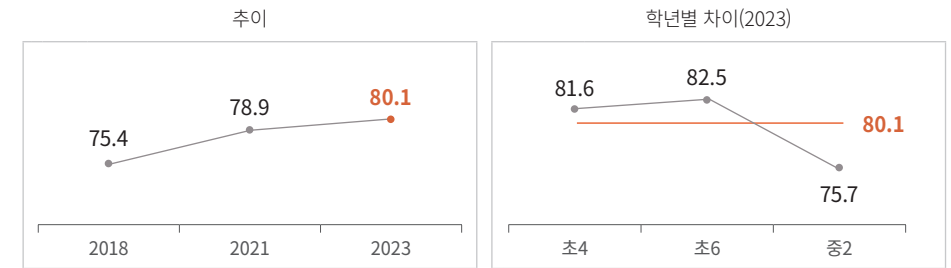


[그림 III-45] 아동권리 존중 정도_가정

가정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정도는 '18년 78.7점, '21년 79.4점, '23년 81.3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3.1점, 6학년은 82.3점, 중등 2학년은 78.3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정 내 아동권리 존중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84.7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6.6점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권리 존중 정도_학교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의 권리가 학교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내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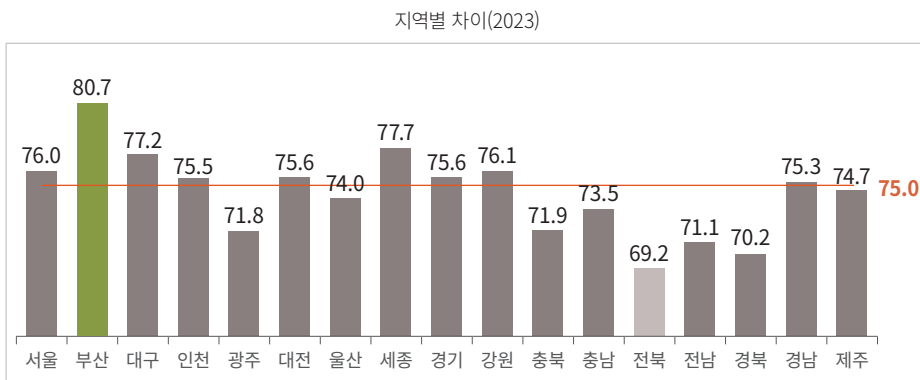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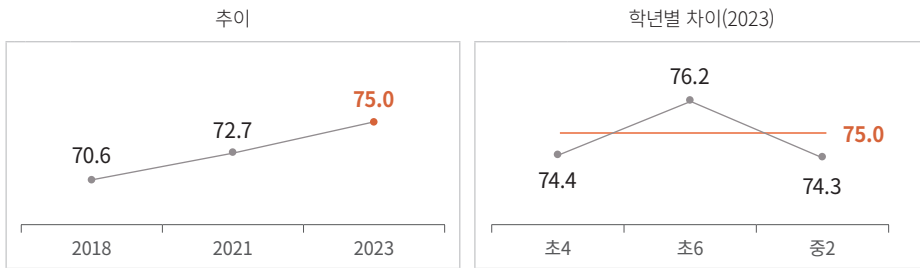


[그림 III-46] 아동권리 존중 정도_학교

학교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정도는 '18년 75.4점, '21년 78.9점, '23년 80.1점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1.6점, 6학년은 82.5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학교 2학년은 75.7점으로 학교에서의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8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7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동권리 존중 정도_동네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의 권리가 동네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 안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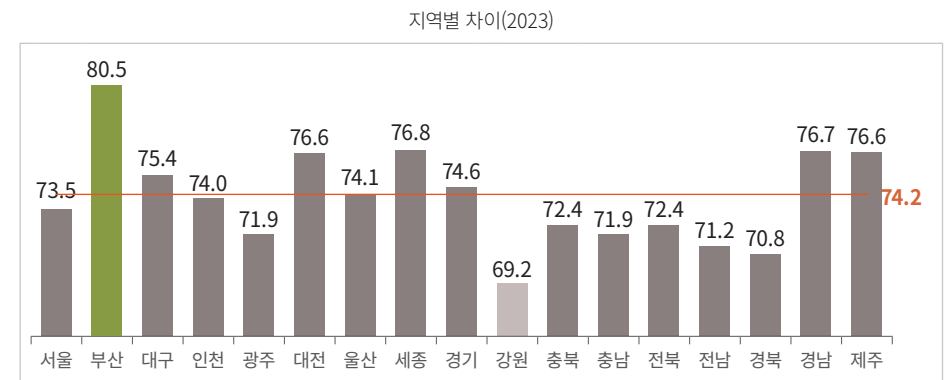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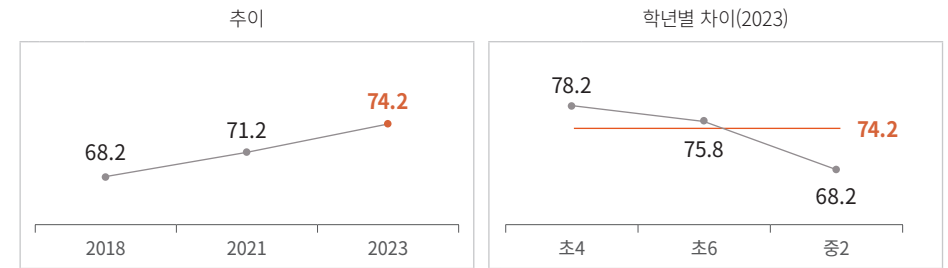


[그림 III-47] 아동권리 존중 정도_동네

동네(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정도는 '18년 70.6점, '21년 72.7점, '23년 75.0점으로 동네의 아동권리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이 7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 4학년은 74.4점, 중등 2학년은 74.3점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8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9.2점으로 '21년 조사에 이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존중 정도_우리나라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의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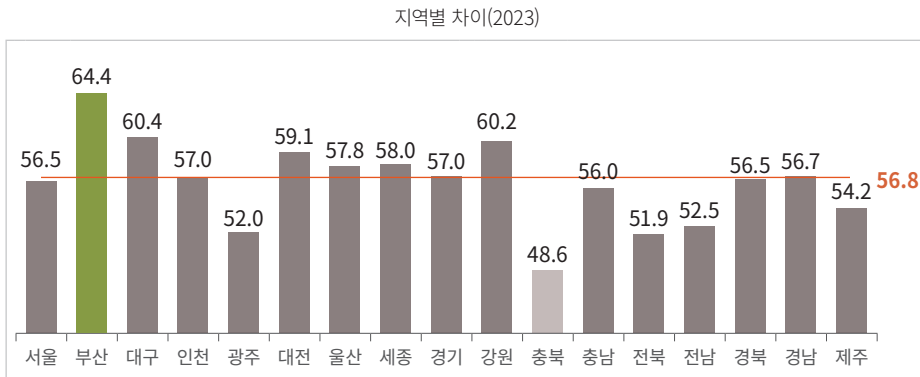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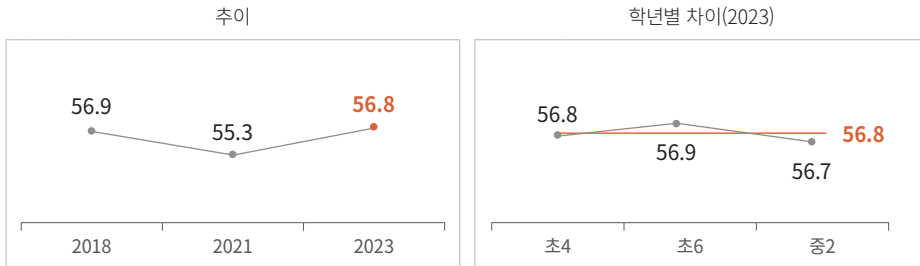


[그림 III-48] 아동권리 존중 정도_우리나라

아동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정도는 '18년 68.2점, '21년 71.2점, '23년 74.2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8.2점, 6학년은 75.8점, 중등 2학년은 68.2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8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69.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두 지역간의 차이가 11.3%p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에 대한 지역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존중 정도_사이버공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의 권리가 사이버공간 안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공간 속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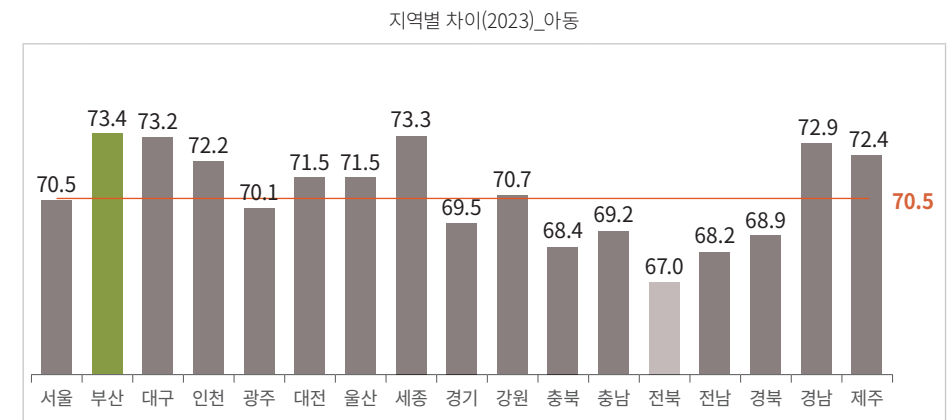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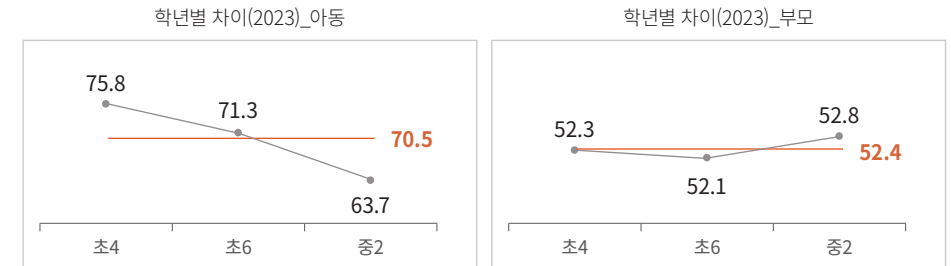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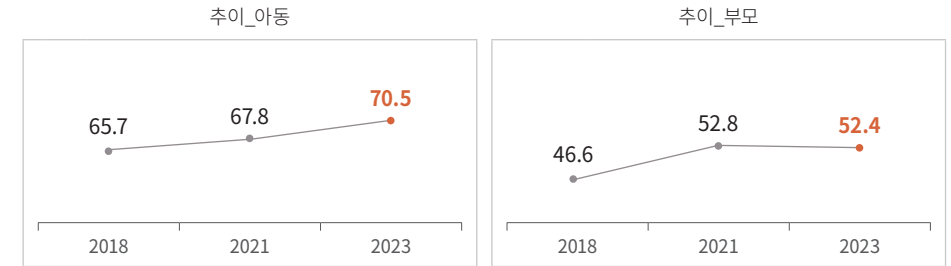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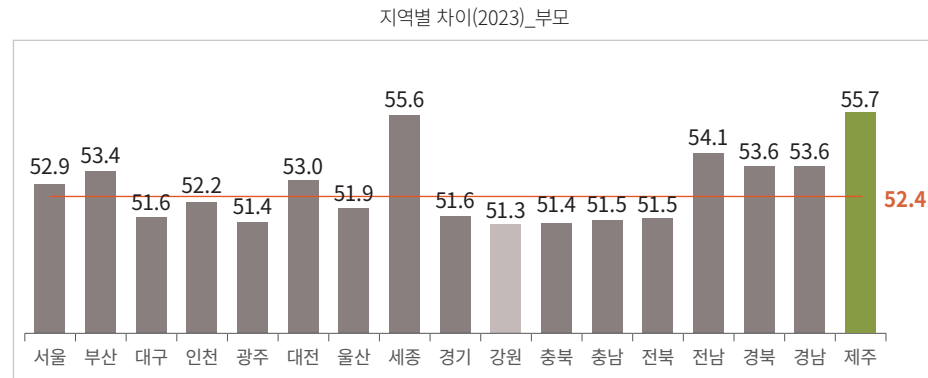
[그림 III-49] 아동권리 존중 정도_사이버공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 '18년 56.9점, '21년 55.3점, '23년 56.8점으로 사이버공간의 아동권리 수준이 '21년 다소 낮아지다 '23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56.8점, 6학년은 56.9점, 중등 2학년은 56.7점으로 학년별 차이는 매우 낮아 비슷한 수준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6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48.6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정도 (10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50]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동은 '18년 65.7점, '21년 67.8점, '23년 70.5점으로 다소 높아졌으며, 부모(보호자)는 '18년 46.4점, '21년 52.8점, '23년 52.4점으로 아동과 달리 '23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부모(보호자)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초등 4학년은 75.8점, 6학년은 71.3점, 중등 2학년은 63.7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졌으며, 부모(보호자)의 경우에는 초등 4학년은 52.3점, 6학년은 52.1점, 중등 2학년 52.8점으로 아동과 다르게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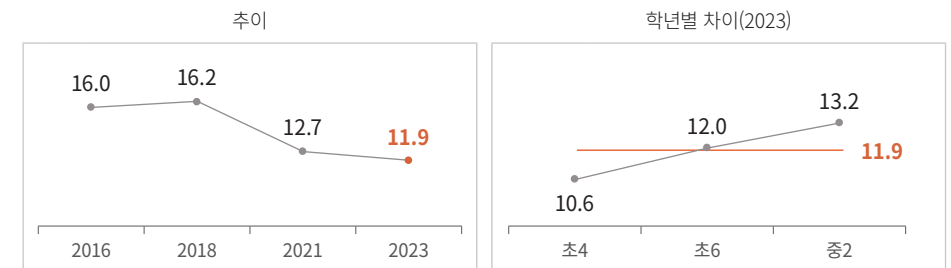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부산이 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7.0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제주가 5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51.3점으로 가장 낮았다.

2) 권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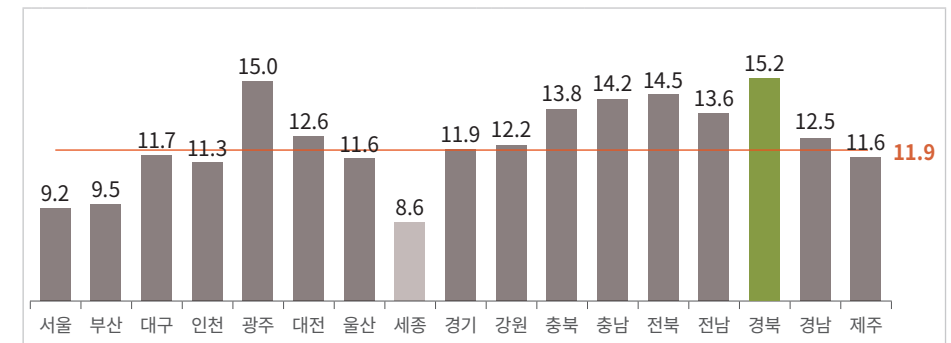
(1) 생존권 경험

식품 미보장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자녀에게 양질의 식단을 충분히 제공한 정도 (3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식품미보장 정도가 높음 (단위: 점)



지역별 차이(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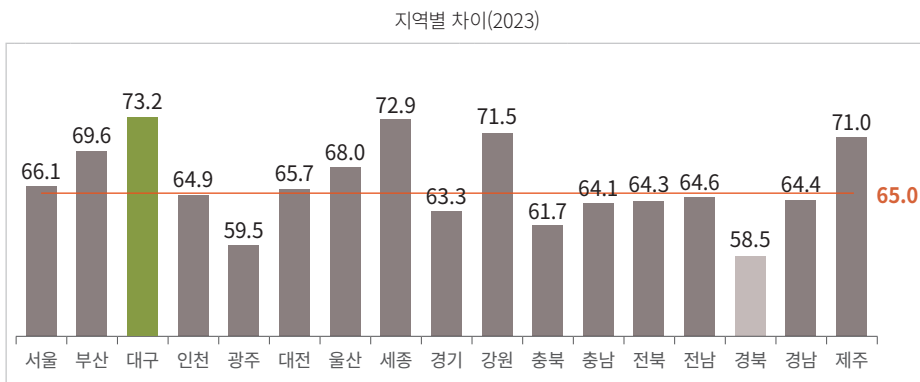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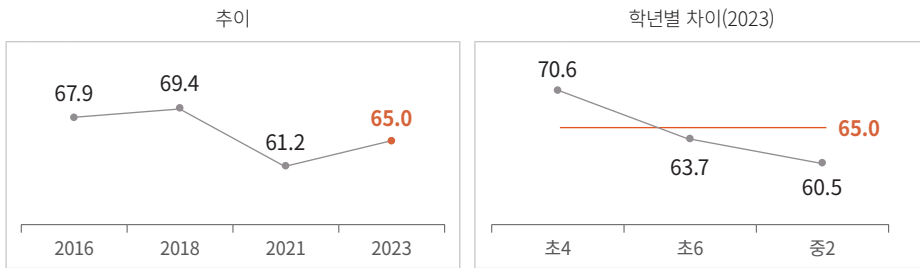


[그림 III-51] 식품 미보장

부모(보호자)의 식품 미보장 정도는 '16년 16.0점, '18년 16.2점, '21년 12.7점, '23년 11.9점으로 '21년에 이어 '23년에도 식품 미보장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0.6점, 6학년은 12.0점, 중등 2학년은 13.2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식품 미보장 정도도 높았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8.6점으로 식품 미보장 정도가 가장 낮았다.

규칙적인 식사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평소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아동의 비율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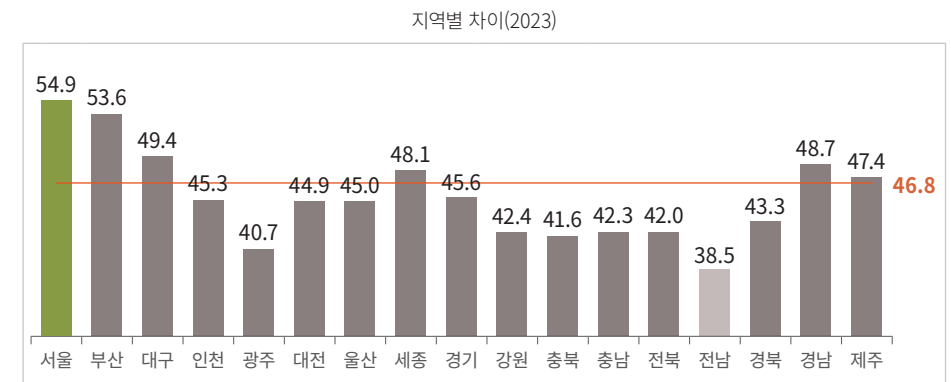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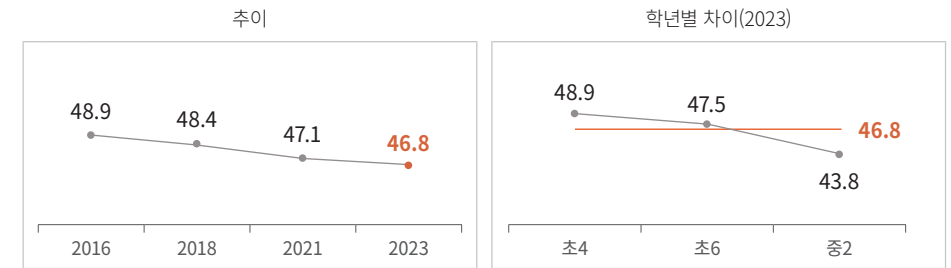


[그림 III-52] 규칙적인 식사

아동의 규칙적인 식사 비율은 '16년 67.9%, '18년 69.4%, '21년 61.2%로 '18년 이후 그 비율이 8.2%p 감소하였으나, '23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 보면, 초등 4학년의 70.6%, 6학년의 63.7%, 중등 2학년의 60.5%가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7개 시·도별로는 대구가 7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북이 58.5%로 가장 낮았다.

신선한 채소 섭취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평소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1주일에 5일 이상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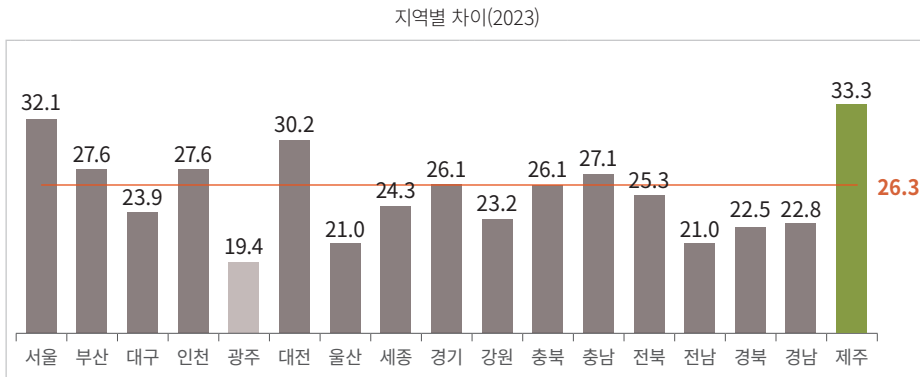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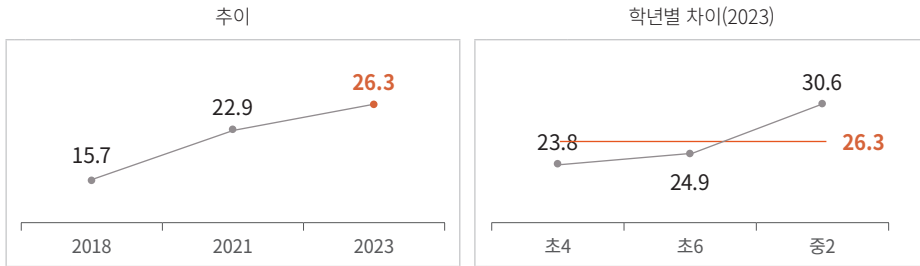


[그림 III-53] 신선한 채소 섭취

신선한 채소 섭취 비율을 살펴보면 '16년 48.9%, '18년 48.4%, '21년 47.1%, '23년 46.8%로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의 48.9%, 6학년의 47.5%, 중등 2학년의 43.8%가 1주일에 5일 이상 신선한 채소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섭취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남이 38.5%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육류섭취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평소 육류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1주일에 5일 이상 육류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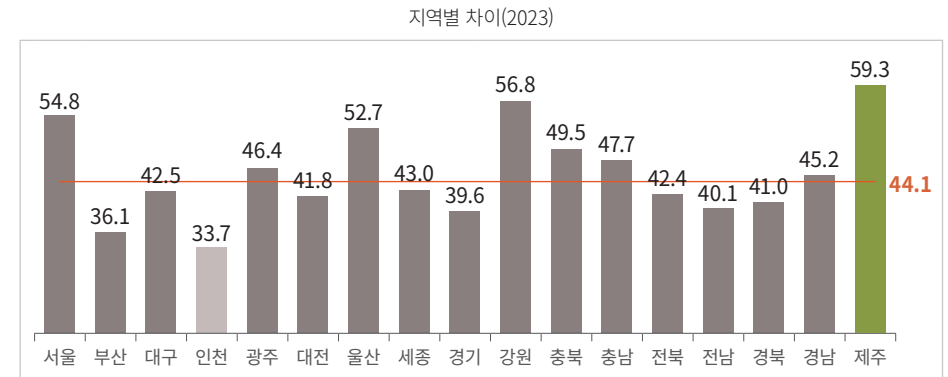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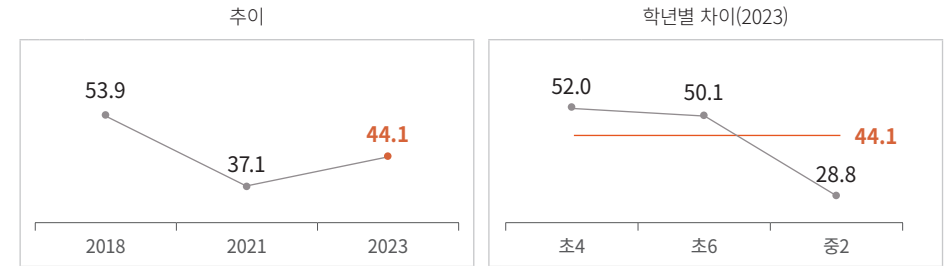


[그림 III-54] 육류섭취

아동의 연도별 육류섭취 비율은 '18년 15.7%에서 '21년 22.9%, '23년 26.3%로 '18년 대비 10.6%p, '21년 대비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23.8%, 6학년의 24.9%, 중등 2학년의 30.6%가 1주일에 5일 이상 육류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여,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섭취 비율도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가 1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유섭취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평소 우유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1주일에 5일 이상 우유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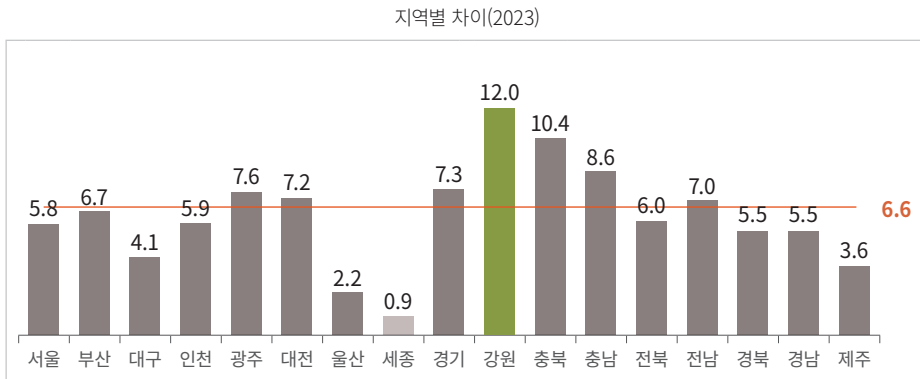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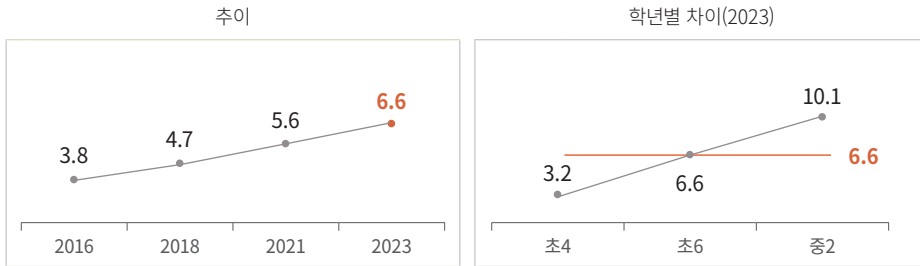


[그림 III-55] 우유섭취

우유섭취 비율을 살펴보면 '18년 53.9%에서 '21년 37.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3년 44.1%로 전차 대비 7.0%p 증가하며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52.0%, 6학년은 50.1%, 중등 2학년은 28.8%로 중학년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우유섭취 비율이 매우 낮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59.3%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두 지역 간 아동의 우유섭취 비율의 차이가 25.6%p로 거주지역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평소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을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1주일에 5일 이상 인스턴트 및 편의점 식품을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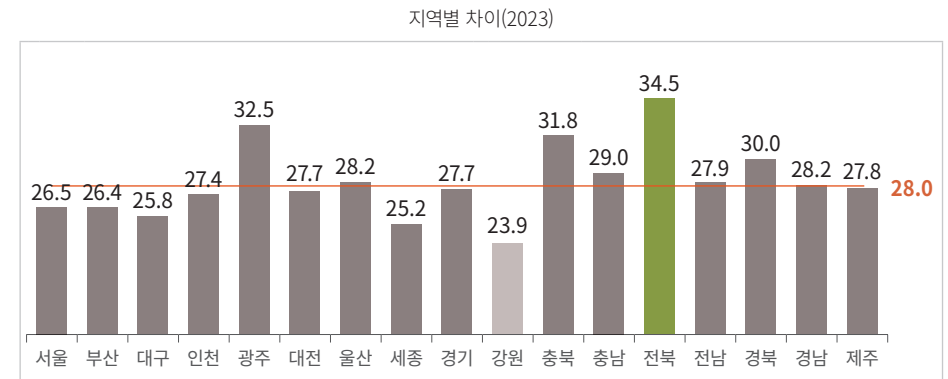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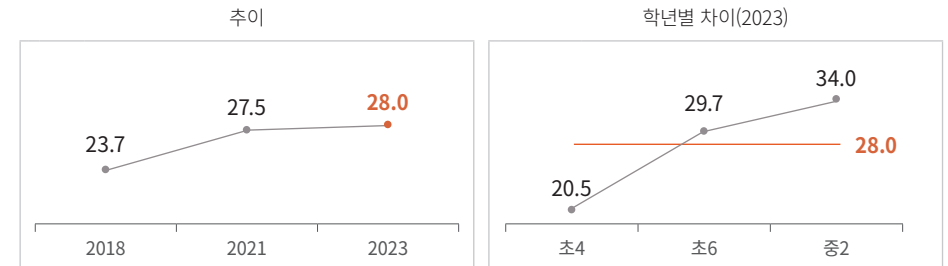


[그림 III-56]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아동의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비율은 '16년 3.8%, '18년 4.7%, '21년 5.6%, '23년 6.6%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3.2%, 6학년은 6.6%, 중등 2학년은 10.1%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12.0%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0.9%로 가장 낮았다.

아침식사 결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평소 아침식사를 먹지 못한 아동의 비율 (1문항)
- 척도 5점 척도 (① 항상 먹지 못했음, ② 거의 대부분 먹지 못했음, ③ 못 먹을 때가 종종 있었음, ④ 거의 대부분 먹었음, ⑤ 매일 먹었음)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침식사 결식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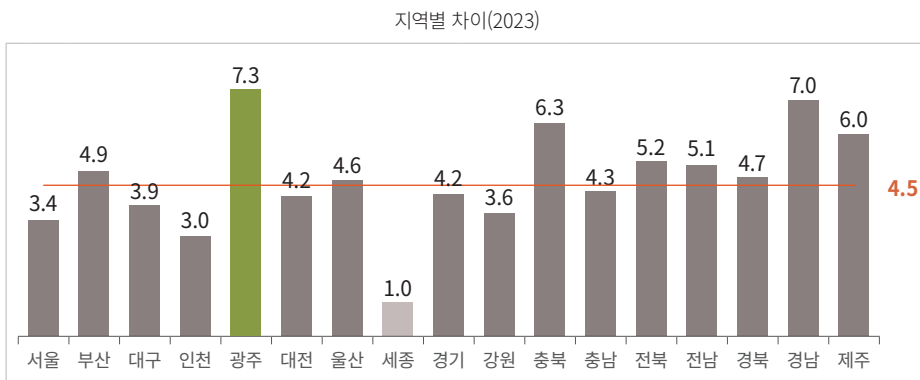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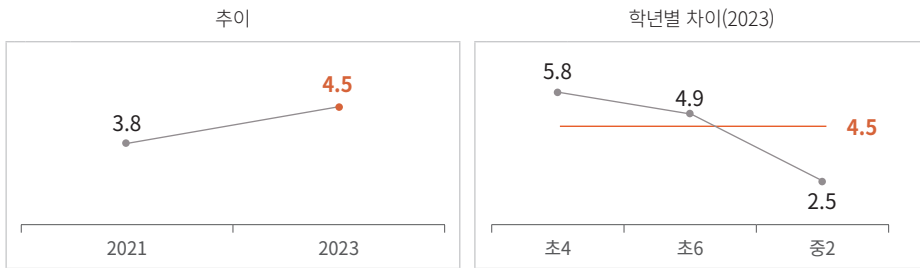


[그림 III-57] 아침식사 결식

지난 1달 동안 아침식사를 먹지 못한 정도는 '18년 23.7점, '21년 27.5점, '23년 28.0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침식사 결식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0.5점, 6학년은 29.7점, 중등 2학년은 34.0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결식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23.9점으로 가장 낮았다.

결식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사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1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전혀 없었음, ② 1-2번 정도 있었음, ③ 3번 이상 있었음)
- 측정 지난 1달 동안 한 번이라도 결식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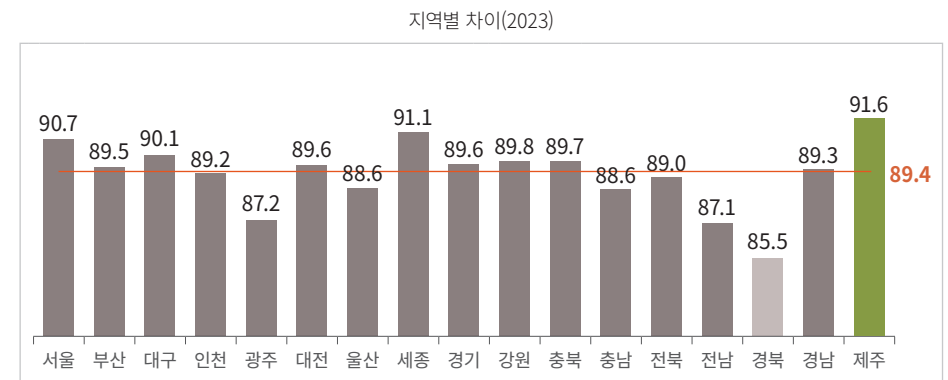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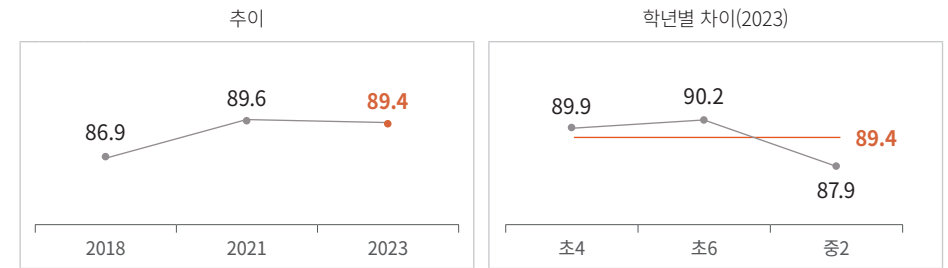


[그림 III-58] 결식 경험

지난 1달 동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21년 3.8%, '23년 4.5%로, 결식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5.8%, 6학년은 4.9%, 중등 2학년은 2.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사유로 결식을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7.3%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1.0%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깨끗한 물 이용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평소에 마시는 물의 깨끗한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깨끗한 물 이용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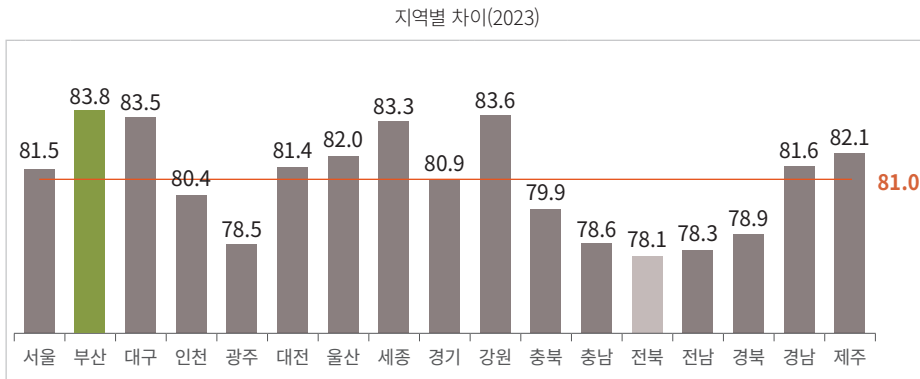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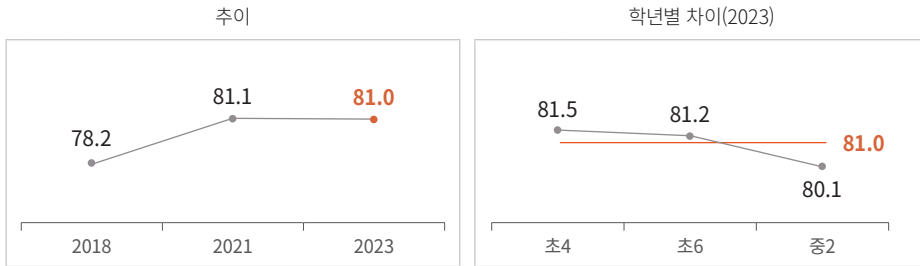


[그림 III-59] 깨끗한 물 이용

깨끗한 물 이용 정도는 '18년 86.9점에서 '21년 89.6점으로 깨끗한 물 이용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23년 89.4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이 89.9점, 6학년이 90.2점, 중등 2학년이 87.9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제주가 91.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85.5점으로 가장 낮았다.

깨끗한 화장실 이용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평소에 다니는 화장실의 깨끗한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깨끗한 화장실 이용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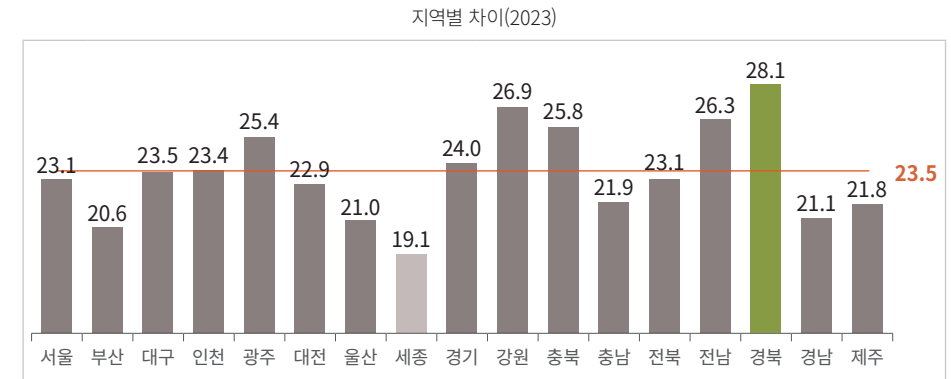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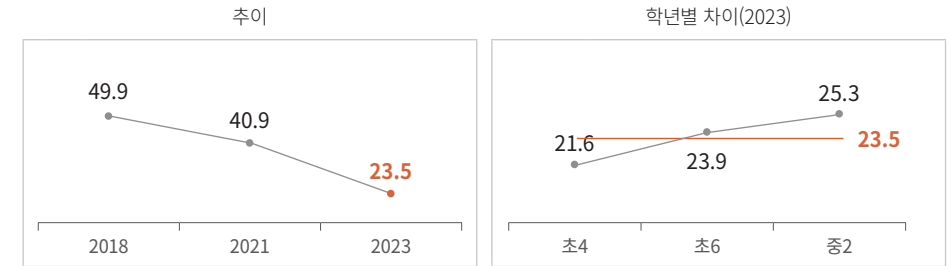


[그림 III-60] 깨끗한 화장실 이용

깨끗한 화장실 이용 정도는 '18년 78.2점에서 '21년 81.1점으로 깨끗한 화장실 이용 정도가 높아졌으나 '23년 81.0점으로 전차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1.5점, 초등 6학년 81.2점, 중등 2학년 80.1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부산이 8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78.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노출 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의 미세먼지 노출 정도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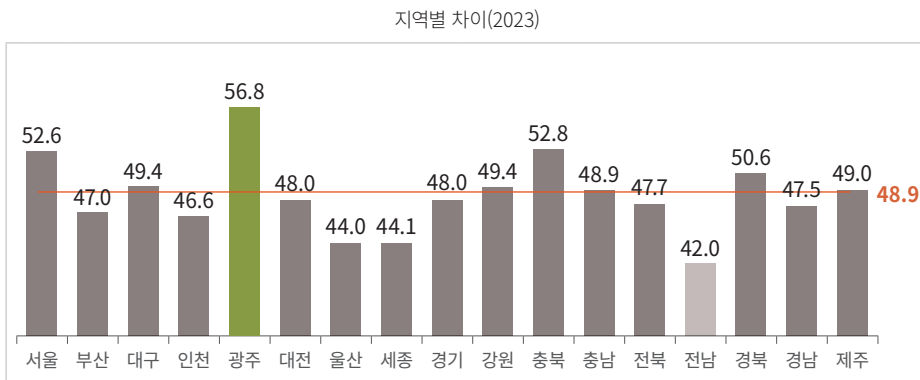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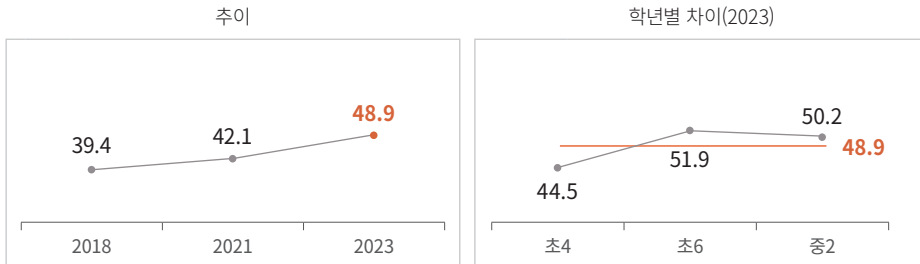


[그림 III-61] 미세먼지 노출 정도

미세먼지 노출 정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49.9점에서 '21년 40.9점, '23년 23.5점으로 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전차 대비 17.4%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이 21.6점, 6학년이 23.9점, 중등 2학년이 25.3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경북이 2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접흡연 노출 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의 간접흡연 노출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흡연노출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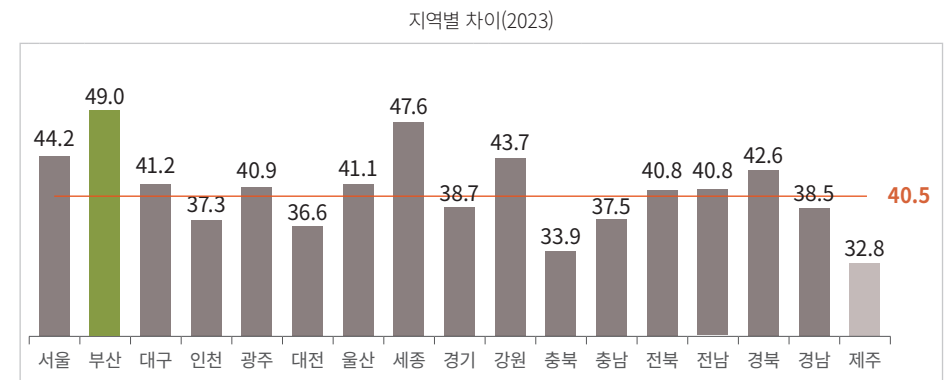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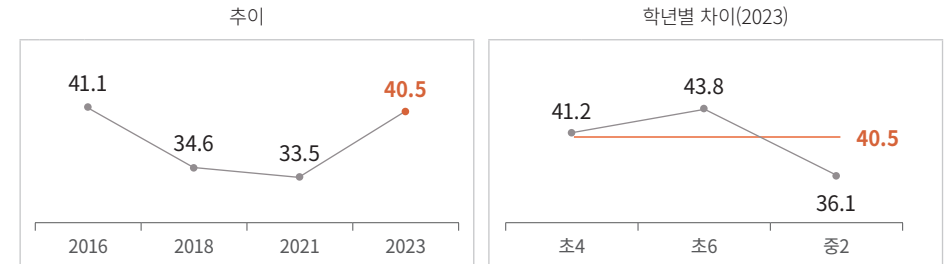


[그림 III-62] 간접흡연 노출 정도

간접흡연 노출 정도는 '18년 39.4점에서 '21년 42.1점, '23년 48.9점으로 간접흡연 노출 정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이 44.5점, 6학년이 51.9점, 중등 2학년이 50.2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을 비교하면 17개 시·도 중 광주가 56.8점으로 가장 높은 간접흡연 노출이 있었으며, 전남이 42.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벼운 신체활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평소 가벼운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하루 60분 이상의 가벼운 신체활동을 1주일에 3~4일 이상 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가벼운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이 많음 (단위: %)



[그림 III-63] 가벼운 신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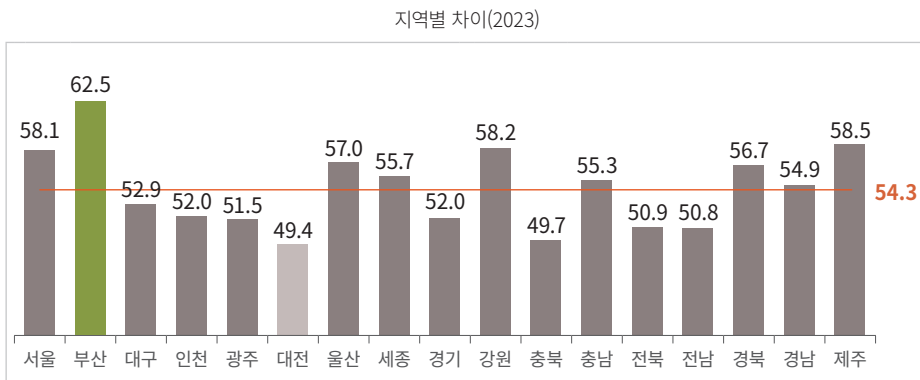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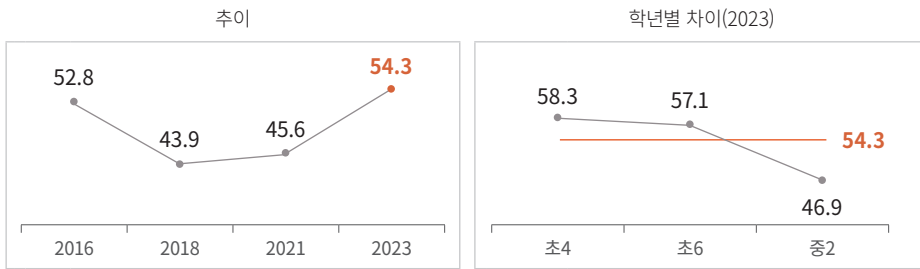
가벼운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날의 횟수가 3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아동 비율은 '16년 41.1%, '18년 34.6%, '21년 33.5%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3년 40.5%로 전차 대비 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41.2%, 초등 6학년은 43.8%, 중등 2학년은 36.1%로 중등 2학년의 경우 평균(40.5%)보다 가벼운 신체활동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32.8%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격렬한 신체활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평소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하루 20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1주일에 3~4일 이상 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이 많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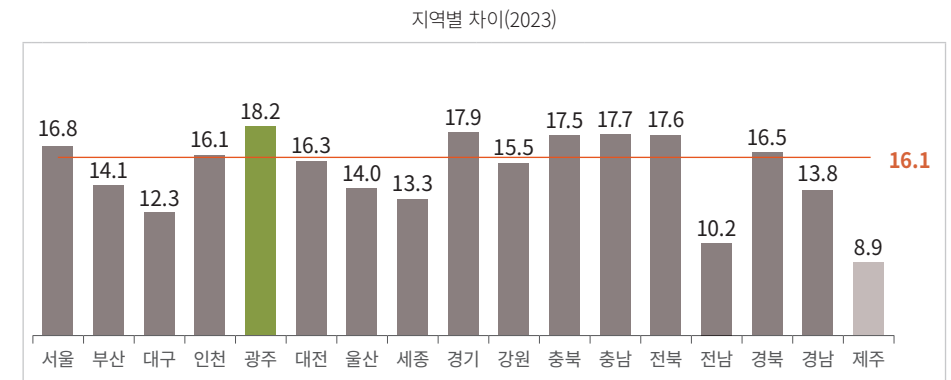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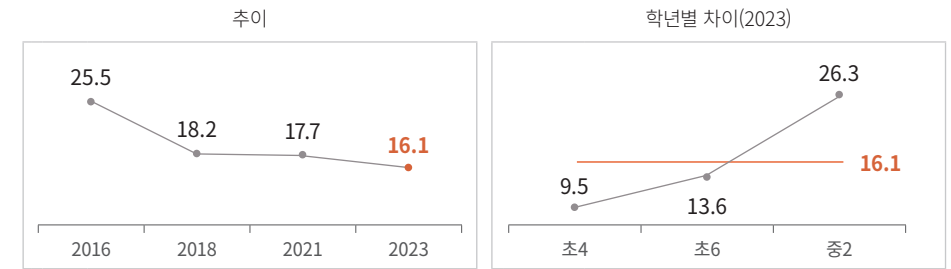


[그림 III-64] 격렬한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16년 52.8%, '18년 43.9%, '21년 45.6%, '23년 54.3%로 전차 대비 8.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58.3%, 초등 6학년은 57.1%, 중등 2학년은 46.9%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격렬한 신체활동 정도는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2.5%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4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면시간 부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의 수면시간 부족 정도 (1문항)
- 척도 5점 척도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 측정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65] 수면시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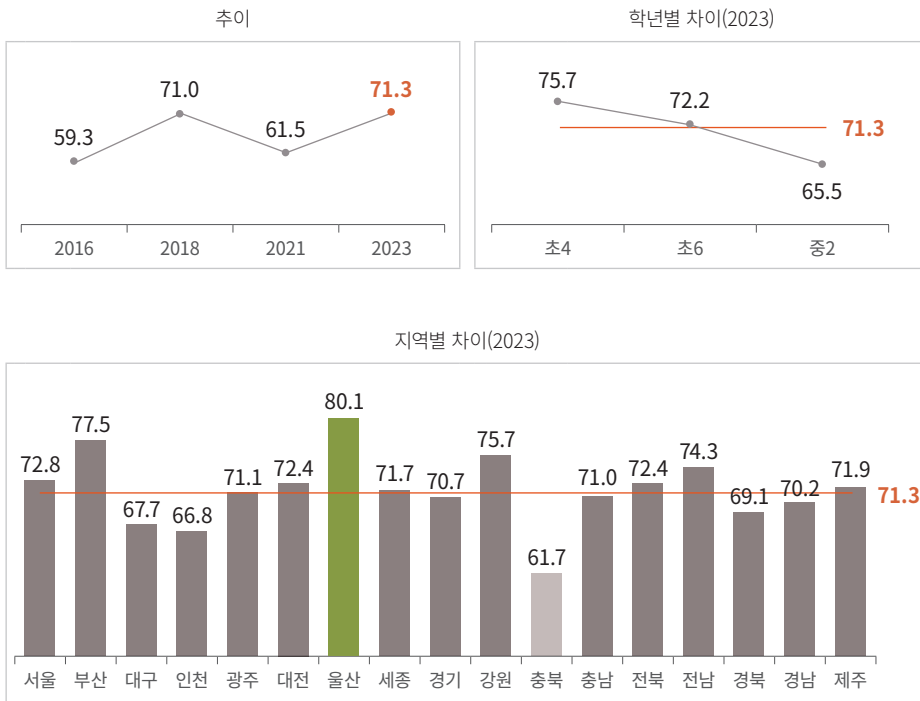
수면시간의 부족 정도는 '16년 25.5%, '18년 18.2%, '21년 17.7%, '23년 16.1%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9.5%, 6학년 13.6%, 중등 2학년은 26.3%로 초등 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아동의 수면시간 부족 비율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8.2%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8.9%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건강검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건강검진(치과검진 제외) 받아본 경험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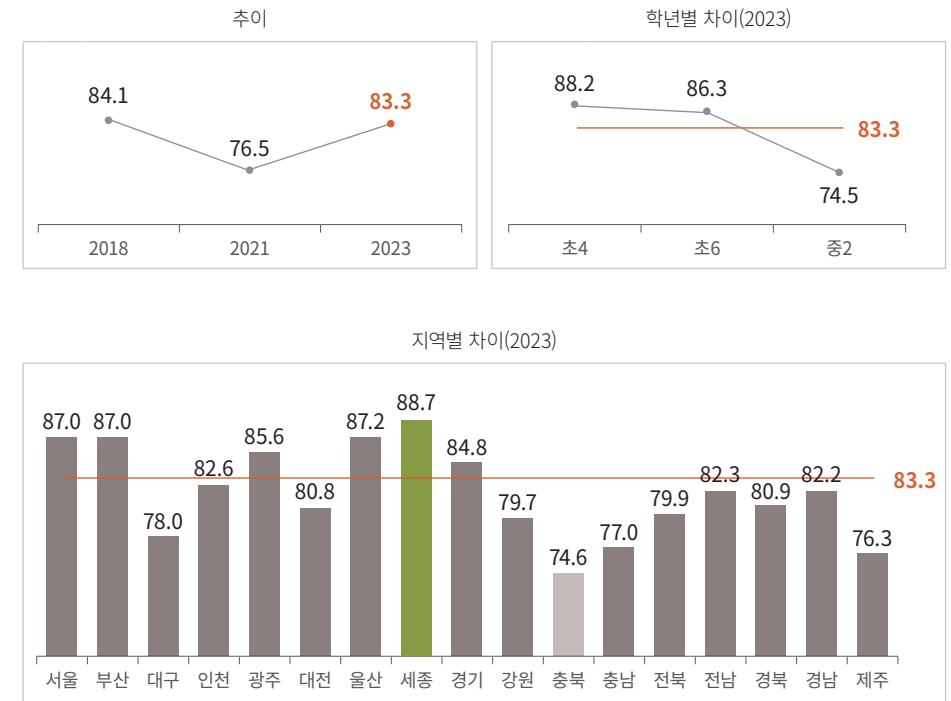


[그림 III-66] 건강검진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아동 비율은 '16년 59.3%, '18년 71.0%, '21년 61.5%, '23년 71.3%로 '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1년 다시 감소하였으나 '23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5.7%, 6학년 72.2%, 중등 2학년은 65.5%로 초등 4학년의 건강검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80.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충북이 61.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치과검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치과검진을 받아본 경험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67] 치과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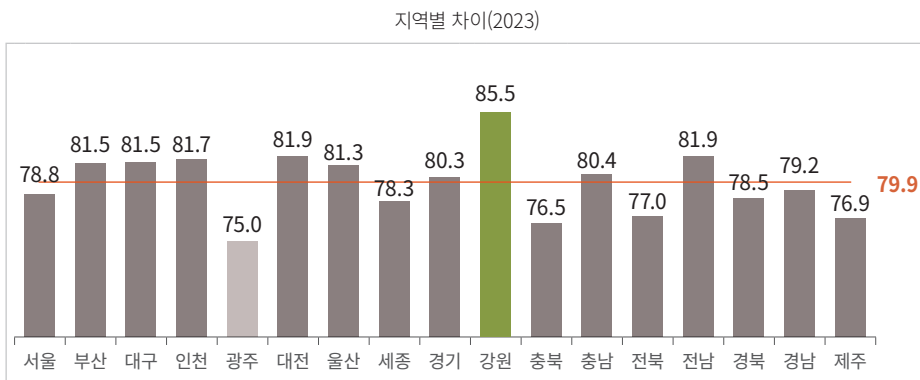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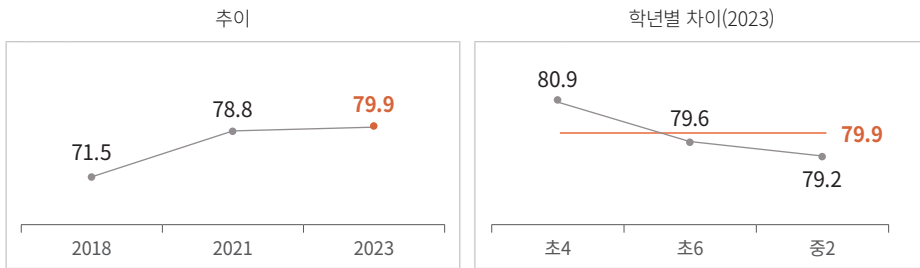
아동의 치과검진 비율은 '18년 84.1%, '21년 76.5%로 감소하였다가 '23년 83.3%로 증가하며 전차 대비 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8.2%, 6학년 86.3%, 중등 2학년은 74.5%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치과검진을 받아 본 아동 비율은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88.7%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74.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예방접종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경험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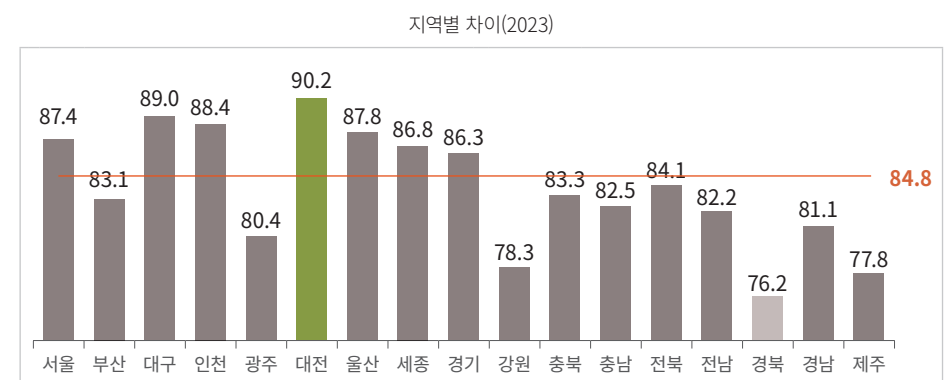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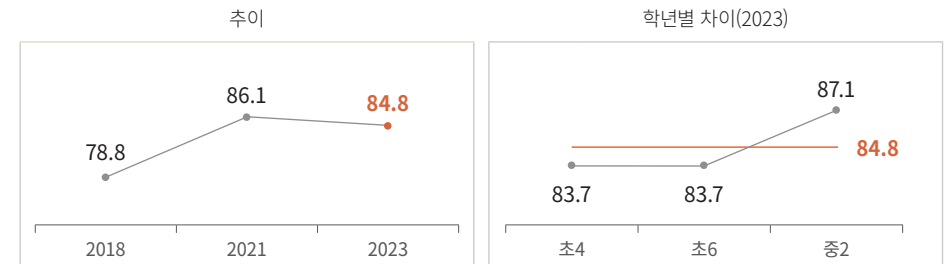


[그림 III-68] 예방접종

지난 1년간 예방접종을 1회 이상 경험한 아동 비율은 '18년 71.5%, '21년 78.8%, '23년 79.9%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0.9%, 6학년 79.6%, 중등 2학년은 79.2%로 중등 2학년의 예방접종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85.5%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75.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병원 및 약국 이용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몸이 아플 때 제약없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언제든지 이용, ② 가지 못할 때가 가끔 있음, ③ 가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음, ④ 전혀 갈 수 없었음)
- 측정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69] 병원 및 약국 이용

몸이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아동 비율은 '18년 78.8%, '21년 86.1%, '23년 84.3%로 전차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과 6학년은 83.7%로 동일하였고 중등 2학년은 87.1%로 병원이나 약국 이용에 제약이 가장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90.2%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6.2%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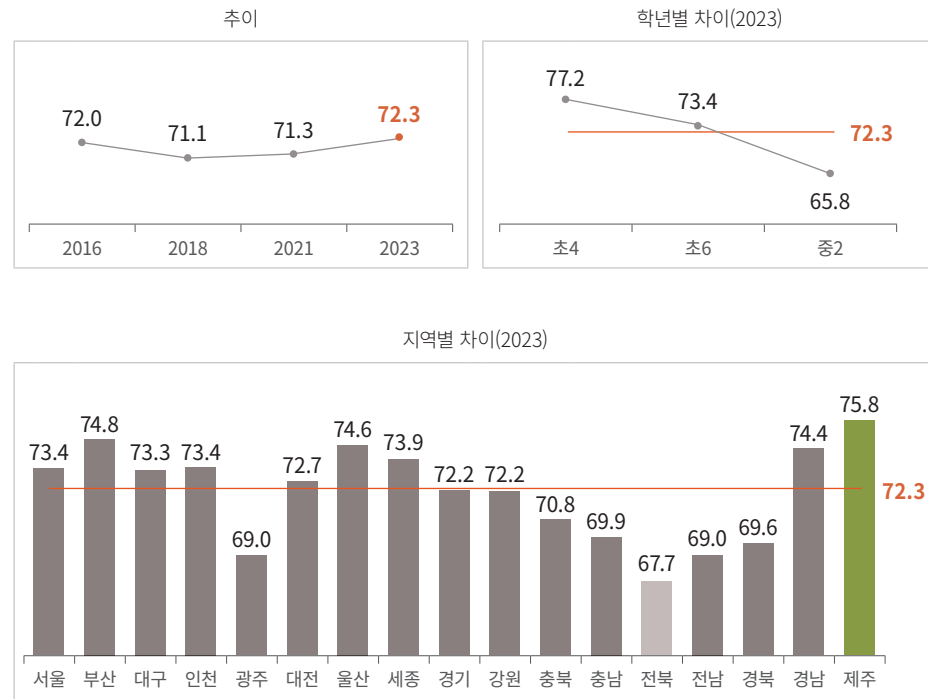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2) 발달권 경험

학교생활 만족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3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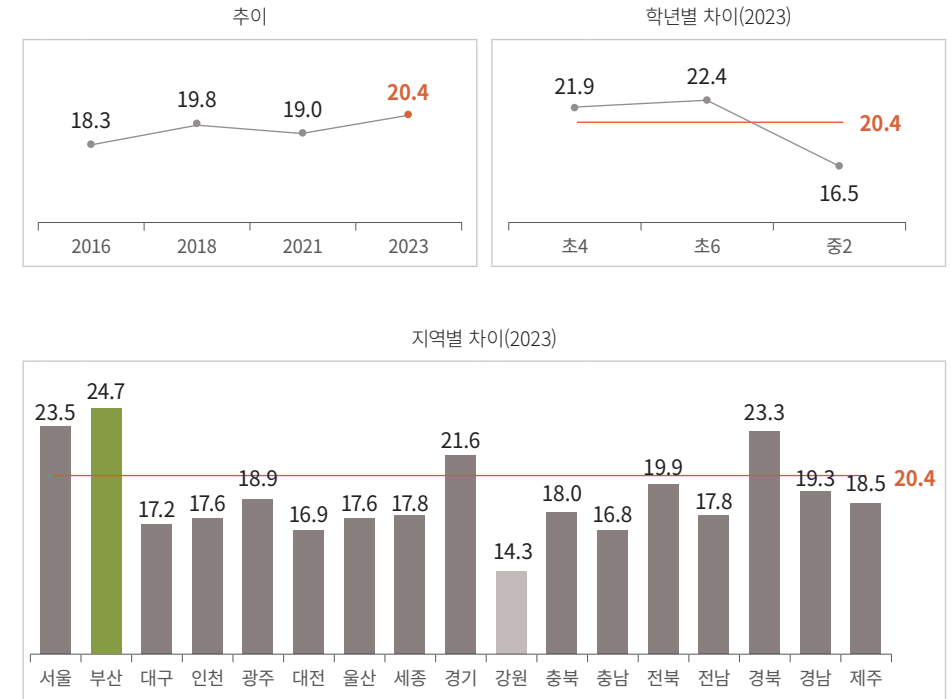


[그림 III-70]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16년 72.0점, '18년 71.1점, '21년 71.3점, '23년 72.3점으로 나타났다. '23년에는 코로나 이후 학교생활이 정상화되면서 학교생활만족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7.2점, 6학년 73.4점, 중등 2학년은 65.8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중등 2학년의 경우 평균(72.3점)보다 6.5%p 낮아 초등학생 대비 중학생의 낮은 학교생활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7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7.7점으로 가장 낮았다.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방과 후 공부시간에 대한 아동의 인식 (1문항)
- 척도 5점 척도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 측정 '많다', '매우 많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71]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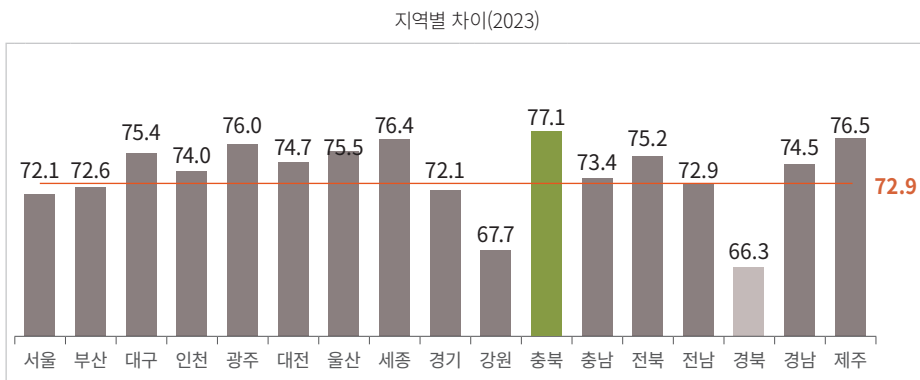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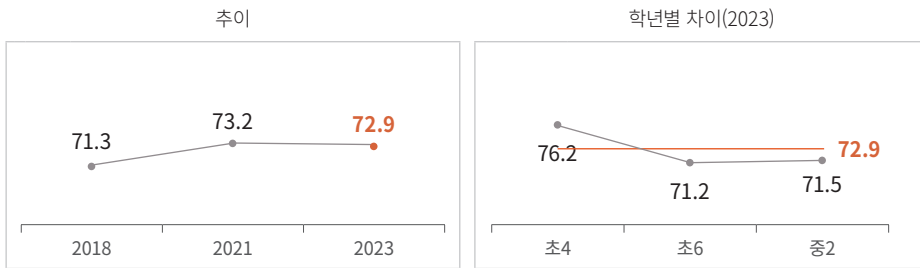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18.3%, '18년 19.8%, '21년 19.0%, '23년 20.4%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21.9%, 6학년 22.4%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중등 2학년은 16.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이 14.3%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방과 후 수업 만족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방과 후 수업만족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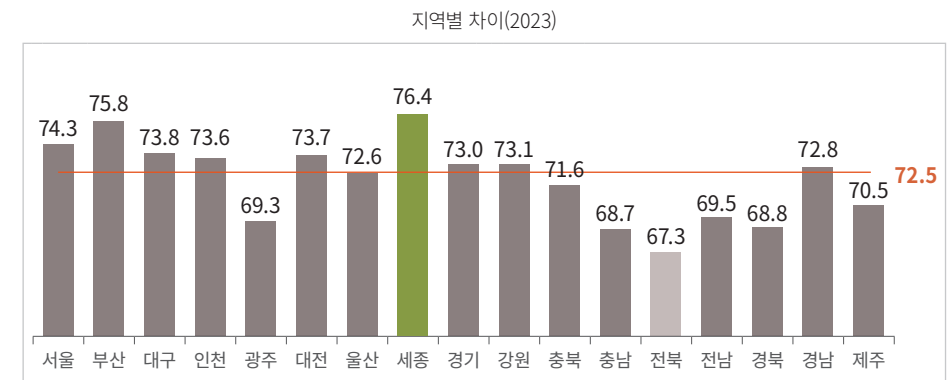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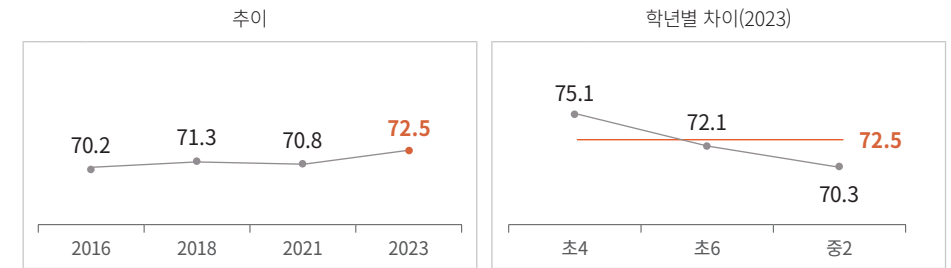


[그림 III-72] 방과 후 수업 만족도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수업 만족 정도는 '18년 71.3점, '21년 73.2점, '23년 72.9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6.2점, 6학년 71.2점, 중등 2학년 71.5점으로 초등 4학년의 방과 후 수업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7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이 66.3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정도 (4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적 관심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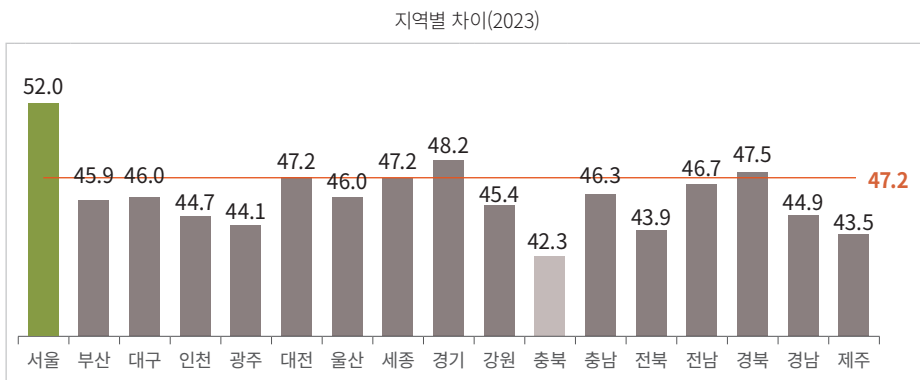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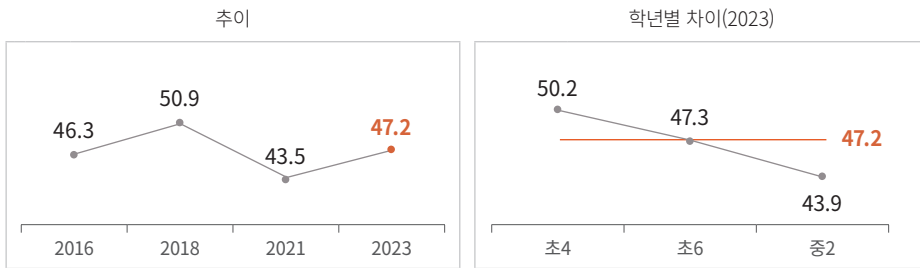


[그림 III-73]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부모(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 정도는 '16년 70.2점, '18년 71.3점, '21년 70.8점, '23년 72.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5.1점, 6학년 72.1점, 중등 2학년 70.3점으로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이 가장 높고,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이 67.3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정도 (4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적 참여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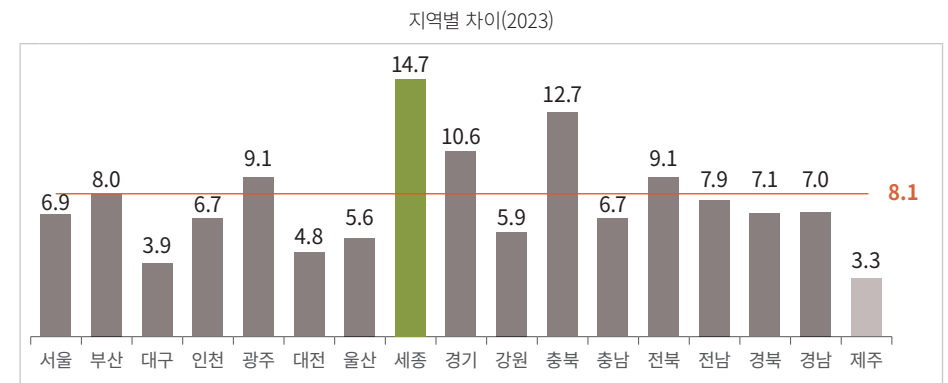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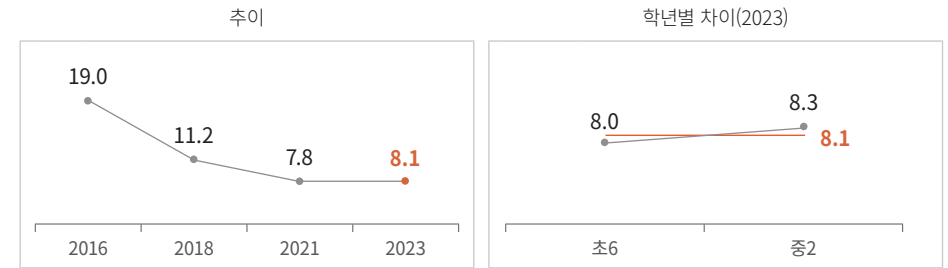


[그림 III-74]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정도는 '16년 46.3점, '18년 50.9점, '21년 43.5점으로 '18년도에 증가하다가 '21년에 감소하였지만 '23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년 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50.2점, 6학년 47.3점, 중등 2학년 43.9점으로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정도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이 42.3점으로 부모의 교육적 참여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놀이 및 휴식시간 부족

- 대상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놀이 및 휴식시간의 부족 정도 (1문항)
- 척도 5점 척도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 측정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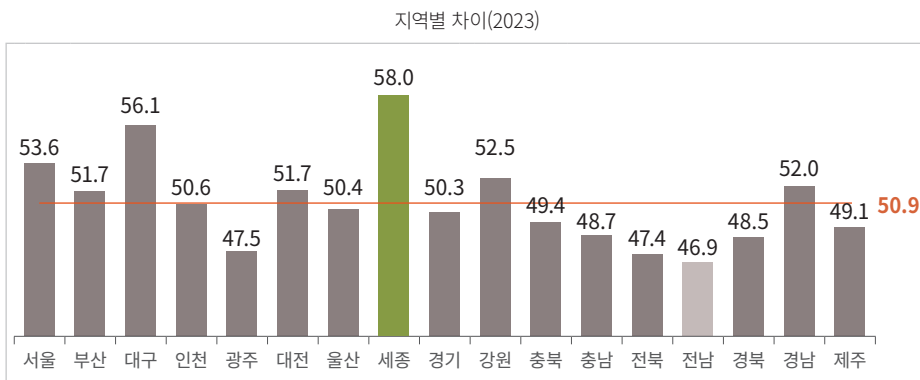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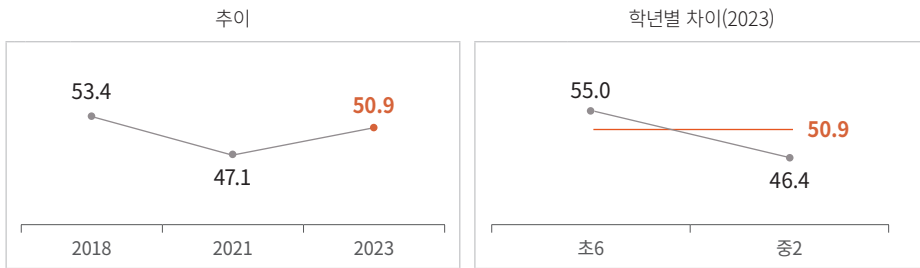


[그림 III-75] 놀이 및 휴식시간 부족

아동의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 정도는 '16년 19.0%, '18년 11.2%, '21년 7.8%, '23년 8.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6학년이 8.0%, 중등 2학년이 8.3%로 중등 2학년 아동이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4.7%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는 3.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 간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

- 대상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가족과 관광, 스포츠, 문화예술 참여 또는 관람 활동 정도 (3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5~6회, ④ 한 달에 1~2회)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의 여가활동 수준이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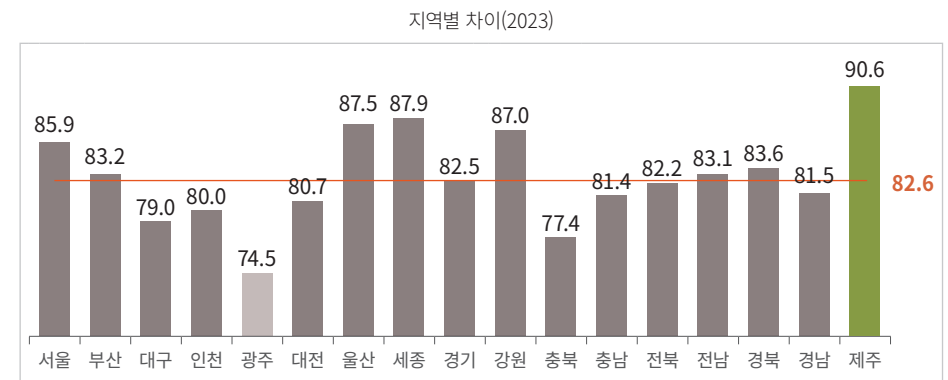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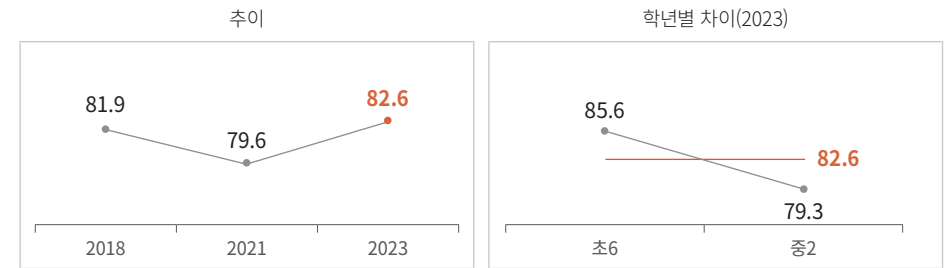


[그림 III-76] 가족 간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는 '18년 53.4점, '21년 47.1점, '23년 50.9점으로 '21년 다소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 55.0점, 중등 2학년 46.4점으로 중학교 2학년 아동이 더욱 낮았으며, 시·도별로는 세종이 '21년에 이어 58.0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46.9점으로 가장 낮았다.

취미생활

- 대상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취미활동 보유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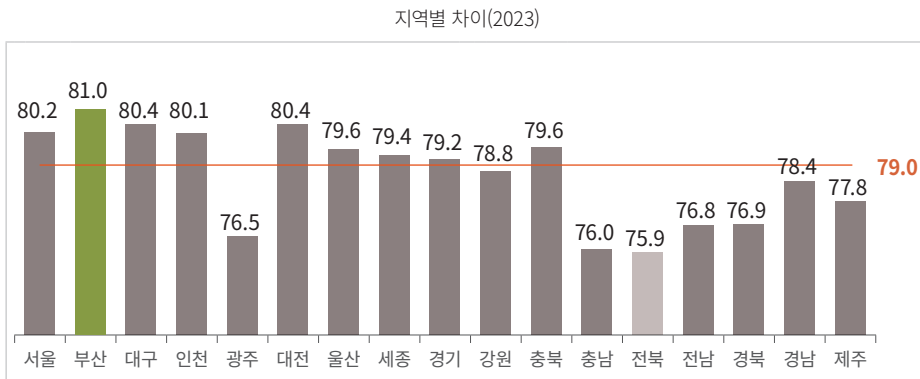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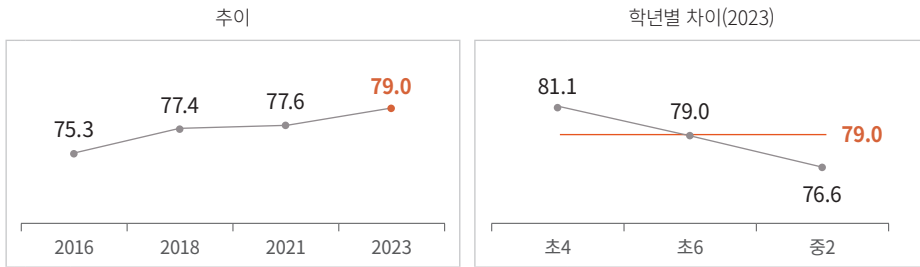


[그림 III-77]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하는 아동의 비율은 '18년 81.9%, '21년 79.6%, '23년 82.6%로 '21년 대비 소폭 증가한(3.0%p)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 85.6%, 중등 2학년 79.3%로 초등 6학년의 취미생활 비율이 6.3%p 더 높았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90.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광주는 74.5%로 취미생활을 하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정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 (5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님(보호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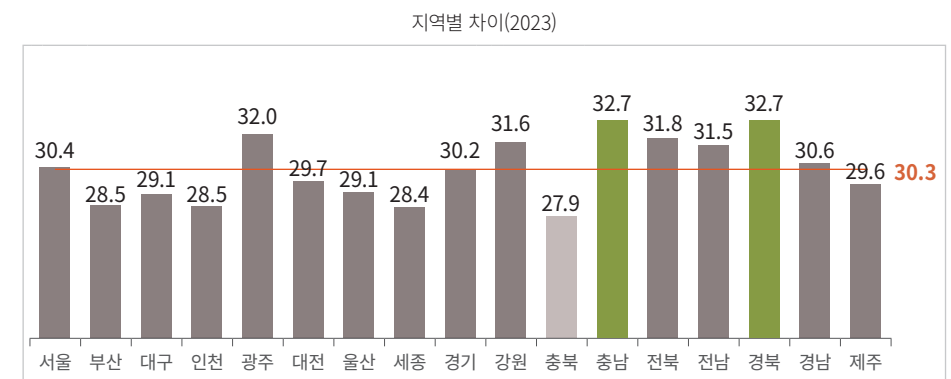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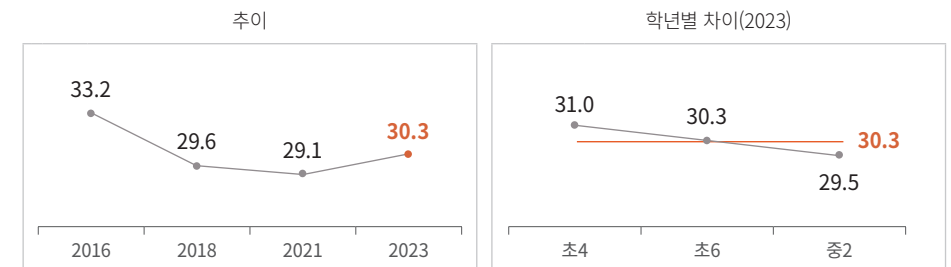


[그림 III-78]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정도는 '16년 75.3점, '18년 77.4점, '21년 77.6점, '23년 79.0점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1.1점, 6학년 79.0점, 중등 2학년 76.6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8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75.9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부모의 과보호에 대한 아동의 인식 (5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79]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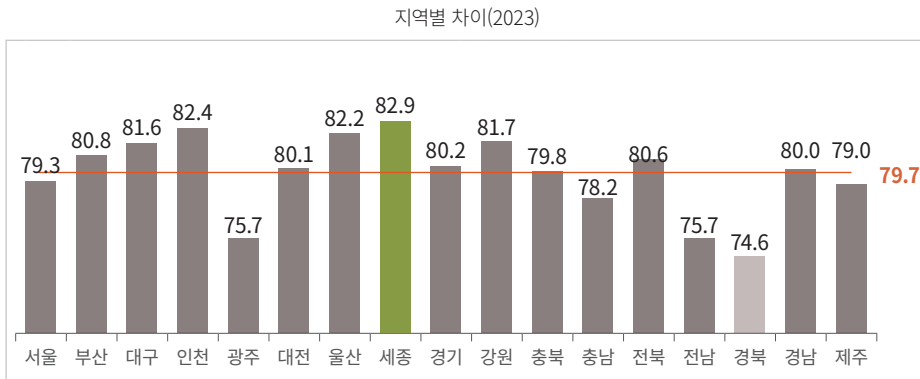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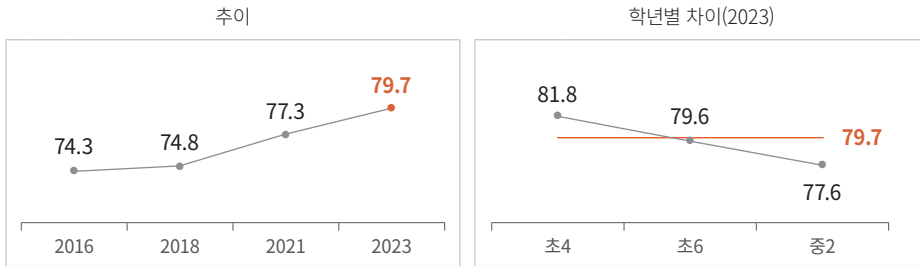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정도는 '16년 33.2점, '18년 29.6점, '21년 29.1점, '23년 30.3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31.0점, 6학년 30.3점, 중등 2학년 29.5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부모(보호자)의 과보호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과 충남이 3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2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3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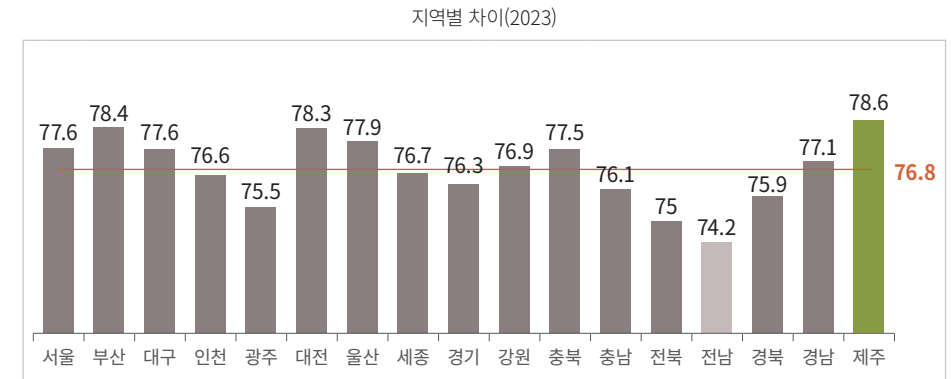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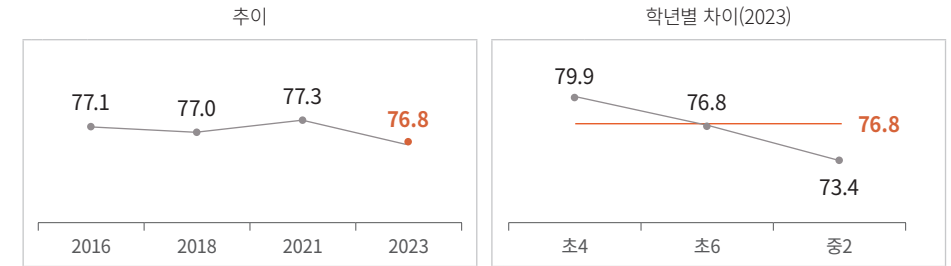


[그림 III-80]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는 '16년 74.3점, '18년 74.8점, '21년 77.3점, '23년 79.7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1.8점, 6학년 79.6점, 중등 2학년 77.6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8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4.6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3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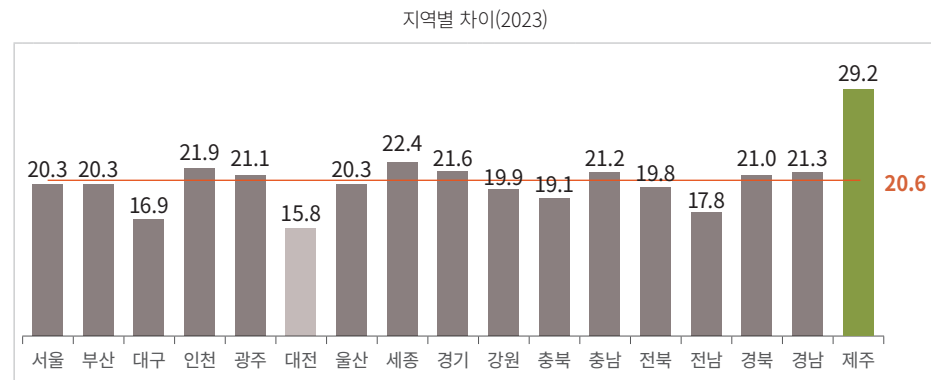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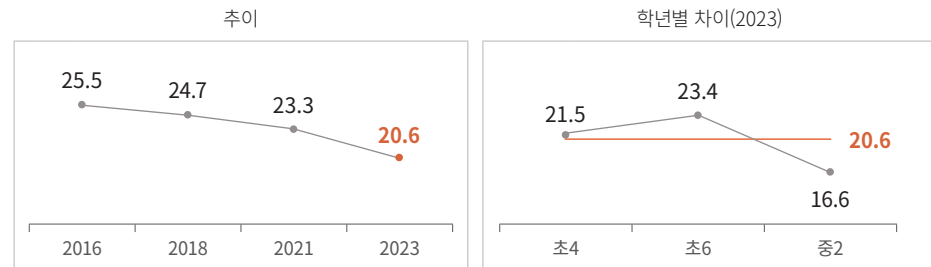
[그림 III-81]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는 '16년 77.1점, '18년 77.0점, '21년 77.3점, '23년 76.8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9.9점, 6학년 76.8점, 중등 2학년 73.4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7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74.2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3) 보호권 경험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꼬집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학대 경험 (2문항)
- 척도 5점 척도 (0 전혀 없다, 1 1년에 1~2번, 2 2~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1~2번, 4 1주일에 1~2번)
- 측정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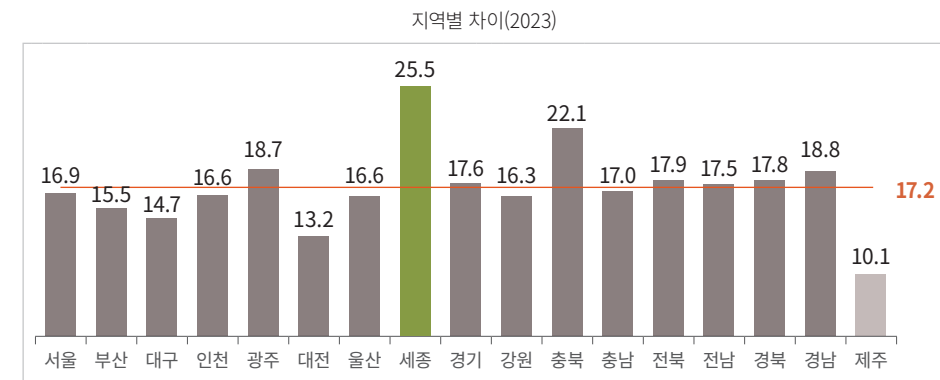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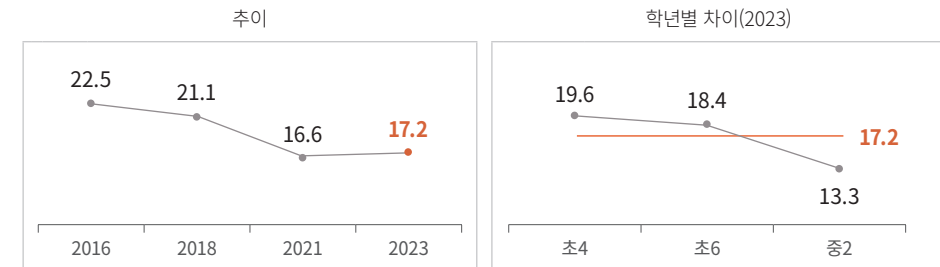


[그림 III-82]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6년 25.5%, '18년 24.7%, '21년 23.3%, '23년 20.6%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21.5%, 6학년 23.4%, 중등 2학년 16.6%로, 중학생의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29.2%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1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도구를 사용하거나 주먹, 손바닥으로 얼굴/머리/귀 등 신체를 때리는 등의 신체학대 경험 (3문항)
- 척도 5점 척도 (0 전혀 없다, 1 1년에 1~2번, 2 2~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1~2번, 4 1주일에 1~2번)
- 측정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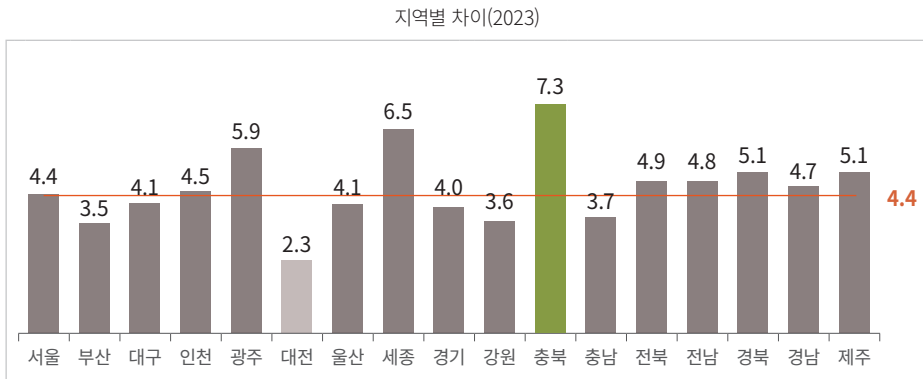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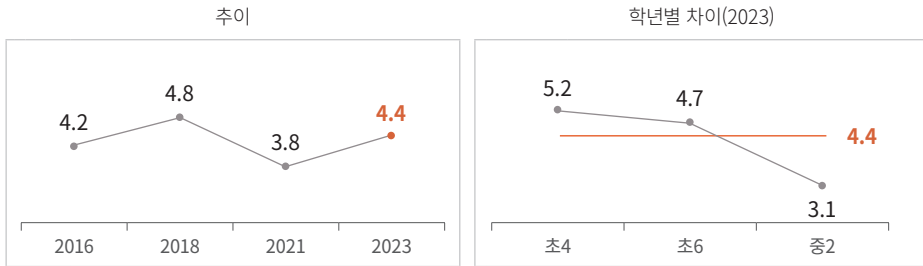


[그림 III-83]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6년 22.5%, '18년 21.1%, '21년 16.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3년 17.2%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19.6%, 초등 6학년 18.4%, 중등 2학년 13.3%가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25.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제주 10.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뜨거운 물,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심하게 때리는 등의 신체학대 경험 (2문항)
- 척도 5점 척도 (0 전혀 없다, 1 1년에 1~2번, 2 2~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1~2번, 4 1주일에 1~2번)
- 측정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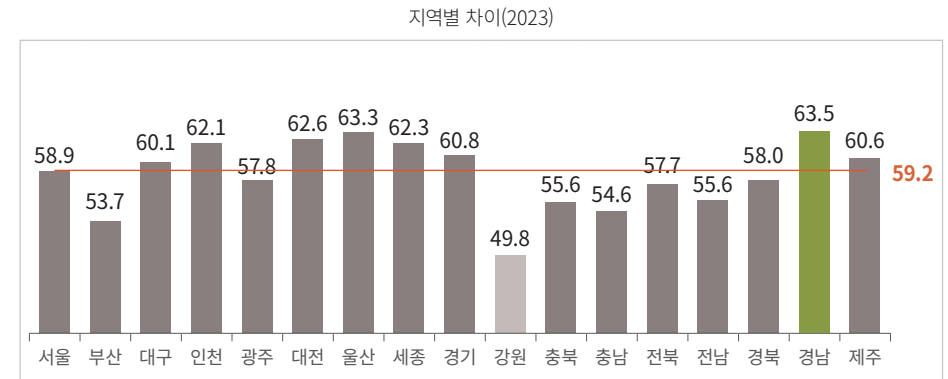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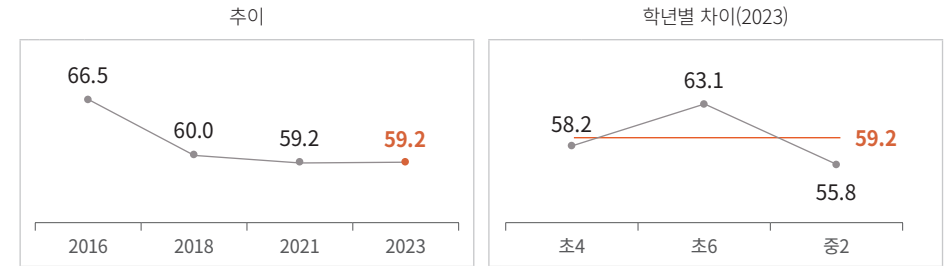


[그림 III-84]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4.2%, '18년 4.8%, '21년 3.8%, '23년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5.2%, 초등 6학년 4.7%, 중등 2학년 3.1%로 학년이 낮을수록 심각한 신체학대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2.3%로 가장 낮았다.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정서학대 경험 (5문항)
- 척도 5점 척도 (0 전혀 없다, 1 1년에 1~2번, 2 2~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1~2번, 4 1주일에 1~2번)
- 측정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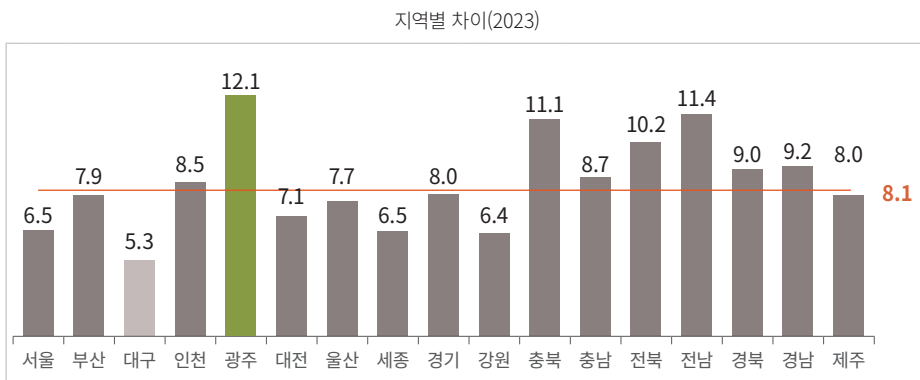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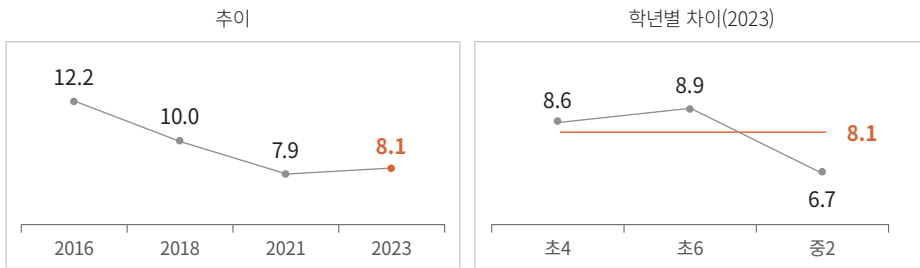


[그림 III-85]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 비율은 '16년 66.5%에서 '18년 60.0%로 6.5%p 감소하였고, '21년과 '23년은 59.2%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58.2%, 6학년 63.1%, 중등 2학년 55.8%가 정서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63.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강원이 49.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방임을 경험한 아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혼자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혼자 두거나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의 방임 경험 (4문항)
- 척도 5점 척도 (0 전혀 없다, 1 1년에 1~2번, 2 2~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1~2번, 4 1주일에 1~2번)
- 측정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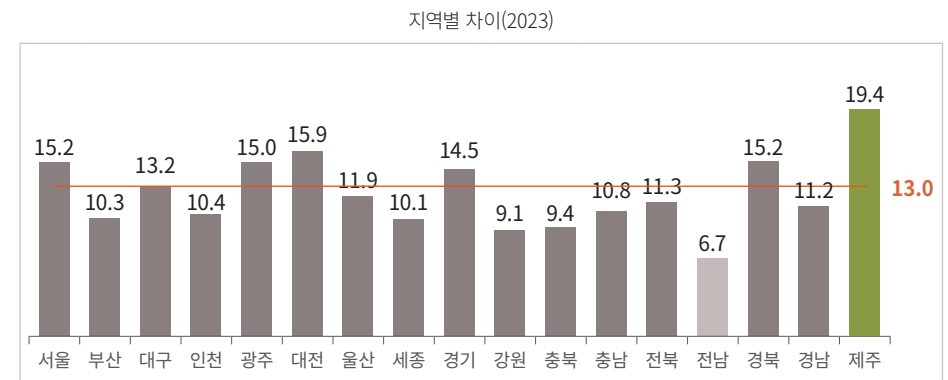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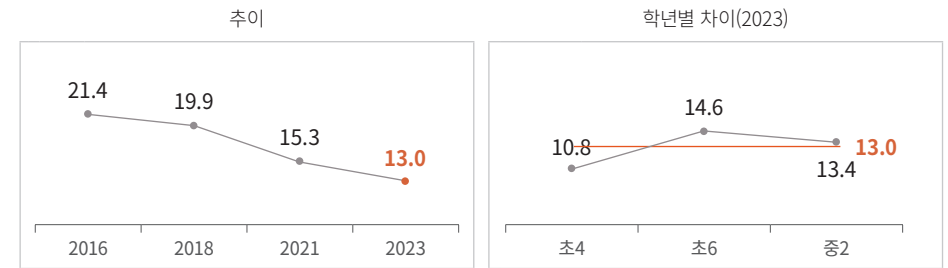


[그림 III-86] 방임을 경험한 아동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6년 12.2%, '18년 10.0%, '21년 7.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3년 8.1%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6%, 6학년 8.9%, 중등 2학년 6.7%가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12.1%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5.3%로 가장 낮았다.

나홀로 아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집에 홀로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1) 거의 없다,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일(5~7일 정도)]
- 측정 '일주일에 3일 이상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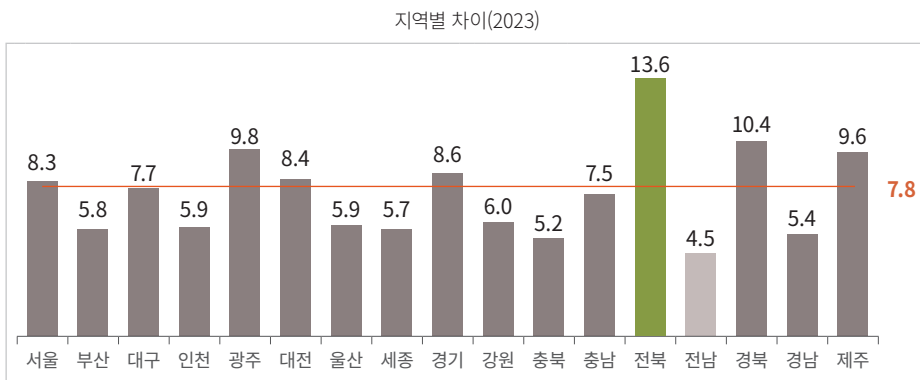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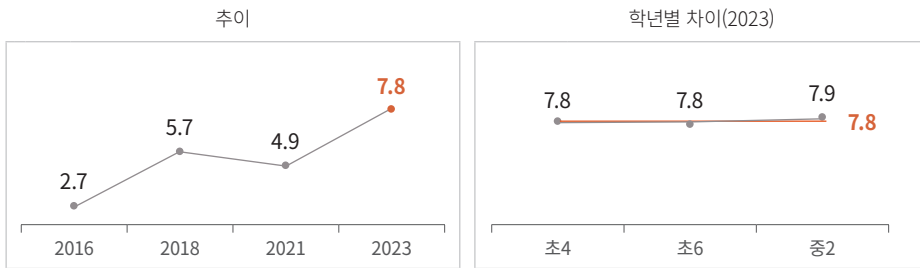


[그림 III-87] 나홀로 아동

나홀로 아동 비율은 '16년 21.4%, '18년 19.9%, '21년 15.3%, '23년 13.0%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0.8%, 6학년 14.6%, 중등 2학년 13.4%로 초등학교 6학년의 나홀로 아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9.4%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6.7%로 가장 낮았다.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의 성적 학대 경험 (2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한 문항이라도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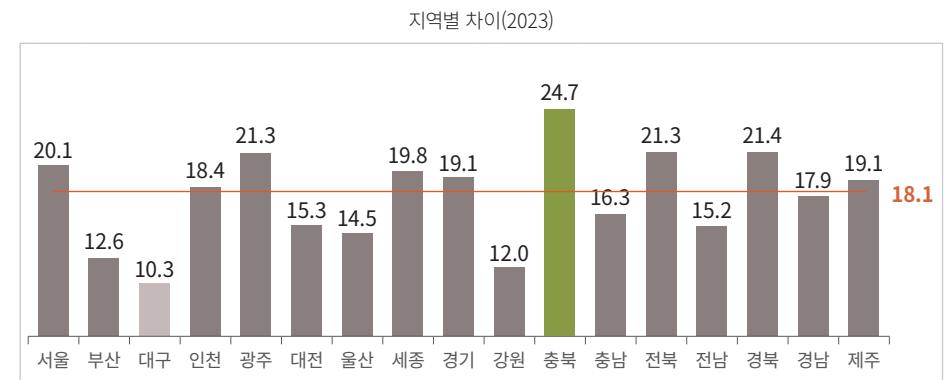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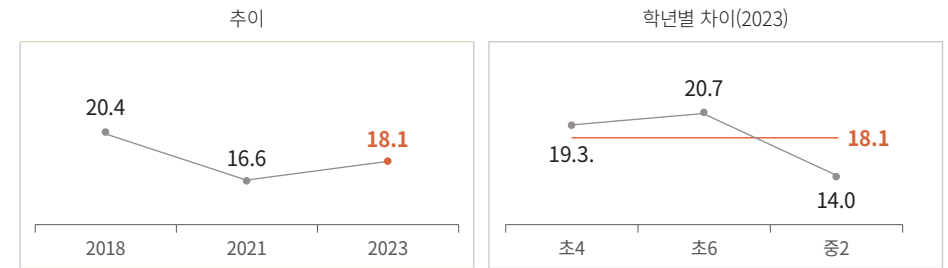


[그림 III-88]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6년 2.7%, '18년 5.7%, '21년 4.9%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3년 7.8%로 전차 대비 2.9%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과 6학년이 7.8%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중등 2학년도 7.9%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성학대 경험이 비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13.6%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4.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정 내 체벌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집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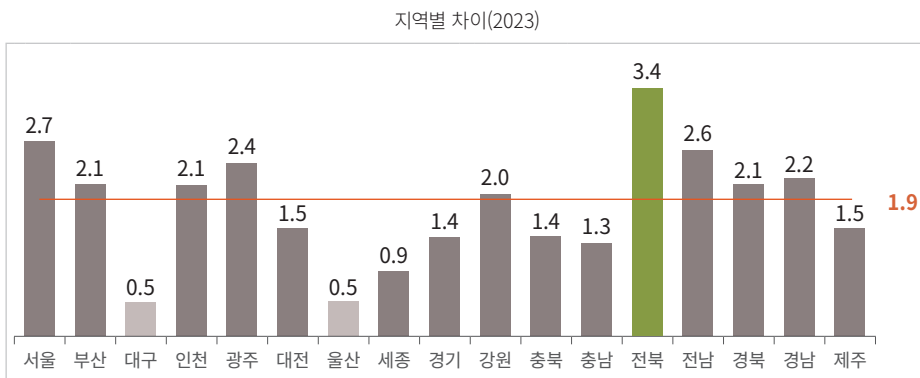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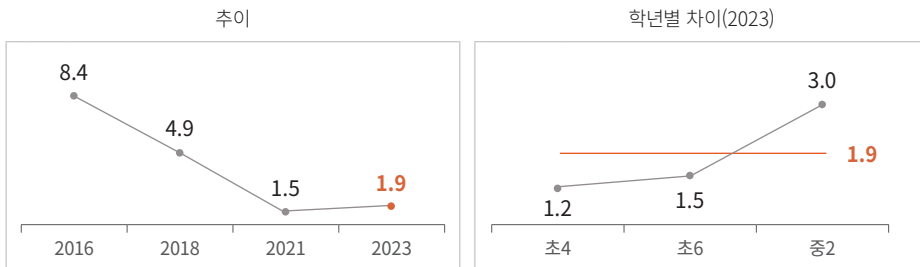


[그림 III-89] 가정 내 체벌 경험

아동의 가정 내 체벌 경험은 '18년 20.4%, '21년 16.6%로 3.8%p 감소하였으나 '23년 18.1%로 전차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9.3%, 초등 6학년 20.7%로 유사한 경험율을 보였고, 중등 2학년은 14.0%로 가정 내 체벌 경험율이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10.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 내 체벌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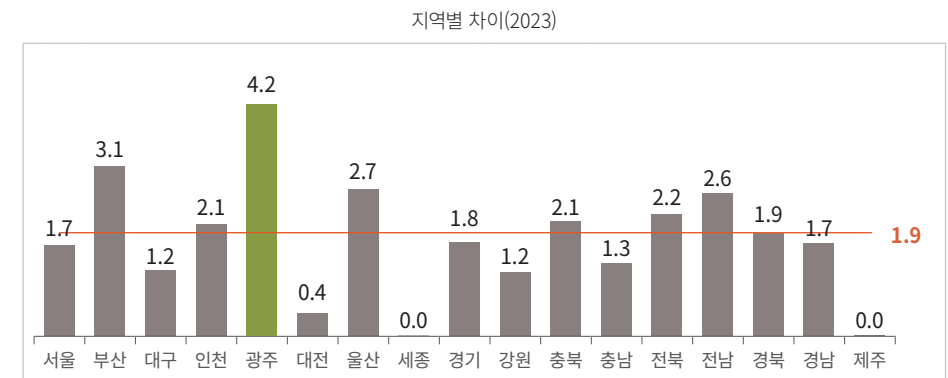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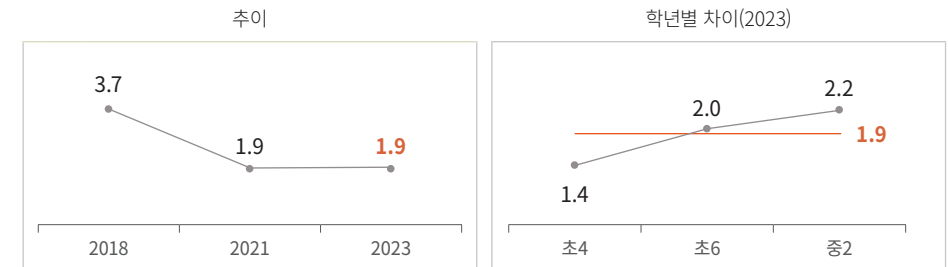


[그림 III-90] 학교 내 체벌 경험

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은 '16년 8.4%, '18년 4.9%, '21년 1.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3년 1.9%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2%, 초등 6학년 1.5%로 비슷한 수준으로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등 2학년은 3.0%로 초등학교 대비 체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3.4%로 학교 내 체벌 경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 대구와 울산은 0.5%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학교나 집이 아닌 장소(학원, 동네 등)에서 성인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91]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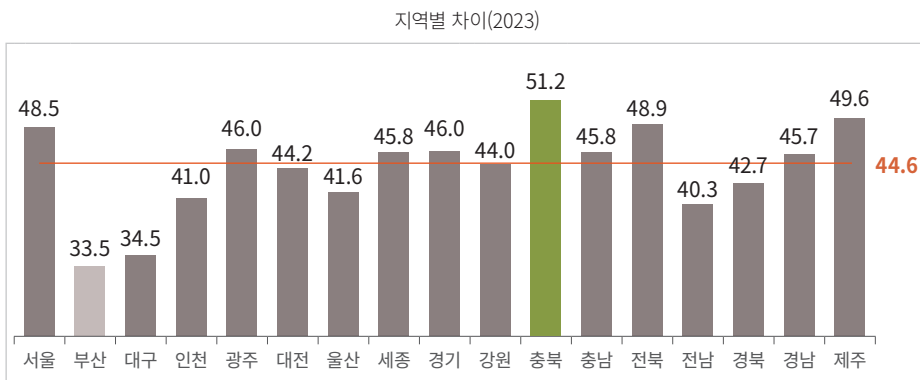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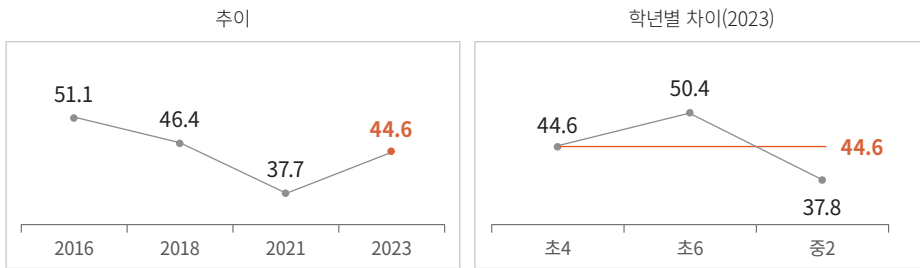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은 '18년 3.7%, '21년 1.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3년은 1.9%로 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4%, 초등 6학년 2.0%, 중등 2학년 2.2%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광주가 4.2%로 가장 높았고, 세종과 제주가 0.0%로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학교폭력 피해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때리거나 별명을 부르는 등 또래친구 및 선후배를 통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7문항)
- 척도 5점 척도 (0 전혀 없음, 1 1년에 1~2번, 2 2~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1~2번, 4 1주일에 1~2번)
- 측정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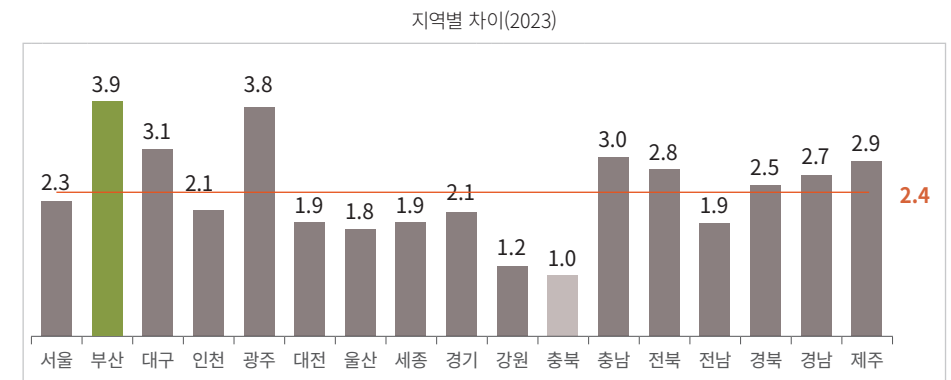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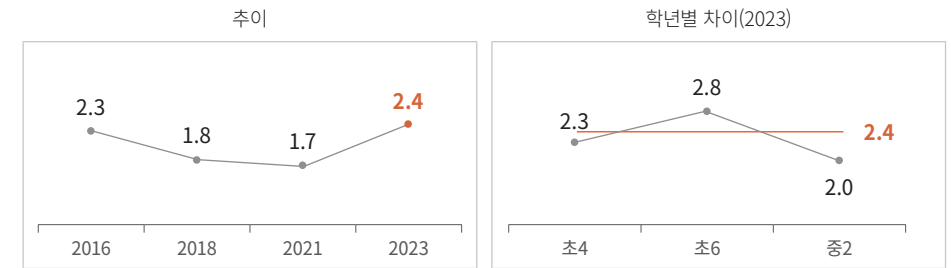


[그림 III-92] 학교폭력 피해 경험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16년 51.1%, '18년 46.4%, '21년 37.7%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3년 44.6%로 전차 대비 6.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4.6%, 초등 6학년 50.4%, 중등 2학년 37.8%로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33.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인터넷에서 또래친구 및 선후배를 통한 괴롭힘을 받거나 왕따를 당한 경험 (1문항)
- 척도 5점 척도 (0 전혀 없음, 1 1년에 1~2번, 2 2~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1~2번, 4 1주일에 1~2번)
- 측정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93]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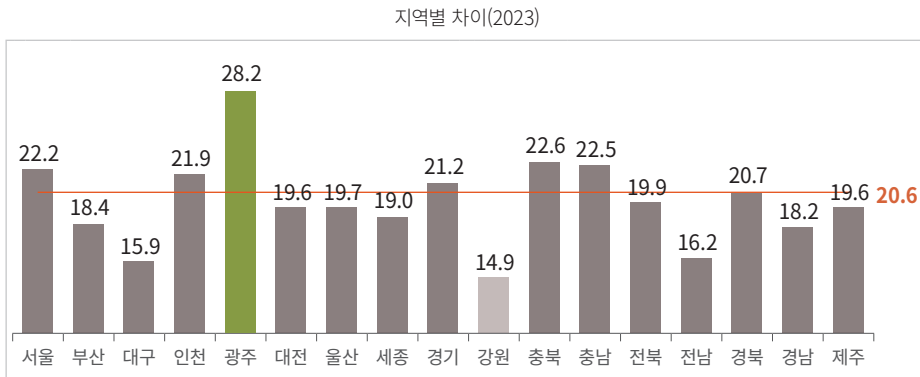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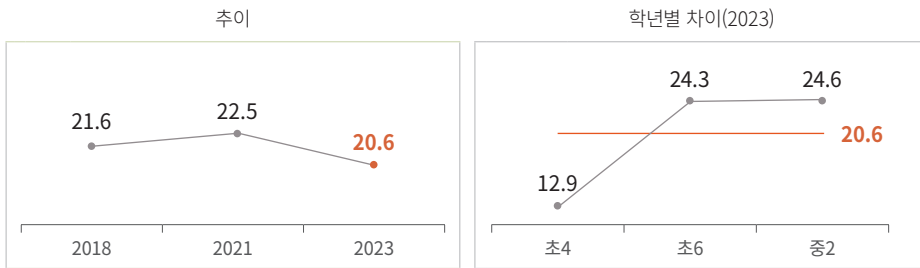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16년 2.3%, '18년 1.8%, '21년 1.7%로 미미하게나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3년 2.4%로 전차 대비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2.3%, 초등 6학년 2.8%, 중등 2학년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3.9%로 가장 높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율을 보인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충북은 1.0%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차별을 받은 경험_연령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나이(어려서 혹은 많아서)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한 번이라도 연령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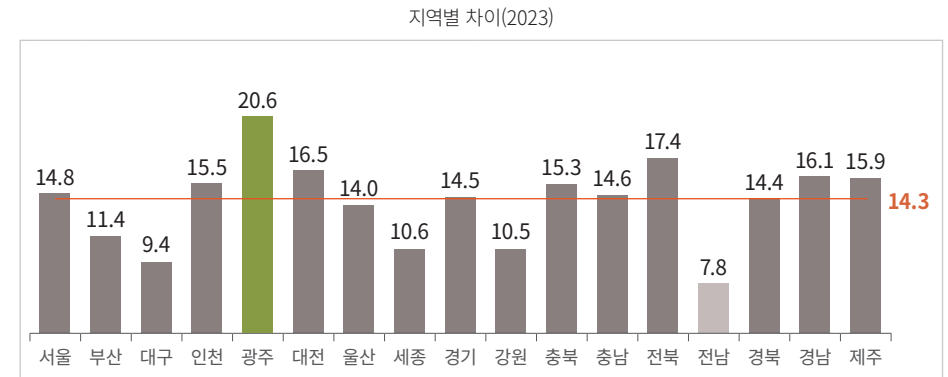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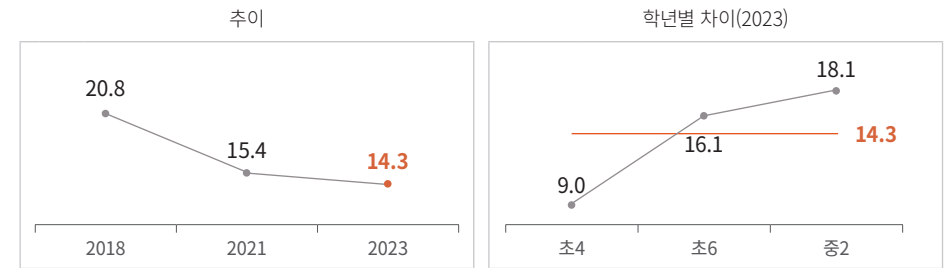


[그림 III-94] 차별을 받은 경험_연령

연령으로 인한 차별 경험 비율은 '18년 21.6%, '21년 22.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3년 20.6%로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2.9%로 가장 낮았고, 초등 6학년 24.3%, 중등 2학년 24.6%로 초등 6학년부터 연령에 의한 차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28.2%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14.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차별을 받은 경험_성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성별(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한 번이라도 성별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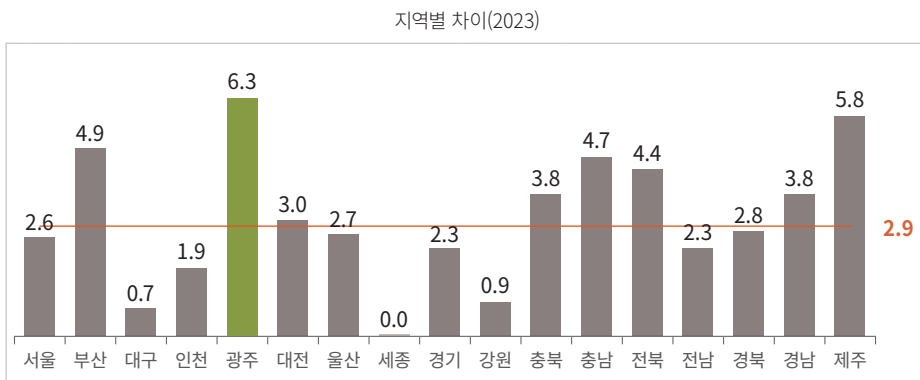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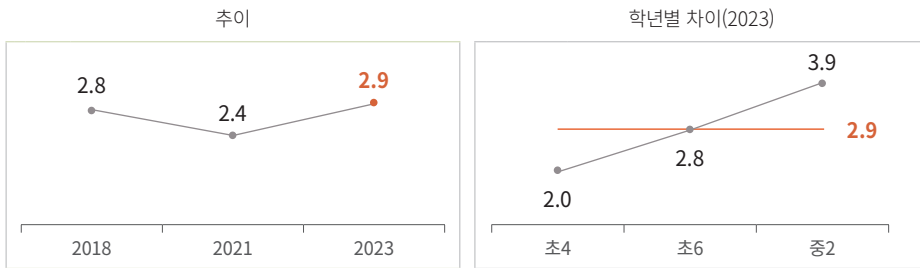


[그림 III-95] 차별을 받은 경험_성별

성별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 비율은 '18년 20.8%, '21년 15.4%, '23년 14.3%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9.0%, 초등 6학년 16.1%, 중등 2학년 18.1%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차별 경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 4학년과 중등 2학년 간의 차이가 9.1%p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0.6%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7.8%로 가장 낮았다.

차별을 받은 경험_지역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사는 동네(지역)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한 번이라도 지역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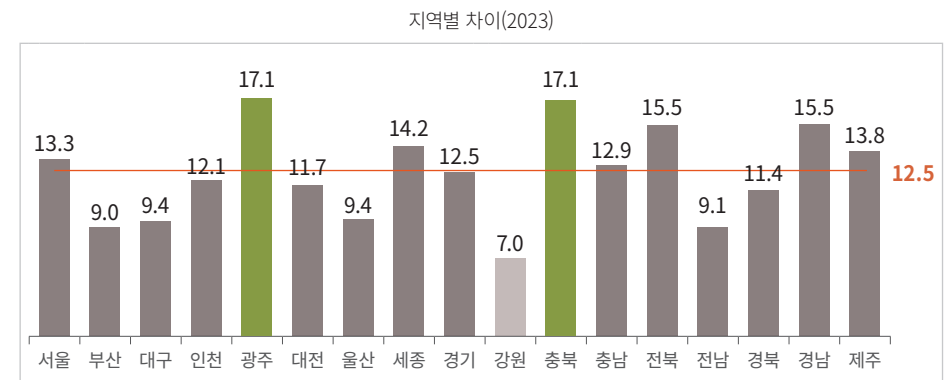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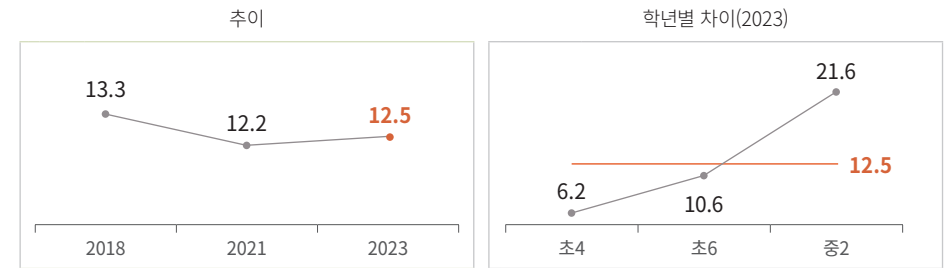


[그림 III-96] 차별을 받은 경험_지역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아본 경험은 '18년 2.8%, '21년 2.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 2.9%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2.0%, 초등 6학년 2.8%, 중등 2학년 3.9%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6.3%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0.0%로 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받은 경험_학업성적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성적(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못해서)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한 번이라도 성적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97] 차별을 받은 경험_학업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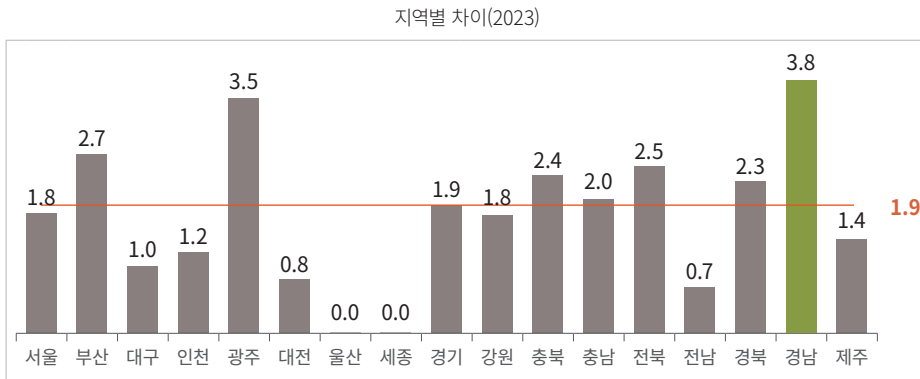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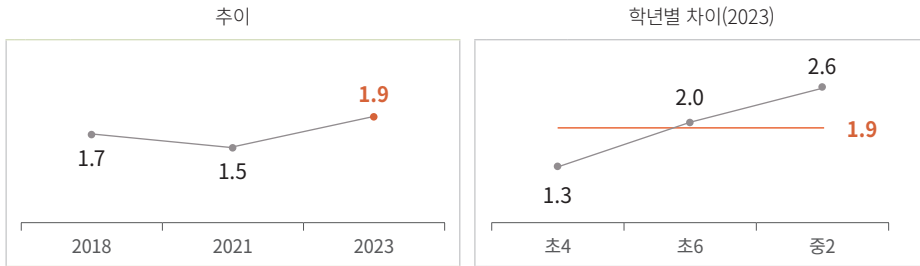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험은 '18년 13.3%, '21년 12.2%, '23년 12.5%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6.2%, 초등 6학년 10.6%, 중등 2학년 21.6%로 초등 4학년 대비 중등 2학년의 차별 경험이 약 3배 이상 많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충북이 17.1%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7.0%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차별을 받은 경험_가정형편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가정형편(잘 살거나 혹은 못 살아서)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한 번이라도 가정형편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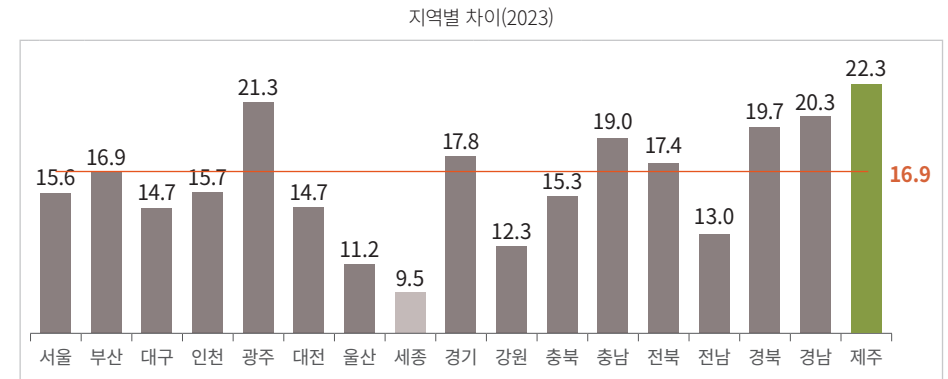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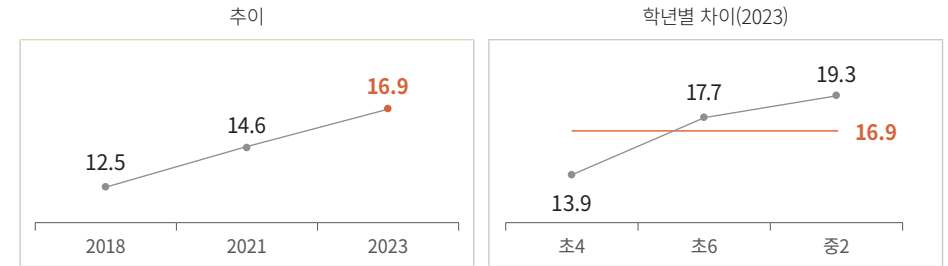


[그림 III-98] 차별을 받은 경험_가정형편

가정형편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경험은 '18년 1.7%, '21년 1.5%, '23년 1.9%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3%, 초등 6학년 2.0%, 중등 2학년 2.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형편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가정형편에 의한 차별은 성별, 연령, 학업성적 대비 차별 경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8%로 가장 높았고, 세종과 울산은 0.0%로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받은 경험_외모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외모(얼굴, 키, 몸무게, 피부색, 장애, 다문화 등)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한 번이라도 외모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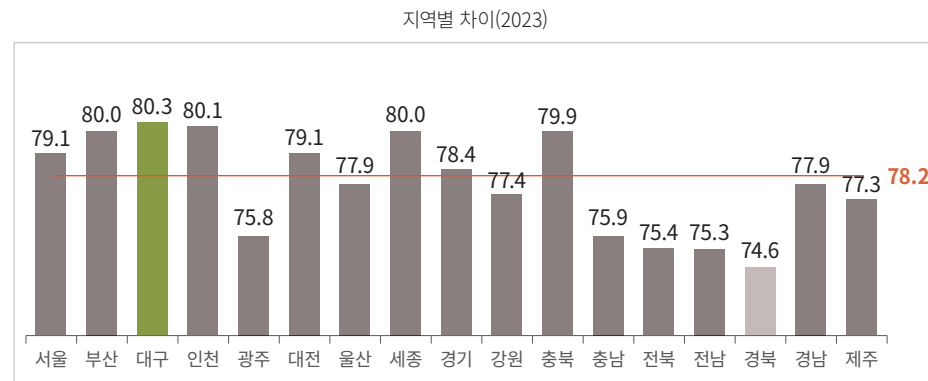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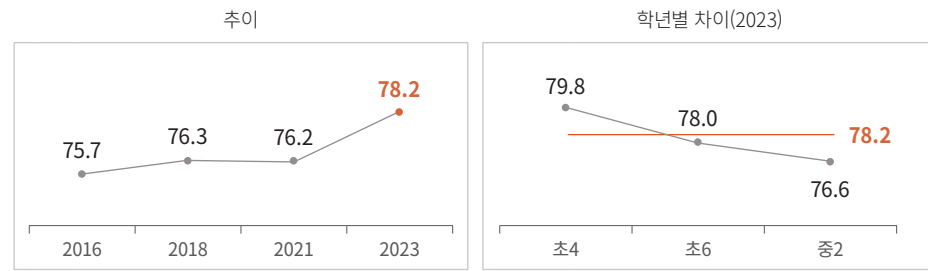
[그림 III-99] 차별을 받은 경험_외모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은 '18년 12.5%, '21년 14.6%, '23년 16.9%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3.9%, 초등 6학년 17.7%, 중등 2학년 19.3%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22.3%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9.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4) 참여권 경험

가정에서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가정의 중요한 문제 결정이나 상급학교 진학, 장래희망 등과 관련하여 의견 존중을 받아본 경험(5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의견존중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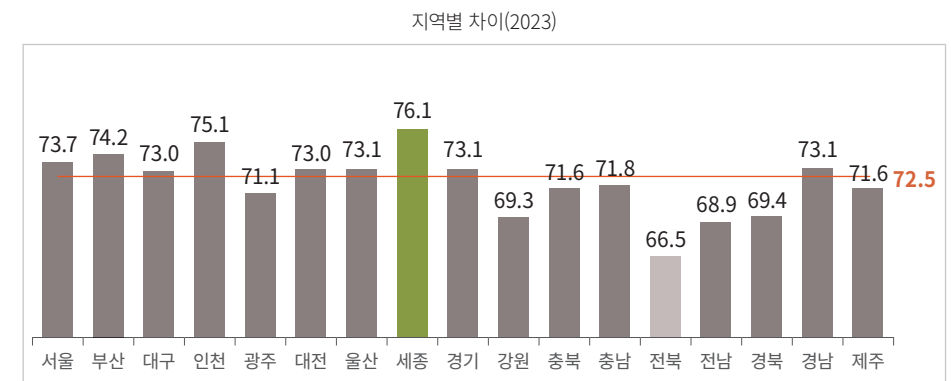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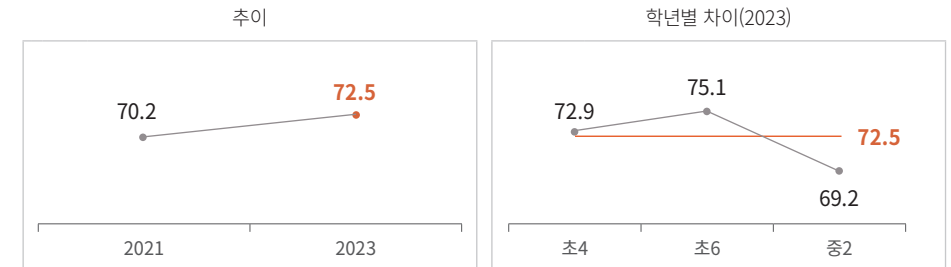


[그림 III-100] 가정에서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가정에서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16년 75.7점, '18년 76.3점, '21년 76.2점, '23년 78.2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9.8점, 6학년 78.0점, 중등 2학년 76.6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가정 내 의견존중 경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80.3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4.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의사결정 민주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가정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가족회의를 하거나 학교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정도 (2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인 의사결정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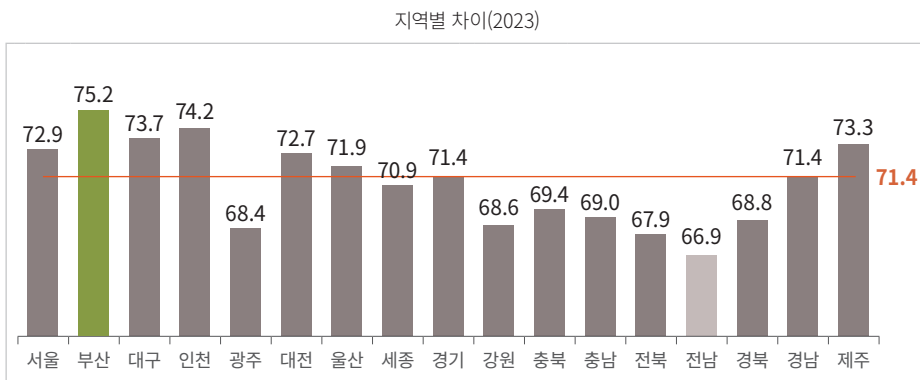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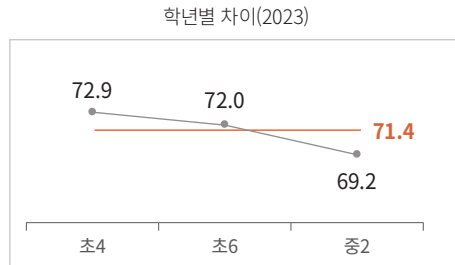


[그림 III-101] 의사결정 민주성

가정이나 학교의 의사결정민주성 정도는 '21년 70.2점, '23년 72.5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2.9점, 초등 6학년 75.1점, 중등 2학년 69.2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가정이나 학교 내 의사결정민주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76.1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전북은 66.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가정, 학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 (4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과정 참여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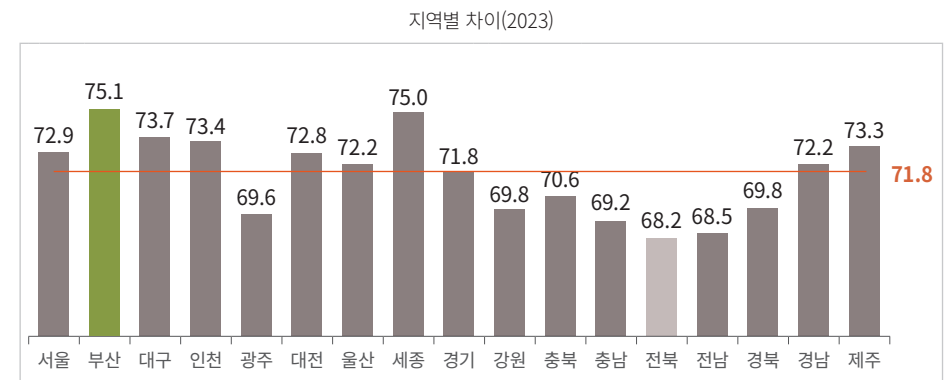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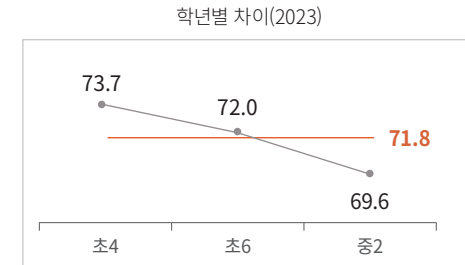


[그림 III-102]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아동의 참여권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는 평균 71.4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2.9점, 초등 6학년은 72.0점, 중등 2학년은 69.2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5.2점으로 가장 높은 아동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를 보였고, 전남은 66.9점으로 아동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반영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가정, 학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도 (4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의사반영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103] 의사반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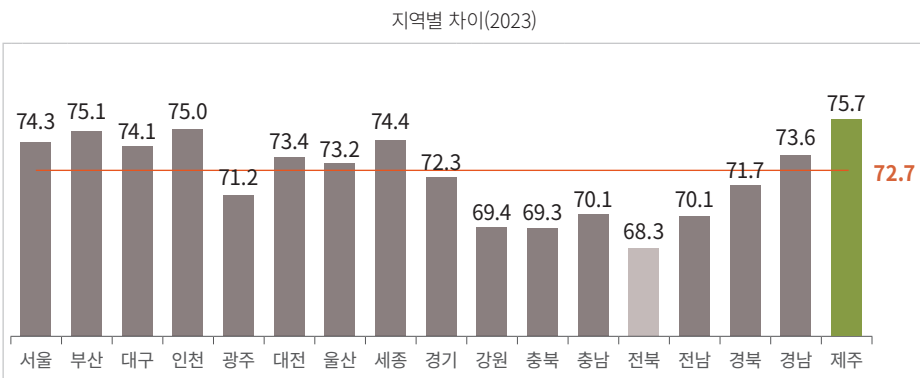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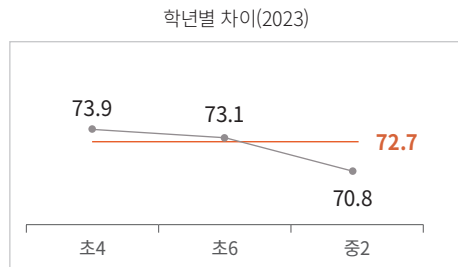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 참여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 71.8점으로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73.7점, 초등 6학년 72.0점, 중등 2학년 69.6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의 의사반영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5.1점으로 17개 시·도중 아동이 인식하는 의사반영정도가 가장 높았고, 전북이 68.2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의사결정 협의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가정, 학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정도 (2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과정에서 협의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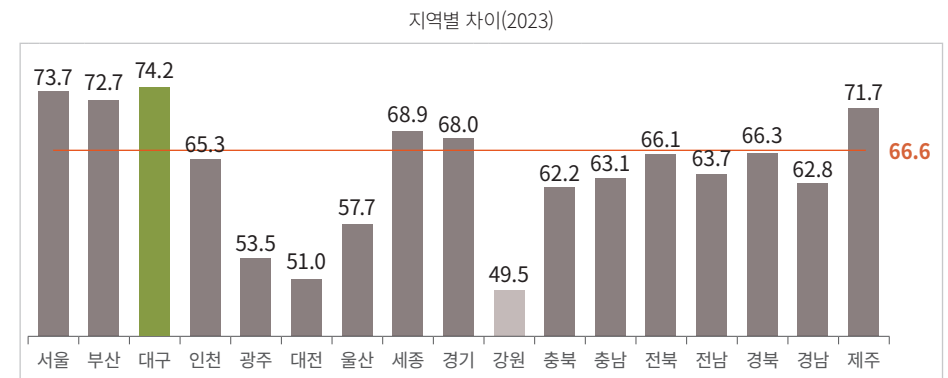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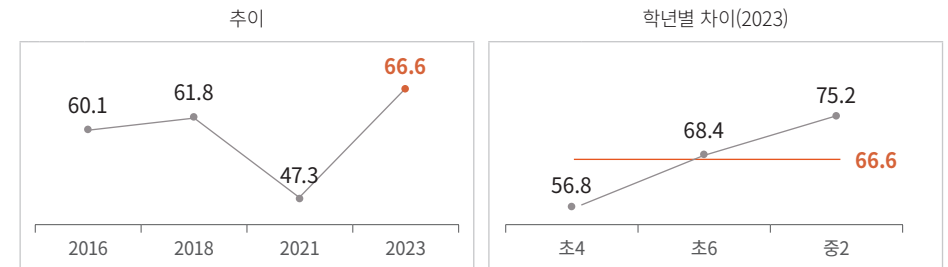


[그림 III-104] 의사결정 협의정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 참여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 72.7점으로 의사반영정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73.9점, 초등 6학년은 73.1점, 중등 2학년은 70.8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의사반영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75.7점으로 17개 시·도중 아동의 의사결정 협의정도가 가장 높았고, 전북이 68.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동아리 활동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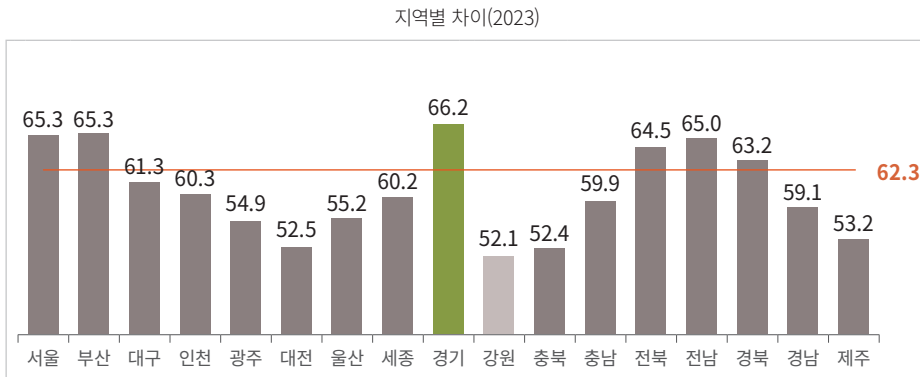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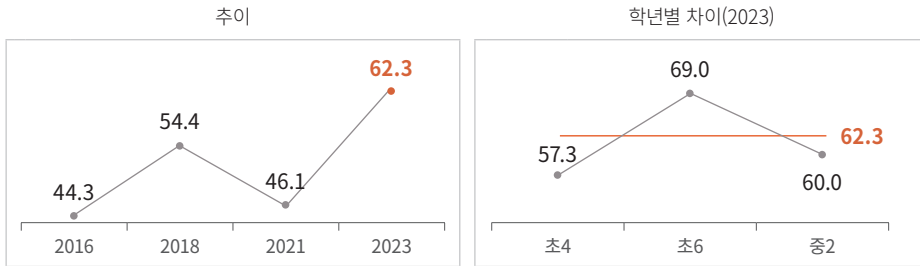


[그림 III-105] 동아리 활동 참여

아동의 동아리 활동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16년 60.1%, '18년 61.8%, '21년 47.3%로 '16년과 '18년도에 비해 '21년도 동아리 참여활동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면서 '23년 66.6%로 전차 대비 19.3%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56.8%, 초등 6학년 68.4%, 중등 2학년 75.2%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동아리 참여활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74.2%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49.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캠페인 활동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내용 캠페인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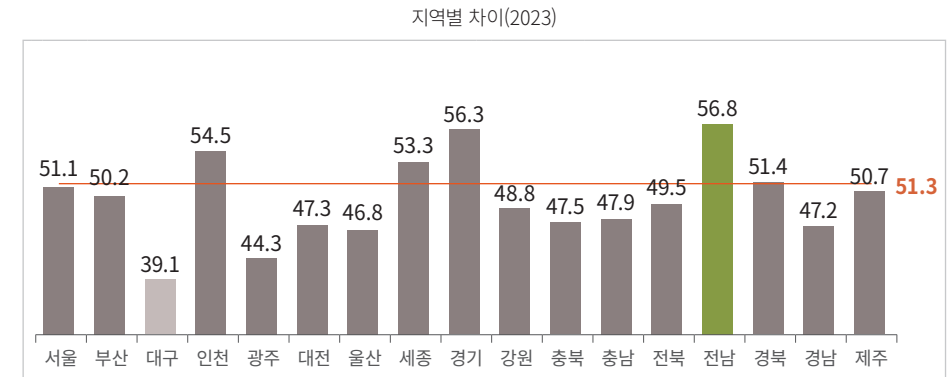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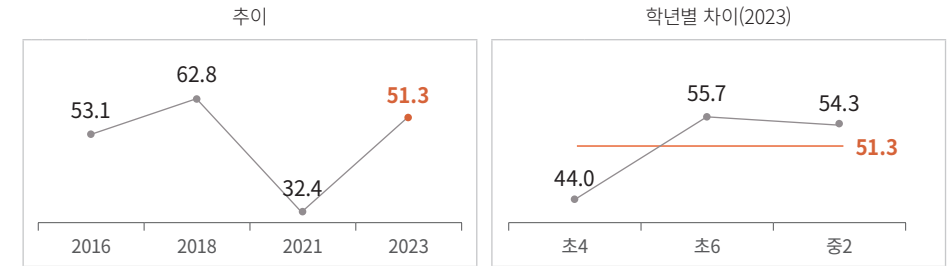


[그림 III-106] 캠페인 활동 참여

캠페인 활동 참여 비율은 '16년 44.3%, '18년 54.4%, '21년 46.1%로 '18년 대비 8.3%p 감소하였으나 '23년 62.3%로 전차 대비 16.2%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57.3%, 초등 6학년 69.0%, 중등 2학년 60.0%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2%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52.1%로 가장 낮았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내용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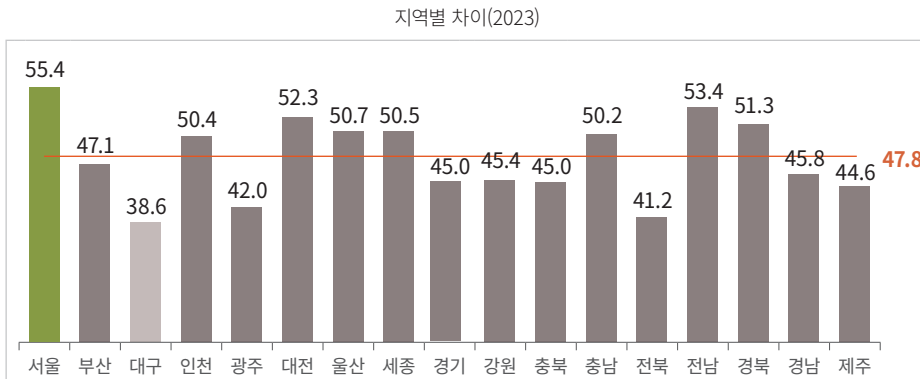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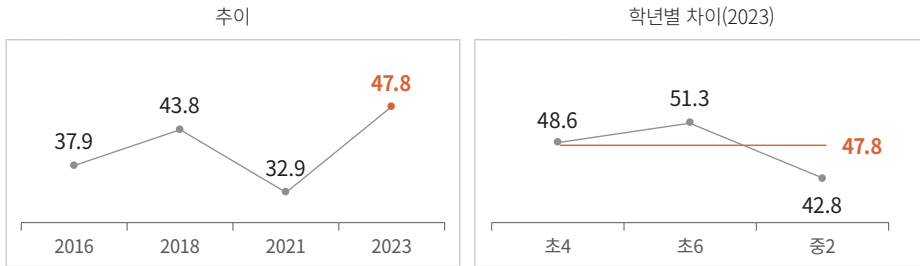


[그림 III-107] 자원봉사 활동 참여

아동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16년 53.1%, '18년 62.8%, '21년 32.4%로 '18년 대비 30.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51.3%로 '21년 대비 18.9%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4.0%, 초등 6학년 55.7%, 중등 2학년 54.3%인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56.8%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39.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두 지역간의 차이가 17.7%p로 지역간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아동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기후 및 후원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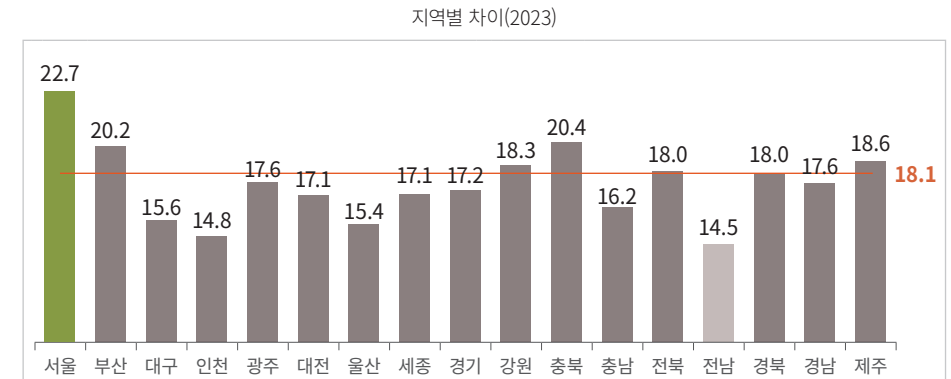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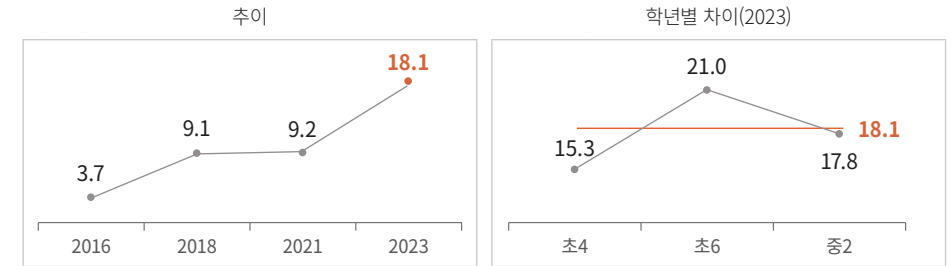


[그림 III-108]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아동의 기부 및 후원활동 참여 비율은 '16년 37.9%, '18년 43.8%, '21년 32.9%로 '18년 대비 1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47.8%로 '21년 대비 14.9%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8.6%, 초등 6학년 51.3%, 중등 2학년 42.8%인 것으로 나타나 중등 2학년의 기부 및 후원활동 참여 비율이 초등학교생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5.4%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38.6%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마찬가지로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아동 비율에서 두 지역간의 차이가 16.8%p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책 활동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정책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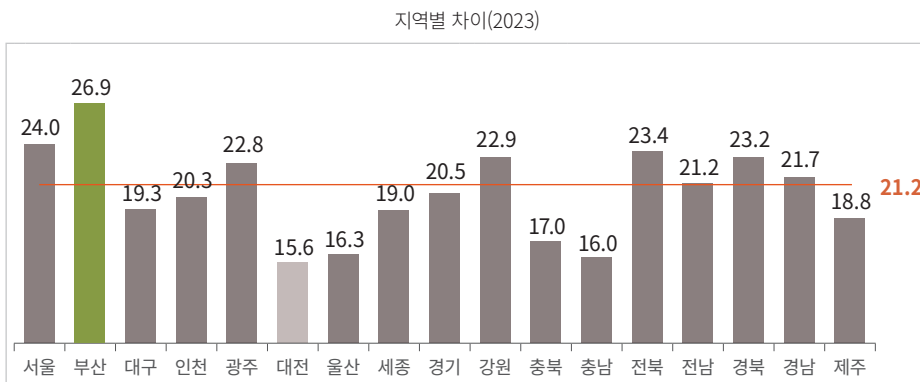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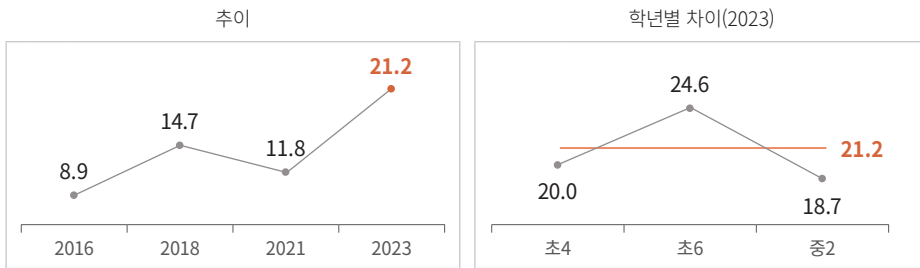


[그림 III-109] 정책 활동 참여

정책활동 참여 비율은 '16년 3.7%, '18년 9.1%, '21년 9.2%, '23년 18.1%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23년은 '21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5.3%, 초등 6학년 21.0%, 중등 2학년 17.8%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서울이 22.7%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전남이 14.5%로 가장 낮은 아동의 정책활동 참여 비율을 보인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교류 활동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내용 교류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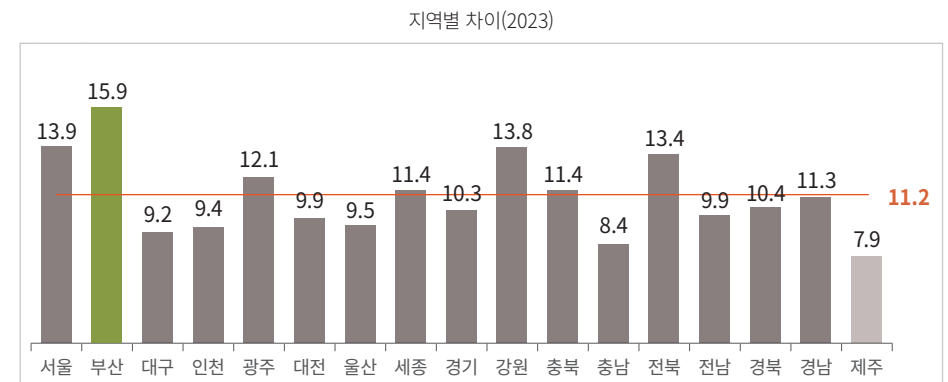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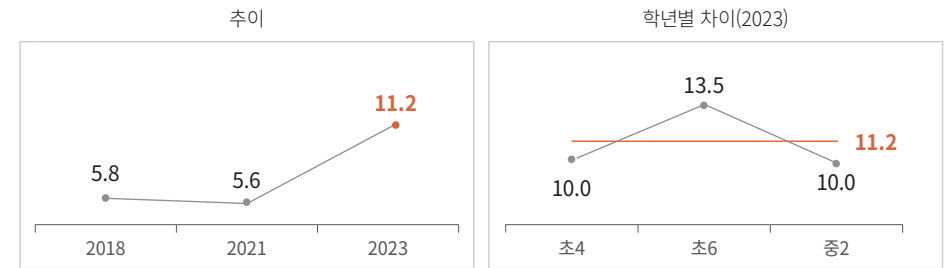


[그림 III-110] 교류 활동 참여

아동의 교류활동 참여 비율은 '16년 8.9%, '18년 14.7%, '21년 11.8%, '23년 21.2%로 전차 대비 9.4%p 증가한 것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20.0%, 초등 6학년 24.6%, 중등 2학년 18.7%의 수준을 보였다. 초등학교 4학년 대비 6학년 아동의 참여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중학교 2학년 아동의 참여율은 낮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15.6%로 가장 낮았다.

정치집회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내용 정치 관련 집회(모임)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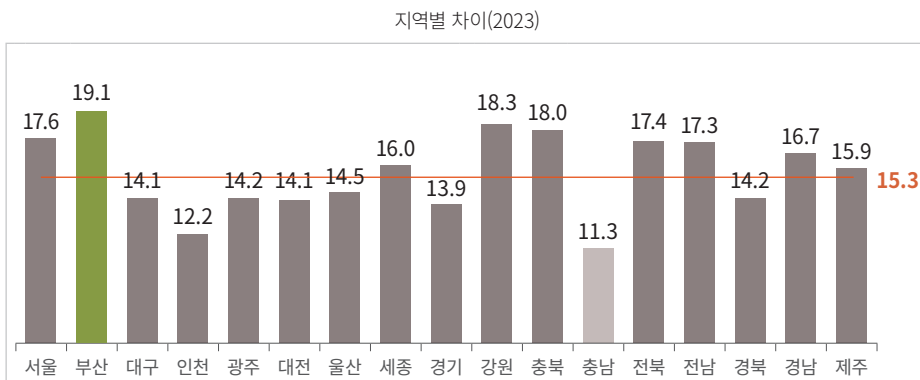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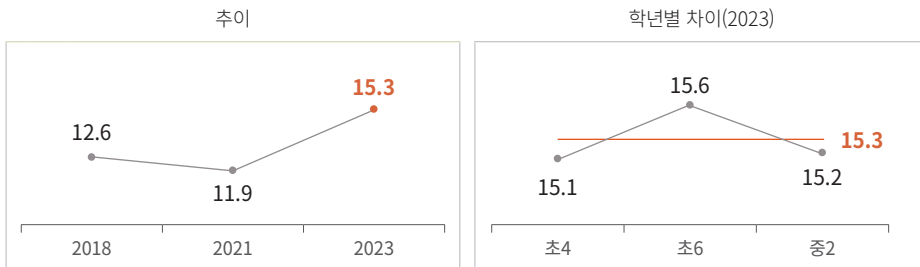


[그림 III-111] 정치집회 참여

아동이 정치 관련 집회(모임)에 참여한 경험은 '18년 5.8%, '21년 5.6%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3년 11.2%로 전차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이 13.5%로 다른 학년보다 많은 아동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 4학년과 중등 2학년은 10.0%로 평균(11.2%)보다 적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15.9%로 17개 시·도중 아동의 정치집회 참여 비율이 높았던 반면, 제주는 7.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명운동 및 청원 활동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서명운동 및 청원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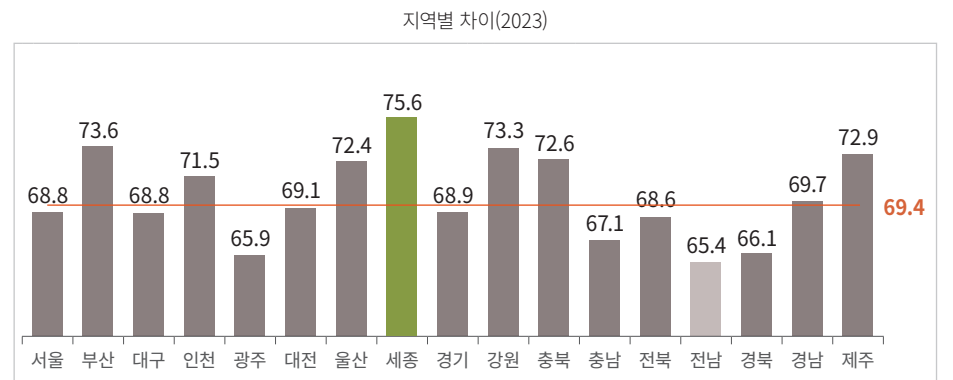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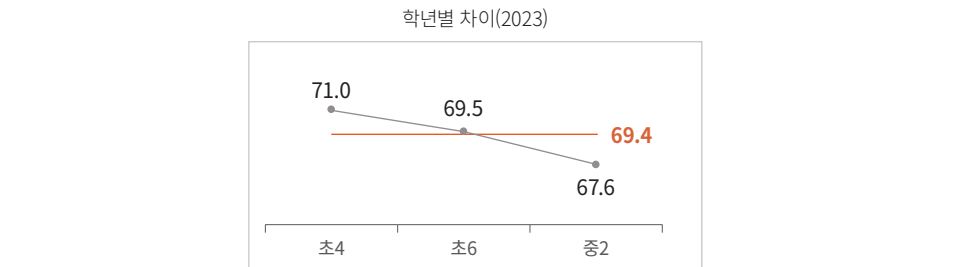


[그림 III-112] 서명운동 및 청원 활동 참여

아동이 청원 및 서명운동에 참여한 비율은 '18년 12.6%, '21년 11.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3년 15.3%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이 15.6%로 다른 학년보다 많은 아동이 청원 및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 4학년과 중등 2학년은 각각 15.1%, 15.2%로 나타나 평균(15.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중 부산이 19.1%로 아동의 청원 및 서명운동 참여 비율이 높았고, 충남은 11.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참여활동 자발성 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동아리, 캠페인, 자원봉사, 기부 및 후원, 정책참여 활동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활동 자발성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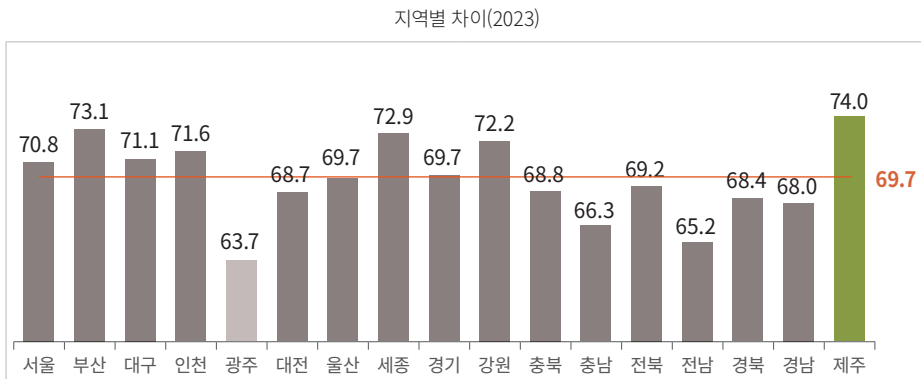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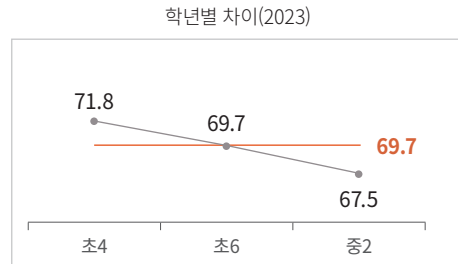


[그림 III-113] 참여활동 자발성 정도

아동의 사회활동(동아리, 봉사, 정치 등) 참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도는 평균 69.4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1.0점, 초등 6학년은 69.5점, 중등 2학년은 67.6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참여활동 자발성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세종이 75.6점으로 아동의 참여활동 자발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65.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참여활동 적극성 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동아리, 캠페인, 자원봉사, 기부 및 후원, 정책참여 활동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활동 적극성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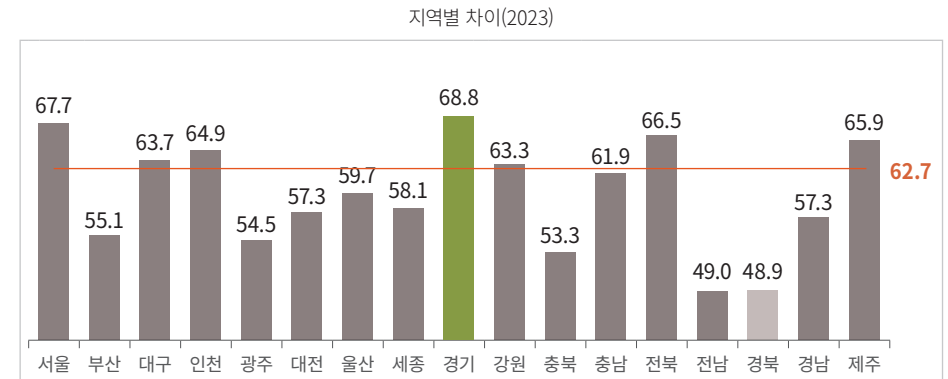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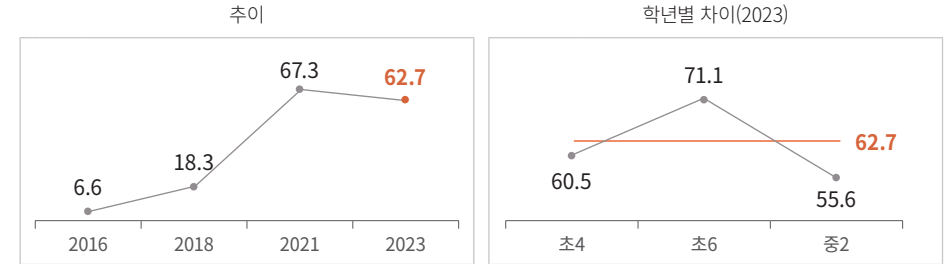


[그림 III-114] 참여활동 적극성 정도

아동의 사회활동(동아리, 봉사, 정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는 평균 69.7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1.8점, 초등 6학년은 69.7점, 중등 2학년은 67.5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참여활동 적극성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제주가 74.0점으로 아동의 참여활동 적극성 정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고, 광주는 63.7점으로 아동의 참여활동 적극성 정도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권리교육 참여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권리교육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115] 아동권리교육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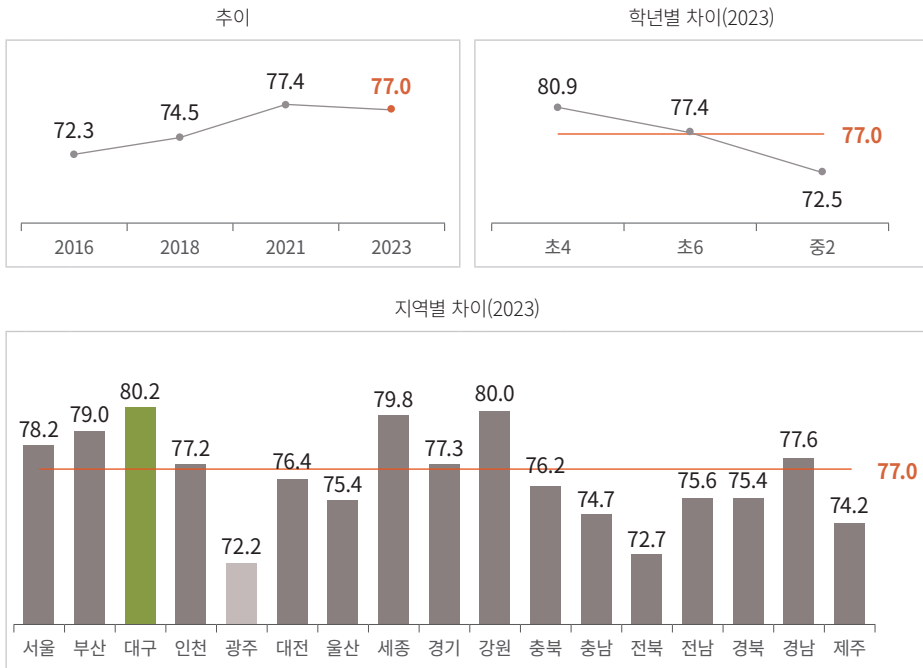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16년 6.6%, '18년 18.3%, '21년 67.3%로 '18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3년도의 아동권리교육 참여 비율은 전차 대비 4.6%p 감소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60.5%, 6학년 71.1%, 중등 2학년 55.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8.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경북 48.9%, 전남 49.0%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3) 발달결과

(1) 건강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현재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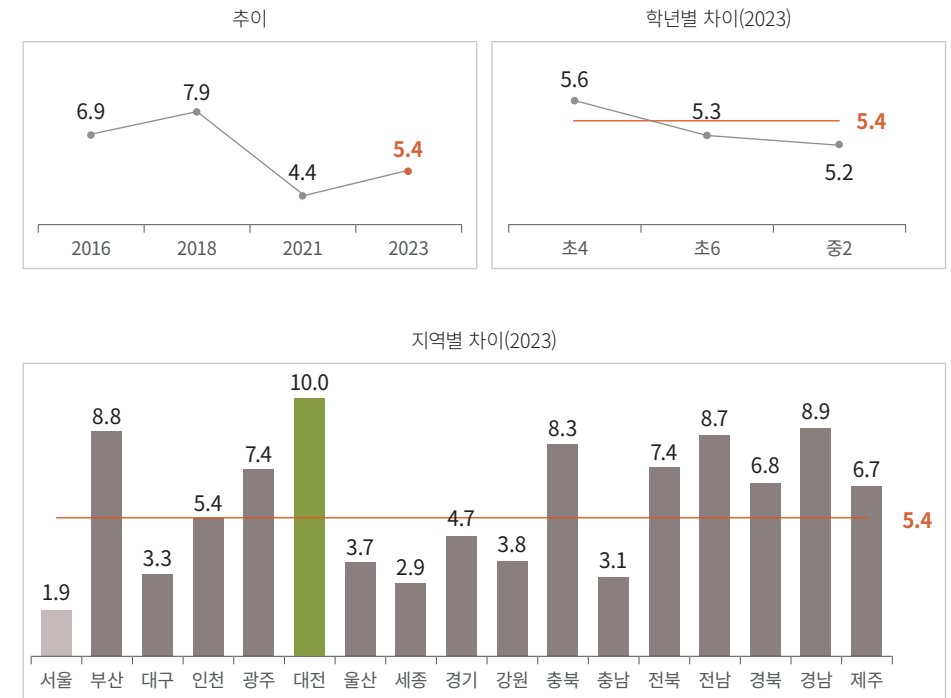


[그림 III-116]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16년 72.3점, '18년 74.5점, '21년 77.4점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 77.0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0.9점, 6학년 77.4점, 중등 2학년 72.5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8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7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입원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간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아동이 입원한 경험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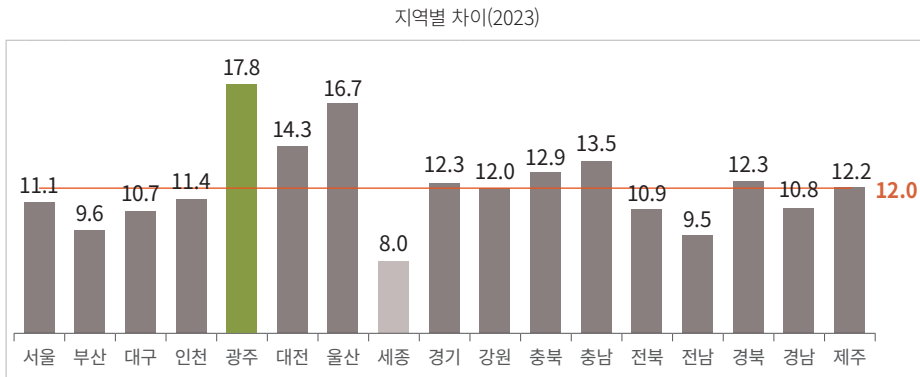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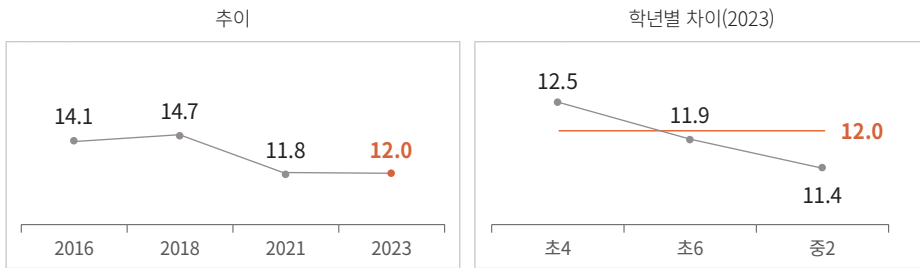


[그림 III-117] 입원 경험

아동의 입원 경험은 '16년 6.9%, '18년 7.9%, '21년 4.4%로 '21년도의 입원경험 비율이 '16년과 '18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3년 5.4%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23년 일상생활 회복과 의료기관의 정상화로 진료 및 입원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5.6%,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는 5.3%,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5.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10.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서울이 1.9%로 가장 낮았다.

만성질환 여부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에게 천식, 아토피와 같은 만성질환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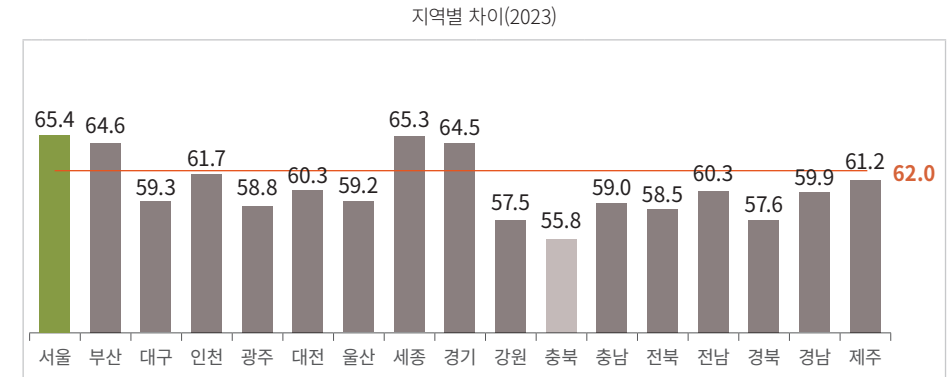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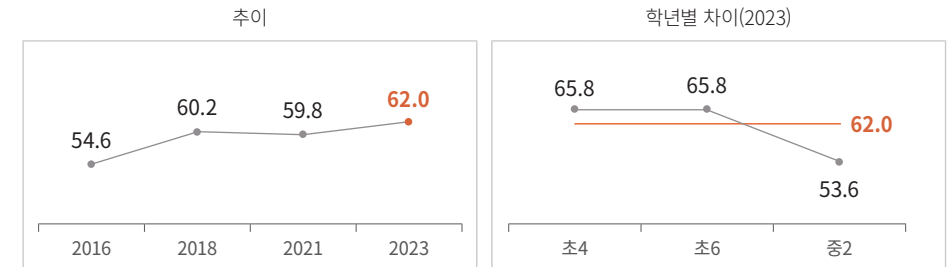
[그림 III-118]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14.1%, '18년 14.7%, '21년 11.8%, '23년 12.0%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2.5%, 6학년 11.9%, 중등 2학년 11.4%로 학년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17.8%로 만성질환을 보유한 아동이 가장 많았던 반면, 세종은 8.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인지

전반적인 학업성취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 스스로 인지하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1문항)
- 척도 5점 척도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학업성취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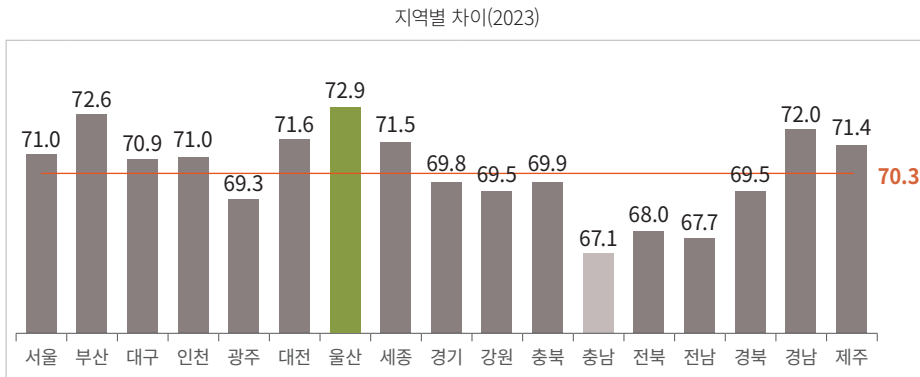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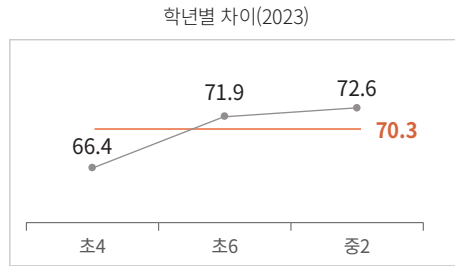


[그림 III-119] 전반적인 학업성취

아동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는 '16년 54.6점, '18년 60.2점, '21년 59.8점, '23년 62.0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과 6학년은 65.8점으로 동일하였고, 중등 2학년은 53.6점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학업성취 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이 55.8점으로 가장 낮았다.

디지털 리터러시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온라인 내 매체 활용, 온라인 검색 등 디지털 활용능력 정도 (3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활용능력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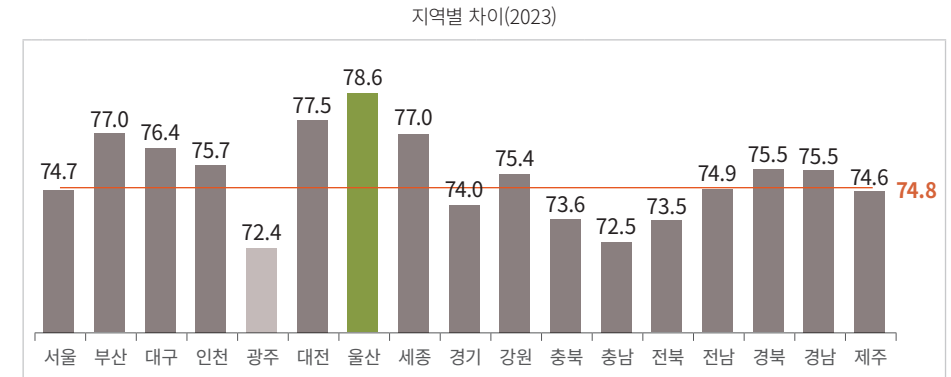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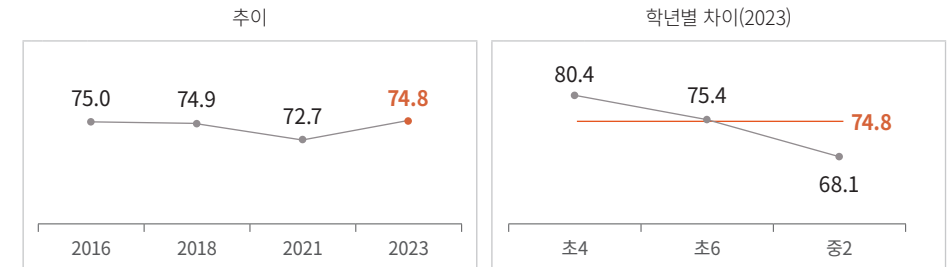
[그림 III-120]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는 평균 70.3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66.4 점, 초등 6학년은 71.9점, 중등 2학년은 72.6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디지털 활용 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72.9점으로 17개 시·도중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이 67.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3) 사회정서

자아존중감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등 아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 (8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단위: 점)



[그림 III-121]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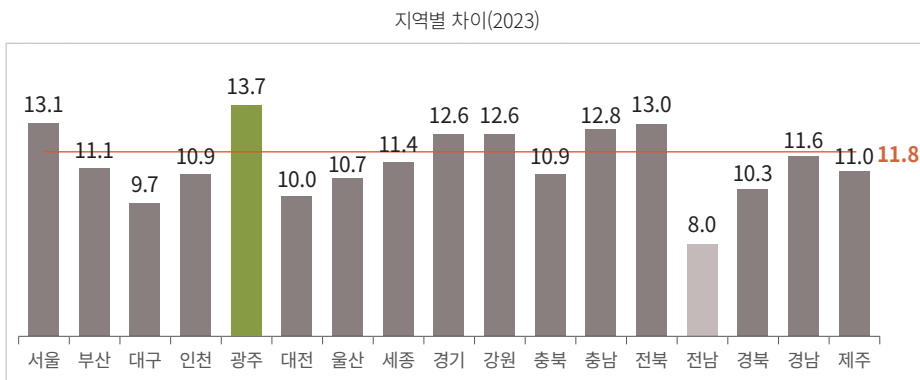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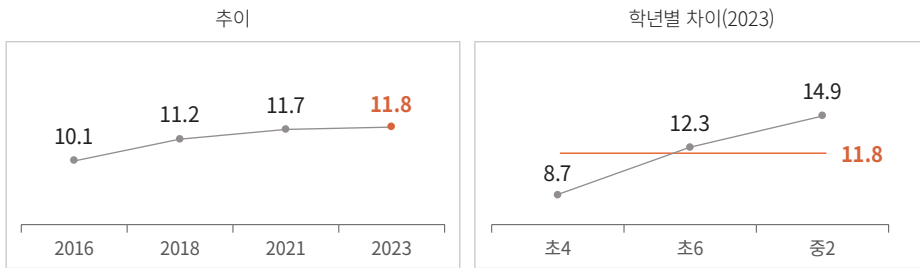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16년 75.0점, '18년 74.9점, '21년 72.7점으로 다소 감소 하였지만, '23년 74.8점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0.4점, 6학년은 75.4점, 중등 2학년은 68.1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7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72.4점, 충남이 72.5점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우울 정서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지난 1주일간 두려움, 외로움, 슬픔과 같은 우울한 기분을 느낀 정도 (7문항)
- 척도 4점 척도 (0 전혀 없다, 1 1주일에 1~2일, 2 1주일에 3~4일, 3 거의 매일 5~7일)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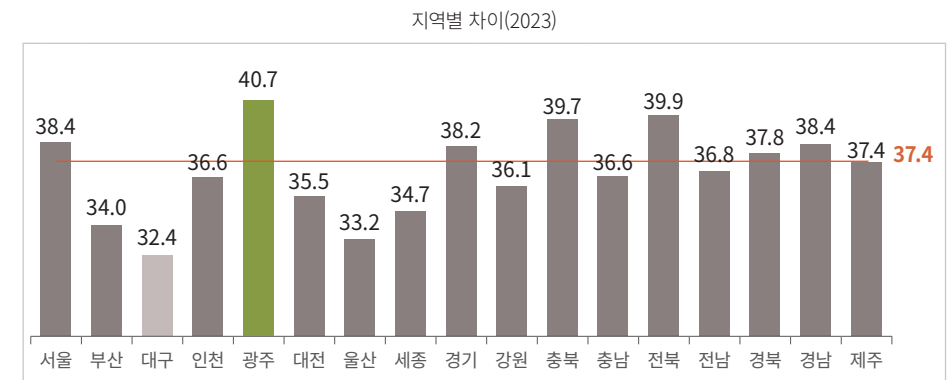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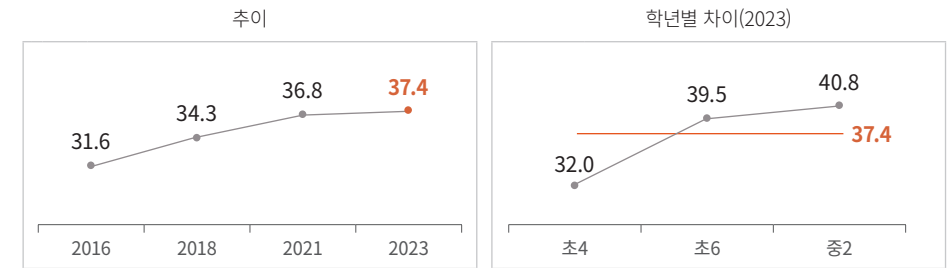


[그림 III-122] 우울 정서

아동의 우울 정도는 '16년 10.1점, '18년 11.2점, '21년 11.7점, '23년 11.8점으로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8.7점, 초등 6학년은 12.3점, 중등 2학년은 14.9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우울 점수도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1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8.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불안 정서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여러 가지 걱정이 많거나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정도 (6문항)
- 척도 4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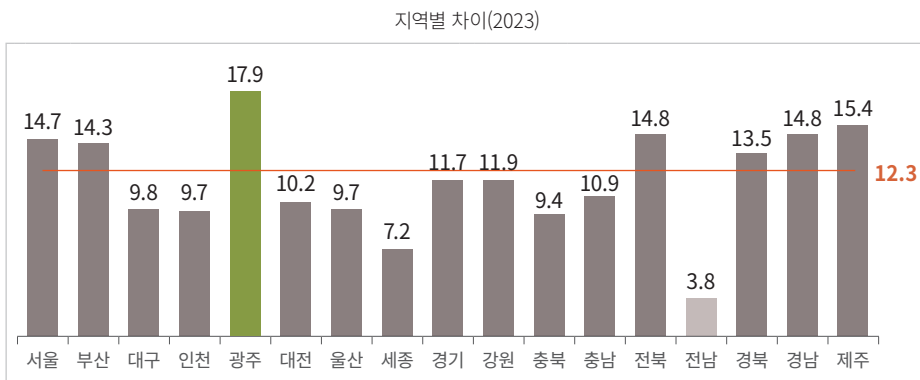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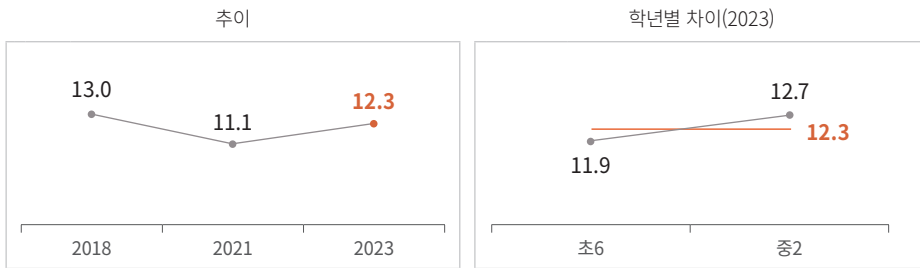


[그림 III-123] 불안 정서

아동의 불안정서 정도는 '16년 31.6점, '18년 34.3점, '21년 36.8점, '23년 37.4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32.0점, 6학년은 39.5점, 중등 2학년은 40.8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불안 수준도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40.7점으로 아동의 불안정서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32.4점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슬픔 및 좌절 지속

- 대상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2주 이상 지속된 슬픔 및 좌절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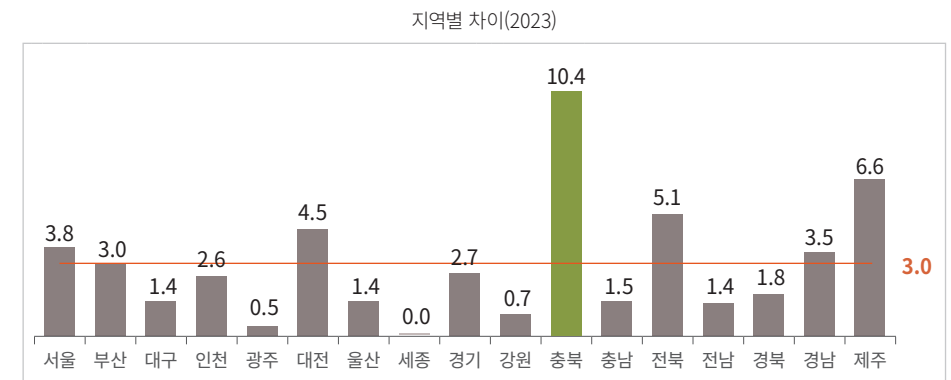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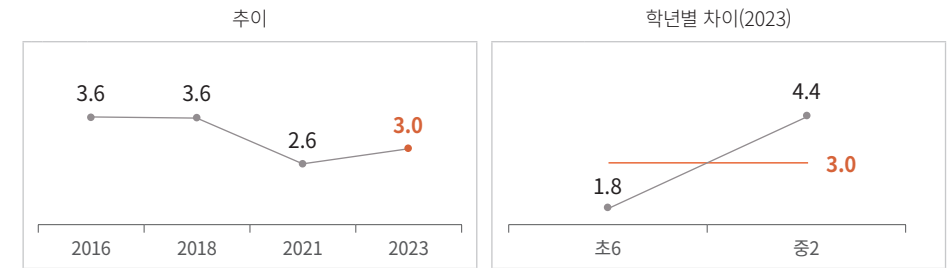


[그림 III-124] 슬픔 및 좌절 지속

슬픔 및 좌절이 지속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18년 13.0%, '21년 11.1%, '23년 12.3%로 '21년 감소하다 '23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11.9%, 중등 2학년은 12.7%로 학년이 높을수록 슬픔 및 좌절이 지속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한 아동의 12.3%가 지난 1년 동안 슬픔 및 좌절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시·도별로는 광주가 17.9%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3.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위비행 경험

- 대상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달 동안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경험 여부 (4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한 문항이라도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125] 지위비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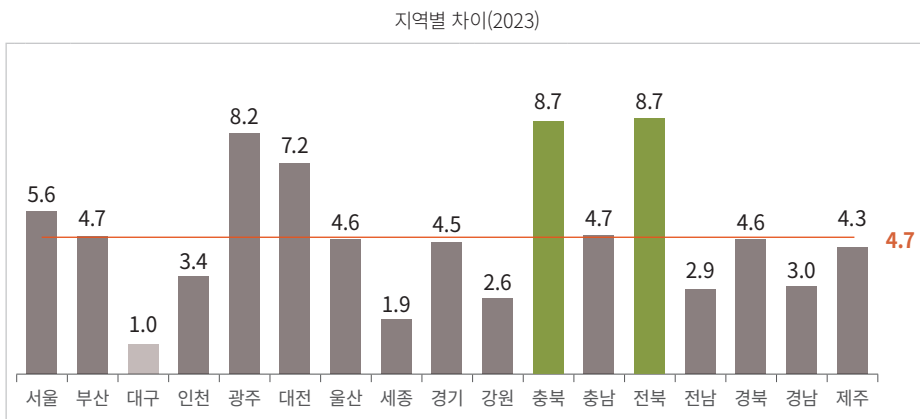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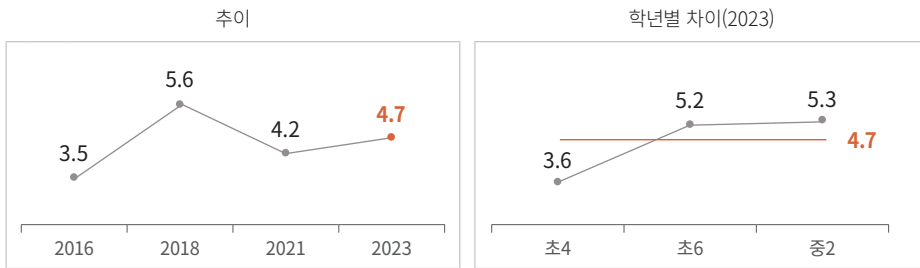
아동의 지위비행 경험 비율은 '16년 3.6%, '18년 3.6%, '21년 2.6%로 '21년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3년 3.0%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1.8%, 중등 2학년은 4.4%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지위비행 경험 수준도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10.4%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세종이 0%로 응답자 가운데 지위비행을 경험한 아동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폭력비행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달 동안 타인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는 등의 경험 여부 (5문항)¹⁾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한 문항이라도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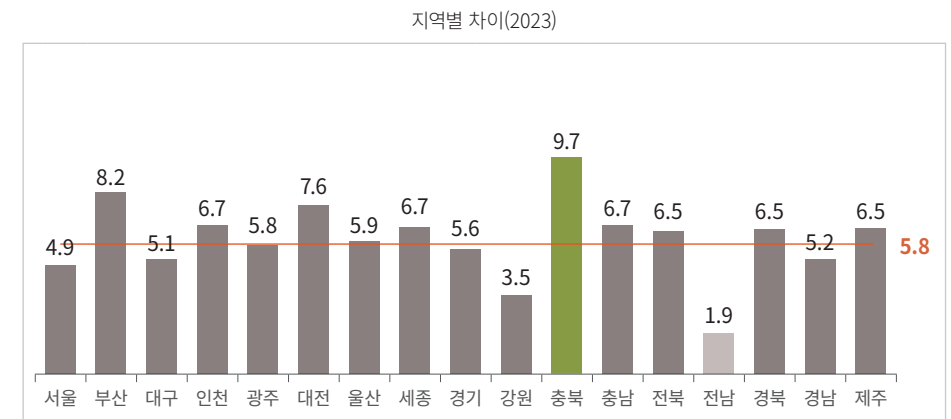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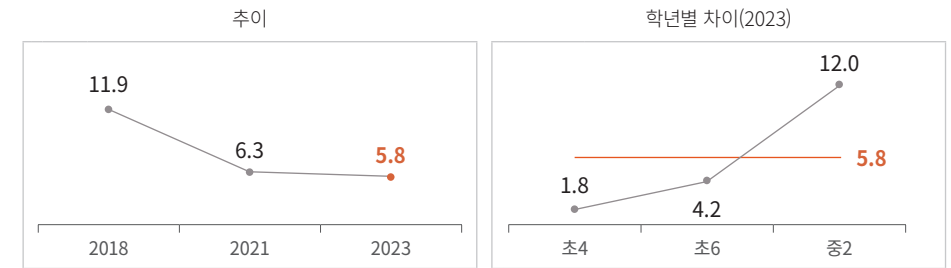
[그림 III-126] 폭력비행 경험

지난 1년간 폭력비행 경험 비율은 '16년 3.5%, '18년 5.6%, '21년 4.2%, '23년 4.7%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3.6%, 6학년은 5.2%, 중등 2학년은 5.3%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폭력비행 경험 수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북과 충북이 8.7%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이었고, 대구는 1.0%로 폭력비행을 경험한 아동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1. 4차(2023) 조사에서 문항 수 조정

사이버비행 경험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달 동안 인터넷 ID/주민번호 무단 사용 등의 경험 여부 (4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한 문항이라도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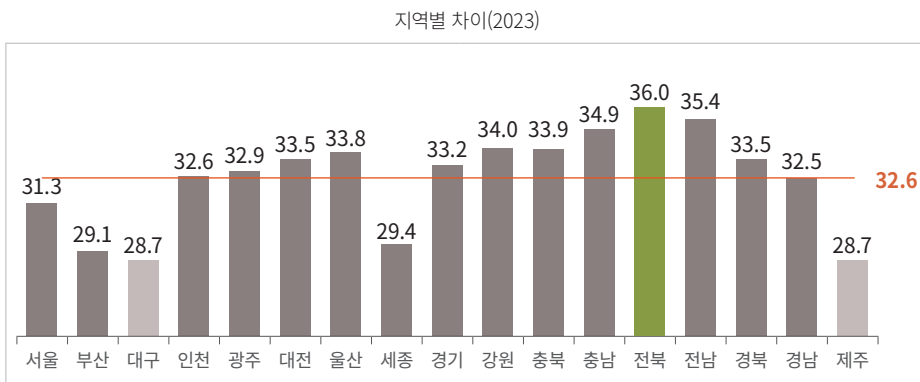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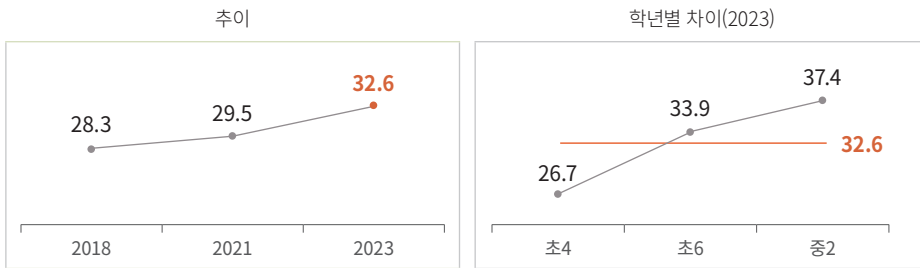


[그림 III-127] 사이버비행 경험

사이버비행 경험 비율은 '18년 11.9%, '21년 6.3%, '23년 5.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8%, 6학년은 4.2%, 중등 2학년은 12.0%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사이버비행 경험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9.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전남이 1.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스마트폰 이용시간 조절 실패, 충동성, 문제적 결과 등 과의존 정도 (5문항)²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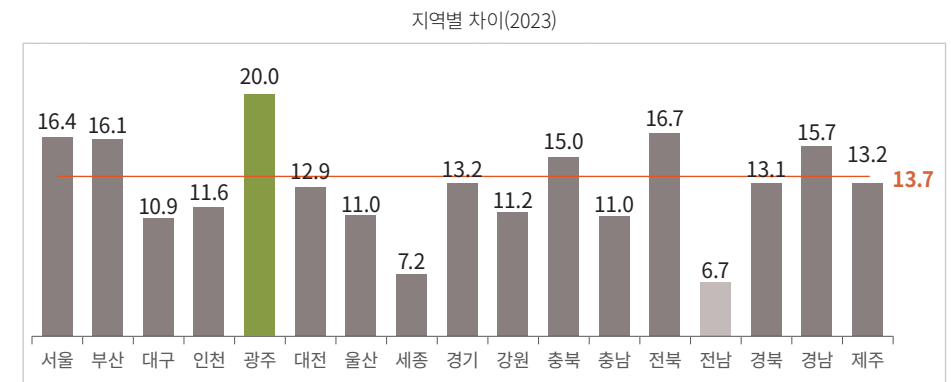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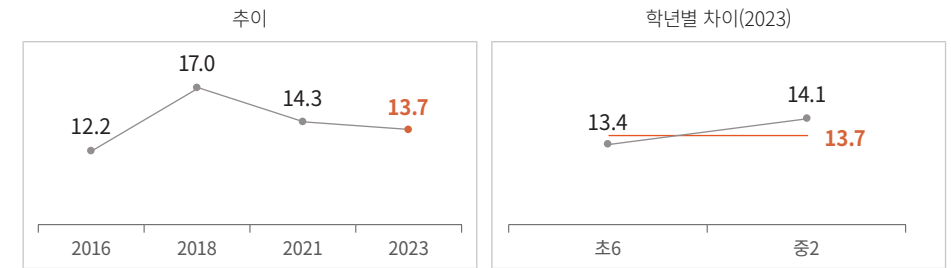
[그림 III-128]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18년 28.3점, '21년 29.5점, '23년 32.6점으로 계속해서 소폭 상승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6.7점, 초등 6학년은 33.9점, 중등 2학년은 37.4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36.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대구와 제주가 28.7점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4차(2023) 조사에서 문항 수 조정

자살 생각

- 대상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129] 자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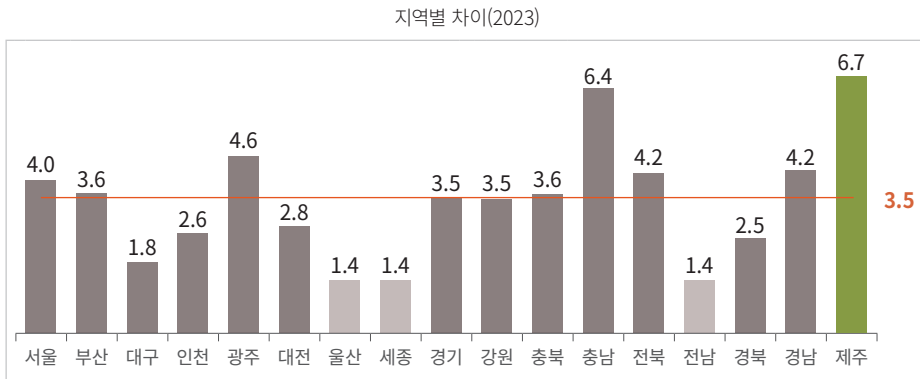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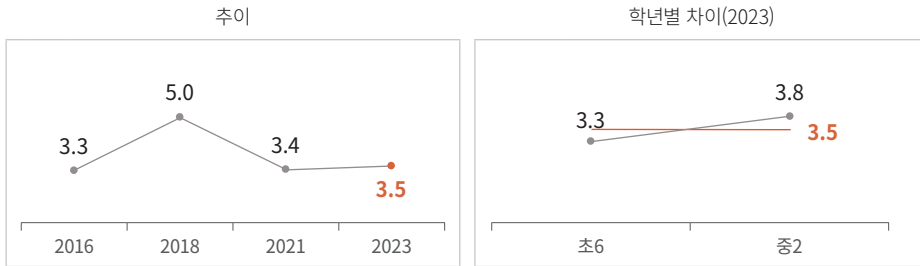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12.2%, '18년 17.0%, '21년 14.3%, '23년 13.7%로 '18년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13.4%, 중등 2학년은 14.1%로 초등 6학년보다 중등 2학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6.7%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자살 시도 계획

- 대상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본 적이 있는지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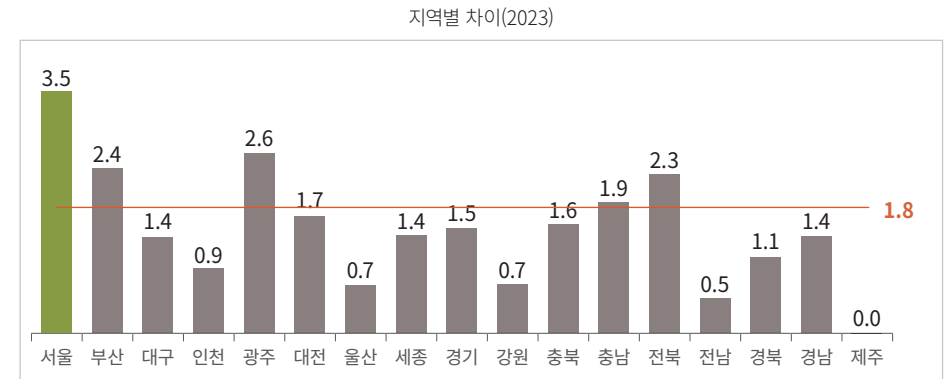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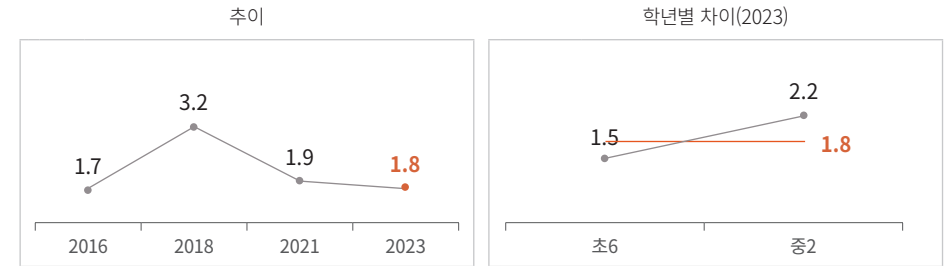


[그림 III-130] 자살 시도 계획

자살 시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 아동 비율은 '16년 3.3%, '18년 5.0%, '21년 3.4%, '23년 3.5%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3.3%, 중등 2학년은 3.8%로 초등 6학년보다 중등 2학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과 울산, 전남이 1.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 대상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지난 1년 동안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131] 자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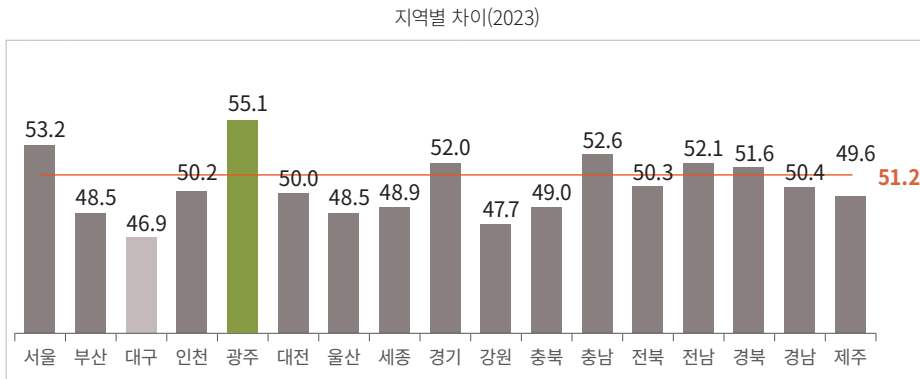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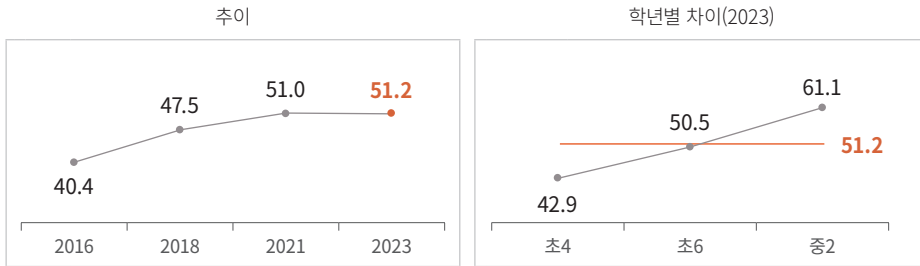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1.7%, '18년 3.2%, '21년 1.9%, '23년 1.5%로 '18년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1.5%, 중등 2학년은 2.2%로 학년이 높을수록 자살 시도 비율이 더 높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0.0%로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학업 스트레스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공부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0-10점 (㉠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 ㉡ 보통 ~ ㉢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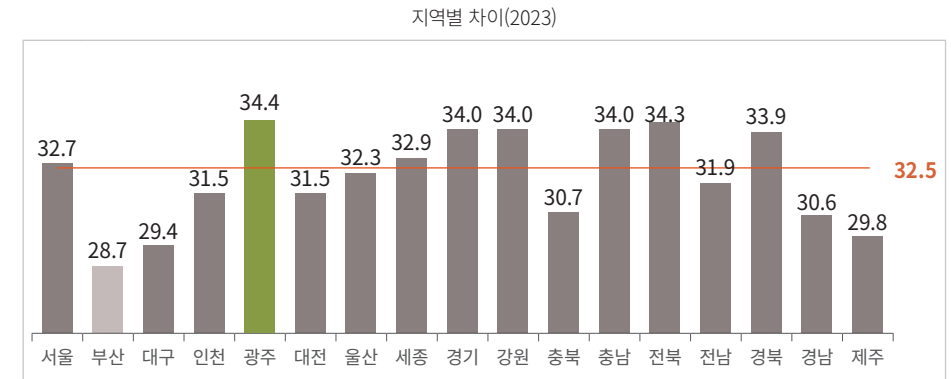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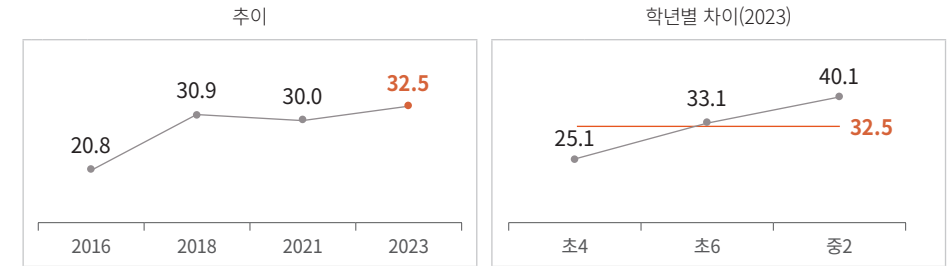


[그림 III-132] 학업 스트레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16년 40.4점, '18년 47.5점, '21년 51.0점, '23년 51.2 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42.9점, 초등 6학년은 50.5점, 중등 2학년은 61.1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5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46.9점으로 가장 낮았다.

친구 스트레스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친구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0-10점 (㉠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 ㉡ 보통 ~ ㉢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133] 친구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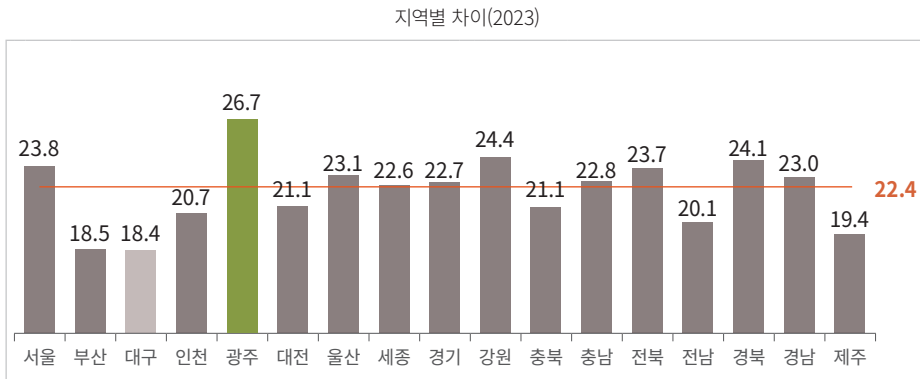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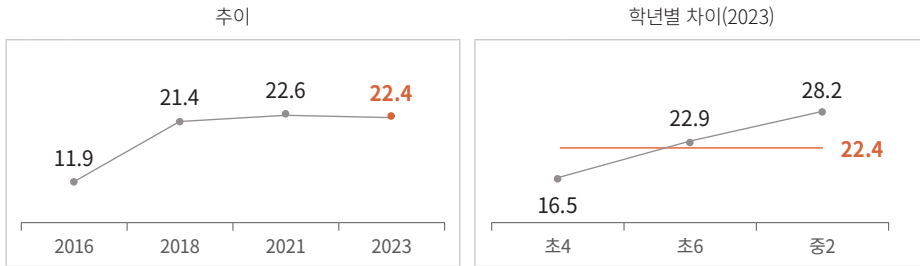
친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16년 20.8점, '18년 30.9점, '21년 30.0점, '23년 32.5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5.1점, 초등 6학년은 33.1점, 중등 2학년은 40.1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친구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3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8.7점으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가족 스트레스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가족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0-10점 (㉠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 ㉡ 보통 ~ ㉢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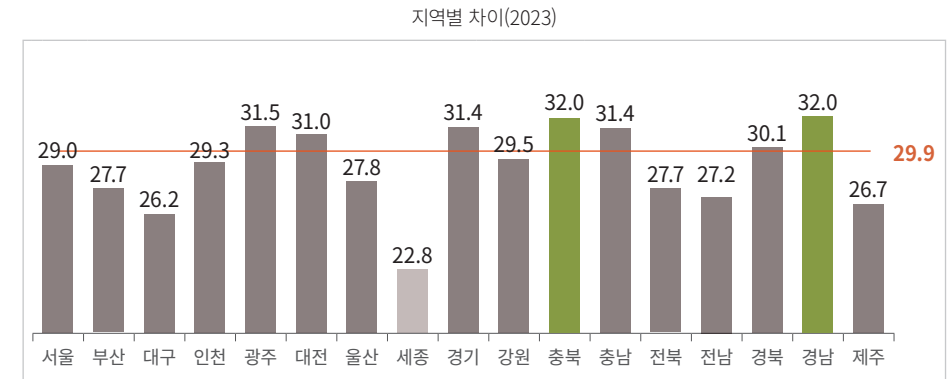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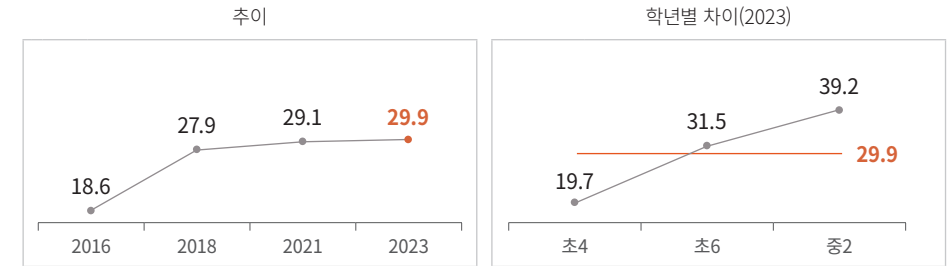


[그림 III-134] 가족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정도는 '16년 11.9점, '18년 21.4점, '21년 22.6점, '23년 22.4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6.5점, 초등 6학년은 22.9점, 중등 2학년은 28.2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6.7점으로 전차에 이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대구는 18.4점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외모 스트레스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외모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0-10점 (㉠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 ㉡ 보통 ~ ㉢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135] 외모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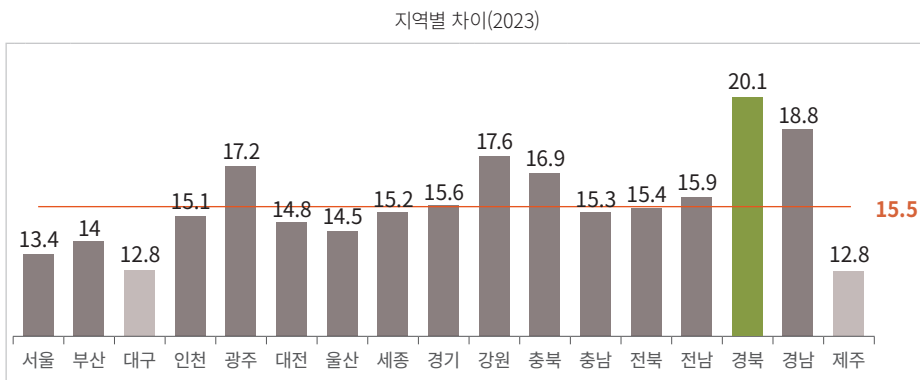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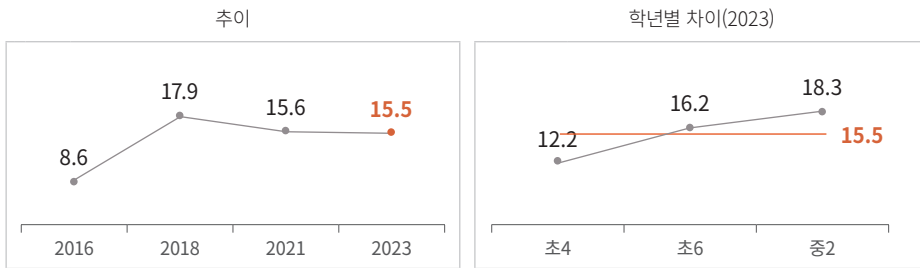
아동의 외모 스트레스는 '16년 18.6점, '18년 27.9점, '21년 29.1점, '23년 29.9점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9.7점, 6학년은 31.5점, 중등 2학년은 39.2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과 경남이 32.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세종이 22.8점으로 가장 낮았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경제적 스트레스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0-10점 (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 ⑤ 보통 ~ ⑩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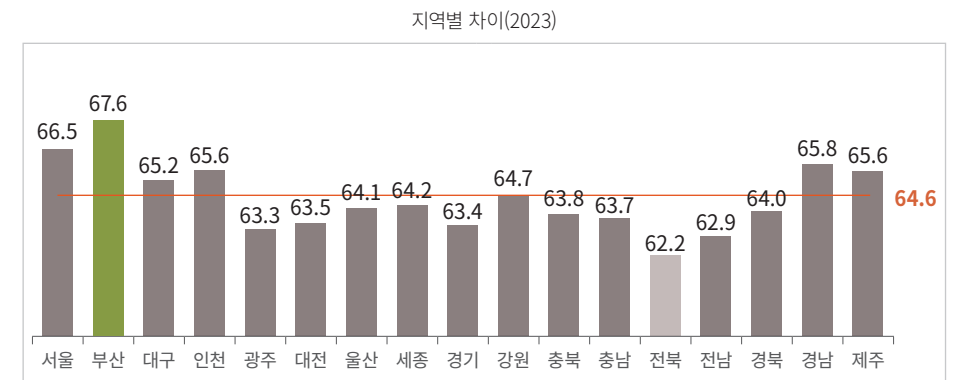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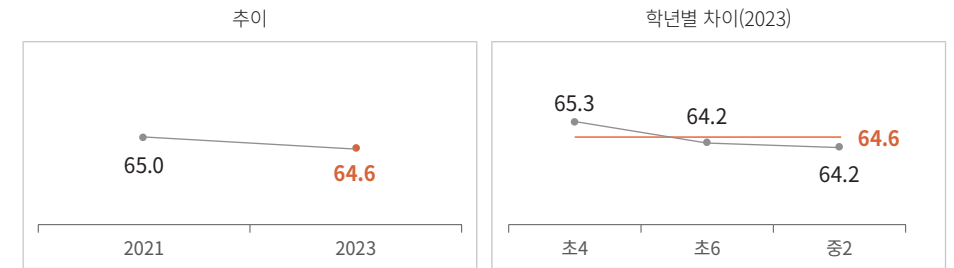


[그림 III-136]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는 '16년 8.6점, '18년 17.9점, '21년 15.6점, '23년 15.5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2.2점, 초등 6학년은 16.2점, 중등 2학년은 18.3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도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와 제주가 12.8점으로 가장 낮았다.

진로성숙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문항 수정) ■ 4차
- 내용 미래 계획과 진로에 대한 계획성, 합리성 등에 대한 인식 (10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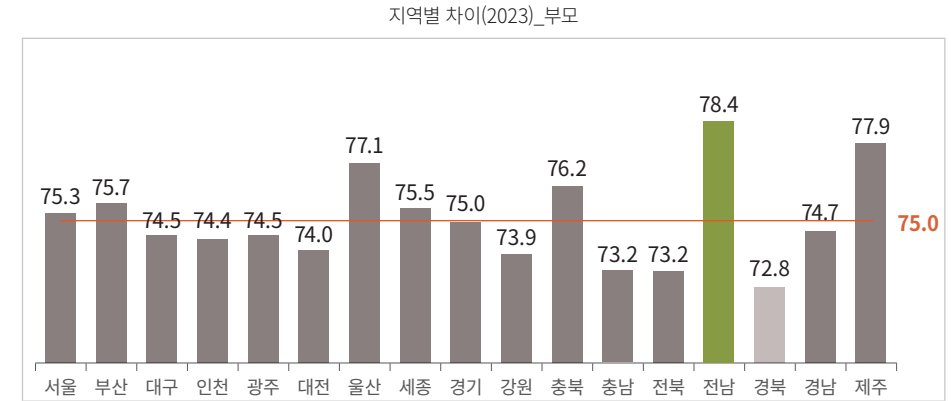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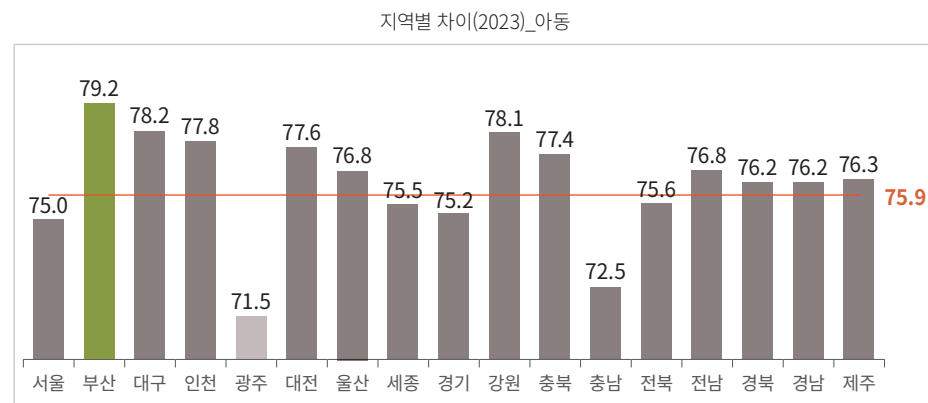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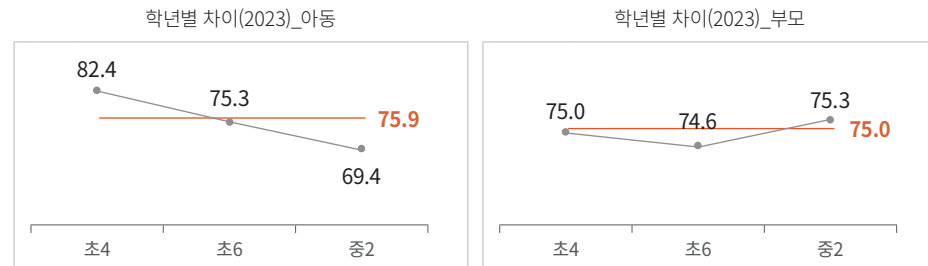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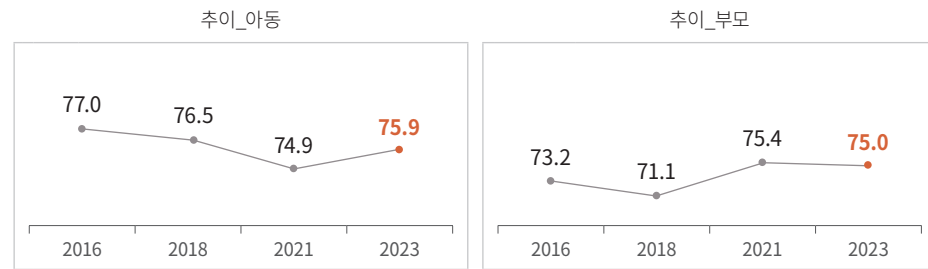
[그림 III-137] 진로성숙도

아동의 진로성숙도의 경우 '21년 65.0점, '23년 64.6점으로 다소 낮아졌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65.3점, 초등 6학년과 중등 2학년은 64.2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67.6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전북이 62.2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4) 행복

현재 행복감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현재 아동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평가
- 척도 0-10점 척도 (① 매우 행복하지 않다 ~ ⑤ 보통 ~ ⑩ 매우 행복하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138] 현재 행복감

아동의 현재 행복감 정도는 '16년 77.0점, '18년 76.5점, '21년 74.9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3년 75.9점으로 아동의 현재 행복감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16년 73.2점, '18년 71.1점, '21년 75.4점, '23년 75.0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2.4점, 초등 6학년은 75.3점, 중등 2학년은 69.4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현재의 행복감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초등 4학년 75.0점, 초등 6학년은 74.6점, 중등 2학년은 75.3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아동의 경우 부산이 79.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광주가 7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전남이 78.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경북이 7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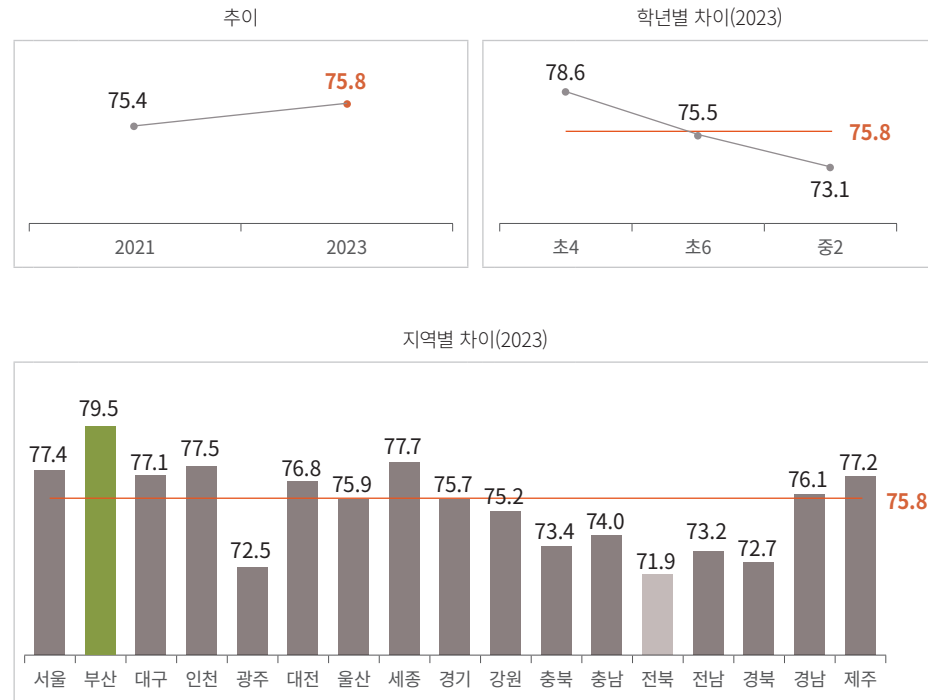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5) 가치관

시민의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는지 등 시민의식 정도 (4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의식이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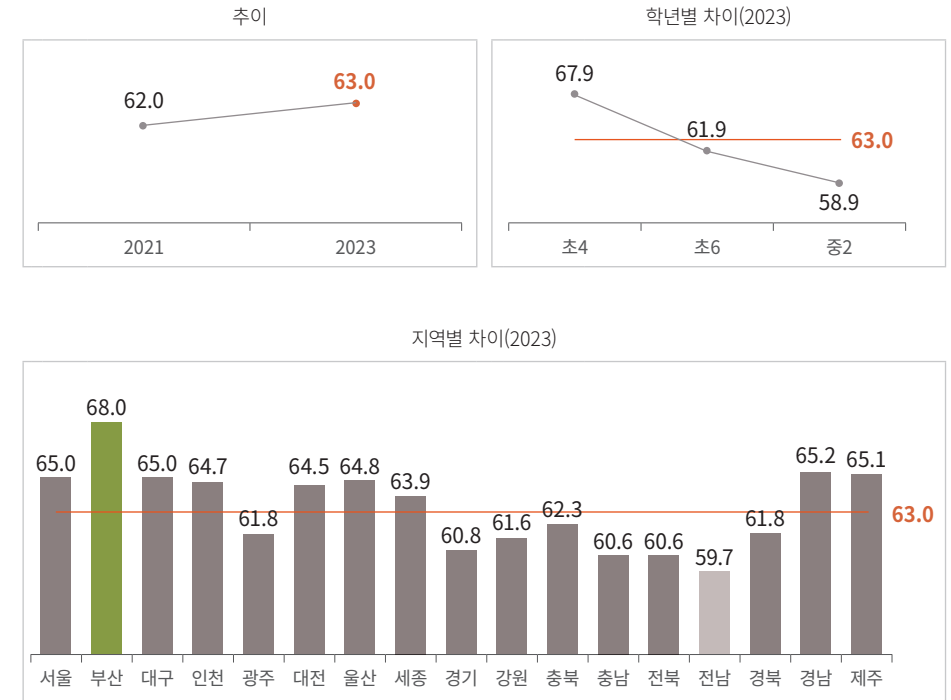


[그림 III-139] 시민의식

시민의식 정도를 살펴보면, '21년 75.4점에서 '23년 75.8점으로 아동의 시민의식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8.6점, 초등 6학년은 75.5점, 중등 2학년은 73.1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시민의식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9.5점으로 시민의식 정도가 가장 높았고, 전북이 71.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등 공동체 의식 정도 (4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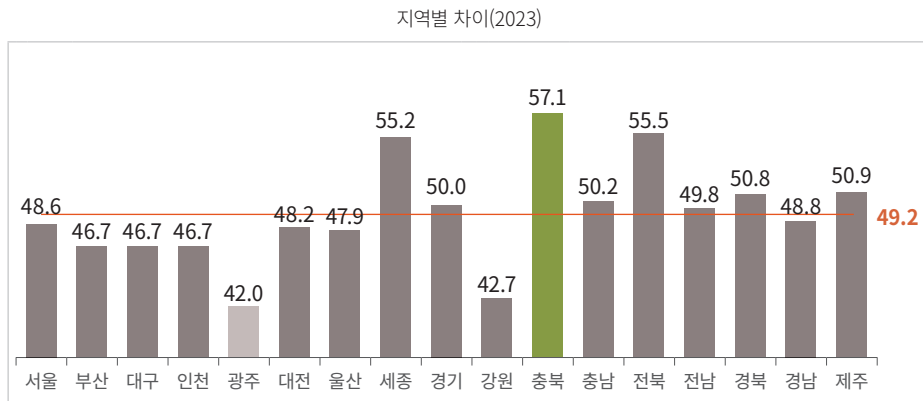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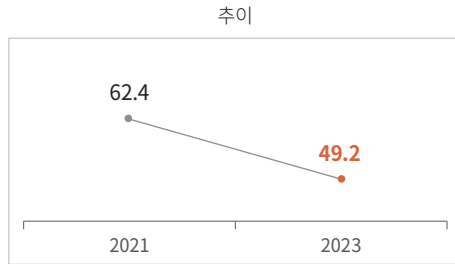


[그림 III-140]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식 정도를 살펴보면, '21년 62.0점에서 '23년 63.0점으로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67.9점, 초등 6학년은 61.9점, 중등 2학년은 58.9점으로 시민의식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공동체 의식 정도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68.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전남이 59.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간 불평등

- 대상 ■ 아동(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우리나라의 계층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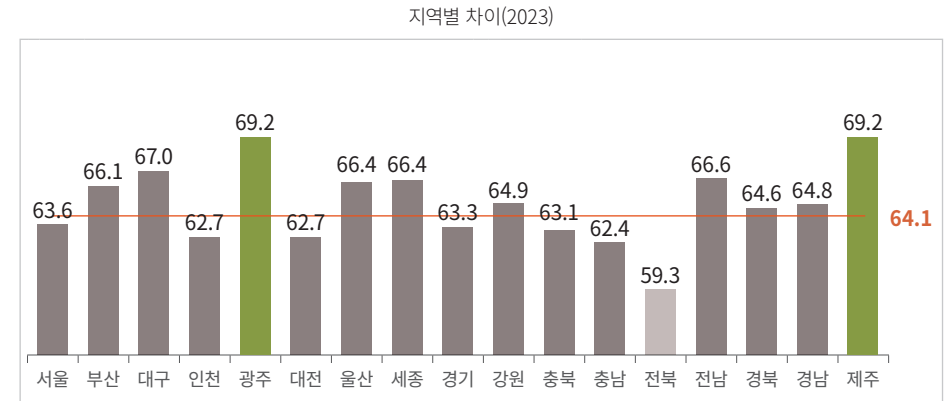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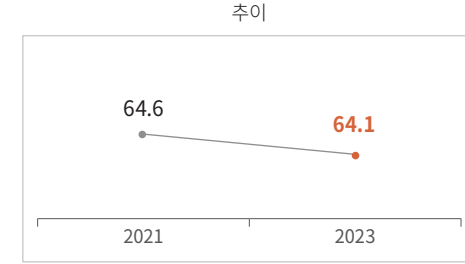


[그림 III-141] 계층간 불평등

아동이 인식하는 계층간 불평등 정도는 '21년 62.4점에서 '23년 49.2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57.1점으로 아동이 인식하는 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는 4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층간 이동가능성

- 대상 ■ 아동(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노력하면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2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간 이동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함 (단위: 점)



[그림 III-142] 계층간 이동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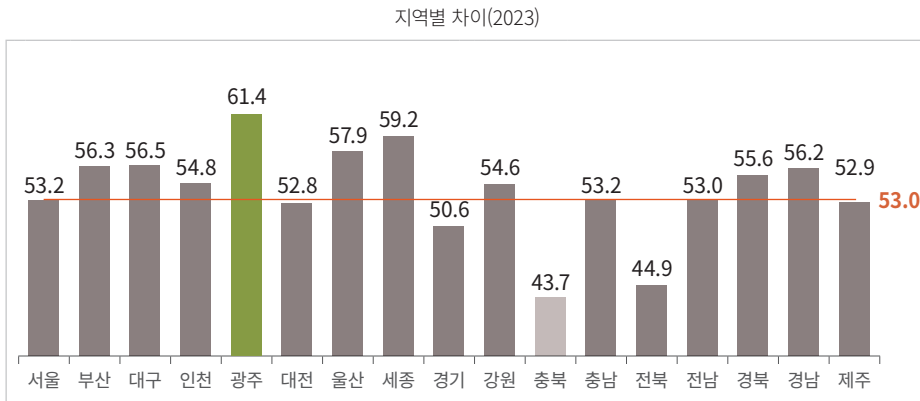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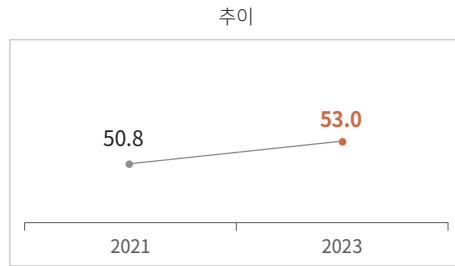
아동이 인식하는 계층간 이동가능성 정도는 '21년 64.6점에서 '23년 64.1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제주가 69.2점으로 계층간 이동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전북은 59.3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계층간 격차완화제도

- 대상 ■ 아동(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인식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격차완화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식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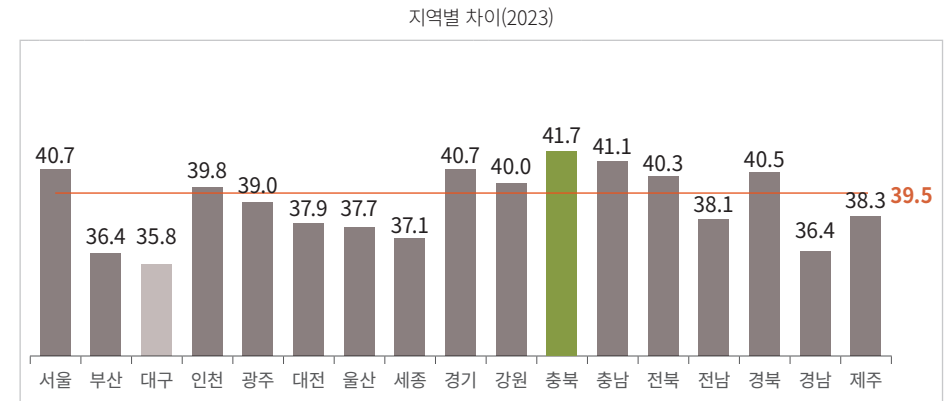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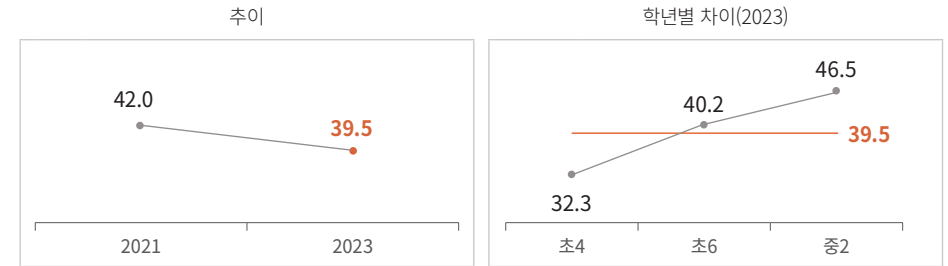


[그림 III-143] 계층간 격차완화제도

계층간 격차완화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21년 50.8점에서 '23년 53.0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61.4점으로 계층간 격차완화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은 43.7점으로 계층간 격차완화제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아동, 여성, 장애인, 인종, 가난한 사람 등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인식 (8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매우 불평등, ② 약간 불평등, ③ 약간 평등, ④ 매우 평등)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함 (단위: 점)



[그림 III-144]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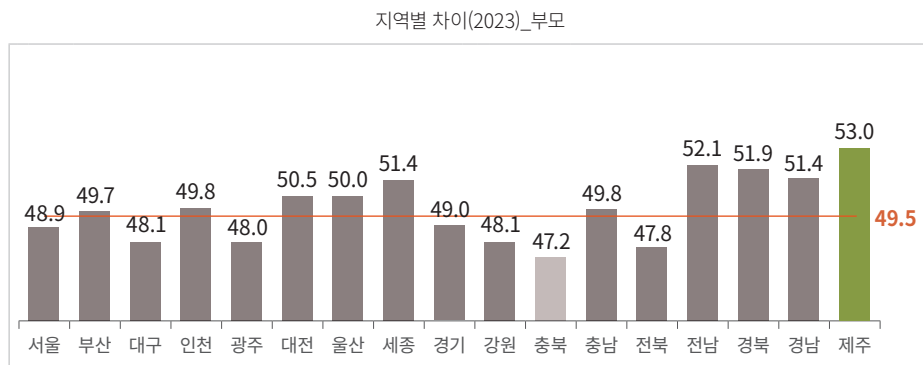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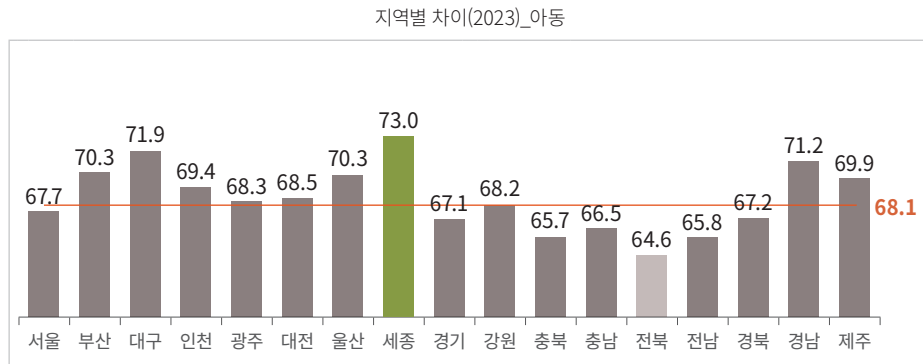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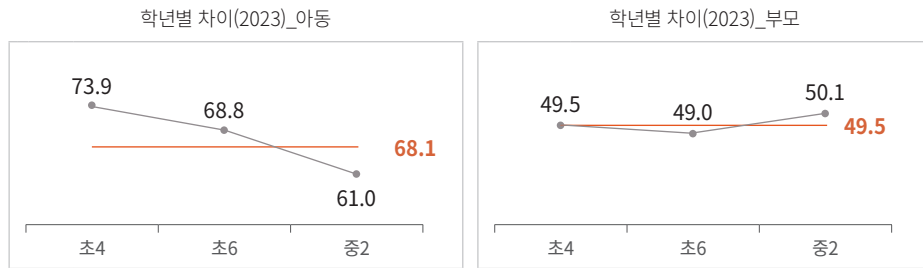
아동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의 불평등 대우 정도는 '21년 42.0점에서 '23년 39.5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이 32.3점으로 평균 39.5점보다 낮았고, 초등 6학년은 40.2점, 중등 2학년은 46.5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41.7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대구는 35.8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우리사회 공정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교육의 기회, 성공의 기회 등 우리 사회가 공정한지에 대한 인식 (4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함 (단위: 점)



[그림 III-145] 우리사회 공정성

우리사회의 공정성 정도는 아동은 평균 68.1점, 부모는 49.5점으로, 부모(보호자)보다 아동이 우리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초등 4학년이 73.9점, 초등 6학년은 68.8점, 중등 2학년은 61.0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우리사회가 공정성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였고 부모(보호자)의 경우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49.5점,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는 49.0점, 중등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는 50.1점으로 아동과 달리 부모(보호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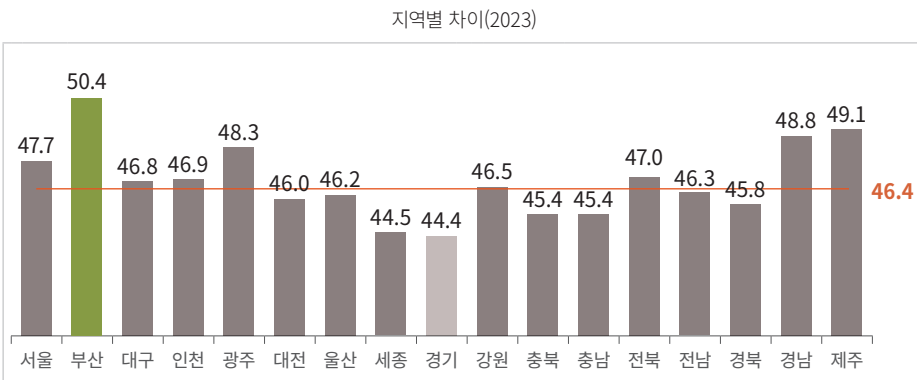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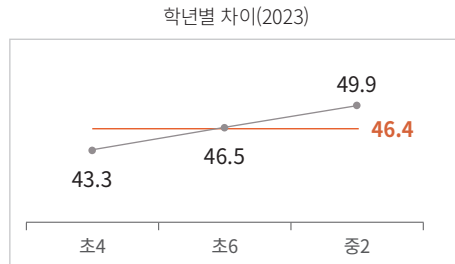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세종이 73.0점으로 17개 시·도중 우리사회의 공정성 정도를 가장 높게 보았고, 전북이 64.6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제주가 5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이 47.2점으로 17개 시·도중 우리사회의 공정성 정도를 가장 낮게 보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디지털 시민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의식 정도 (3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시민성이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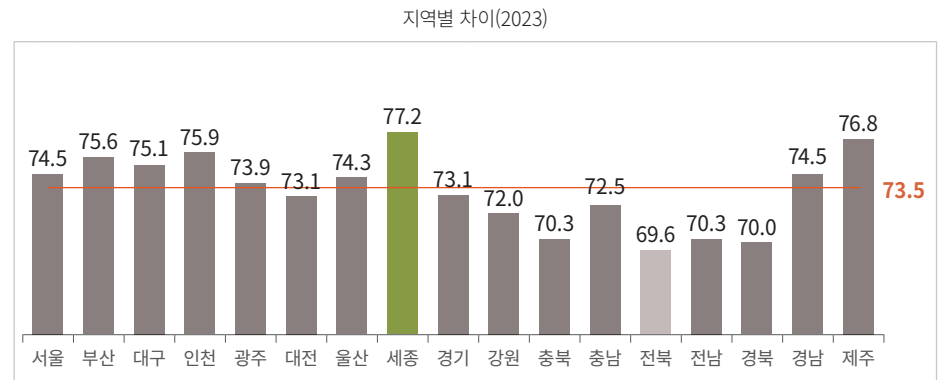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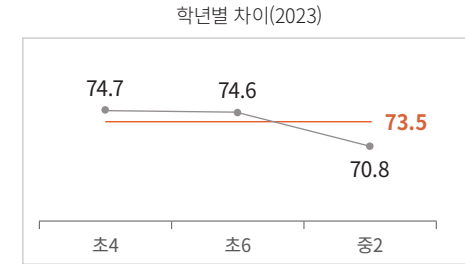


[그림 III-146]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은 평균 46.4점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대비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3.3점, 초등 6학년은 46.5점, 중등 2학년은 49.9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디지털 시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50.4점으로 17개 시·도중 아동의 디지털 시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는 44.4점 세종은 44.5점으로 아동의 디지털 시민성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_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할 기회 정도 (2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매우 불평등, ② 약간 불평등, ③ 약간 평등, ④ 매우 평등)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가 충분하다고 인식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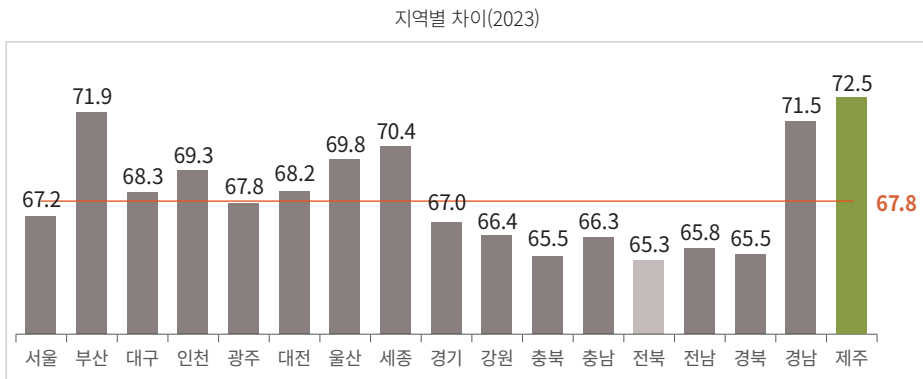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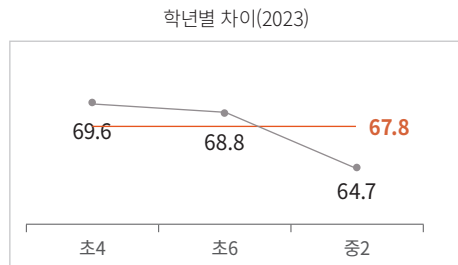


[그림 III-147]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_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는 평균 73.5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4.7점, 초등 6학년은 74.6점, 중등 2학년은 70.8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77.2점으로 17개 시·도중 아동의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이 69.6점으로 아동의 환경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_정부 및 지자체 조치 적절성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기후변화나 재난재해에 정부 및 지자체 조치가 적절한지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매우 불평등, ② 약간 불평등, ③ 약간 평등, ④ 매우 평등)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식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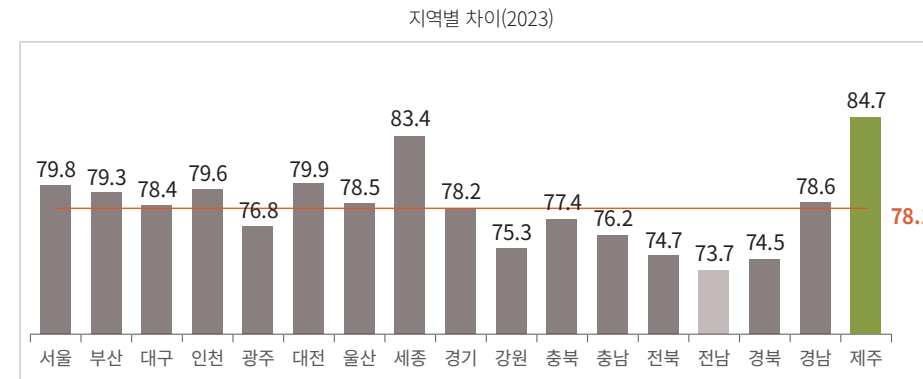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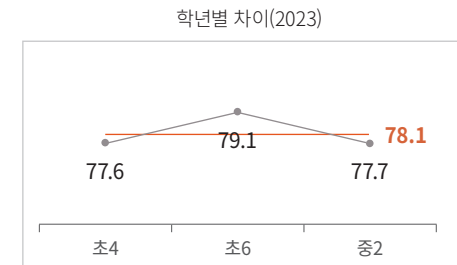


[그림 III-148]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_정부 및 지자체 조치 적절성

환경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조치의 적절성은 평균 67.8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69.6점, 초등 6학년은 68.8점, 중등 2학년은 64.7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다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는 72.5점으로 17개 시·도중 아동이 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은 65.3점으로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_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 고려 정도

- 대상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내용 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정도 (1문항)
- 척도 4점 척도 (① 매우 불평등, ② 약간 불평등, ③ 약간 평등, ④ 매우 평등)
- 측정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 고려 정도가 높다고 인식함 (단위: 점)



[그림 III-149] 환경 권리에 대한 인식_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 고려 정도

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 고려 정도는 평균 78.1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7.6점, 초등 6학년은 79.1점, 중등 2학년은 77.7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는 84.7점으로 17개 시·도중 정책 수립시 미래세대 고려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은 73.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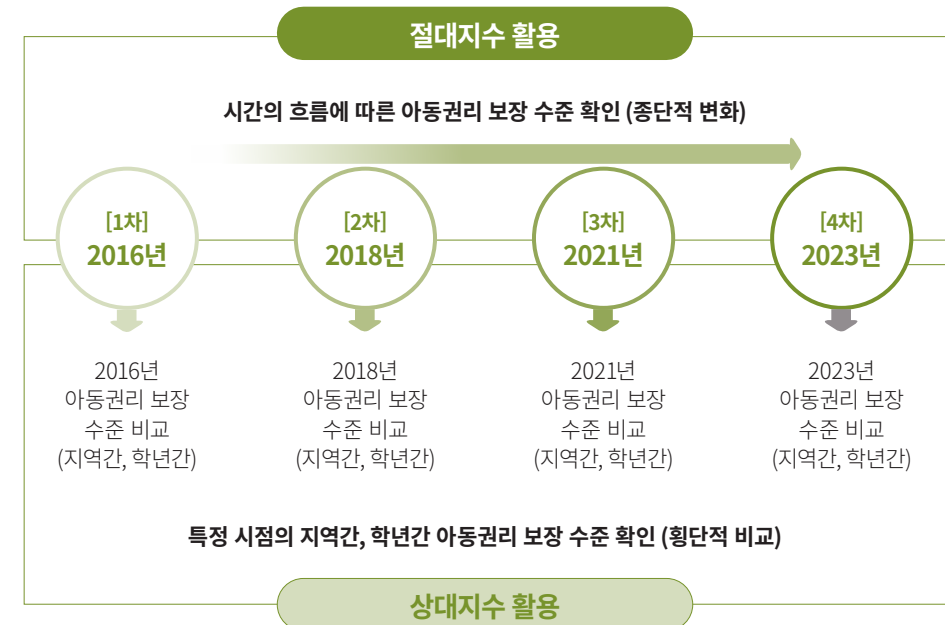
3. 아동권리지수 분석 결과

아동권리 지표들은 아동의 권리 경험과 권리보장 환경, 그리고 발달에 대해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동시에 변화 양상과 정도, 그리고 학년별, 지역별 차이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아동의 4대 권리영역과 아동 권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표를 넘어 지표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권리 지표 각각의 현황과 추이, 학년별, 지역별 차이를 통해 아동 권리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완료한 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지수 산출을 통해 4대 권리영역별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파악한다. 이어서, 아동권리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아동권리 종합지수로 산출하여 아동의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실태와 추이, 그리고 지역 간, 학년 간 아동권리 보장 격차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표를 통해 아동권리 개별 이슈 실태와 변화, 학년 간/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고, 지수를 통해 4대 권리영역과 아동권리 전반의 아동권리 보장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지수는 여러 지표들이 모여 하나의 지수로 개념화되는데, 각 지표의 방향(긍정/부정), 사용하고 있는 척도의 종류나 범위, 그리고 지표별로 평균값의 수준 또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살펴보고 싶은 내용에 따라 지수를 다르게 개념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대지수와 상대지수로 개념화하여 두 가지 형태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절대지수는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1차 조사부터 4차 조사까지 우리나라와 지역별, 학년별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간, 학년 간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비교하는 데는 상대지수를 활용하였다.



[그림 III-150] 절대지수와 상대지수의 개념

절대지수는 동일 대상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수에 포함되는 지표들을 표준화 값으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 다만, 각 지표들의 방향(긍정, 부정)과 척도의 종류나 범위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지표들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켜야 하며, 절대적 기준점이 되는 100점(또는 100%)으로 환산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절대지수는 어떤 지역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100점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전차 대비 증가 또는 감소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절대지수가 해당 지역이나 해당 학년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종단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용이한 반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집단 간 격차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지수를 활용해야 한다.

상대지수는 절대값이 아닌 각 지표값을 표준화한 상대값을 활용한다. 절대지수와 같이 모든 지표들을 100점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변환하여 활용할 경우, 정확한 비교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참여권에 해당하는 지표들 가운데 ‘가정에서의 견존증을 받아본 경험’ 지표의 평균은 78.2점인 반면,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 참여위

원회, 아동·청소년자치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본 경험에 해당하는 ‘정책 활동 참여’ 지표의 평균은 18.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지표는 100점(또는 100%)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지표의 평균값 수준은 70점대인 반면, ‘정책 활동 참여’ 지표의 평균값 수준은 10%대로 큰 차이를 보인다. 두 지표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평균값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지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가정에서 의견 존중을 받아본 경험’ 지표 값이 높은 지역이 ‘정책 활동 참여’ 지표 값이 높은 지역보다 지수 산정 시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수에 포함되는 지표는 해당 지수를 대표하는 지표들이며, 지표 간 중요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따를 경우 의도치 않게 평균값 수준이 높은 지표의 영향력 즉, 중요도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지수는 100점(또는 %)을 기준으로 한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지표들을 0(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해주는 표준화 값을 사용한다. 다만, 상대지수값을 표준화 값 그대로 사용할 경우, 0을 기준으로 평균이상이면 +로 평균 이하이면 -로 표기되기 때문에 지표를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지수값 또한 0 기준이 아닌 100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절대지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값은 0~100점 사이에 존재하며, 상대지수는 100점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점을 중심으로 하여 100보다 큰 값과 10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게 된다. 상대지수에서는 100보다 값이 클 경우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평균 이상이며, 100보다 작을 경우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 지역, 동일 학년의 종단 비교는 절대지수를 활용하고, 해당 연도 안에서 지역 간, 학년 간 비교는 상대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절대지수	상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대상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 절대값 활용 • 지표들을 100점 또는 100% 기준으로 환산하여 절대지수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시점(횡단) 기준, 여러 대상을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 상대값(표준화 값) 활용 • 지표들을 100점 평균, 즉 표준화 점수(Z값)로 환산하여 상대지수로 산출

[그림 III-151] 절대지수와 상대지수의 특성

(1) 지역 간 비교

시·도별 아동권리 보장 수준은 어떠한지 상대지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상대지수는 100을 평균값, 즉 기준선으로 하기 때문에 100점을 기준으로 100점보다 낮은 점수는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평균을 하회한다는 의미이다. 즉, 해당 지역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17개 시·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100점보다 높은 점수는 평균을 상회한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17개 시·도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아동권리종합지수를 살펴보면, 세종이 가장 높고, 광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아동권리종합지수 뿐만 아니라,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지수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하위로 확인된 광주의 경우, 아동권리종합지수가 광역시 중 유일하게 평균(100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 권리 영역에서도 발달권, 보호권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평균값을 상회하는 지역과 하회하는 지역이 각 4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는데, 세종, 부산, 대구, 울산은 아동권리종합지수를 비롯하여 4대 권리영역 모두 평균을 상회하여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 충남, 전북, 경북은 아동권리종합지수와 4대 권리영역 모두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종합지수의 지역 간 격차는 17.2점으로 2021년(3차) 16.8점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권리영역별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면, 보호권이 21.8점으로 가장 컸으며, 발달권이 16.5점으로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달권의 경우, 다른 권리 영역에 비해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은 2021년(3차) 대비 격차가 감소한 반면, 유일하게 생존권만 2021년(3차) 대비 증가(16.1→20.0)한 것으로 나타나 시도 간에 생존권 보장 정도의 격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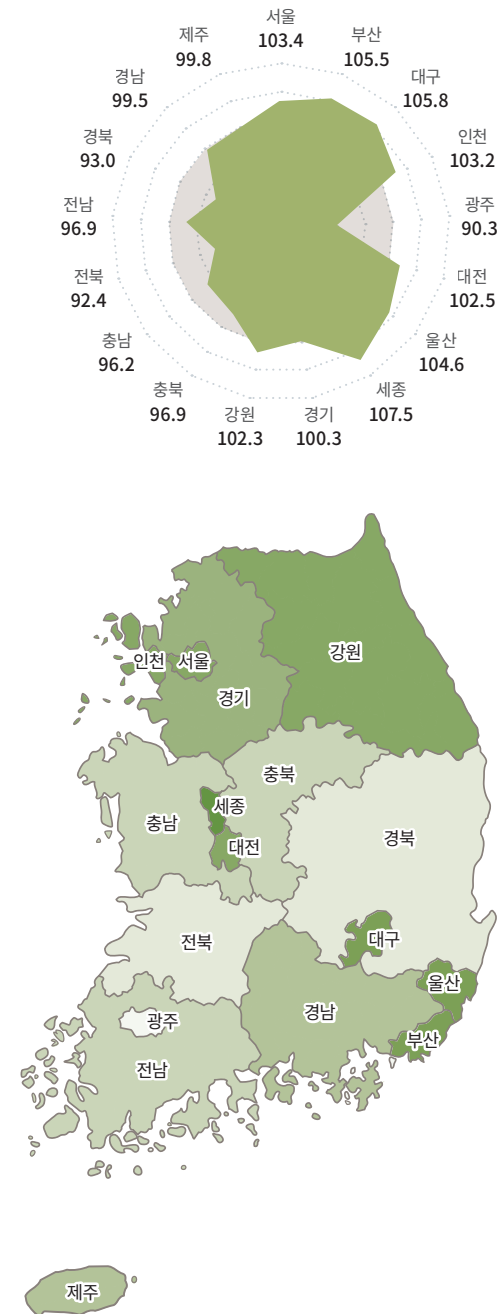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표 III-4]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상대지수)

지역	아동권리지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서울	103.4	104.7	104.5	97.8	106.6
부산	105.5	108.6	103.8	102.1	107.6
대구	105.8	102.8	106.6	107.7	106.0
인천	103.2	99.3	102.7	101.7	109.2
광주	90.3	91.0	90.1	87.3	92.7
대전	102.5	99.8	104.8	103.4	102.1
울산	104.6	106.6	106.1	105.3	100.4
세종	107.5	110.1	106.6	103.5	109.7
경기	100.3	99.1	98.7	99.3	104.2
강원	102.3	102.6	102.4	109.1	95.2
충북	96.9	90.1	97.7	97.3	102.4
충남	96.2	96.3	94.8	97.7	96.1
전북	92.4	94.9	91.9	93.3	89.2
전남	96.9	98.8	92.6	106.7	89.3
경북	93.0	92.8	91.2	98.0	90.0
경남	99.5	100.1	100.9	95.8	101.0
제주	99.8	102.5	104.6	94.0	98.3
격차	17.2	20.0	16.5	21.8	20.5

□ 평균값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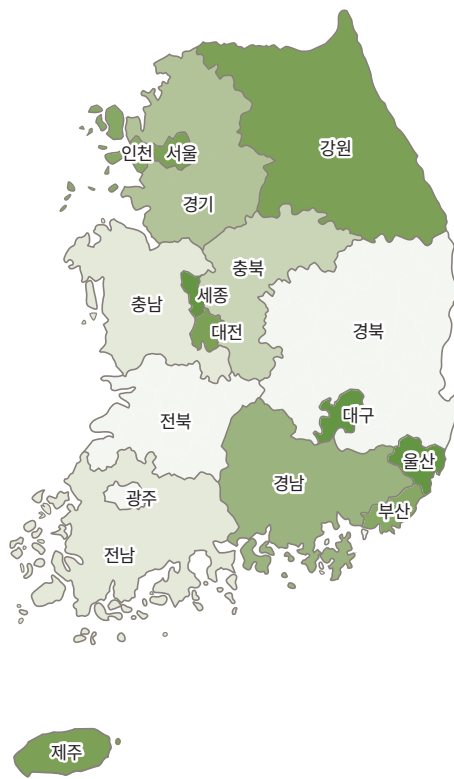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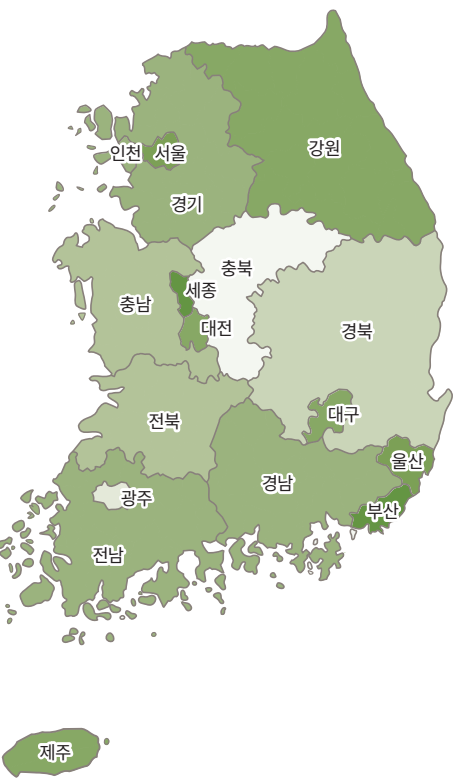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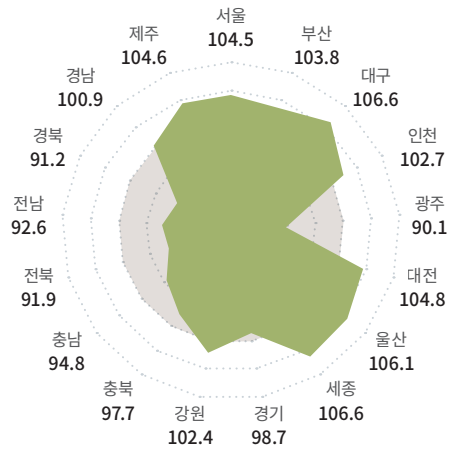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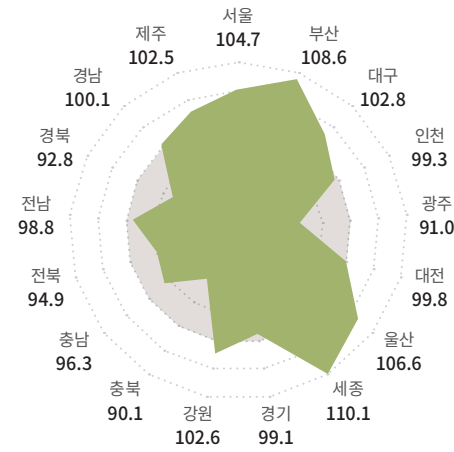
[그림 III-152]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수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 또한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상대지수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회색 부분은 상대지수의 평균인 100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색 부분이 보이지 않는 지역은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평균 이상이며, 회색 부분이 보이는 지역은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평균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아동권리종합지수 산출 결과, 세종, 대구, 부산, 울산, 서울 순으로 아동권리종합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전북, 경북, 충남, 전남 순으로 아동권리종합지수가 낮았다. 종합지수가 높은 지역은 특별자치시나 광역시가 주를 이루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격차는 17.2점이었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그림 III-153] 지역별 생존권 지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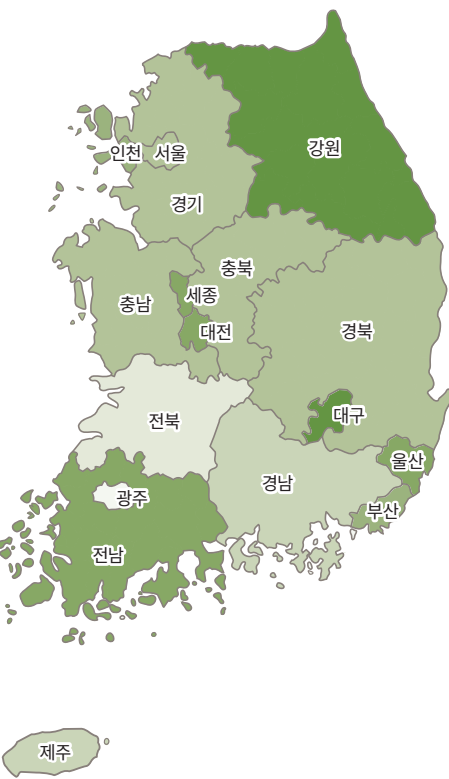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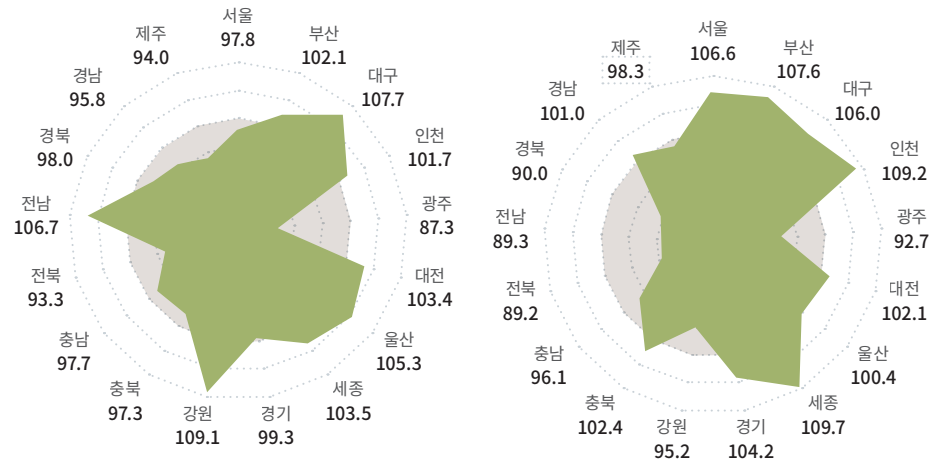
[그림 III-154] 지역별 발달권 지수 수준

이어서 4대 권리영역별로 살펴보면, 생존권 지수는 세종, 부산, 울산, 서울 순으로 높았으며, 충북, 광주, 경북, 전북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 제주, 경남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전, 인천의 경우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모두 평균 이상인 반면, 생존권만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다른 권리영역에 비해 생존권 보장 수준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격차는 20.0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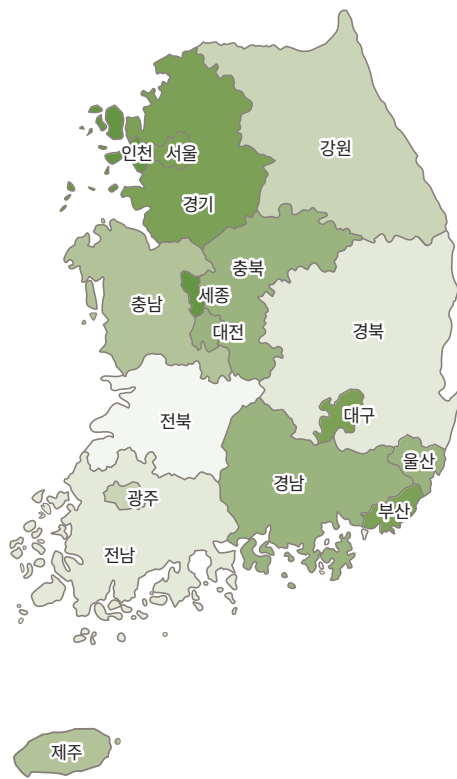
발달권의 경우 세종과 대구, 울산, 대전, 제주, 서울 순으로 보장 수준이 높았으며, 광주, 경북, 전북, 전남의 경우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은 생존권에 이어 발달권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격차는 16.5점으로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1년(3차) 대비해서도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그림 III-155] 지역별 보호권 지수 수준



[그림 III-156] 지역별 참여권 지수 수준

이어서 보호권 지수는 강원, 대구, 전남, 울산, 세종 순으로 높았으며,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지수는 모두 평균보다 낮았으나 유일하게 보호권의 보장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남은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유일하게 보호권 영역에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의 지역 간 격차는 21.8점으로 확인되었는데, 2021년(3차)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이긴 하나 여전히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세종, 인천, 부산, 서울, 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와 충북의 경우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은 모두 평균보다 낮았으나, 유일하게 참여권 지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은 모두 평균 이상이었으나 참여권만 유일하게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권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격차는 20.5점이었으며, 이는 2021년(3차) 대비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학년 간 비교

다음으로 학년별 아동권리지수를 살펴보았다.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비교에서 살펴 보았듯, 상대지수의 평균값은 100점이다. 아동권리지수는 학년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으며, 4차 아동권리지수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각각 104.4점과 100.7점으로, 평균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95.4점으로 평균선을 하회하였다. 학년 간 격차는 수치가 가장 높은 학년과 가장 낮은 학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아동권리지수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 4학년과 가장 낮은 중학교 2학년의 차이는 9.0점이었다.

4대 권리 영역별 아동권리지수를 살펴보면, 생존권지수와 발달권지수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이 가장 높고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권리종합지수와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보호권지수는 초등학교 4학년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권지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권리 영역별 아동권리지수 중 학년 간 격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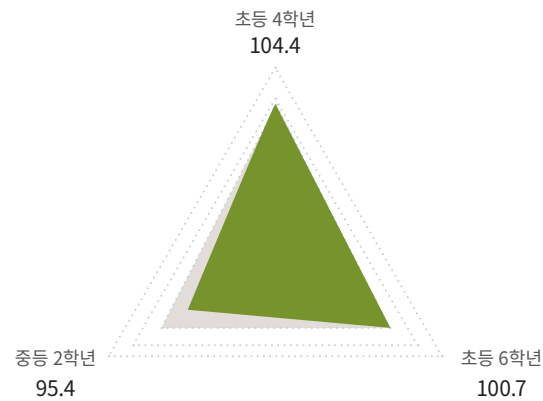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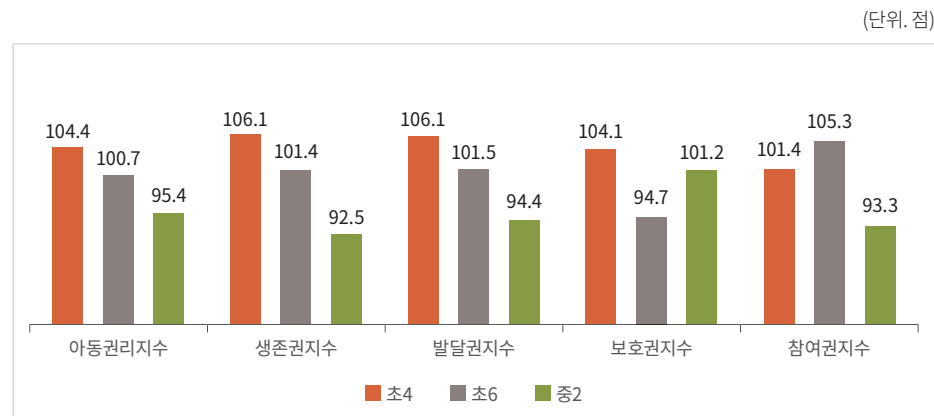
가장 큰 영역은 생존권(13.6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보호권(9.4점)이었다.

[표 III-5]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상대지수)

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초4	104.4	106.1	106.1	104.1	101.4
초6	100.7	101.4	101.5	94.7	105.3
중2	95.4	92.5	94.4	101.2	93.3
학년 간 격차	9.0	13.6	11.7	9.4	12.0



[그림 III-157]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현황 (상대지수)



[그림 III-158]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4. 아동권리 Focus Issue 분석

1) 아동권리지수와 관련 요인

(1) 아동권리지수와 환경적 요인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아동권리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권리지수는 17개 시·도의 상대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의 경제적 환경은 시·도 단위의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 고용율은 2022년 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교육재정자주도는 2023년 5월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해당 시·도의 주민등록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경제적 환경 지표 가운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유일하게 아동권리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86, p<.05$). 이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아동일수록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재정자주도,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지역사회의 빈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고용율은 아동권리지수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6] 아동권리지수와 경제적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구분	지자체 재정자립도	교육재정자주도	경제활동 참가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고용율
상관계수	.586*	-.275	-.205	-.420	-.217

* $p<.05$, ** $p<.01$, *** $p<.001$

- 지자체 재정자립도(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023)

- 교육재정자주도(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23)

-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2022)

- 기초생활수급자비율(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2 /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2)

- 고용율(통계청, 2022)

아동권리지수와 인프라 환경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교시설, 시설/기관 이용 수준, 위생적 환경, 미세먼지 노출 지표가 아동권리지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은 등하교 편의성, 학교시설 쾌적성,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지표를 포함하

고 있으며, 학교시설은 아동권리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26, p<.05$). 병원, 도서관, 놀이터, 공원,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과 관련되는 시설/기관 이용 수준 또한 아동권리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631, p<.01$). 이어서, 깨끗한 물, 깨끗한 화장실 이용과 관련되는 위생적 환경은 아동권리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834, p<.01$). 미세먼지 노출 정도도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r=-.562, p<.05$), 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적을수록 아동권리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아동권리지수와 인프라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구분	주거시설	학교시설	시설/기관 이용 수준	위생적 환경
상관계수	.439	.526*	.631**	.834**
구분	미세먼지 노출	간접흡연 노출	교사 1인당 학생 수	인터넷 이용률
상관계수	-.562*	-.459	.175	-.098

* $p<.05$, ** $p<.01$, *** $p<.001$

- 주거시설: 주거쾌적성 지표의 Z값
- 학교시설: 등하교편의성, 학교시설 쾌적성,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지표의 Z값 평균
- 시설/기관 이용 수준: 병원, 도서관, 놀이터, 공원,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지표의 Z값 평균
- 위생적 환경: 깨끗한 물 이용, 깨끗한 화장실 이용 지표의 Z값 평균
- 교사 1인당 학생 수(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2023)
- 인터넷 이용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아동권리지수와 인식적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관련 지표 모두 아동권리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지표는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족과의 여가활동 평균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819, p<.05$). 학교풍토 또한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로 확인되었다. 학교풍토는 학교 내 학생의 의견존중 정도, 민주적인 분위기, 성적 비차별 문화와 관련되는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풍토가 긍정적일수록 지역의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730, p<.01$). 이어서, 아동권리인식, 동네의 안전감, 공동체의식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 및 정서 지표는 부모의 관계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행복감, 양육 효능감 등을 포함하는 지표인데, 부모의 심리 및 정서 상태가 긍정적

일수록 아동권리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555, p<.05$). 또한,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r=.528, p<.05$)과 아동권에 대한 인식($r=.712, p<.01$)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아동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환경 지표를 살펴보면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r=.685, p<.01$),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할수록($r=.483, p<.05$),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r=.676, p<.01$) 해당 지역의 아동권리지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가족, 학교, 동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아동이 인식하는 환경 지표 대부분이 아동권리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부모의 심리정서적 상태가 긍정적이고, 학교가 민주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아동이 거주하는 동네와 공동체를 안전하다고 느끼고 신뢰할 때 아동의 권리 경험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8] 아동권리지수와 인식적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구분	부모 심리 및 정서	학교풍토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
상관계수	.555*	.730**	.528*	.712**
구분	동네의 안전감	이웃과의 교류	공동체의식	가족과의 여가활동
상관계수	.685**	.483*	.676**	.819*

* $p<.05$, ** $p<.01$, *** $p<.001$

- 부모의 심리 및 정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행복감,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지표의 Z값 평균
- 학교풍토: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학교 내 성적비차별 문화 지표의 Z값 평균

(2) 아동권리지수와 발달 결과

아동권리지수와 환경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이어 아동 발달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건강 관련해서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과 객관적 건강 모두 아동권리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아동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높을수록($r=.818, p<.01$), 그리고 객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r=.540, p<.05$)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발달 관련해서는 전반적 학업성취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동이 인식하는 전반적 학업성취 정도가 높을수록($r=.567, p<.05$), 해당지역의 아동권리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 발달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불안,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지표가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높을수록($r=.755, p<.01$), 불안 정도가 낮을수록($r=-.791, p<.01$),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낮을수록($r=-.611, p<.01$),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r=-.711, p<.01$) 아동권리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아동의 진로성숙 정도와 행복감, 시민의식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r=.591, p<.01$), 행복감이 높을수록($r=.581, p<.05$), 그리고 시민의식이 높을수록($r=.895, p<.01$) 아동권리지수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지수 즉 아동의 권리 경험과 아동 발달 지표들은 동일한 시점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아동의 권리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그리고 아동의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이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다차원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9] 아동권리지수와 발달결과 간 상관관계

구분	주관적 건강	객관적 건강	전반적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
상관계수	.818**	.540*	.567*	.755**	-.260
구분	불안	비행	스마트폰 과의존	자살	스트레스
상관계수	-.791**	-.288	-.611**	-.128	-.711**
구분	진로성숙	행복감	시민의식		
상관계수	.591*	.581*	.895**		

* $p<.05$, ** $p<.01$, *** $p<.001$

2) 부모(보호자) - 아동 매칭 지표 분석

아동권리지표 가운데 일부 지표는 아동과 부모(보호자)에게 동일한 문항을 질문하였다. 매칭 문항을 통해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환경 즉 동네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4차) 조사에서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우리사회의 공

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을 아동-부모(보호자) 간 매칭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1) 동네환경 평가

동네환경은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인식하는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지표로 살펴보았다. 물리적 무질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청결이나 정돈상태, 소음 등과 관련되며, 사회적 무질서는 안전, 범죄 등과 관련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부모(보호자)가 인식하는 무질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 아동이 부모(보호자)에 비해 좀 더 무질서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에는 부모(보호자)가 아동에 비해 더 무질서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아동과 부모(보호자)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지역사회 무질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아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반면, 부모(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학년에 관계없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부모(보호자)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역사회의 안전,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여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보호자)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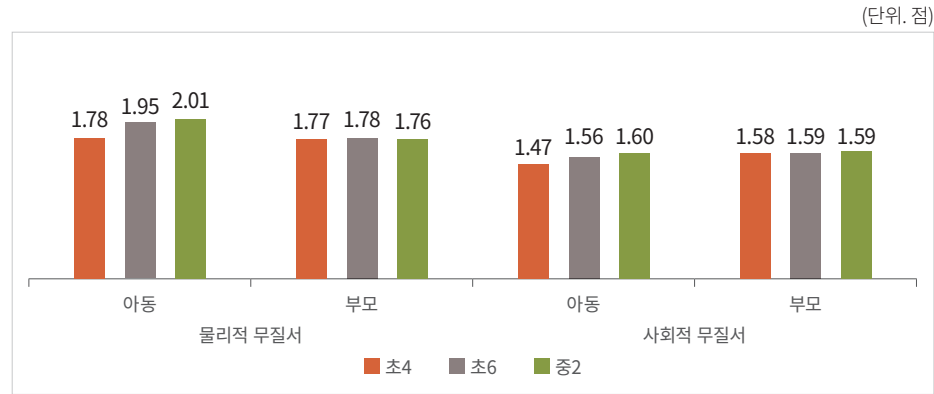
[표 III-10]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구분	평균	r(p)	학년			f(p)	성별		t(p)	
			초4	초6	중2		여자	남자		
물리적 무질서	아동	1.91	.240 **	1.78	1.95	2.01	184.567 ***	1.92	1.91	1.235
	부모	1.77		1.77	1.78	1.76		0.952	1.78	
사회적 무질서	아동	1.55	.293 **	1.47	1.56	1.60	69.338 ***	1.55	1.54	1.635
	부모	1.58		1.58	1.59	1.59		0.465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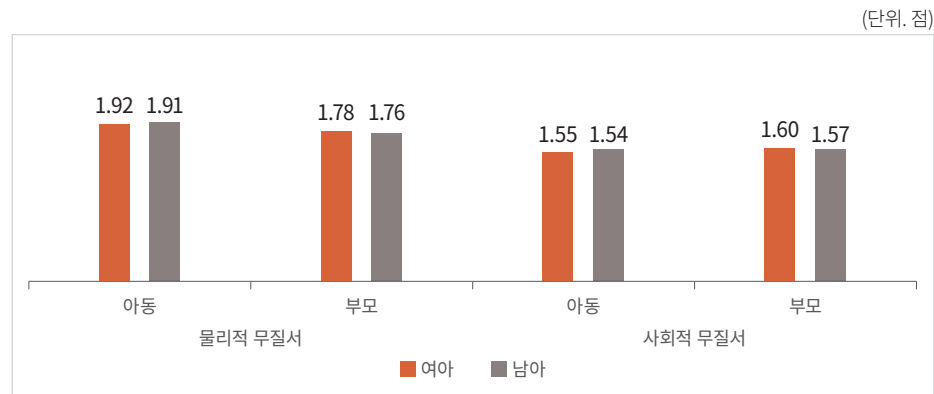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그림 III-159] 학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아동, 부모)



[그림 III-160]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아동, 부모)

(2) 우리사회 공정성 평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아동은 3.04점, 부모(보호자)는 2.49점으로 아동의 공정성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공정성 인식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러한 학년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부모는 자녀의 학년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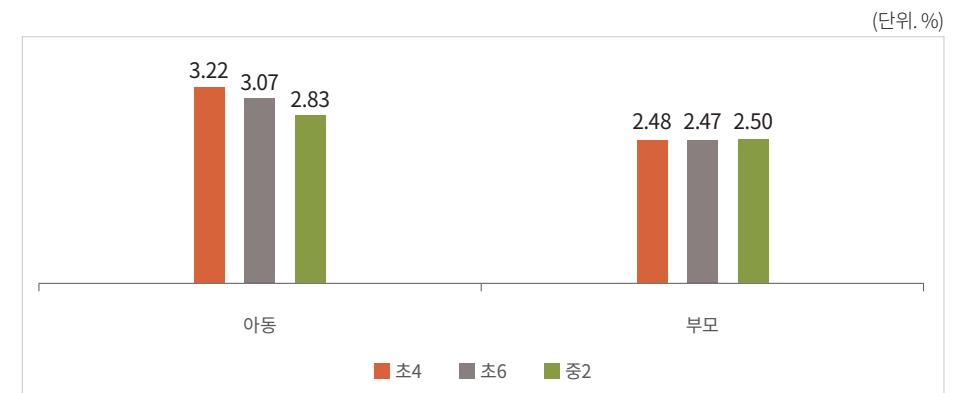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 간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모(보호자)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2.47점, 남자인 경우에는 2.50점으로 나타났는데, 여아의 부모(보호자)인 경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보호자)의 공정성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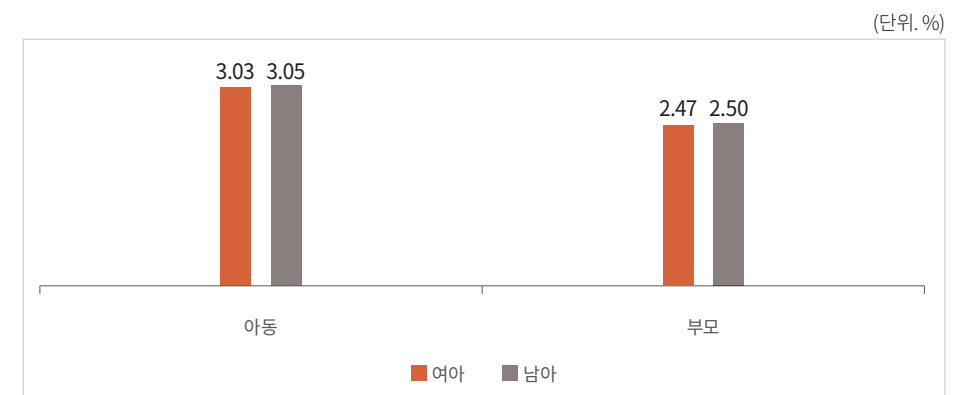
[표 III-1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우리사회 공정성 평가(아동, 부모)

구분	평균	r(p)	학년			f(p)	성별		t(p)
			초4	초6	중2		여자	남자	
아동	3.04	.126**	3.22	3.07	2.83	291.263***	3.03	3.05	-1.794
부모	2.49		2.48	2.47	2.50		2.308	2.47	2.50

* p<.05, ** p<.01, *** p<.001



[그림 III-161] 학년에 따른 우리사회 공정성 평가(아동, 부모)



[그림 III-162] 성별에 따른 우리사회 공정성 평가(아동, 부모)

(3) 우리나라 평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재해·재난, 학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의료적, 교육적 지원, 그리고 비차별, 의견존중, 표현의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부모(보호자)에 비해 아동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이 부모(보호자)에 비해 우리나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학년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부모(보호자)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보장, 학대·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비차별, 표현의 기회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은 모든 항목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게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부모(보호자)의 경우 항목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놀이와 여가 보장 항목은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보호자)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대·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표현의 기회 항목은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의 평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일수록 학대, 폭력, 표현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차별 항목의 경우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보호자)의 인식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중학생 부모(보호자)에 비해 초등학생 부모(보호자)의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학년에 따른 차이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일부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아동이 살기 좋은 국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 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비차별, 표현의 기회 항목에서 유의미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보호자)의 경우에는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 안전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에 안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1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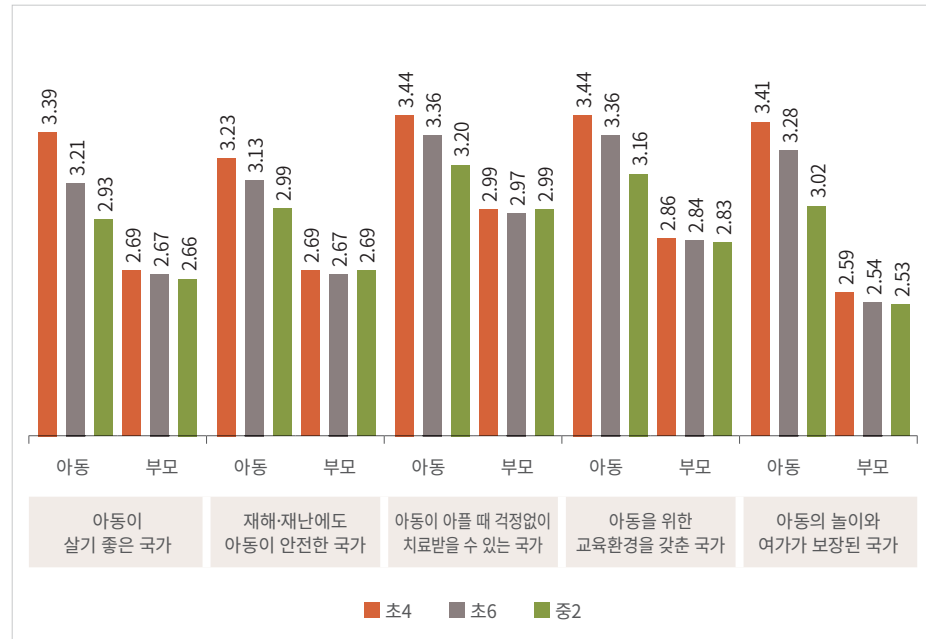
구분	평균	r(p)	학년			f(p)	성별		t(p)
			초4	초6	중2		여자	남자	
아동이 살기 좋은 국가	아동 3.18	0.124**	3.39	3.21	2.93	355.217***	3.16	3.20	-2.647**
	부모 2.67		2.69	2.67	2.66	2.424	2.66	2.69	-1.885
재해·재난에도 아동이 안전한 국가	아동 3.12	0.145**	3.23	3.13	2.99	87.290***	3.09	3.15	-4.437***
	부모 2.68		2.69	2.67	2.69	1.081	2.67	2.70	-1.965*
아동이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국가	아동 3.34	0.153**	3.44	3.36	3.20	110.618***	3.33	3.34	-.649
	부모 2.98		2.99	2.97	2.99	0.639	2.99	2.98	0.583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을 갖춘 국가	아동 3.33	0.138**	3.44	3.36	3.16	149.477***	3.31	3.34	-1.880
	부모 2.84		2.86	2.84	2.83	1.892	2.84	2.85	-.742
아동의 놀이와 여가가 보장된 국가	아동 3.24	0.114**	3.41	3.28	3.02	227.453***	3.23	3.25	-1.614
	부모 2.55		2.59	2.54	2.53	6.701**	2.55	2.56	-.464
학대·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국가	아동 2.99	0.117**	3.15	3.00	2.80	140.474***	2.94	3.03	-5.540***
	부모 2.43		2.41	2.41	2.47	7.745***	2.41	2.44	-2.254*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아동 2.78	0.121**	3.01	2.77	2.52	232.671***	2.74	2.81	-3.841***
	부모 2.20		2.16	2.20	2.24	9.698***	2.19	2.21	-1.642
아동을 집안환경,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않는 국가	아동 2.98	0.112**	3.18	2.98	2.76	203.807***	2.94	3.01	-4.060***
	부모 2.41		2.40	2.39	2.45	5.705**	2.40	2.42	-1.037
아동 의견을 존중하는 국가	아동 3.11	0.094**	3.28	3.17	2.88	242.617***	3.10	3.13	-1.858
	부모 2.49		2.47	2.48	2.51	2.920	2.48	2.50	-1.597
아동의 생각·의견 표현 기회가 많은 국가	아동 3.07	0.095**	3.24	3.12	2.84	224.270***	3.04	3.10	-3.656***
	부모 2.45		2.43	2.45	2.48	3.648*	2.44	2.46	-1.809

* p<.05, ** p<.01, *** p<.001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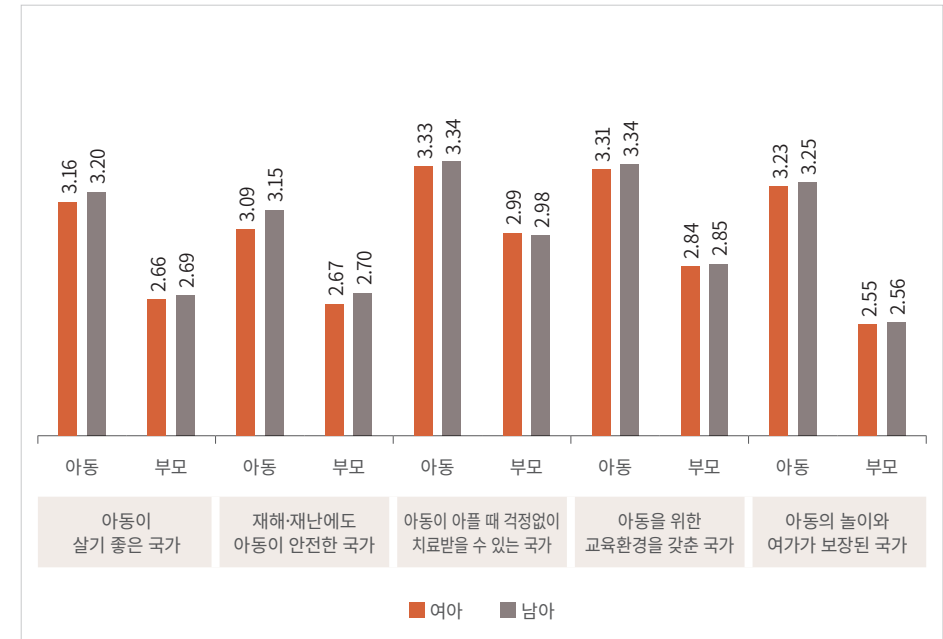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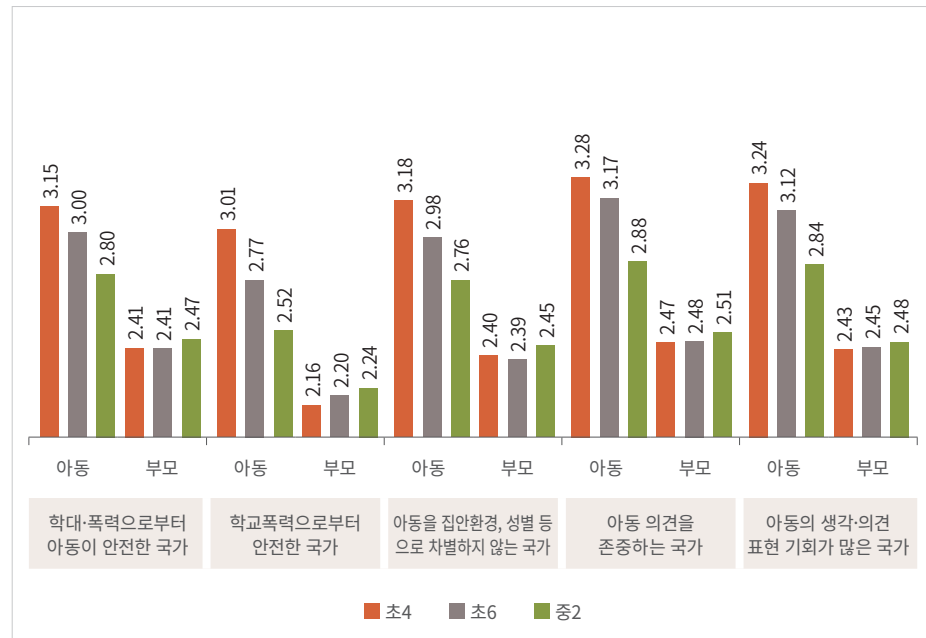
[그림 III-163] 학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아동, 부모)_1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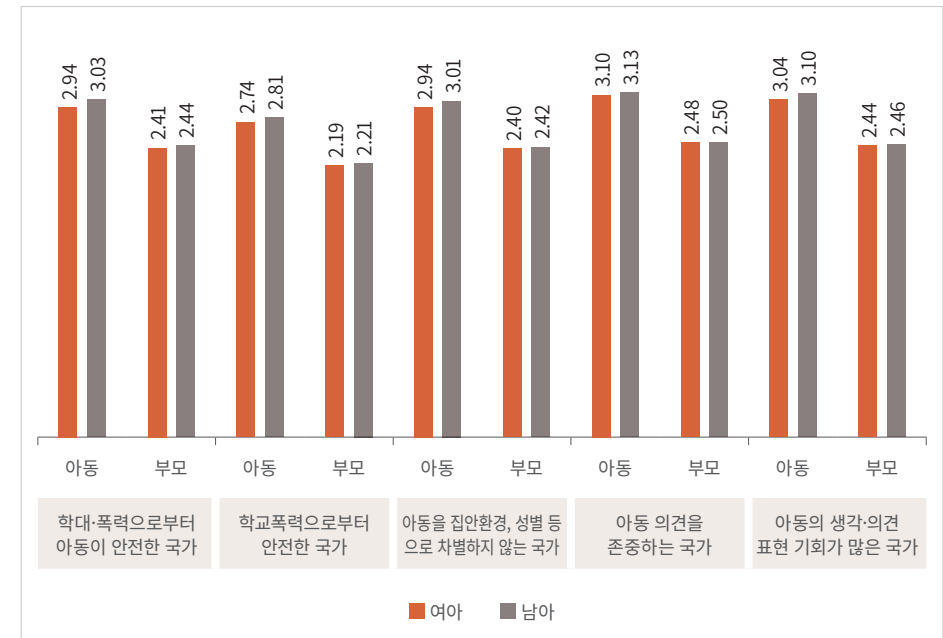
[그림 III-165]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아동, 부모)_1

(단위: 점)



[그림 III-164] 학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아동, 부모)_2

(단위: 점)



[그림 III-166]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아동, 부모)_2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3) 아동학대 경험과 발달결과 분석

아동은 생애주기상 가장 급격하게 성장, 발달하는 시기에 있으며, 이 시기의 경험들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그 경험이 부정적, 트라우마적 경험일 경우 그 영향은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학대나 폭력이 이에 해당하는데, 관련하여 아동의 학대피해 경험과 발달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전체 응답자 중 5,705명(62.9%)이었으며 3,363명(37.1%)은 학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 대비 약 1.7배 많았다.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정서적 발달을 살펴보면, 학대경험 보고 아동과 비보고 아동의 우울 정서와 불안 정서 모두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정서는 학대경험 보고 집단은 1.43점, 비보고 집단은 1.22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불안 정서 또한 학대경험 보고 집단은 2.23점, 비보고 집단은 1.95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즉,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우울과 불안 정서가 학대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서, 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대경험 보고 집단과 학대경험 비보고 집단 비교시 학교폭력 피해 수준과 학교폭력 가해 수준 모두 학대를 경험한 아동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 모두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학대경험 보고 집단은 0.42점, 학대경험 비보고 집단은 0.18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수준 또한 학대경험 보고 집단은 0.19점, 학대경험 비보고 집단은 0.07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비행경험과 학대경험 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 학대경험 보고 집단이 비보고 집단에 비해 전체적으로 비행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경험 보고 집단 가운데 3.8%가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학대경험 비보고 집단의 1.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폭력비행 경험은 6.2%로 학대경험 비보고 집단의 2.2% 대비 약 3배 정도 높았다. 이어서, 사이버비행 경험은 7.2%로 학대경

험 비보고 집단의 3.4%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경험 보고 집단과 비보고 집단 간 지위비행, 폭력비행, 사이버비행 경험 유무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즉,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행 경험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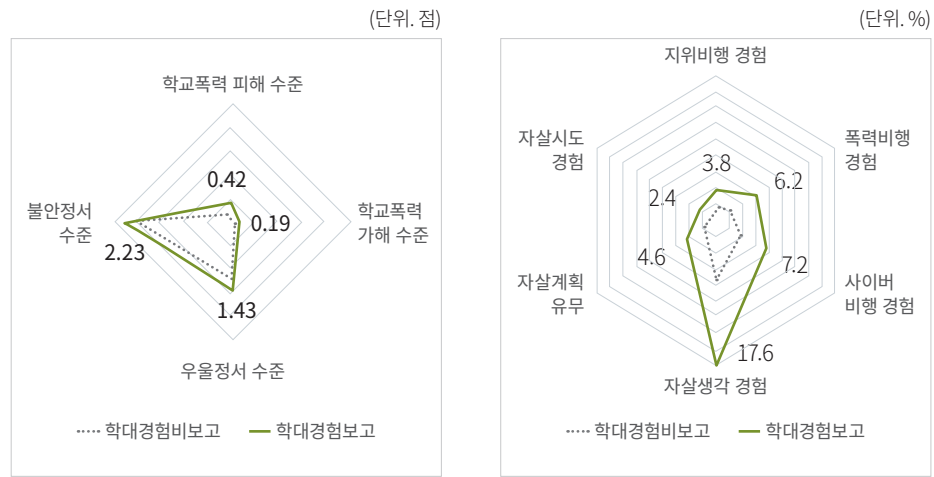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의 경우, 학대경험 보고 집단이 학대경험 비보고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학대경험 보고 집단이 17.6%, 비보고 집단이 7.2%였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자살계획 또한 학대경험 비보고 집단은 1.8%인 반면 학대경험 보고 집단은 4.6%로 2배 이상 높았으며 자살생각 지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살시도 비율 또한 학대경험 비보고 집단은 0.9%인 반면, 보고 집단은 2.4%로 나타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아동의 학대피해 경험은 아동의 사회정서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교폭력, 비행, 그리고 자살생각이나 계획, 시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회복과 지원을 통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3]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구분	학대경험 보고	학대경험 비보고	t(p)
우울정서 수준	1.43	1.22	-19.841 ***
불안정서 수준	2.23	1.95	-16.371 ***
학교폭력 피해 수준	0.42	0.18	-20.934 ***
학교폭력 가해 수준	0.19	0.07	-15.660 ***
구분	학대경험 보고	학대경험 비보고	χ²(p)
지위비행 경험	142 (3.8%)	38 (1.7%)	20.394 ***
폭력비행 경험	349 (6.2%)	73 (2.2%)	73.458 ***
사이버비행 경험	406 (7.2%)	112 (3.4%)	55.625 ***
자살생각 경험	655 (17.6%)	159 (7.2%)	125.602 ***
자살계획 유무	170 (4.6%)	39 (1.8%)	31.759 ***
자살시도 경험	88 (2.4%)	20 (0.9%)	16.374 ***

* p<.05, ** p<.01, *** p<.001

III. 2023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그림 III-167] 아동학대 경험 보고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1. 조사대상자 특성

2016년(1차)부터 2023년(4차)까지 아동권리지표와 아동권리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별 응답자 비율과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차수별로 살펴 보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규모가 가장 낮은 세종의 경우 2018년 당시 응답자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0.7% 수준이었으나, 2021년 1.0%, 2023년 1.2%로 차수가 진행 될수록 조사 참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더불어 인구 규모가 낮은 지역에 해당하는 제주의 경우 2018년부터 증감없이 1.5%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형태는 양부모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세종의 경우 응답자의 99.0%가 양부모가정이었으며, 경북은 87.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양부모가정 비율이 전차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대구였으며, 전차 대비 약 7.5% 낮은 수준이었다. 가족 형태에 이어 주양육자의 학력을 살펴보았다. 주양육자(어머니 기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지역에 따라 가장 낮은 비율은 51.7%였으며, 가장 높은 비율은 94.8%로 나타났다.

[표 IV-1] 조사참여자 특성

구분	응답자 비율				가족형태 (양부모가정 기준)				주양육자(어머니) 학력 (전문대졸이상 기준)			
	2016	2018	2021	2023	2016	2018	2021	2023	2016	2018	2021	2023
서울	15.9	16.3	15.5	15.0	92.3	91.0	93.0	95.4	73.2	72.8	81.3	87.4
부산	5.6	5.8	5.6	5.7	89.4	89.0	90.8	88.4	59.1	71.8	75.8	79.3
대구	4.9	4.9	4.6	4.6	93.6	91.4	96.3	89.1	70.0	72.4	90.3	74.6
인천	5.8	5.7	5.8	5.8	91.6	89.2	87.6	89.5	51.7	67.3	62.4	72.5
광주	3.9	3.4	3.3	3.2	90.7	93.6	89.3	88.4	73.8	74.0	79.7	73.6

구분	응답자 비율				가족형태 (양부모가정 기준)				주양육자(어머니) 학력 (전문대졸이상 기준)			
	2016	2018	2021	2023	2016	2018	2021	2023	2016	2018	2021	2023
대전	3.5	3.2	3.0	2.9	90.7	94.4	92.3	90.7	69.8	77.1	69.6	78.6
울산	2.4	2.4	2.4	2.5	90.8	93.3	95.7	89.4	49.2	68.5	79.5	72.4
세종	-	0.7	1.0	1.2	-	96.0	92.4	99.0	-	84.1	92.6	94.8
경기	25.5	27.1	28.0	28.5	90.9	92.2	91.7	90.7	55.4	66.0	65.8	74.2
강원	3.3	2.7	2.8	2.7	91.3	88.4	86.9	91.8	64.2	70.6	64.9	75.5
충북	3.4	3.1	3.2	3.2	86.9	93.3	86.5	89.1	53.6	67.8	59.7	51.7
충남	4.6	4.3	4.4	4.5	91.0	89.3	94.4	89.3	52.5	54.8	63.7	61.4
전북	4.0	3.8	3.6	3.5	87.4	92.4	89.0	91.2	57.7	61.3	74.5	72.2
전남	3.6	3.4	3.5	3.5	91.9	92.3	90.9	91.3	51.7	57.9	73.6	72.2
경북	4.7	4.8	4.7	4.7	87.8	90.3	88.2	87.4	56.5	69.7	68.9	74.4
경남	6.9	6.9	7.0	7.1	87.9	90.0	90.5	89.2	58.9	63.6	75.5	75.8
제주	2.0	1.5	1.5	1.5	93.6	83.5	84.1	90.9	60.0	70.2	77.5	92.5

2. 아동권리지표 변화 추이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권리경험을 기반으로 아동권리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출되며, 아동의 4대 권리영역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지수화하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의 특성을 가진다. 아동의 4대 권리영역에 해당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개의 지수와 이를 다시 종합한 아동권리종합 지수까지 총 5개의 지수가 산출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항목이 지수가 되는 단순지수(simple index) 형태가 아니고 종합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지수를 깊이 있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즉 세부 지표(indicator)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해당 지수값이 산출된 근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아동권리지표 가운데 아동권리지수 산출 시 주요 하게 고려된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실태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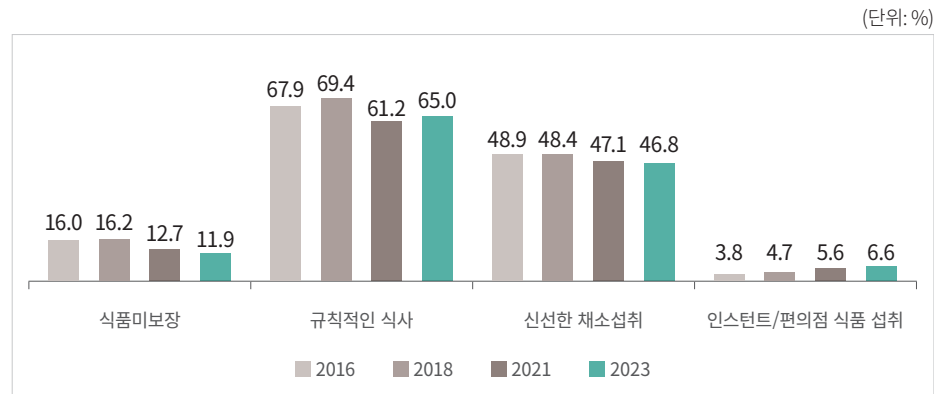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1) 생존권

(1) 영양

아동의 영양 관련하여 ‘식품 미보장’, ‘규칙적인 식사’, ‘신선한 채소 섭취’, ‘인스턴트 식품 섭취’ 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식품 미보장’, ‘신선한 채소 섭취’는 감소 추세이며,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식품 미보장’ 비율은 2016년(1차)에 16.0%, 2018년(2차) 16.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3차)에 12.7%, 2023년(4차)에는 11.9%로 감소하였다. ‘규칙적인 식사’ 지표는 2021년(3차)에 10% 이상 감소하였다가 2023년(4차)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한 채소 섭취’ 비율은 차수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2016년(1차) 48.9%에서 2023년(4차) 46.8%로 적은 폭이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차수별로 약 1%p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3년(4차) ‘인스턴트 식품 섭취’ 비율은 2016년(1차) 대비 약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긍정적으로 변화한 지표는 ‘식품미보장’이며, ‘신선한 채소 섭취’, ‘인스턴트 식품 섭취’ 지표는 아동의 영양 관련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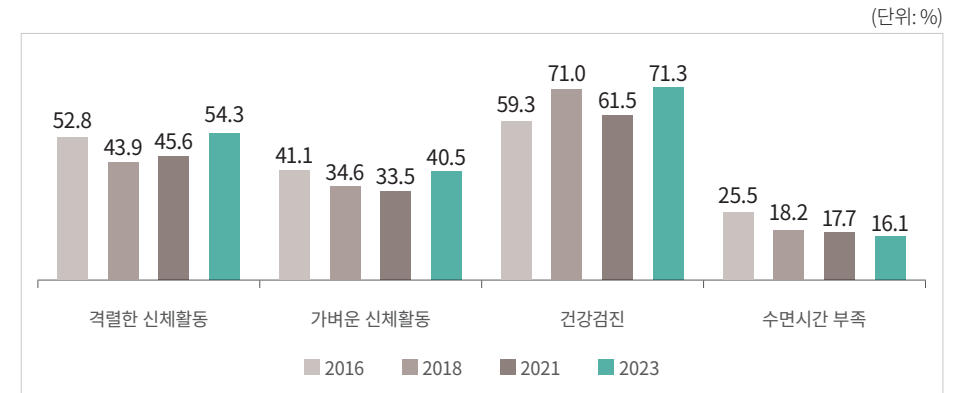


[그림 IV-1] 생존권_영양 부문 지표

(2) 건강활동

생존권 지수를 구성하는 건강활동 영역의 지표를 살펴보면, 전차 대비 ‘격렬한 신체 활동’, ‘가벼운 신체활동’, ‘건강검진’, ‘수면시간 부족’ 지표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지표는 2021년(3차) 61.5%에서 2023년(4차)은 71.3%로 약 10%p 증가하였으며, ‘격렬한 신체활동’ 지표 또한 2021년(3차) 45.6%에서 2023년(4차) 54.3%로 약 9%p 증가하였다. ‘수면시간 부족’ 지표는 2016년(1차)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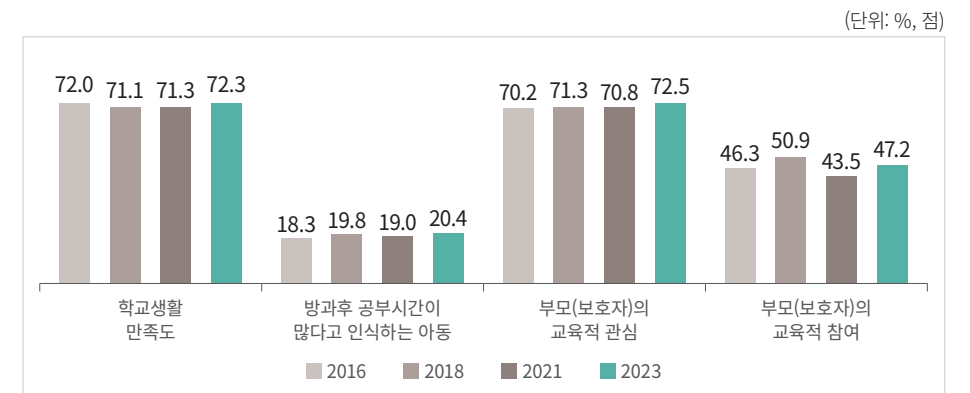


[그림 IV-2] 생존권_건강활동 부문 지표

2) 발달권

(1) 교육

발달권 지수 가운데 아동의 교육 관련하여 4가지 지표를 살펴보았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6년(1차)부터 최근 진행된 2023년(4차) 조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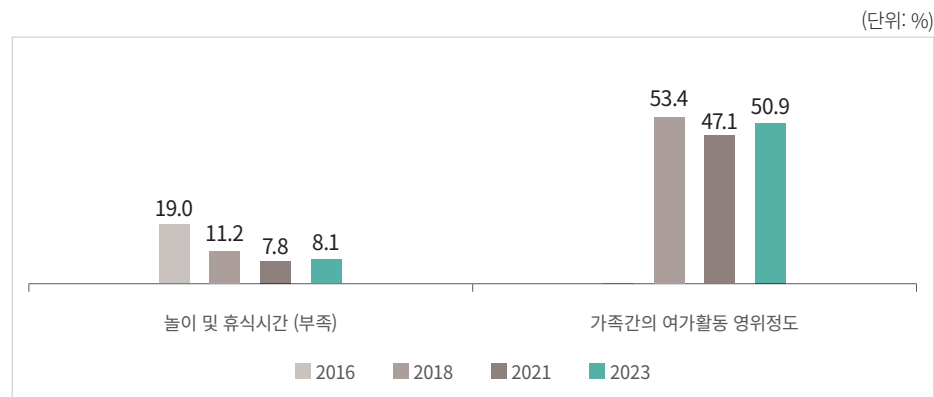


[그림 IV-3] 발달권_교육 부문 지표

지하였다.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비율은 2021년(3차) 19.0%에서 2023년(4차) 20.4%로 다소 증가하였다.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정도는 2021년(3차) 70.8점에서 2023년(4차) 72.5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어서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또한 2021년(3차) 43.5점에서 2023년(4차) 47.2점으로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놀이 및 여가

교육 부문에 이어 놀이 및 여가 부문을 살펴보았다. ‘놀이 및 휴식시간(부족)’ 지표는 2016년(1차) 19.0%, 2018년(2차) 11.2%, 2021년(3차) 7.8%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다가 2023년(4차)에는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율이 8.1%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 지표는 2018년(2차) 53.4%에서 2021년(3차) 47.1%로 6.3%p 감소하였다가, 2023년(4차)에는 다시 50.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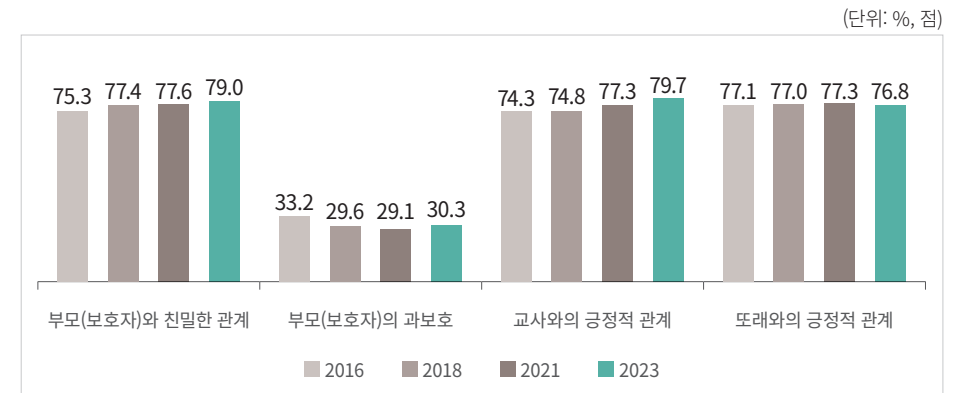


[그림 IV-4] 발달권_여가 부문 지표

(3) 관계

발달권 지수의 하위 부문 가운데 관계 관련 하위 지표를 살펴보면, ‘부모(보호자)와 친밀한 관계’,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는 전차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변화폭은 미미하였다. ‘부모(보호자)와 친밀한 관계’는 2016년(1차) 75.3점, 2018년(2차) 77.4점, 2021년(3차) 77.6점, 2023년(4차) 79.0점으로 적은 폭이지만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지표는 2016년(1차) 33.2점, 2018년(2차) 29.6점, 2021년(3차) 29.1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4차)에 30.3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는 2016년(1차) 74.3점, 2018년(2차) 74.8점, 2021년(3차) 77.3점, 2023년(4차) 79.7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는 2016년(1차) 77.1점, 2018년(2차) 77.0점, 2021년(3차) 77.3점, 2023년(4차) 76.8점으로 큰 등락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발달권_관계 부문 지표

3) 보호권

(1) 학대 및 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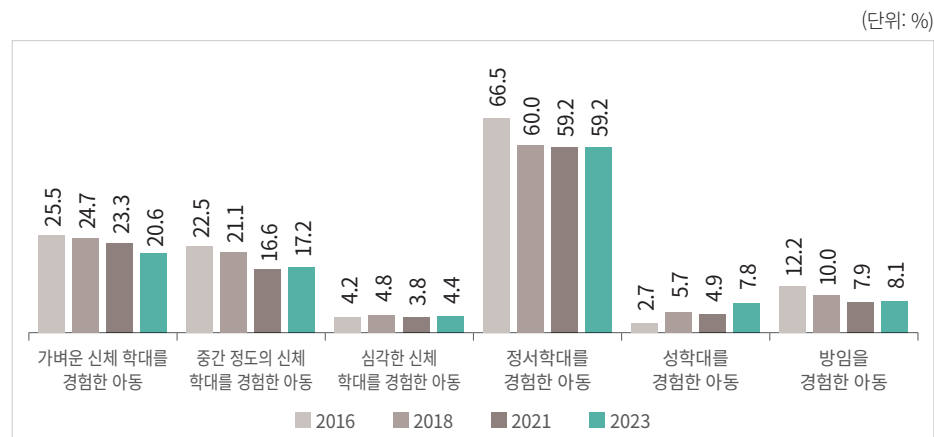
보호권 지수 하위 부문 중 학대 및 체벌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다. ‘가벼운 신체 학대를 경험한 아동’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볼 수 있는 반면, ‘중간 정도의 신체 학대를 경험한 아동’, ‘심각한 신체 학대를 경험한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방임을 경험한 아동’ 비율은 전차 대비 증가하여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대 경험율이 가장 높은 지표는 정서학대였는데, 2016년(1차) 66.5%, 2018년(2차) 60.0%, 2021년(3차) 59.2%, 2023년(4차) 59.2%로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여전히 과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지표는 2016년(1차) 25.5%, 2018년(2차) 24.7%, 2021년(3차) 23.3%, 2023년(4차) 2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지표는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2016년(1차) 22.5%, 2018년(2차) 21.1%, 2021년(3차) 16.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4차) 17.2%로 다소 증가하였다.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지표는 2016년(1차) 4.2%, 2018년(2차) 4.8%, 2021년(3차) 3.8%, 2023년(4차) 4.4%로 3차 시기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4차 시기에는 전차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2016년(1차) 2.7%, 2018년(2차) 5.7%로 약 2배 증가하였다가, 2021년(3차) 4.9%로 감소한 후 2023년(4차)에 7.8%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16년(1차) 대비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2016년(1차) 12.2%, 2018년(2차) 10.0%, 2021년(3차) 7.9%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4차) 8.1%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3차)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차 대비 학대와 방임 경험율이 감소하였던 반면, 2023년(4차)은 ‘가벼운 신체 학대를 경험한 아동’ 비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표가 전차 대비 증가 또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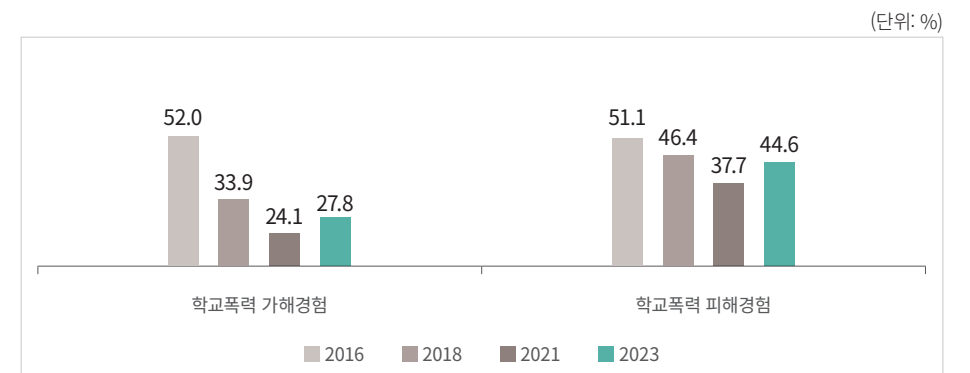
[그림 IV-6] 보호권_학대 부문 지표

(2)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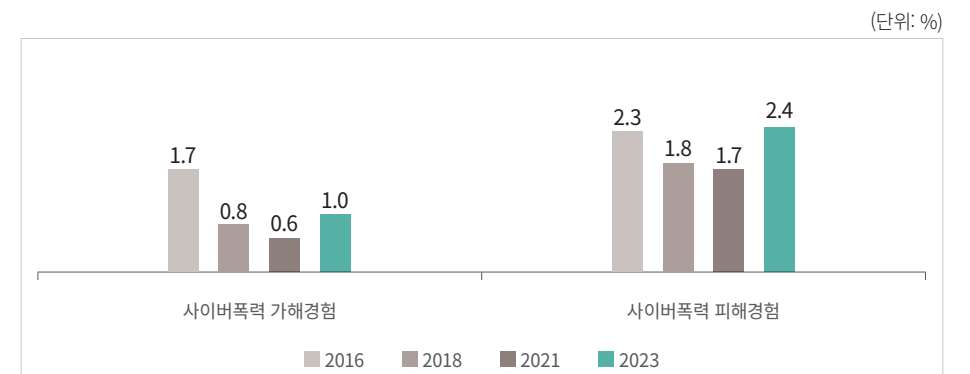
보호권 지수 가운데 폭력 부분의 지표를 살펴보았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지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4차)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3차) 시점에는 코로나 19로 등교 중지와 각종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었던 시기이며, 2023년(4차)은 정상 등교

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 또한 하향 조정된 시점이었는데, 이와 같은 시기적 특성 또한 위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2016년(1차) 52.0%로 응답자의 과반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8년(2차) 33.9%, 2021년(3차) 24.1%로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4차)에 27.8%로 다시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2016년(1차) 51.1%, 2018년(2차) 46.4%, 2021년(3차) 37.7%였다가 2023년(4차)에 4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지표는 2016년(1차) 1.7%, 2018년(2차) 0.8%, 2021년(3차) 0.6%로 감소하다가 2023년(4차) 1.0%로 증가하였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지표는 2016년(1차) 2.3%, 2018년(2차) 1.8%, 2021년(3차) 1.7%로 소폭 감소하다가 2023년(4차) 2.4%로 증가하였다.



[그림 IV-7] 보호권_학교폭력 부문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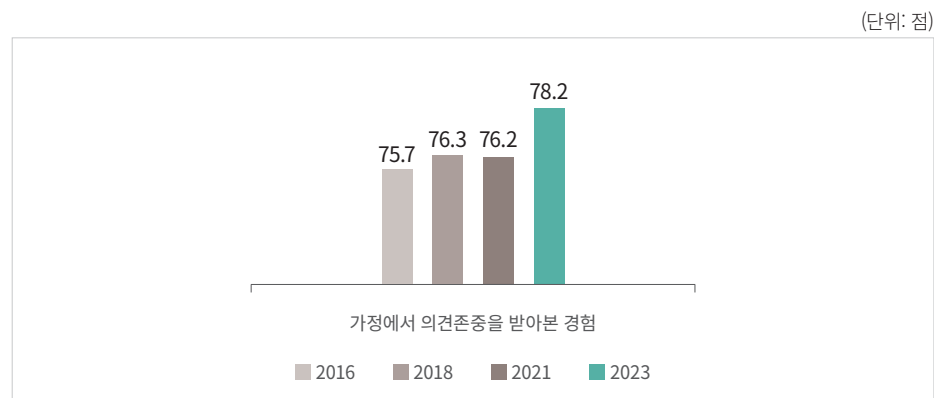


[그림 IV-8] 보호권_사이버폭력 부문 지표

4) 참여권

(1) 존중

참여권 지수 가운데 존중 부문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의견 존중을 받아본 경험’ 지표는 2016년(1차) 75.7점, 2018년(2차) 76.3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21년(3차)에 76.2점으로 전차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4차) 시점에는 78.2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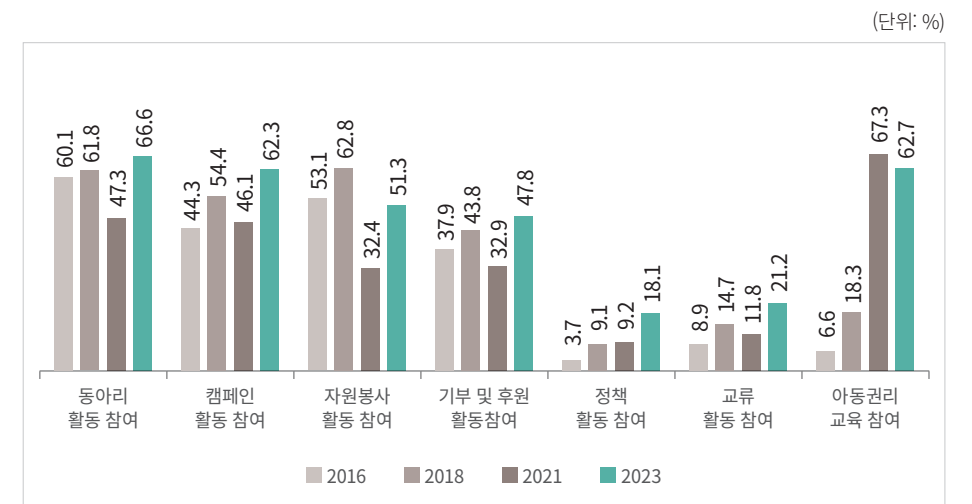
[그림 IV-9] 참여권_존중 부문 지표

(2) 참여 활동

참여권 지수의 참여활동 부문 지표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참여권은 팬데믹 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문으로, 전체적으로 2016년(1차) 대비 2018년(2차)에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3차)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팬데믹이 종료된 2023년(4차)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동아리 활동 참여’는 2016년(1차) 60.1%, 2018년(2차) 61.8%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3차)에 47.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2023년(4차)에는 다시 66.6%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6년(1차)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참여율이었다. 이어서 ‘캠페인 활동 참여’는 2016년(1차) 44.3%, 2018년(2차) 54.4%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3차)에 46.1%로 감소하였다. 이후, 2023년(4차)에는 62.3%까지 증가하였으며, 동아리 활동과 마찬가지로 캠페인 활동 또한 2023년(4차)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2016년(1차) 53.1%, 2018년(2차) 62.8%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3차)에는 32.4%로 약 50% 감소하였다. 이후, 2023년(4차)에 51.3%로 증가하였다. 이어서 ‘기부 및 후원활동 참여’는 2016년(1차) 37.9%, 2018년(2차) 43.8%, 2021년(3차) 32.9%, 2023년(4차) 47.8%로 다른 활동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책활동 참여’는 2016년(1차) 3.7%, 2018년(2차) 9.1%, 2021년(3차) 9.2%로 증가하다가 2023년(4차)에 18.1%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활동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류활동 참여’는 2016년(1차) 8.9%, 2018년(2차) 14.7%, 2021년(3차) 11.8%, 2023년(4차) 21.2%로 ‘정책활동 참여’와 마찬가지로 전차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아동권리교육 참여’ 지표는 2016년(1차) 6.6%, 2018년(2차) 18.3%에서 2021년(3차)에 67.3%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3년(4차)에는 62.7%로 전차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참여권_참여활동 부문 지표

3.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1)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아동권리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권리 보장 수준의 변화는 절대지수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4대 아동권리영역별 지수와 종합적인 아동권리지수를 차수별로 방사형 그래프화하여 살펴보면, 2016년(1차) 그래프가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2차)과 2021년(3차) 그래프는 2016년(1차) 그래프 보다는 크지만, 두 그래프간 크기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고 일부 선은 중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4차) 그래프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사형 모양이 커질수록 지수값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전반적으로 아동권리보장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대 아동권리영역을 종합한 아동권리지수의 경우 2016년(1차) 65.5점, 2018년(2차) 69.3점, 2021년(3차) 69.5점에 이어 2023년(4차) 72.1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증가폭은 주춤하였으나, 감소하지 않고 미세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4차)는 전차 대비 2.6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은 2016년(1차) 65.4점, 2018년(2차) 65.5점, 2021년(3차) 65.5점, 2023년(4차) 69.0점으로 3차 조사까지 거의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4차)에 전차 대비 3.5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인 식사와 신체활동, 그리고 건강검진 비율의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달권은 2016년(1차) 68.7점에서 2018년(2차) 72.6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3차) 72.3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2023년(4차)은 73.5점으로 전차 대비 1.2점 증가하여 발달권 역시 아동이 경험하는 발달권 보장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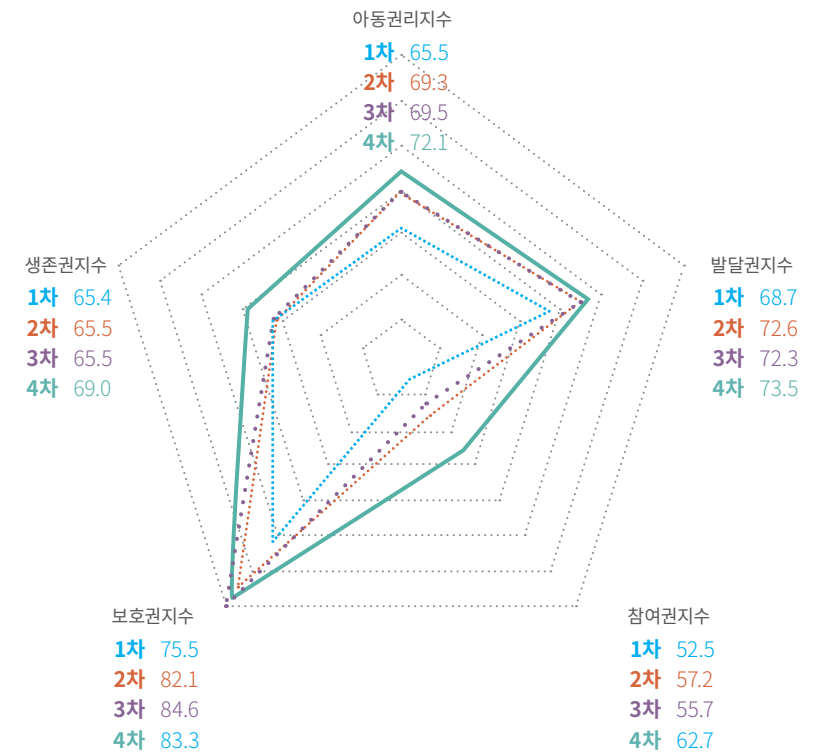
보호권은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유일하게 전차 대비 지수값이 감소한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1차) 75.5점, 2018년(2차) 82.1점, 2021년(3차) 84.6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4차) 83.3점으로 전차 대비 1.3점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3년(4차)에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전차 대

비 크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권은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전차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1차) 52.5점, 2018년(2차) 57.2점으로 증가하다가,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3차) 55.7점으로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반면, 2023년(4차)에는 전차 대비 7.0점이 증가하여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표 IV-2]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지수명	2016(1차)	2018(2차)	2021(3차)	2023(4차)	3차 대비 증감
아동권리지수	65.5	69.3	69.5	72.1	2.6
생존권지수	65.4	65.5	65.5	69.0	3.5
발달권지수	68.7	72.6	72.3	73.5	1.2
보호권지수	75.5	82.1	84.6	83.3	-1.3
참여권지수	52.5	57.2	55.7	62.7	7.0



[그림 IV-11]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2)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대한민국 전체의 아동권리보장 수준의 변화 추이에 이어, 17개 시·도별 아동권리보장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역별 변화는 2021년(3차)과 2023년(4차), 두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지수의 증감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3년(4차)은 실선으로 2018년(3차)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실선으로 된 방사형 그래프가 더 클 경우 해당 지역의 아동권리보장 수준이 전차 대비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4대 권리영역을 종합한 아동권리지수의 경우 전차 대비 17개 시·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폭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전차 대비 3.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지수 또한 17개 시·도 모두 전차 대비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으로 전차 대비 6.2점 증가하였다. 이어서, 발달권 지수는 대부분의 시·도가 전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2개 시·도는 전차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였으며 전차 대비 3.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의 경우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전차 대비 유일하게 감소한 영역이었는데, 17개 시·도별로도 4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수가 감소하거나 전차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대구는 보호권 지수가 전차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17개 시·도별로도 모든 시·도가 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증가폭이 큰 지역은 충북으로 전차 대비 10.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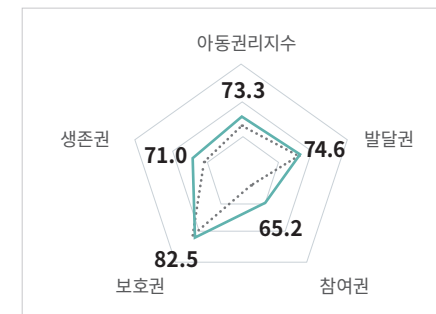
[표 IV-3]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 (2021, 2023)

지역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21	2023	증감	2021	2023	증감	2021	2023	증감	2021	2023	증감	2021	2023	증감
서울	69.5	73.3	3.8	65.3	71.0	5.7	72.7	74.6	1.9	83.6	82.5	-1.1	56.3	65.2	8.9
부산	71.4	74.0	2.6	67.4	72.0	4.6	74.7	74.1	-0.6	86.6	85.8	-0.8	56.8	64.1	7.3
대구	70.5	73.4	2.9	68.1	69.7	1.6	73.1	75.0	1.9	84.9	86.4	1.5	55.8	62.4	6.6
인천	69.4	72.5	3.1	64.2	68.4	4.2	72.0	74.0	2.0	85.6	83.9	-1.7	55.6	63.7	8.1
광주	68.0	69.2	1.2	65.1	66.4	1.3	71.3	70.9	-0.4	80.7	80.7	0.0	55.0	58.6	3.6
대전	69.0	71.9	2.9	64.4	68.8	4.4	71.6	74.5	2.9	86.3	83.9	-2.4	53.9	60.5	6.6
울산	69.7	72.9	3.2	65.8	71.3	5.5	72.8	75.1	2.3	84.7	84.7	0.0	55.5	60.5	5.0
세종	71.3	73.6	2.3	66.9	71.8	4.9	74.2	75.3	1.1	84.3	83.8	-0.5	59.8	63.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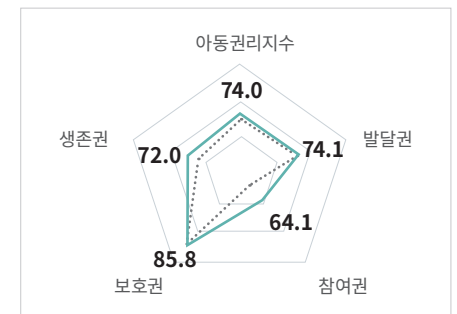
지역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21	2023	증감	2021	2023	증감	2021	2023	증감	2021	2023	증감	2021	2023	증감
경기	69.4	72.0	2.6	64.7	68.5	3.8	72.1	73.1	1.0	85.3	82.8	-2.5	55.5	63.6	8.1
강원	69.5	72.5	3.0	63.8	70.0	6.2	71.6	74.4	2.8	85.3	85.6	0.3	57.1	60.2	3.1
충북	67.7	70.3	2.6	65.1	65.6	0.5	70.6	72.5	1.9	84.3	81.8	-2.5	50.7	61.2	10.5
충남	69.5	70.9	1.4	65.7	67.9	2.2	71.3	72.4	1.1	84.8	82.9	-1.9	56.3	60.5	4.2
전북	68.9	70.6	1.7	64.7	67.6	2.9	71.3	71.7	0.4	81.3	81.7	0.4	58.2	61.2	3.0
전남	69.6	71.7	2.1	65.8	68.6	2.8	71.8	72.0	0.2	84.6	85.6	1.0	56.2	60.8	4.6
경북	68.5	70.5	2.0	65.5	66.9	1.4	71.5	71.5	0.0	83.9	83.1	-0.8	53.0	60.3	7.3
경남	70.5	71.6	1.1	67.5	68.9	1.4	73.1	73.7	0.6	84.6	82.4	-2.2	56.7	61.2	4.5
제주	69.3	72.0	2.7	66.5	69.8	3.3	71.0	74.9	3.9	82.8	81.4	-1.4	56.7	61.7	5.0

서울시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3차)대비 2023년(4차)에 3.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방사형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1년(3차) 그래프 대비 2023년(4차) 그래프가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나, 보호권의 경우 전차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권은 전차 대비 8.9점, 생존권은 5.7점, 발달권은 1.9점 증가한 반면, 보호권은 전차 대비 1.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71.4점에서 2023년(4차) 74.0점으로 2.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참여권이 전차 대비 7.3점 증가하여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생존권도 4.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권은 전차 대비 0.6점 감소하였는데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보호권도 전차 대비 0.8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12] 서울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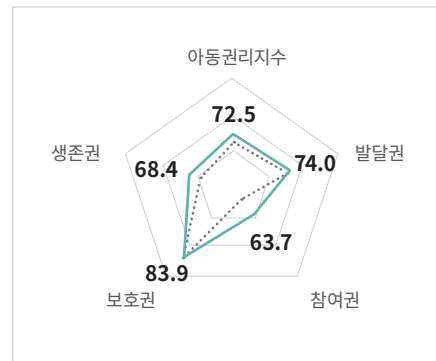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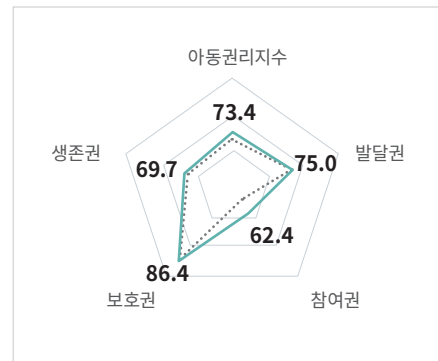
[그림 IV-13] 부산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대구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70.5점에서 2023년(4차) 73.4점으로 2.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권리지수와 4대 권리영역 모두 전차 대비 감소없이 모두 증가한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4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는데 대구는 그 중 하나의 지역에 해당하였다. 4대 권리영역별로는 참여권이 6.6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발달권은 1.9점, 생존권은 1.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은 전차 대비 1.5점 증가하여 대구 지역의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였으나,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9.4점에서 2023년(4차) 72.5점으로 전차 대비 3.1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지수는 모두 전차 대비 증가하였으며, 보호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권은 전차 대비 8.1점, 생존권은 4.2점, 발달권은 2.0점 증가하였으며, 보호권은 1.7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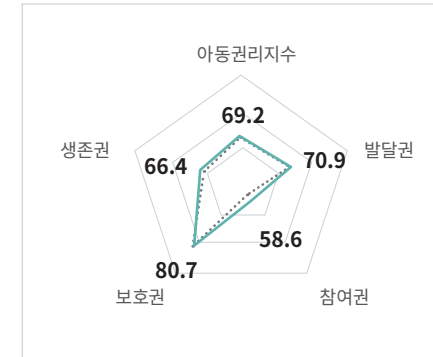


[그림 IV-14] 대구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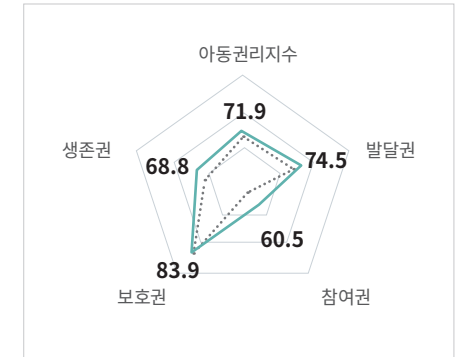
[그림 IV-15] 인천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광주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8.0점, 2023년(4차)은 69.2점으로 1.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권은 3.6점, 생존권은 1.3점 증가하였으며, 보호권은 증감을 0으로 2021년(3차)과 2023년(4차) 모두 80.7점을 유지하였다. 한편 발달권은 전차 대비 0.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9.0점에서 2023년(4차) 71.9점으로 2.9점 증가하였다. 4대 권리영역별로는 참여권, 생존권, 발달권은 전차 대비 증가하였으며, 보호권은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권은 6.6점, 생존권은 4.4점, 발달권은 2.9점 증가하였고, 보호권은 2.4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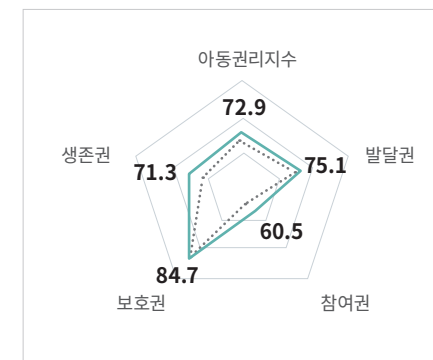
[그림 IV-16] 광주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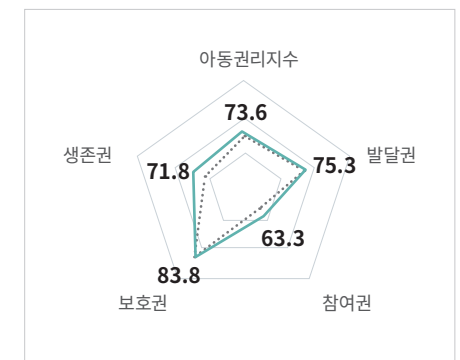
[그림 IV-17] 대전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울산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전차 대비 3.2점 증가하였는데 2021년(3차) 69.7점에서 2023년(4차)에는 72.9점으로 확인되었다. 4대 권리영역별로는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은 전차 대비 증가하였으며, 보호권은 대부분의 시·도가 감소한 반면, 울산은 2021년(3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생존권이 전차 대비 5.5점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시·도가 참여권 증가폭이 가장 큰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어서 참여권이 5.0점 증가하였고, 발달권은 2.3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71.3점에서 2023년(4차) 73.6점으로 2.3점 증가하였다. 울산과 마찬가지로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생존권의 증가폭이 4.9점으로 가장 컸으며, 참여권이 3.5점, 발달권이 1.1점 증가하였다. 반면, 보호권은 0.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8] 울산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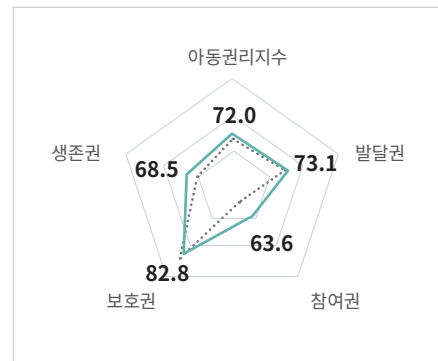
[그림 IV-19] 세종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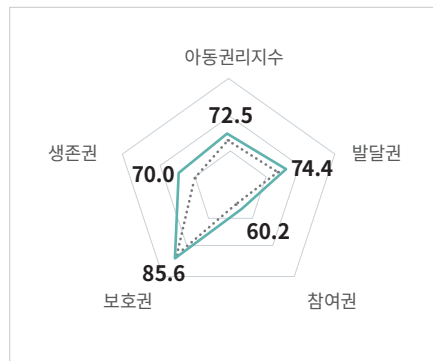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경기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9.4점에서 2023년(4차) 72.0점으로 2.6점 증가하였다. 4대 권리영역별로는 참여권이 8.1점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생존권 3.8점, 발달권은 1.0점 증가하였다. 반면, 보호권은 2.5점 감소하였는데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강원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9.5점, 2023년(4차) 72.5점으로 3.0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권리영역별로는 4개 영역 모두 감소한 영역 없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존권은 6.2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이어서 참여권은 3.1점, 발달권은 2.8점 증가하였고, 보호권은 0.3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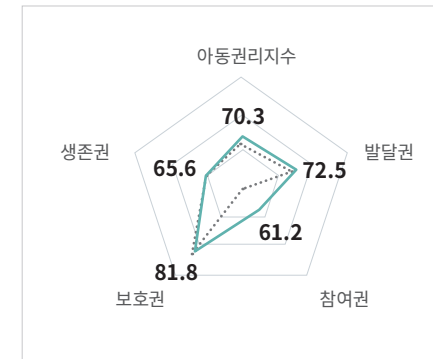
[그림 IV-20] 경기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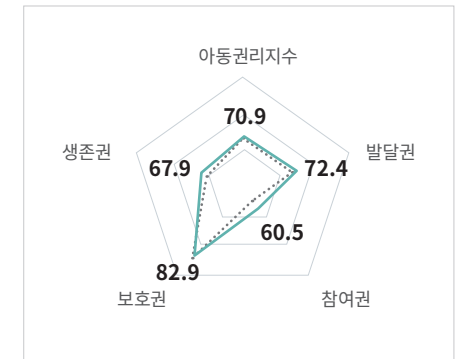
[그림 IV-21] 강원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충북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7.7점, 2023년(4차) 70.3점으로 2.6점 증가하였다. 4대 권리영역 중에서는 참여권이 전차 대비 10.5점 증가하였는데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이어서 발달권은 1.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또한 0.5점 증가하였으나,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증가폭에 해당하였다. 보호권은 전차 대비 2.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9.5점에서 2023년(4차) 70.9점으로 1.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권리영역별로 살펴보면, 참여권이 4.2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생존권 2.2점, 발달권은 1.1점 증가하였으며, 보호권은 1.9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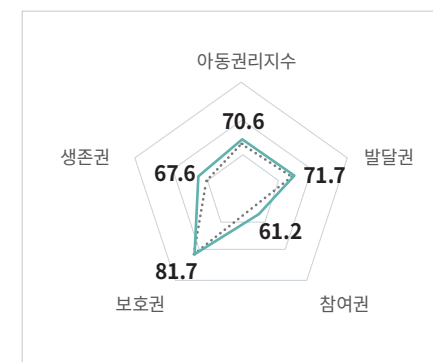
[그림 IV-22] 충청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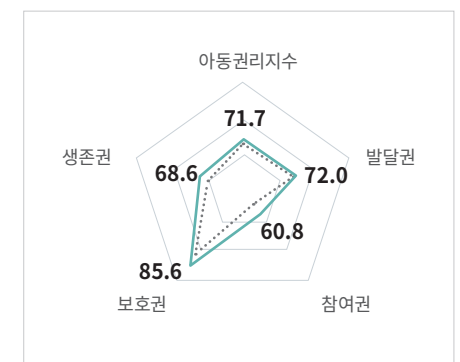
[그림 IV-23] 충청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전북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8.9점, 2023년(4차) 70.6점으로 1.7점 증가하였다. 4대 권리영역 모두 감소된 영역 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동권리보장 수준이 전차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이 2.9점, 발달권이 0.4점, 보호권도 0.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권 또한 전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3.0점에 그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

전남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9.6점에서 2023년(4차) 71.7점으로 2.1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권리영역 모두 전차 대비 감소한 영역 없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권이 4.6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생존권 2.8점, 보호권 1.0점, 발달권 0.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4] 전라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그림 IV-25] 전라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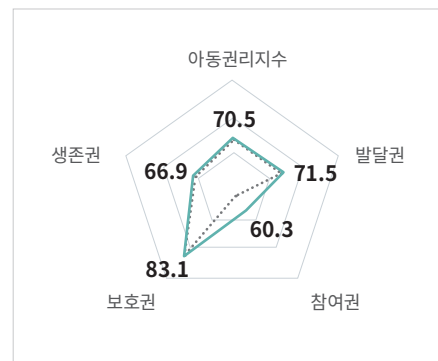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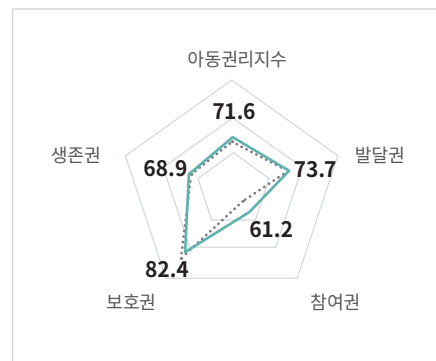
경북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8.5점, 2023년(4차) 70.5점으로 2.0점 증가하였다. 생존권이 7.3점 증가하였으며, 생존권은 1.4점 증가하였다. 발달권은 전차 대비 증감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보호권은 0.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70.5점, 2023년(4차) 71.6점으로 1.1점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증가폭이었다. 4대 권리영역별로는 참여권이 4.5점 증가하였으며, 생존권은 1.4점, 발달권은 0.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권은 2.2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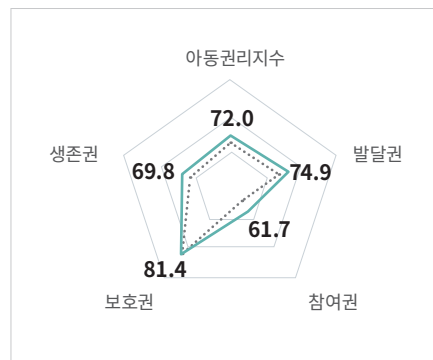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3차) 69.3점에서 2023년(4차) 72.0점으로 2.7점 증가하였다. 참여권이 5.0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발달권은 전차 대비 3.9점 증가하였는데,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이어서 생존권은 3.3점 증가하였으며, 보호권은 1.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6] 경상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그림 IV-27] 경상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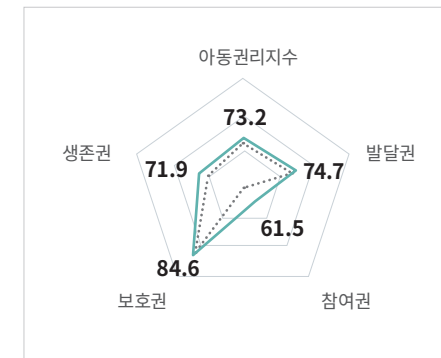


[그림 IV-28] 제주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3)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다음으로는 학년별 아동권리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021년과 2023년의 학년별 절대지수를 비교하여 추이를 살펴보았고, 그래프 상 실선은 2023년의 절대지수를 나타내며, 점선은 2021년의 절대지수를 나타낸다. 이때 그래프 상 실선이 점선의 바깥에 위치해있다면, 2021년보다 2023년의 아동권리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21년보다 2023년의 아동권리종합지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0.9점→73.2점). 생존권 지수 또한 2021년 대비 3.1점 증가하였고(68.8점→71.9점) 참여권 지수는 2021년 대비 6.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55.0점→61.5점). 발달권 지수도 2021년 대비 0.8점 증가하였으나(73.9점→74.7점) 보호권 지수는 1.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5.7점→84.6점).



[그림 IV-29] 초등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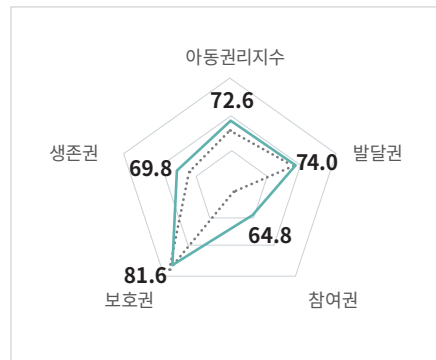
[표 IV-4] 초등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21	70.9	68.8	73.9	85.7	55.0
2023	73.2	71.9	74.7	84.6	61.5
증감	2.3	3.1	0.8	-1.1	6.5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권리종합지수도 2021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0.0점 → 72.6점). 특히 참여권 지수는 모든 학년에서 2021년에 비하여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21년 대비 7.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57.0점→64.8점). 초등학교 6학년의 생존권 지수와 발달권 지수 또한 각각 3.3점, 0.9점씩 증가하였고, 보호권 지수는 1.6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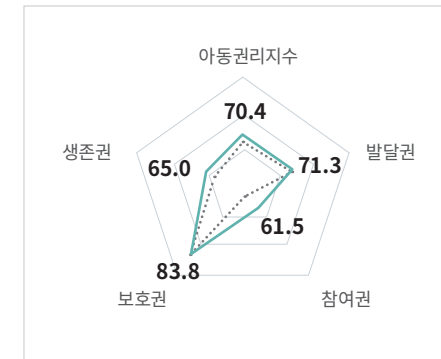


[그림 IV-30]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표 IV-5]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21	70.0	66.5	73.1	83.2	57.0
2023	72.6	69.8	74.0	81.6	64.8
증감	2.6	3.3	0.9	-1.6	7.8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21년보다 2023년의 아동권리종합지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7.9점→70.4점). 앞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에서 살펴봤듯이, 보호권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의 수치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중학교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또한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생존권 지수, 발달권 지수, 참여권 지수는 각각 3.8점, 1.1점, 6.3점씩 증가하였고, 보호권 지수는 1.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1]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표 IV-6]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21	67.9	61.2	70.2	84.9	55.2
2023	70.4	65.0	71.3	83.8	61.5
증감	2.5	3.8	1.1	-1.1	6.3

4) 시계열적 대상에 따른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1) 초등 4학년(2021년) → 초등 6학년(2023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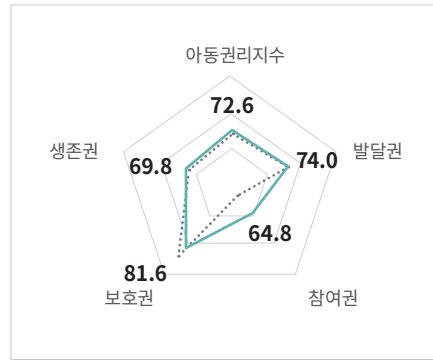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는 동일한 학년의 두 시점(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한 것이며, 이어서 시계열적 대상에 따른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권리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고, 2년 차이의 3개 학년(초4-초6-중2)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202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과 2023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를 비교하였다.

우선, 2023년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2021년의 초등학교 4학년보다 보호권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의 수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종합지수는 1.7점 증가했으며(70.9점→72.6점) 참여권 지수는 9.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나(55.0점→64.8점) 4대 권리영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생존권 지수와 발달권 지수는 각각 1.0점, 0.1점씩 증가하였고, 보호권 지수는 4.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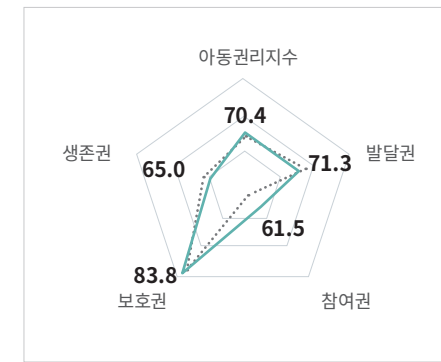
[그림 IV-32]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초6 기준)

[표 IV-7]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초6 기준)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21	70.9	68.8	73.9	85.7	55.0
2023	72.6	69.8	74.0	81.6	64.8
증감	1.7	1.0	0.1	-4.1	9.8

(2) 초등 6학년(2021년) → 중등 2학년(2023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이어서 2021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2023년 현재 중학교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를 비교하였다. 2023년 중학교 2학년의 아동권리종합지수는 2021년의 초등학교 6학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70.0점→70.4점) 참여권 지수와 보호권 지수는 각각 4.5점, 0.6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존권 지수와 발달권 지수는 각각 1.5점, 1.8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3]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중2 기준)

[표 IV-7]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중2 기준)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21	70.0	66.5	73.1	83.2	57.0
2023	70.4	65.0	71.3	83.8	61.5
증감	0.4	-1.5	-1.8	0.6	4.5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V. 결론 및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2023(4차)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를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4차 아동권리종합지수는 72.1점으로 전차 대비 2.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진행되어 전차 대비 0.2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4차 조사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후 진행되어 아동권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1차(65.5점) 대비 2차(69.3점) 아동권리지수의 증가폭(3.8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한 이래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 권리영역별로는 참여권이 전차 대비 7.0점 증가하여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차 시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활동 및 교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권리영역 가운데 참여권의 제약이 가장 컸던 반면, 4차 시점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아동의 참여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이 참여권 지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생존권은 1차부터 4차까지 등락없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차에서는 전차 대비 3.5점 증가하였고, 발달권 또한 1.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권은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등교가 중지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교폭력 경험이 크게 감소하였던 3차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4차 시기에는 다시 학교폭력 경험이 증가하였으며, 가정내 체벌과 성적/외모/지역/가정형편에 대한 차별 경험도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보호권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권리지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아동권리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핵심 지표는 아동의 권리 경험에 기반한다. 따라서, 4대 권리영역별 핵심 지표 하나하나의 실태와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큰 틀에서 아동권리지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먼저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아동의 생존권 경험 지표를 살펴보면, 영양 영역에서는 식품미보장 정도가 2016년(1차) 16.0%, 2018년(2차) 16.2%, 2021년(3차) 12.7%, 2023년(4차) 11.9%로 나타나 미보장 정도는 2018년(2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사와 육류섭취, 우유섭취 정도는 전차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신선한 채소 섭취와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아침식사 결식 정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규칙적인 식사 비율은 3차 시점에 61.2%로 전차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4차에서는 65.0%로 3.8%p 증가하였으며, 육류섭취는 전차 대비 3.4%p, 우유섭취는 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사와 우유 섭취율이 2차 대비 3차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4차에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아동의 일상규정이 깨지고, 등교 중지로 인해 아동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공백 또한 높았다. 이후 다시 학교에 정상 등교하게 되면서 학교 급식으로 인해 규칙적인 식사 비율이 높아지고, 우유 섭취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선한 채소 섭취율은 전차 대비 0.3%p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인스턴트/편의점 식품섭취율은 6.6%로 전차 대비 약 1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침식사 결식 정도는 2018년(2차) 23.7%, 2021년(3차) 27.5%, 2023년(4차) 28.0%로 전차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추이 또한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4가 20.5%, 초6이 29.7%, 중2가 34.0%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 또한 높아졌다. 위생 및 공기 영역에서는 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2021년(3차) 40.9점에서 2023년(4차) 23.5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간접흡연 노출 정도는 42.1점에서 48.9점으로 증가하였다.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된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약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치과검진, 예방접종률 지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다가 2023년(4차)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은 교육 영역에서 학교생활만족도,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과 교육적 참

여 정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방과후 수업 만족도는 다소 감소하였다.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은 2021년(3차) 70.8점에서 2023년(4차) 72.5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또한 2021년(3차) 43.5점에서 2023년(4차) 47.2점으로 증가하였다. 놀이 및 여가 영역에서는 가족 간 여가활동 영위 정도는 3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놀이 및 휴식시간 부족 정도는 2016년(1차) 19.0%, 2018년(2차) 11.2%, 2021년(3차) 7.8%로 감소 추세하다가 2023년(4차) 8.1%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영역에서는 부모(보호자)와 친밀한 관계 정도,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정도,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가 증가한 반면,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은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유일하게 전차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지표별 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한 지표가 다른 권리영역 대비 많았다. 학대 영역에서는 가벼운 신체학대 경험, 나홀로 아동 비율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심각한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경험 모두 전차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성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조사 참여 아동의 7.8%로 전차 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벌 영역에서도 학교 내 체벌경험, 가정 내 체벌경험이 전차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 내 체벌 경험의 경우 민법 상 징계권 삭제 이후인 2021년(3차)에 감소하였다가 2023년(4차)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2018년(2차) 46.4%에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3차)에 37.7%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4차)에는 다시 44.6%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조사인 2018년(2차)과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별경험 또한 연령 차별, 성별 차별은 감소한 반면, 지역, 성적, 가정형편, 외모 관련하여 차별받은 경험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3차) 조사 당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던 참여권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은 2021년(3차) 76.2점에서 2023년(4차) 78.2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참여활동 또한 8개 영

역 모두 일관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캠페인 활동, 기부 및 후원활동, 정책활동, 교류활동, 정치집회 참여, 청원 및 서명운동 참여 활동은 2018년(2차)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정책활동 참여, 교류활동 참여, 정치집회 참여는 2021년 대비 약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아동권리교육 참여는 2021년(3차) 67.3%에서 60.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4대 권리영역의 종단적 변화에 이어 2023년 현재 지역별 그리고 학년별로는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아동의 권리경험, 즉 아동이 경험한 아동권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아동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지역별 비교를 통해 지역에 따른 권리 보장 격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17개 시도의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한 결과, 세종은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권리종합지수 또한 가장 높았다.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세종은 107.5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90.3으로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차이는 17.2점이었다. 2021년(3차)의 지역간 아동권리종합지수 격차는 16.8점이었는데 이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2차)의 지역간 격차가 15.9점임을 감안하면 지역간 격차 점수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대 권리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권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간의 격차가 21.8점으로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권 20.5점, 생존권 20.0점, 그리고 발달권은 16.5점으로 지역간 격차가 다른 권리영역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권의 경우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1년(3차)과 비교 시,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은 지역간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권은 3차(16.1점) 대비 지역간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아동권리지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단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지수는 전차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전반적인 권리 수준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상대지수를 통해 살펴본 지역간 격차는 다소 증가하여 지역간 격차 완화라는 부분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대 권리영역별로 살펴보면, 참여권과 발달권은 절대지수 즉 아동권리 보장 수준은 전차 대비 증가하고, 상대지수에서 지역간 격

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권리 수준 개선’과 ‘지역간 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 긍정적이었다. 이어서, 생존권은 아동권리 보장수준은 개선되었으나,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보호권은 전차 대비 보장 수준도 감소하고, 지역간 격차 또한 21.8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학년간 격차의 경우, 2018년(2차) 13.1점에서 2021년(3차) 10.6점으로 완화되었는데, 2023년(4차)에는 9.0점으로 더욱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 권리영역별 학년간 격차는 보호권이 2021년(3차) 9.7점에서 2023년(4차)에 9.4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참여권은 2021년(3차) 13.8점에서 2023년(4차)에 12.0점으로, 발달권은 2021년(3차) 14.8점에서 2023년(4차)에 11.7점으로, 생존권은 18.0점에서 13.6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 정도는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 순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권리보장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권리지수에 이어 개별 지표들을 통해 아동권리 보장환경과 아동의 발달결과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권리보장환경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지표가 2021년(3차) 대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이상 변화한 지표는 가정 인프라 요소에 존재하였는데, 교육지원 부족이 10.8%에서 8.3%로 감소하였으며, 휴대폰 미보유율도 5.3%에서 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컴퓨터 보유 여부나 인터넷 환경 구축과 같은 정보접근성 부족은 3.0%에서 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나 학교 내 정보공개 민주성, 성적 비차별 정도도 모두 전차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반면, 양성평등 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와 체벌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전차 대비 높아졌으며, 부모의 체벌 경험 또한 감소하였다. 반면, 체벌 효과,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감소하지 않았다. 앞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완화 이후에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아동의 안전 인식 또한 가정, 동네,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증가한 반면, 학교의 안전은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기관 이용 편의성 지표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감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편의성의 경우 이용 편의성이 가장 높은 지역

과 가장 낮은 지역간의 차이가 42.0%p였으며,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은 32.2%p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공원 이용 편의성은 26.1%p, 병원 이용 편의성은 21.4%p, 놀이터 이용 편의성은 20.0%p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다른 지표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이나 권리경험은 아동의 발달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체적 건강 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감소하고 입원 경험율은 증가하여 2021년(3차) 대비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아동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는 전차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심리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자아존중감은 다소 증가하고 우울과 불안 또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경험은 성비행과 재산비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2018년(2차) 26.9점, 2021년(3차) 28.1점, 2023년(4차) 32.6점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에서는 학업, 친구, 외모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차 신규 지표 가운데 우리사회 공정성 인식 지표는 아동은 68.1점, 부모(보호자)는 49.5점으로 부모(보호자)가 생각하는 공정성 정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정성 인식 정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제언

1) 지역 간 격차 완화와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 마련

아동권리지수를 조사한 이래 아동권리종합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17개 시도별 차이는 여전히 크다. 학년간 차이가 전차 대비 감소한 것과는 달리, 지역간 차이는 전차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권리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도서관이나 문화공간, 공원 등과 같은 인프라 이용 편의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권리지수의 증가 외에 지역간 격차가 증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복지나 인권 수준을 개선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보장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과 함께 그 안에 속한 지역이나 집단 간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차이를 점차 줄여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공동체, 지역사회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함으로써 비슷한 수준의 권리,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아동권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 수준이 다르다면 아동은 또 다른 차원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와 관련된 아동의 경험은 언뜻 아동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동이 권리를 경험하는 장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아동은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성인에 비해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기에 적합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아동 관련 정책, 제도 마련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보호권 보장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는데, 2020년 4월 폐지되었다. 해당 조항 폐지를 전후로 아동의 가정 내 체벌 경험을 살펴보면, 2018년 20.4%에서 2021년에 16.6%로 약 20%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18.1%로 다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권 폐지와 체벌 금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벌 효과와 체벌 필요성에 대한 부모와 보호자의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학교 안에서의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은 안전해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2016년(1차) 52.0%, 2018년(2차) 33.9%였고,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3차)에 24.1%로 감소하던 2023년(4차)에 다시 27.8%로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또한 2016년(1차) 51.1%에서 2018년(2차) 46.4%으로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3차)에 37.7%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23년(4차)에는 다시 44.6%로 증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주변 환경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안전감 정도 또한 가정과 동네,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2021년(3차) 대비 일관되게 증가한 반면, 학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경험과 학교 내 체벌경험이 일관되게 감소하여 오히려 아동의 보호권이 증가한 점은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종합해보면, 실제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아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아동의 안전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2021년(3차)에 93.1%, 2023년(4차)에는 96.3%에 달하여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높은 학교폭력 경험율은 해당 교육의 실효성, 그리고 교육 이외에도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팬데믹 이후의 아동 발달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접근 필요

재난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는데, 아동은 재난의 부정적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는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 아동은 주변 체계와 환경의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독립된 개체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에 아동은 등교 중지로 인해 공교육의 공백, 학습 격차의 증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 감소, 신체활동 감소와 스

마트폰 과의존 경향 증가, 돌봄 공백, 우울이나 불안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다행히 최근 코로나가 발생한지 3년여 만에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서 팬데믹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아동권리지표 대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2018년(2차)에서 2021년(3차)에 증가한 범위보다, 2023년(4차)에 증가한 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안과 우울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엔데믹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는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거나, 팬데믹 시기에 고정화된 행동 양식을 보다 건강한 양식으로 대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비단 팬데믹과 관련된 요인이 아니라도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전히 아동에게는 각종 스트레스와 자극,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실제로 아동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체벌이나 폭력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차별경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나 사는 지역, 가정형편에 대해 차별받은 경험이 증가하였으며, 외모 때문에 차별받아본 경험이나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차별경험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 발달에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위기, 재난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아동의 발달을 포괄적,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기반으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아동권리교육, 공동체교육 등 활성화 필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는 아동과 관련된 매우 주요하고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아동

의 교육 참여율은 전차 대비 증가하였고 참여율 또한 85~97%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예방교육을 제외한 아동권리교육과 양성평등교육, 세계시민/공동체교육 참여율은 54~78%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차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교육, 공동체교육, 아동권리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고,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 인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며,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고 참여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본 아동권리지수 분석 결과에서도 세계시민교육과 공동체 교육,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아동은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권리교육이나 시민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참고 문헌·부록

참고 문헌

- 교육부·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2014). 한국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구정화(2011).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해냄
- 김기량·김미경(2009). 식품 보장 측정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42(4), 374-385.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 서미정(2006). 또래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 주변 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미정(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 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서미정(2019). 진로심리검사도구 개발 최종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2.
- 신광우·김동일·정여주·이주영·이윤희·김명찬·강은비·금창민·남지은(2011).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고도화(3차)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안재진·강상경·김혜란·신혜령·유조안·이봉주·이은주·황옥경(2011). 아동학대실태조사. 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 안정임(2013).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습과학연구, 7(1), 1-21.
- 엄나래·김형석(2018).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 이봉주·신원영(2017). 2016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굿네이버스.
- 이현숙, 김영애(2022). 소득불평등과 공정성 인식이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5), 1417-1430.
- 임영식·정경은(2019).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청소년학연구, 26(9), 495-522.
- 전경구·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은교·안도희(2017). 청소년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6), 449-470.
- 최형성·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한국복지패널 10차 부가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1년 한국복지패널 16차 가구용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7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9). 진로심리검사도구 개발 최종보고서.
- 홍순옥·이옥경(2010). 초등학생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9(3), 75-90.
- 홍승애·이재연(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과 권리, 18(2), 303-330.
- 황세영, 김남수(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AEG-SDGs(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2019). Guidelines on Data Flows and Global Data Repor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Lansdown, G. (1994). Children's Rights, in B. Myall (Ed.) Children's hildhoods Observed and Experienced. London: Falmer Press.
-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6), 555-56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C. E., & Mirowsky, J. (1999). Disorder and Decay: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Urban Affairs Review, 4(3), 412-32.
- Straus, M. A., & Mouradian, V. E. (1998). Impulsive corporal punishment by mothers and antisocial behavior and impulsiveness of children.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6(3), 353-374.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Global School-Based Student Health Survey (GSHS) 2013 Core-Expanded Questions.
- Yekaterina Chzhen & Chris De Neubourg (2014). Multiple Overlapping Deprivation Analysis for the European Union (EU-MODA): Technical Note. Innocenti Working Papers, 2014-01.
- OECD <https://stats.oecd.org>

부록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D (기입하지 마세요)

--	--	--	--	--	--	--	--

아동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학생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권리는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여러분의 평소 생활이나 생각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주면 됩니다.

이 조사는 참여에 동의한 학생 여러분과 부모님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에 동의한 학생 여러분과 부모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동과 부모님으로서 본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사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법(「통계법」 제33조)에 의해서 비밀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게 됩니다.

설문 도중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문항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1) 성별

- ① 여자 ② 남자

예2) 다음의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느낌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평소에 마시는 물은 깨끗한 편이다.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③	④

PART A. 현재 상태

문1 여러분의 성별과 태어난 연도를 표시해 주세요.

문1-1 성별

- ① 여자 ② 남자

문1-2 태어난 연도

- ① 2008년 ② 2009년 ③ 2010년 ④ 기타()년

PART B. 학교, 지역사회 환경 및 아동학대·아동권리 인식

문2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학교가 가까이 있어 등·하교하기가 편하다.	①	②
2. 학교 시설은 깨끗하다.	①	②
3. 학교 운동장은 활동하기에 좋다.	①	②

문3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우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2.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3.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4. 학급 규칙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만약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에선 성적 때문에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4 다음은 여러분의 동네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로, 벽, 공중시설 등에 낙서가 많다.	①	②	③	④
2.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물이 자주 파손된다.	①	②	③	④
4. 버려진 건물이나 공간이 많다.	①	②	③	④
5.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6.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집 근처에 있는 거리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린다.	①	②	③	④
8. 범죄가 많다.	①	②	③	④
9. 술 취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이웃들과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사람들끼리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부록

문5 여러분은 다음의 장소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해당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집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 학교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동네(지역)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6 다음은 여러분의 생활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평소에 마시는 물은 깨끗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평소에 이용하는 화장실은 깨끗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맡을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4. 내가 평소에 머무르는 공간/장소(집, 학교, 학원, 놀이터 등)의 공기는 깨끗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문7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8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1) 가정이나 학교, 그 외의 장소에서 다음의 내용을 다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2) 각 교육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문항	1) 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2) 각 교육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예	아니오	매우 불필요	약간 불필요	약간 필요	매우 필요
1. 아동권리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 아동학대 예방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3. 세계시민/공동체교육(민족·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협력하는 방법을 이해)	①	②	①	②	③	④
4. 양성(남녀)평등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5.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6. 성추행 및 성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문9 우리나라에서 남성과 여성이 **존중받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각각 몇 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나요?

←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보통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

① 여성이 존중받는 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② 남성이 존중받는 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문10 다음은 아동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아동과 관련된 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부록

- 문11** 다음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의 권리는 가정 안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아동의 권리는 학교 안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권리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아동의 권리는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아동의 권리는 우리나라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PART C. 식습관 및 건강행동

- 문12** 다음은 여러분의 식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먹지 않음	주에 1~2일	주에 3~4일	주에 5일 이상
1. 규칙적인 식사	①	②	③	④
2. 신선한 채소(김치 제외)와 과일	①	②	③	④
3.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	①	②	③	④
4. 고기반찬	①	②	③	④
5. 우유	①	②	③	④
6. 배달음식 (치킨, 피자, 분식, 한식, 중식 등)	①	②	③	④

- 문13** 식사를 편의점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① 먹은 적 없음
② 맛이 있거나 좋아해서
③ 시간이 없거나 빠르게 한 끼 해결하려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④ 성인 보호자 또는 가족이 먹자고 해서
⑤ 친구가 먹자고 해서
⑥ 밥을 사 먹을 만큼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⑦ 밥을 챙겨주지 않아서(집에 어른이 안계셨거나 아파서 챙겨주지 못한 경험도 포함)
⑧ 기타()

- 문14** 지난 1달 동안 얼마나 자주 아침 식사를 먹었나요?

① 항상 먹지 못했음	② 거의 대부분 먹지 못했음	③ 못 먹을 때가 종종 있었음	④ 거의 대부분 먹었음	⑤ 매일 먹었음
-------------------	-----------------------	------------------------	--------------------	----------------

- 문14-1** 지난 1달 동안 아침 식사를 굶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① 아침 식사 굶은 적 없음
② 시간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③ 귀찮거나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④ 아침을 챙겨주지 않아서(부모님이 아프셨거나 집에 안 계셨었던 경우 포함)
⑤ 집에 음식이 충분치 않아서
⑥ 살 빼려고
⑦ 기타()

- 문15** 지난 1달 동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었나요?

- ① 전혀 없었음 ② 1~2번 정도 있었음 ③ 3번 이상 있었음

- 문16** 다음은 최근 1주일 동안 ‘학교 밖’에서 여러분이 한 신체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하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1.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예) 달리기, 등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①	②	③	④
2.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약간 가쁜 정도의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예)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①	②	③	④

부록

문17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지난 1년 동안 신체검사 이외에 건강검진(치과검진 제외)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①	②
2. 지난 1년 동안 치과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①	②
3. 지난 1년 동안 독감 등의 예방 접종을 1회 이상 하였나요?	①	②

문18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가지 못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가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전혀 갈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문19 여러분은 하루 평균 밤에 몇 시간 정도 자나요(수면시간)? [초4 제외]

구분	평일 예) (7)시간 (00)분	주말 또는 공휴일 예) (7)시간 (30)분
1. “학기” 중에는?	1) ()시간 ()분	2) ()시간 ()분
2. “방학” 중에는?	3) ()시간 ()분	4) ()시간 ()분

문20 평소 밤에 잠자는 시간(수면시간)은 충분한가요?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PART D. 학교 생활 및 방과후 생활

문21 여러분의 학교성적은 어떠한 편인 것 같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과목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전과목	①	②	③	④	⑤
국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문22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수업은 나에게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3 학교 수업 외의 공부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문24 학교 수업 외의 공부시간은 어떤 편인가요?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문25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개인)수업을 하고 있나요?

- ① 예 문25-1, 문25-2
② 아니오 문26

문25-1 다니는 학원 또는 과외(개인)수업은 몇 가지입니까?
()가지

문25-2 학원이나 과외(개인)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의 놀이 및 휴식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6 하루 평균 놀이 및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구분	평일	주말 또는 공휴일
1. “학기” 중에는?	()시간 ()분	()시간 ()분
2. “방학” 중에는?	()시간 ()분	()시간 ()분

부록

문26-1 놀이 및 휴식시간은 충분한가요?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문27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문항	전혀 하지않음	1년 1~2회	1년 5~6회	한 달 1~2회
1. 관광 활동 (캠핑, 여행, 소풍, 놀이공원 가기 등)	①	②	③	④
2. 스포츠 참여 또는 관람활동 (배드민턴/탁구/수영/요가, 경기장 가기 등)	①	②	③	④
3. 문화예술참여 또는 관람활동 (미술활동, 악기연주, 영화/연극보기, 박물관 가기 등)	①	②	③	④

문28 여러분은 꾸준히 하고 있는 취미활동(예: 독서/악기연주/영화·음악감상/바둑/조립이나 만들기 등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PART E. 부모, 가족, 선생님, 친구 관계

문29 다음은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스스로 나의 일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5.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내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속상해 있을 때 기분을 풀어주신다.	①	②	③	④
8.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9. 나를 심하게 간섭하신다.	①	②	③	④
10. 나를 칭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30 다음은 여러분의 선생님과 친구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임 선생님이 좋다.	①	②	③	④
2.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3.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문31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지난 1년 동안~	예	아니오
1.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만진 적이 있나요?	①	②
2.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나에게 시킨 적이 있나요?	①	②
3.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체벌] 어른이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나의 몸이 고통을 느끼도록 벌을 줌.	①	②
4. 집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②
5. 학교와 집이 아닌 장소(학원, 동네 등)에서 어른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②

문32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이 나를 혼낼 때의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체크해 주세요.

부모님(성인 가족)이 나에게~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1. 나를 꼬집으셨다.	①	②	③	④	
2.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이외의 곳을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4.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①	②	③	④	
5.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6.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	①	②	③	④	
7.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①	②	③	④	

부록

부모님(성인 가족)이 나에게~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8.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9. 실제로 때리시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말로 위협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10.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셨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셨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두셨다.	①	②	③	④	⑤
13.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15. 술에 취해 계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돌보시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16. 심하게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⑤

문33 여러분은 평일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일 주일에 며칠이나 되나요?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5~7일 정도)

문34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또래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당한 경험들에 대한 문항입니다.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다른 아이가 → 나에게	전혀 없음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1.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찼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괜히 툭툭 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다.	①	②	③	④	⑤
6. 여럿이 놀 때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사이버)에서 괴롭힘을 받거나 왕따를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35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또래친구나 선후배에게 했던 경험들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내가 → 다른 아이에게	전혀 없음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1.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찼다.	①	②	③	④	⑤
2. 그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의 신체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렸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아이를 괜히 툭툭 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여럿이 놀 때 고의로 한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떤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사이버)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문36 다음은 집과 학교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상급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학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학원 선택을 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은 나의 문화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서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말했다 때 선생님들께서는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부록

문37 다음은 평소 가정과 학교에서 회의 진행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묻기 위해 가족회의를 하고 있나요?	①	②	③	④
2. 여러분 학교 또는 학급(반)에서는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묻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나요?	①	②	③	④
3. 여러분 가정에서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뤄지는 편인가요?	①	②	③	④
4. 여러분 학교 또는 학급(반)에서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뤄지는 편인가요?	①	②	③	④

문38 다음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의사결정 참여 경험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정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할 때, 나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 가정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할 때, 나는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활동하는 모임(학교 및 지역사회 포함)에서 어떤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할 때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4. 내가 활동하는 모임(학교 및 지역사회 포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6. 나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활동하는 모임(학교 및 지역사회 포함)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8. 나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 내가 활동하는 모임(학교 및 지역사회 포함)의 의사결정자(성인)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9. 의견이 다른 경우,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합의점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10. 의견이 다른 경우, 내가 활동하는 모임(학교 및 지역사회 포함)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합의점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문39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관심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함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2. 참고서, 학습지, 학원 선택에 대해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3. 내가 공부를 할 때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4.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5. 학급 어머니회 임원이나 회원으로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6. 봉사활동(교통지도, 배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7. 나의 문제나 생활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8.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PART F. 참여 활동

※ 다음은 여러분의 참여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40-1 지난 1년 동안 아래의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문항	주 1~2 회	월 1~2 회	3개월에 1~2회	학기당 1~2회	연 1~2 회	참여 경험 없음
1. 동아리 활동(연극, 댄싱 동아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캠페인 활동(학교폭력 예방, 친구사랑 캠페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자원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4. 기부, 후원활동(자연재해나 전쟁, 질병, 식량부족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을 위해 돈이나 물건을 내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5. 정책참여 활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 참여 위원회, 아동·청소년자치위원회 등 자신의 의견을 국가 기관에 전달해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6. 교류활동(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한 여러 활동들)	①	②	③	④	⑤	⑥
7. 정치 관련 집회(모임) 참여(국가/정부의 정책/제도 관련된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8. 서명 및 청원 활동(어떤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 정부나 기관에 제출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문40-2 지난 1년 동안 위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부분의 활동에 스스로 원해서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대부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PART G. 건강상태

문41 여러분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PART H. 정서 및 스트레스

문42 여러분은 현재 얼마나 행복한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하여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 가장 낮은 행복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행복도 점수는 10입니다.

← 전혀 행복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행복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문43 다음은 여러분 자신을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에게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5.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7.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8.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44 다음은 지난 1주일 동안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지난 1주일 동안 나는~	전혀 없다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거의 매일 (5~7일)
1.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어도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2. 기분이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3. 내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4. 두려운 기분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5.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6. 평상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곤 했다.	①	②	③	④
7. 슬픈 기분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문45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마음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2.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3. 평소에 예민하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5.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①	②	③	④
6. 가끔 심장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부록

문46 다음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경험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4 제외]

문47-1 지난 1년 동안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2주 이상 슬픔이나 좌절을 느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47-2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47-3 지난 1년 동안 죽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47-4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죽음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48 지난 1달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문항 1~4, 7, 10, 11은 초4 제외]
※ 본 문항의 답변은 학교 내 벌점과 관련이 없으며, 선생님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문항	경험 여부	
	예	아니오
1. 담배 피우기	①	②
2. 술 마시기 (제사나 종교 행사에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경우 제외)	①	②
3.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은 경우)	①	②
4. 가출 (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음)	①	②
5.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비웃기	①	②
6. 다른 사람을 따돌림 시키기	①	②

문항	경험 여부	
	예	아니오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②
10.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11.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12. 성폭행이나 성희롱(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동) 또는 성관계	①	②
13. 돈을 걸고 도박게임	①	②
14.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주민번호 무단 사용	①	②
15.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악플	①	②
16. 채팅/게시판 등에 고의로 허위(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경험	①	②
17. 컴퓨터/스마트폰, 잡지 등을 통해 야동이나 음란물 보기	①	②

문49 다음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보통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0	1	2	3	4	5	6	7	8	9	10
1. 공부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2. 친구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3. 가족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 외모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5. 경제적 어려움	0	1	2	3	4	5	6	7	8	9	10

문50-1 다음은 평소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받아 본 경험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차별 이유	차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나요? (다른 사람 → 나에게)		
	없음	몇번 있음	자주 있음
1. 나이(어려서 혹은 많아서) 때문에	①	②	③
2. 성별(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때문에	①	②	③
3. 사는 동네(지역) 때문에	①	②	③
4. 성적(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못해서) 때문에	①	②	③
5. 가정형편(잘 살거나 혹은 못 살아서) 때문에	①	②	③
6. 외모(얼굴, 키, 몸무게, 장애, 피부색 등) 때문에	①	②	③

부록

문50-2 다음은 평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차별해 본 경험**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차별 이유	차별을 “해 본” 경험이 있나요? (내가 → 다른 사람)		
	없음	몇번 있음	자주 있음
1. 나이(어려서 혹은 많아서) 때문에	①	②	③
2. 성별(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때문에	①	②	③
3. 사는 동네(지역) 때문에	①	②	③
4. 성적(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못해서) 때문에	①	②	③
5. 가정형편(잘 살거나 혹은 못 살아서) 때문에	①	②	③
6. 외모(얼굴, 키, 몸무게, 장애, 피부색 등) 때문에	①	②	③

문51 다음은 평소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에서 **각 대상은 얼마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대상	우리나라와 사회에서 각 대상은 얼마나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을까요?			
	매우 불평등	약간 불평등	약간 평등	매우 평등
1. 아동	①	②	③	④
2. 여성	①	②	③	④
3. 장애인	①	②	③	④
4. 가난한 사람	①	②	③	④
5. 인종이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6. 성적이 좋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	①	②	③	④
7. 종교가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8. 뚱뚱하거나 멋지지 않거나 예쁘지 않은 사람	①	②	③	④

PART I. 생활환경

문52 다음은 여러분의 생활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형제/자매나 타인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을 가지고 있나요?	①	②
2. 4계절 모두 신는 신발을 포함해서 2켤레 이상의 신발을 가지고 있나요?	①	②
3. 집에 노트북 또는 컴퓨터 혹은 태블릿 PC가 있나요?	①	②
4.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나요?	①	②
5. 본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나요?	①	②

PART J. 생각과 가치

문53 다음은 여러분의 미래계획과 진로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해야 할 일들을 계획 세워서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여러 직업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나의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먼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후에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부록

문54 다음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55 다음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잘 사는 사람들(계층)과 못사는 사람들(계층) 간에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 계층: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	①	②	③	④
2. 15년 후에 나는 현재 속한 [계층]에 비해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나라가 '노력하면 더 좋은 [계층]으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나라' 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나라가 [계층] 간 차이를 좁혀주기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56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아동이 살기 좋은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해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는 아동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는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는 아동의 충분한 놀이와 여가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6. 우리나라는 어른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이 보장된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8. 우리나라는 아동을 집안환경, 성별, 종교, 연령, 인종, 지역, 장애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우리나라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10. 우리나라는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문57 다음은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사회에서 교육기회는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4. 내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대체로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부록

PART K. 디지털 및 환경

문58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행동과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매체(사진, 동영상 등)를 활용하여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온라인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온라인에서 검색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미디어에 나타난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에 대해 나와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의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미디어를 통해 기부, 모금, 서명운동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을 위한 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small>*서명운동 :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 정부나 기관에 제출하는 활동</small>	①	②	③	④

문59 다음은 '환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환경(기후변화, 자연재해, 재해위험 감소 등)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2.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기후변화나 재난재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정책을 수립할 때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끼칠 이익과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D (기입하지 마세요)

--	--	--	--	--	--

아동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 [보호자용]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의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의뢰로 우리나라 아동의 생활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의 생활과 생각들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며, 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현 주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아동복지를 위한 전문 서비스 개발과 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참여에 동의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참여를 원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서서는 설문지를 다시 학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전하게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도중 문의사항이 있다면, 조사 수행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설문지 작성 방법]

- 본 설문지는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지에서 자녀 관련 응답은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설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번호를 직접 기입하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하여 주십시오.

예1) 현재 설문지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예2) 다음의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느낌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④

4. 주관식 문항은 빈칸에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PART A. 동네 환경 및 주거안전

문1 다음은 귀하의 동네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로, 벽, 공중시설 등에 낙서가 많다.	①	②	③	④
2.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물이 자주 파손된다.	①	②	③	④
4. 버려진 건물이나 공간이 많다.	①	②	③	④
5.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6.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집 근처에 있는 거리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린다.	①	②	③	④
8. 범죄가 많다.	①	②	③	④
9. 술 취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이웃들과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사람들끼리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13.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 기꺼이 돕는다.	①	②	③	④
14. 이웃들 간에 유대감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17.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문2 다음은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의 생활시설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 병원이 가까워서 아플 때 진료 받는 것이 편하다.	①	②
2. 동네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어 이용하기 편하다.	①	②
3. 동네 놀이터는 깨끗하고 자녀들이 놀기에 좋다.	①	②
4. 동네에는 공원이 가까이에 있다.	①	②
5. 동네에서 문화공간(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등)까지의 이동이 편리한 편이다.	①	②

문3 다음은 귀하의 동네사람(이웃주민)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동네사람들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동네 사람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간단한 도구나 재료(예: 육아용품, 공구 등)를 빌리거나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는다. (예: 택배 받아주기, 아이 돌봄 등)	①	②	③	④
4. 나는 종종 동네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저녁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종종 동네 사람들과 중요한 개인문제나 감정적 문제에 대해 상의한다. (예: 교육 문제, 부부관계 문제 등)	①	②	③	④
6. 나는 종종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동네를 벗어난 사회적 모임을 갖는다. (예: 식사, 영화감상, 스포츠관람, 나들이, 여행 등)	①	②	③	④

문4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주택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1. 우리 집은 방습이 잘 되어 있어 곰팡이 균의 문제가 없다.	①	②
2. 우리 집은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외부의 소음이 잘 차단된다.	①	②
3. 우리 집은 환기와 채광이 잘 된다.	①	②
4. 지붕이 새는 곳이 있다.	①	②
5. 천장이나 바닥, 벽 등이 축축하거나 습한 곳이 있다.	①	②
6. 창틀이나 바닥 등이 부식된 곳이 있다.	①	②
7.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실내에 갖춰져 있다.	①	②
8. 변기시설이 실내에 갖춰져 있다.	①	②
9.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부록

PART B. 아동학대 및 권리에 대한 생각

문5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주변에서 부모 또는 성인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 ① 예 **문5-1** ② 아니오 **문6**

문5-1 아동학대 목격 후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습니까?

- ① 예 **문5-2** ② 아니오 **문5-3**

문5-2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 ① 관공서(주민센터나 구·시청 등)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③ 경찰서(112) ④ 아동 관련 상담 및 복지 기관
⑤ 학교나 교육관련 기관 ⑥ 기타()

문5-3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고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③ 신고 후에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④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⑤ 부모(성인)가 아동을 훈육하는 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⑥ 기타()

문6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2. 아동학대 신고 후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①	②
3.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감소할 것이다.	①	②

문7 다음은 귀하께서 아동을 양육하시는 과정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아동(만 18세 미만) 관련 이슈들입니다. 다음의 각 이슈에 대한 중요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 양육 지식 및 경험 부족	0	1	2	3	4	5	6	7	8	9	10
2.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	0	1	2	3	4	5	6	7	8	9	10
3. 놀이(여가) 시간 및 공간 부족	0	1	2	3	4	5	6	7	8	9	10
4. 보호자와 아동 간 대화 부족	0	1	2	3	4	5	6	7	8	9	10
5.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0	1	2	3	4	5	6	7	8	9	10
6. 가정형편에 의한 기회 격차	0	1	2	3	4	5	6	7	8	9	10
7. 아동들 간의 교육수준 격차	0	1	2	3	4	5	6	7	8	9	10
8.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0	1	2	3	4	5	6	7	8	9	10
9. 또래나 성인에 의한 성범죄	0	1	2	3	4	5	6	7	8	9	10
10. 또래 간 폭력 및 따돌림	0	1	2	3	4	5	6	7	8	9	10

문8 다음은 아동(만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들을 문항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각 문항의 행동들이 학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학대적인 행동이다
1. 꼬집는 것	①	②	③
2.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는 것	①	②	③
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이외의 곳을 때리는 것	①	②	③
4.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는 것	①	②	③
5.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는 것	①	②	③
6.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①	②	③
7. 아이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는 것	①	②	③
8.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는 것	①	②	③
9. 말로는 때리겠다고 위협 했지만, 실제로 때리지 않는 것	①	②	③
10.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①	②	③
11. 아이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	①	②	③
12.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혼자 집에 두는 것	①	②	③
13. 아이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①	②	③
14.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	①	②	③
15. 술,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의 이유로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것	①	②	③
16. 심하게 때리는 것	①	②	③

부록

문9 다음은 체벌에 관한 귀하의 생각과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여기서 체벌이란 손, 도구 등을 이용해서 자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의미한다.

문9-1 체벌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9-2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9-3 지난 1년 동안 자녀에게 체벌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다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2~3개월에 1~2번	일 년에 1~2번
①	②	③	④	⑤

문10 귀하께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11 다음은 아동(만 18세 미만)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아동과 관련된 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PART C. 자녀양육

문12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식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들은 값싼 음식을 주로 먹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아이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문13 지난 1년간 **비용이 부담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에게 해주지 못했던 다음의 경험이 있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예	아니오
1. 하루에 한 번씩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 하루에 한 번씩 고기/닭고기(채식주의자는 단백질 음식) 또는 생선을 제공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3. 수학여행이나 학교행사에 참여시키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4. 공부 및 숙제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집 안에 마련해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5. 자녀 연령에 적합한 도서를 제공해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6. 야외레저장비(예: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 또는 실내게임장비(예: 교구, 블록, 보드게임, 컴퓨터 게임 등)를 제공해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7. 정기적인 여가활동(예: 수영, 악기연주, 청소년활동 등)을 해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8. 특별한 날(예: 생일, 기념일, 종교행사 등)을 축하해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9. 놀이나 식사에 자녀의 친구들을 초대해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문14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시는 부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자녀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부록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자녀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4. 자녀를 위한 나의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5.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5 다음은 귀하의 부모교육 경험과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참여 경험여부, 참여시간, 자녀 양육의 도움 정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참여 경험 여부
1. 인터넷, TV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부모교육 강의를 들어본 경험	① 없다 ② 있다 (참여시간: 약 ___시간)
2. 직장,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에서 강의, 워크숍, 세미나 형식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	① 없다 ② 있다 (참여시간: 약 ___시간)

문15-1 지난 1년 동안 부모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수강한 부모교육 강의는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⑤

문16 다음은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도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는 양육 스트레스 또는 양육의 어려움이 있을 때 1)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2)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나는~	1) 도움 경험 여부		2) 도움 정도 (‘있다(①)’라고 응답하신분만 응답)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가족(조부모, 친척 등)	①	②	①	②	③	④
2. 이웃, 친구	①	②	①	②	③	④
3. 종교단체 구성원	①	②	①	②	③	④
4. 사회복지기관(단체) 직원	①	②	①	②	③	④
5. 사회복지 공무원	①	②	①	②	③	④

문17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시간 ()분

문18 자녀와의 주된 대화주제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오른쪽 <보기> 중, 가장 많이 대화하는 주제 순으로 선택해주세요.
(※오른쪽 <보기>의 숫자로 적어주세요)

- <보기> ① 학업·공부
② 친구관계
③ 취미생활
④ 예의 및 생활습관
⑤ 외모
⑥ 건강
⑦ TV 프로그램/연예인
⑧ 유튜브 시청 / SNS 활동
⑨ 인터넷 사용 및 컴퓨터 게임
⑩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___번	___번	___번

문19 일주일 동안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횟수는 평균 몇 번 정도입니까?
(※ 하루 3끼를 기준으로 할 때, 일주일동안 총 21회의 식사가 가능합니다.)
()번

부록

PART D. 자녀의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문20 자녀가 지난 1년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20-1** ② 아니오 **문21**

문20-1 입원한 적이 있다면, 입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질병 ② 사고 ③ 기타 ()

문21 자녀가 만성질환(예: 천식, 아토피 등)을 앓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22 귀하께서는 자녀와 함께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문항	전혀 안함	1년 1~2회	1년 5~6회	한 달 1~2회
1. 관광활동 (캠핑, 여행, 소풍, 놀이공원 가기 등)	①	②	③	④
2. 스포츠 참여 또는 관람 활동 (배드민턴/탁구/수영/요가, 경기장 가기 등)	①	②	③	④
3. 문화예술 참여 또는 관람 활동 (미술활동, 악기연주, 영화/연극 보기, 박물관 가기 등)	①	②	③	④

PART E. 생각과 가치

문23 다음은 ‘우리나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아동이 살기 좋은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해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는 아동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나라는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는 아동의 충분한 놀이와 여가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6. 우리나라는 어른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이 보장된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8. 우리나라는 아동을 집안환경, 성별, 종교, 연령, 인종, 지역, 장애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우리나라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10. 우리나라는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문24 다음은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사회에서 교육기회는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4. 내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대체로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부록

PART F. 생활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 문25** 귀하께서는 현재 **부부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점수를 0~10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 별거, 사별, 이혼 등으로 부부가 함께 살고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체크해 주십시오.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해당 없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문26** 귀하께서는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점수를 0~10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문27** 귀하께서는 현재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점수를 0~10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문28**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도 점수를 0~10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가장 낮은 행복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행복도 점수는 10입니다.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PART G. 가구의 일반 사항

- 문29** 다음은 귀하 가구의 일반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시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다문화가정은 국내에 살고있는 국제결혼/외국인근로자/새터민가정 등을 의미함

성별 (본인)	연령대 (본인)	아동과의 관계 (본인)	아동의 주 양육자
① 남자 ② 여자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다문화 가정	가족형태	최종학력 (본인)	최종학력 (배우자)
① 예 ② 아니오	① 양부모 가정 ② 한부모 가정 ③ 조손가정 ④ 기타()	① 무학 ② 초등학교졸업 ③ 중학교졸업 ④ 고등학교졸업 ⑤ 전문대학졸업 ⑥ 대학교졸업 ⑦ 대학원 이상	① 무학 ② 초등학교졸업 ③ 중학교졸업 ④ 고등학교졸업 ⑤ 전문대학졸업 ⑥ 대학교졸업 ⑦ 대학원 이상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발행 2024년 2월 29일
발행인 김웅철
편집인 한유정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화 02-6424-1696
이메일 crrt1@gnk.or.kr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발행번호 24-사07-001
I S S N 2982-5520